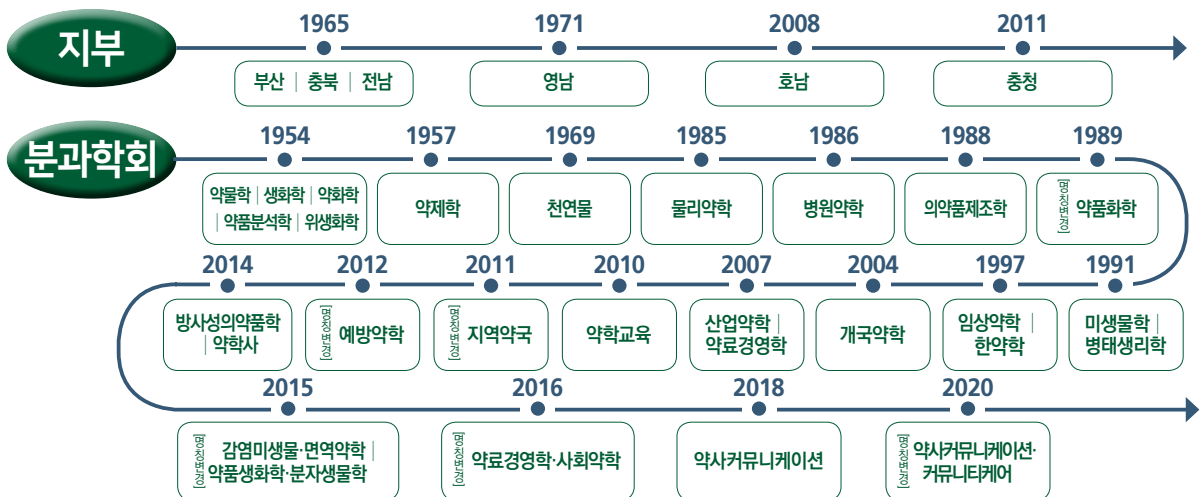


The History of Regional Branches · Academic Division Society

지부·분과학회의 역사



Celebrating 75th Anniversary of PSK
대한약학회 75주년 기념

지부 · 분과학회의 역사

The History of Regional Branches · Academic Division Society

1946

2021

ii 발간사

iv 여는 글

v 화보

대한약학회 역대 회장단
(현) 지부 · 분과학회 회장단
지부 · 분과학회 학술행사 표지
지부 · 분과학회 간담회
지부 · 분과학회 학술활동

CONTENTS

<u>01</u>	I. 대한약학회 연표
<u>21</u>	II. 한눈에 보는 지부 및 분과학회 역사
<u>25</u>	III. 지부 · 분과학회 연표
<u>31</u>	IV. 연도별 지부장 · 분과학회장 현황
<u>35</u>	V. 지부 · 분과학회 역사 및 현황
<u>279</u>	VI. 자료



1946년 문을 연 우리 대한약학회가 올해로 창립 7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5년 동안 많은 선배 약학자들께서 우리 약학회의 설립과 기반 마련,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덕택에 지금의 약학회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학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순수하게 ‘약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열정을 모아 만들고 지켜 온 대한약학회.

저는 75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켜 온 약학회는 75년 동안 약학회를 사랑하는 회원들의 마음과 정성을 벽돌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건물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건물에는 기초와 뼈대가 있듯이 우리 약학회의 기초와 뼈대는 바로 각 전공별 회원들이 모여 결성한 분과학회와 각 지역별 지부 조직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시대와 사회 변화의 흐름에 따라 약학회 내에 다양한 분과학회가 설립되어 왔으며, 이미 역사가 깊은 일부 분과학회들은 크게 성장하여 독립적인 학회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활발한 학술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 회원들의 학술 모임으로 시작된 전국 각 지역별 지부들도 약대 6년제 도입과 함께 신설 약학대학들이 설립되면서 각 지부별로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현재는 대한약학회의 지역 지부로서 훌륭한 모습을 갖추고 각 지역 기반의 활발한 학술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이번 대한약학회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 학회 활동의 근간이 되고 있는 각 분과학회와 지부들의 역사를 정리하여 ‘대한약학회 75주년 기념 지부 · 분과학회의 역사’라는 간행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로 충분한 보답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약학회가 있기까지 학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각 분과학회와 지부들의 발자취와 노고를 함께 기억하고, 후배 약학자들에게는 선배들의 약학과 약학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길이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원고를 집필해주신 3개 지부와 20개 분과학회 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책자 발간을 주도하고 자료 정리와 편집에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편찬위원회(손의동 위원장)와 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이사 강덕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 분과학회들과 지역별 지부들의 지속적인 발전과 힘찬 학술활동을 기원하며, 75주년을 맞은 우리 약학회가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의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12월
제52대 대한약학회 회장 **홍진태**



안녕하세요? 회원님

대한약학회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22년 약대 통합6년제 교육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직전에 3개 지부의 활동과 20개분과학회의 역사와 학술활동을 기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시다시피 대한약학회에는 학회의 활성화 및 회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학회 및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약학회 지부는 처음으로 1965년 3개(부산, 전남, 충북지부) 지부가 창립되었고 현재는 영남, 호남 및 충청지부로 구성되어 학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과학회는 1954년 5개분과로 창립되어 세분·병합을 반복하여 혼란기가 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제약발전과 동시에 6년제 교육제도전환(2009년)과 시대의 흐름으로 분과학회가 많이 혁신되어져 왔으며 현재는 20개 분과학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분과학회는 소모임을 가져 활동하고 각 분과학회의 특성에 따른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고 약학회의 분과심포지엄 뿐만이 아니라 소속회원들이 탁월한 업적이 약학교육 및 제약분야의 업그레이드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분과학회의 태동은 1954년 6월 4일 전북 이리시 남성중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대한약학회 총회에서 약학연구외에 약학교육 및 약전편집등 약학회활동의 활성화방안으로 분과학회를 신설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1954년 7월 7일에 5개분과학회를 두기로 하였고 1956년에는 이를 분과학회로 개칭하였고, 1957년 10월 22일 임원회의에서 회칙안을 작성하였으나 부결되었다가 1970년 10월 31일 분과학회에 대한 정관이 제정이 되어서 정회원 10명이 이상이 되면 분과학회가 구성되도록 하는 게 골자로 하여 결과적으로 15개의 분과학회가 탄생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활동이 미진하여 1971년 9월 11일 정관을 다시 개정하여 즉 정회원이 20명 이상으로 새로이 규정하여 7개 분과학회 즉 약제학, 약품분석학, 약화학, 천연물, 약물학, 위생화학, 생화학 분과학회이었다. 분과학회에서는 각 분과별로 특별강연, 세미나, 약학교육 및 국가고시 등에 관한 토의등 분과별로 활동을 하는 외에 1971년부터 총회에서 행해오던 심포지움행사를 각 분과가 담당하여 매년 실시하여 왔으며 1980년에는 대한약학회, 한국약학대학 협의회 및 대한약사회 공동으로 약학교육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지부의 활동도 매년 끊임없이 해오고 있어 약학회 학술대회에 하지 못한 것을 지방에서의 연구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몇몇 분과학회는 운영상 새로운 학회를 만들어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분과학회 중심으로 세미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거나 춘계학술대회와 추계학술대회에 분과별로 오거나이저와 좌장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타분과와 융합하여 세미나를 통합운영하기도 하여 학술대회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지부학회와 분과학회는 대한약학회 학술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분과의 학회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75주년을 맞이하여 이러한 역사와 교육학술활동상황에 대하여 발자취를 되새겨 봄으로써 대한약학회를 굳건히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30년사 漢字로 수록된 것을 번역하였고, 60년사와 70년사를 참고하여 재정리 하였습니다. 이자료는 100주년 때에 소중한 자료로 쓰일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부·분과학회 역사 편찬위원장 **손 의 동**

화보

- 대한약학회 역대 회장단
- (현) 지부·분과학회 회장단
- 지부 · 분과학회 학술행사 표지
- 지부 · 분과학회 간담회
- 지부 · 분과학회 학술활동

1946

2021

대한약학회 역대 회장단



도봉섭
조선약학회
(1946~1949)



한구동
초대~제15대
(1951.12~1966.12)



홍문화
제16~17대
(1967.1~1968.12)



채동규
제18대
(1696.1~1696.12)



채례석
제19대
(1970.1~1970.12)



우린근
제20~21대
(1971.1~197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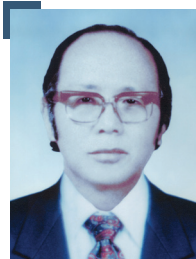
백남호
제22~23대
(1973.1~1974.12)



한관섭
제24~25대
(1975.1~1976.12)



정기용
제26~27대
(1977.1~1978.12)



이왕규
제28~29대
(1979.1~1980.12)



노일협
제30~31대
(1981.1~198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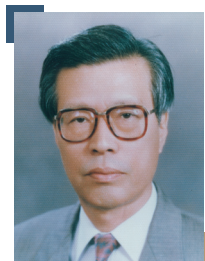
이상섭
제32~33대
(1983.1~1984.12)



한덕룡
제34대
(1985.1~1986.12)



홍사욱
제35대
(1987.1~1988.12)



우원식
제36대
(1989.1~1990.12)



안영근
제37대
(1991.1~1992.12)



정원근
제38대
(1993.1~1994.12)



김일혁
제39대
(1995.1~1996.12)



문창규
제40대
(1997.1~1998.12)



김창종
제41대
(1999.1~2000.12)



박만기
제42대
(2001.1~2002.12)



김길수
제43대
(2003.1~2004.12)



김종국
제44대
(2005.1~2006.12)



전인구
제45대
(2007.1~2008.12)



김영중
제46대
(2009.1~2010.12)



정세영
제47대
(2011.1~2012.12)



서영거
제48대
(2013.1~2014.12)



손의동
제49대
(2015.1~2016.12)



문애리
제50대
(2017.1~2018.12)



이용복
제51대
(2019.1~2020.12)



홍진태
제52대
(2021.1~2022.12)

(현) 지부·분과학회 회장단

지부



김종오
영남지부



김상겸



황방연

충청지부



윤구
호남지부

분과학회



이준희
감염미생물·면역약학



이범진
물리약학



박일영
방사성의약품학



최경숙
병원약학



정인재
병태생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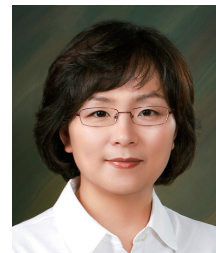
강혜영
사회약학·약료경영학



김애리
산업약학



황완균
생약·천연물



최현진
약물학

분과학회



양재욱
약사커뮤니케이션·커뮤니티케어



오의철
약제학



한상범
약품분석학



조영식
약품생화학·분자생물학



송규용
약품화학



이석용
약학교육



심창구
약학사



박광식
예방약학



곽혜선
임상약학



방준석
지역약국



류종훈
한약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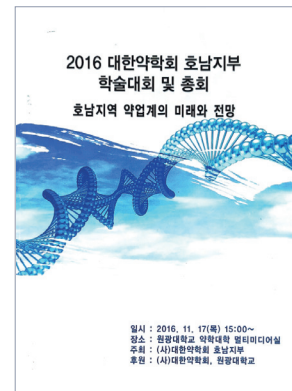
지부 · 분과학회 학술행사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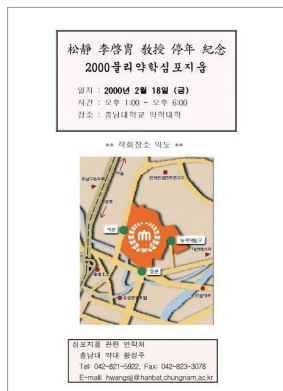
2019 제49회 학술대회 및 총회 (영남지부)



2019 총회 및 학술대회 (충청지부)



2016 학술대회 및 총회 (호남지부)



2000 물리학학 심포지엄 (물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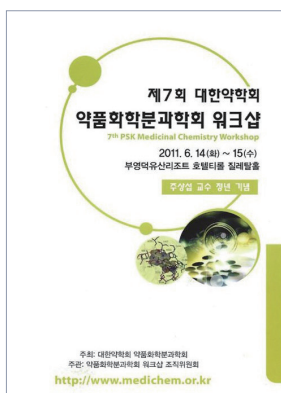
2013 Summer Wokrshop (병태생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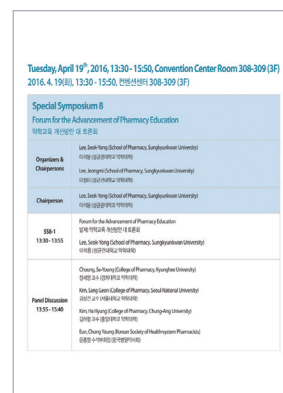
2016 하계 연변 국제 심포지엄 (약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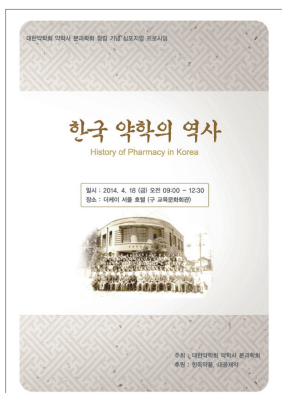
2021 동계심포지엄 및 정기총회 (약품분석학)



2011 제7회 워크숍 (약품화학)



2016 심포지엄(약학교육)



2014 창립기념 심포지엄 (약학사)



2004 The 4th Asian Conference on Clinical Pharmacy (임상약학)

지부 · 분과학회 간담회



2013. 2. 15 (48대 집행부)



2015. 2. 3 (49대 집행부)



2016. 1. 11 (49대 집행부)



2016. 7. 16 약물학 분과학회 전임회장 초대 (49대 집행부)



2017. 3. 3 (50대 집행부)



2019. 3. 15 (51대 집행부)

지부 · 분과학회 학술활동



2014 호남지부 (지부장 한동설)



2014 호남지부 (지부장 한동설)



2015 영남지부 (지부장 우미희)



2017 영남지부 (지부장 이유연)



2011 충청지부 (지부장 이종길)



2012 충청지부 (지부장 이종길)



2012 물리약학 (회장 최후균)



2017 물리약학 (회장 손동환)



2014 방사성의약품학 (회장 이복률)



2016 방사성의약품학 (회장 이복률)



2012 병원약학 (회장 이혜숙)



2018 병원약학 (회장 이영희)



2010 병태생리학 (회장 김남득)



2013 병태생리학 (회장 김남득)



2010 사회약학 (회장 신현택)



2019 사회약학 (회장 홍송희)



2014 산업약학 (회장 김애리)



2016 산업약학 (회장 김애리)



2016 생약·천연물 (회장 이민원)



2002 약물학 (회장 고건일)



2016 약물학 (회장 정재훈)



2018 약사커뮤니케이션·커뮤니티케어 (회장 이숙향)



2019 약사커뮤니케이션·커뮤니티케어 (회장 이숙향)



2016 약제학 (회장 손동환)



2017 약제학 (회장 이용복)



2014 약품분석학 (회장 이원재)



2016 약품분석학 (회장 윤혜란)



2021 약품생화학·분자생물학 (회장 조영식)



2021 약품생화학·분자생물학 (회장 조영식)



2019 약품화학 (회장 신계정)



2021 약품화학 (회장 최선)



2016 약학교육 (회장 이석용)



2014 약학사 (회장 심창구)



2015 약학사 (회장 심창구)



2014 예방약학 (회장 김대경)



2018 예방약학 (회장 정혜광)



2010 임상약학 (회장 함원훈)



2010 임상약학 (회장 함원훈)



2002 지역약국 (회장 이경순)



2015 지역약국 (회장 유봉규)



2011 한약학 (회장 류종훈)

I
대한약학회 연표

1946

2021

대한약학회 연표 요약본

연월일			내 용
1946-50년대			
1946	4	13	서울약대에서 36명이 참석하여 조선약학회 창립총회를 가짐, 회장: 도봉섭 (1951년 대한약학회로 개칭)
			
	8	22	경성대학 생약연구소를 국립 서울대학교 생약연구소로 개칭
	12	14	예회: 학술 발표 6편
1948	3		약학회지 제1권 제1호(조선약학회 발행) 발간
			
	8	15	경성부 위생시험소를 서울시 위생시험소로 개칭
1949	3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립화학연구소를 보건부 산하 중앙화학연구소로 개편
	12	31	국립 서울대학교 생약연구소를 서울대학교 생약연구소로 개칭
1950	6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 약학과 설치
	9		서울약학대학, 국립 서울대학교에 편입되었으며 대학원 과정 신설(석사 및 박사)
1951	11	27	서울대 약대(부산시)에서 한구동 등 17명이 학회 활동 재개를 협의
	12	16	대한약학회 창립 제1회(5주년)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시청 회의실), 회장: 한구동 학술발표 51편, 특별강연 4편
	12	31	이화여대 행림원을 의약대학으로 개칭(약학부 약학과)
1952	1	11	효성여대 약학과 신설
1953	1		약학회지 제2권 제1-2합호 발간(대한약학회 발행)
	2		중앙대, 성균관대, 부산대 및 효성여대에 약학대학 및 숙명여대 약학과 신설
	5	31	제2회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 약학대학 마산 소재), 회장: 한구동 학술발표, 통속강연, 특별강연 등 42편
1954	2		조선대학 및 대구대학에 약학과 신설
	2	9	덕성여자대학 약학과 신설
	4	13	이화여대 의약대학으로부터 약학대학(약학과) 독립
	6	5	제3회 총회 및 학술대회(전북 이리 남성고), 회장: 한구동 학술발표, 통속강연, 특별강연 등 33편
	7	6	약학회 산하에 5분과회 설치 (약품분석, 약물학, 위생화학, 생화학, 약화학)
	10	16	예회: 학술발표 4편
	11	22	대한약사회 창립



연월일		내 용
1946-50년대		
1955	2	동덕여자대학에 약학과 설치
	3	숙명여대 약학과, 종합대학으로 승격됨에 따라 약학대학으로 승격 법의학실험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개편
	8 1	동양외과대학 약학과 설치
	10 29	제4회 총회 및 학술대회(서울대 약대, 을지로 6가), 회장: 한구동 학술보고, 특별강연 37편
	12 16	예회: 학술발표 2편 대구대(영남대학교에 편입)에 약학과 설치
1956	2 7	부산대 약학대학을 의과대학 약학과로 병합
	2 17	예회: 특별강연, 학술발표 등 3편
	4 23	충북대(전 청주농과대학)에 약학과 설치
	7 17	특별강연회(대한화학회 공동주최) 연사: 미국 코넬대학교 R.R. Williams 교수 및 Z.J. Kurtz 교수
	10 12	제5회 총회 및 학술대회(서울대 약대), 회장: 한구동 특별강연, 학술발표 38편 우수국산의약품 및 수입의약품, 약학사(藥學史), 생약전시회 분과회를 분과학회로 개칭하고 총회 회기를 매년 4월에서 10월로 변경
1957	4	중앙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석사과정 신설
	10 25	제6회 총회 및 학술대회(이화여대 약대), 회장: 한구동 학술발표 33편, 의약품, 기기, 약용식물전시회
	10 26	총회, 특별강연 2편
	11 11	약제학분과회 발족
1958	2 9	부산대학교 대학원에 약학과 석사과정 신설 대구대학 대학원 약학과 석사과정 신설
	7 21	예회: 학술발표 1편
	12 13	제7회 총회 및 학술대회(덕성여대), 회장: 한구동 학술발표, 특별강연 등 63편
	12 20	예회: 학술발표, 특별강연 등 4편
1959	2 9	조선대학교 대학원에 약학과 석사과정 신설
	2 26	조선대학교 약학과, 약학대학으로 승격
	6 22	특별강연 2편
	10 11	제8회 총회 및 학술대회(성균관대), 회장: 한구동
	10 12	학술발표, 특별강연 62편
	11 26	특별강연회, 연사: 미국 Kansas 대학교 J.H. Buckhalter 교수
	12 28	예회: 학술발표, 특별강연 5편

연월일			내 용
1960년대			
1960	6	2	이화여대 대학원 약학과에 박사과정 신설
	7	30	예회: 특별강연 1편
	10	12	제9회 총회 및 학술대회(서울대 약대), 회장: 한구동 학술발표, 특별강연 등 50편 중앙화학연구소를 국립화학연구소로 개칭
1961	4	6	덕성여대 대학원에 약학과 석사과정 신설
	10	11	제10회(15주년) 총회 및 학술대회(서울대 약대), 회장: 한구동 학술발표, 특별강연 등 63편
	10		동덕여대 약학과, 학교정비령에 의하여 폐과
1962	1		서울시 위생시험소를 서울특별시 위생시험소로 개칭
	2	27	덕성여대 4년제 2부제 신설(병설초급대학에 제약과 개설)
	3	1	충북대학, 충청대학교로 통합, 약학과 폐과
	3	6	동양의약대학 약학과, 학교정비령에 의하여 폐과
	5	8	예회: 학술발표, 특별강연 등 6편
	7	27	예회: 학술발표, 특별강연 등 4편
	10	16	제11회 총회 및 학술대회(서울대 약대), 회장: 한구동 특별강연, 학술발표 등 50편
1963	1		숙명여대 대학원에 약학과 박사과정 신설 예회: 특별강연 2편, 한약약전 편찬 토의
	3		충북대학, 다시 충청대학교에서 분리되고 약학과 부활 중앙대학교 대학원에 약학과 박사과정 신설 덕성여대 2부제 폐지하고 4년제로 복귀되면서 제약과(초급대학) 신설
	10	26	제12회 총회 및 학술대회(서울대 약대), 회장: 한구동 학술발표, 특별강연 등 52편
	11	29	예회: 학술발표 7편
	12	17	국립화학연구소가 국립보건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국립화학연구소, 국립보건원, 국립방역연구소 및 국립생약연구소의 4개 기관이 통합 동덕여대 약학과 부활
1964	1	26	동양의약대학 약학과 부활
	3	1	부산대 의과대학 약학과, 약학대학으로 승격
	3	10	대구대 부설 천연물화학연구소 발족
	4	1	부산대 대학원에 약학과 박사과정 신설
	4	28	예회: 학술발표 2편
	10	17	제13회 총회 및 학술대회(서울대 약대), 회장: 한구동 학술발표, 특별강연 등 49편



연월일			내 용
1960년대			
1964	11	4	평의원회에서 지부규정 및 약학진흥위원회규정 통과
	11	16	편집위원회 투고규정 개정, 집필규정 제정
	11	28	예회: 학술발표 5편
	12	5	약학진흥위원회 위원장: 홍문화
1965	1	19	숙명여대 약학연구소 설립
	2		원광대학에 약학과 신설
	6	28	예회: 특별강연, 학술발표 3편
	8	27	아세아약사회연맹(FAPA)에 가입
	8	31	예회: 학술발표, 특별강연 등 3편
	9	3	동양외과대학 약학과, 경희대학교 약학과로 병합
	10	7	FAPA 지부설치 승인
	10	16	제14회 총회 및 학술대회(덕성여대), 회장: 한구동 학술발표, 특별강연 등 48편
	12	17	경희대학교 약학과, 약학대학으로 승격
1966	2	16	약물학회 발족(1971. 9. 1. 대한약학회 약물학분과학회로 개칭)
	3	30	제15주년기념 논문초록집 발간(회지 제10권 제1호 영문판)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약학과 신설
	10	21	제15주년기념 총회 및 학술대회(서울대 약대), 회장: 한구동 학술발표, 특별강연 등 38편, 인삼 심포지엄
1967	1	10	조선대학교 대학원에 약학과 박사과정 신설
	2		서울대, 이화여대, 덕성여대에 제약학과 신설 대구대학 약학부가 영남대학교 약학대학으로 발전하며 약학과 및 제약학과로 분과
	3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 한국의약품자원연구소 부설
	5	18	예회: 학술발표, 특별강연 등 3편 원광대 대학원에 약학과 석사과정 신설
	10	28	제16회 총회 및 학술대회(서울대 약대), 회장: 홍문화 학술발표, 특별강연 등 77편
	11	17	편집위원회 위원장: 백남호
	12	11	덕성여자대학 초급대학(2년제)과정 폐지되고 4년제 제약학과로 승격
	12	30	국립보건원이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직제 개정
1968	5	25	예회: 학술발표 1편
	9	16	제3회 아세아약사회연맹(FAPA) 총회 및 제2회 아세아약학회의 개최(서울)
	10	28	제17회 총회 및 학술대회(서울대 약대), 회장: 홍문화 학술발표, 특별강연 등 72편
	12	24	부산대 제약학과 신설
	12	28	예회: 학술발표 2편
	12	30	약학회지 제12권 제3, 4호 발간 원광대 약학대학에 식품위생문제연구소 신설

연월일			내 용
1960년대			
1969	2	3	숙명여대에 제약학과 신설
			영남대 대학원 약학과 박사과정 신설
		3	숙명여대 약학대학에 제약학과 증설
		5	예회: 특별강연 1편
		9	약학회지 제13권 제2, 3호 발간
		10	약화학분과회 발족
		10	제18회 총회 및 학술대회(서울대 약대), 회장: 채동규
			학술발표, 특별강연 등 91편
		12	1
			충북대 약학대학 약품자원개발연구소 신설
			한국생약학회 창립, 초대 회장: 이선주
			천연물분과학회 발족
1970년대			
1970	6	30	대한약학회 약품분석분과학회 발족
	10	31	제19회 총회 및 학술대회(서울대 약대), 회장: 채례석
			학술발표, 특별강연 등 72편
	12	31	성균관대 약학대학에서 4학년의 분야전공교육을 실시 (제조약학전공, 보건약학전공, 경영약학전공)
1971	2		중앙대학교에 환경위생학과 신설(1972년 위생제약학과로 개칭)
	4	3	영남지부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효성대), 지부장: 최병창
	6		한국약제학회 창립, 초대 회장: 우중학
	9		정관개정: 7개 분과학회 (약제학, 약품분석, 약화학, 천연물, 약물학, 위생화학, 생화학)
	10	30	제20회(25주년) 총회 및 학술대회(서울대 약대), 회장: 우린근
			특별강연 및 학술발표 등 43편, 심포지엄: 공해
1972	1	22	생화학분과회 창립
	1		종근당 중앙연구소 설립
			대한약학회 생화학분과회 창립
	2	1	기금조성위원 위원장: 우린근
	2	11	M. Pernarowski 교수 특별강연회
	3	31	원광대 대학원에 약학과 박사과정 신설
	4	8	제2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 지부장: 장억규
			학술발표 9편
	10		대한약학회 위생화학분과학회 발족
	11	27	제21회 총회 및 학술대회(국립보건연구원), 회장: 우린근
			학술발표, 특별강연 등 66편, 심포지엄: 항암제
			중앙대 약대 환경위생학과를 위생제약학과로 개칭
	12		경희대학교 한의약개발연구소 창설
	12	30	약학회지 제16권 제4호 발간

연월일			내 용
1970년대			
1973	3	1	부산대 대학원에 제약학과 석사과정 신설
	3	16	제3회 영남지부총회 및 학술대회(대구경북약사회관), 지부장: 권태훈 학술발표 11편
	10	27	제22회 총회 및 학술대회(서울대 약대), 회장: 백남호 학술발표, 특별강연 등 32편, 심포지엄: 제제 분석에서의 GLC의 응용
1974	4	20	제4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효성대), 지부장: 권태훈 학술발표 7편
	10	12	생약연구소 창립 35주년기념 「Terpenoid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10	26	제23회 총회 및 학술대회(서울대 약대), 회장: 백남호 학술발표 30편, 심포지엄: 생약의 약물학적 연구
1975	4	12	제5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 지부장: 진갑덕 학술발표 6편
	9	25	약학회 뉴스레터 파르마콘(Pharmacon) 제1호 창간
	11	15	제24회 총회 및 학술대회(국립보건연구원), 회장: 한관섭 학술발표, 특별강연 등 42편, 심포지엄: 제제 설계
	12	30	약학회지 제19권 제4호 발간
1976	4	10	제6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영남대), 지부장: 권태훈 학술발표 7편
	10	29	제25회 총회 및 학술대회(국립보건연구원), 회장: 한관섭 학술발표, 특별강연 등 47편, 심포지엄: 의약품과 효소
1977	3	19	대한약학회 분회장 회의
	5	7	제7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효성대), 지부장: 서석수 학술발표 8편
	6	4	항생제에 관한 심포지엄 및 특별강연
	10	29	제26회 총회 및 학술대회(영남대), 회장: 정기용 학술발표, 특별강연 등 56편, 심포지엄: 화학요법제 합성에 관한 최근 동향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병각
	12	31	충북대학교 종합대학으로 승격, 농과대학 약학과 신설
1978	2	17	영문회지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 집필규정 확정
	3	1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에 부속연구소 신설
	3	20	예회: 특별강연 2편
	4	22	제8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 지부장: 한보식 학술발표 등 3편
	5	13	춘계학술특강 및 심포지엄: 의약품의 안정성
	5	24	예회: 특별강연: 미국 Takeru Higuchi 석좌교수가 Prodrug에 관하여 강연(이화여대)



연월일			내 용
1970년대			
1978	7	14	대한약학회 재미지부 조직을 위한 간담회(한식당 경향)
	7	28	보건사회부 환경연구소 발족
	8		중앙대 약대에 의약정보도서관 부설
	10	11	제약기술을 위한 화학공학강습회(대한약품공업협회와 공동 주최)
	10	28	제27회 총회 및 학술대회(중앙대), 회장: 정기용 학술발표, 특별강연 등 59편, 심포지엄: 환경오염과 그 대책
	12	30	약학회지 제22권 제4호 발간 영문회지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 Vol. 1, No. 1 창간
	12	12	영남대학교 이과대학 약학과(40명) 신설
1979	1	30	E. Hecker 교수 특별강연회
	2	17	대한약학회분회장 회의
	2		충남대, 전주우석대, 삼육대에 약학과 신설
	2	24	야수다(安田) 교수 초청강연회
	3	1	충북대 약학과, 약학대학으로 승격
	3	30	약학회지 제23권 제1호 발간(채례석 교수 기념호)
	4		대한약학회 재미지부 결성(지부장: 신정택 박사)
	4	19	GMP 세미나 개최(약공 공동 주최)
	5	26	심포지엄: 항암 및 항암제
	6	16	제9회 영남지부 총회 학술대회(영남대), 지부장: 권태훈 학술발표 4편
	6	30	약학회지 제23권 제2호 발간(우린근 교수 기념호)
	8	20	하기학술강연회, 특별강연 2편
	12	1	제28회 총회 및 학술대회, 한국생약학회와 공동 개최(보건연구원), 회장: 이왕규 학술발표 84편, 심포지엄: 국산 생약의 생리활성물질
	12	5	충북대 약학과, 박사과정 신설
	12	14	한국생약학회 및 생약연구소 공동으로 「천연물연구의 최근 동향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12	30	약학회지 제23권 제3, 4호 발간(이남순 교수 기념호)



연월일			내 용
1980년대			
1980	1	18	보사부 환경연구소, 환경청 국립환경연구소로 개칭
	4	26	심포지엄: 항정신성 약물
	5	10	제10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효성여대), 지부장: 이상록 학술발표 11편
	5	28	예회: 특별강연 2편
	7	11	제약공업 세미나(GMP에 관하여)(약공 공동 주최)
	10	1	부산대 대학원에 제약학과 박사과정 신설
	12	5	경희대 대학원에 석사과정 임상약학과 신설
	12	6	제29회 총회 및 학술대회(서울대), 회장: 이왕규 학술발표 94편, 심포지엄: 약학교육 발전
1981	3		대구대 부설 천연물화학연구소, 영남대 부설 자원문제연구소로 통합 효성여대 종합대학으로 승격됨에 따라 약학과를 약학대학으로 기구 확장
	4	17	제약공업을 위한 세미나(약공 공동 주최)
	5	23	제11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 지부장: 한보식 학술발표 6편
	5	27	제1회 예회: 학술발표, 특별강연 5편(서울대병원 A강당)
	7	15	제2회 예회: 특별강연 3편
	10	30	대한약학회 30주년(35주년) 기념 총회 및 학술대회(숙명여대), 회장: 노일협 학술발표 94편, 특별강연 4편
	12	31	대한약학회 30주년 기념사업으로 「약학회 30년사」 발간 준비 완료
1982	4	20	추계학술강좌(서울대 병원)
	5	13	약학회, 약공 공동 심포지엄(약공회관)
	5	25	비타민 C의 약리작용 세미나
	5	29	제12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영남대), 지부장: 조경열
	10	31	제31회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조선대), 회장: 노일협
1983	1	3	「대한약학회 30년사」 발간
	4	30	제13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효성여대), 지부장: 양한석
	6	30	파루마콘 체제 개편(논문초록, 해외토픽 등 게재)
	10	29	제32차 추계학술대회(중앙대), 회장: 이상섭



연월일			내 용
1980년대			
1984	3	17	사단법인 발기 총회
	5	12	제14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 지부장: 홍승철
	6		대한약학회 사무실 이전(대한약사회관, 서울 서초구 서초 3동 1489-3)
	10	27	제33회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서울대), 회장: 이상섭
	12	20	사단법인체로 설립허가(사단법인 대한약학회)
	12	22	약물학 분과회 총회(부산대 약대)
1985	2	18	사단법인체로 설립(사단법인 대한약학회)
	5	11	제15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영남대), 지부장: 서병천
	10	26	제34회 총회 및 학술대회(원광대), 회장: 한덕룡
1986	2	21	임원회의
	4	23	과학의 날 기념 춘계학술대회(대한약사회관)
	6	14	제16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 지부장: 이정규
	10	23	제35회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서울대 약대), 회장: 한덕룡 병원약학 분과학회 창립
1987	2	21	분과학회장회의 개최
	5	1	과학의 달 기념 신약개발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6	4	특별강연회 개최(서울대 교수회관)
	6	12	환경보건과 약사의 역할 세미나 개최
	7	20	제17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효성여대), 지부장: 김종원
	10	23	제36회 학술대회(영남대), 회장: 홍사욱
1988	1	4	정관 변경 허가(강남교육청)
	5	13	사회 약학 세미나(대한약사회 공동 주최)
	6	4	제18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 지부장: 한석규
	9	10	대한약학회 의약품제조학 분과학회 발족
	10	28	제37회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성균관대 약대), 회장: 홍사욱 분과학회 명칭 변경: 위생화학 ➡ 위생약학
1989	4	20	제1회 춘계학술대회 개최(동덕여대), 회장: 우원식
	5	15	자문실 개설
	8	3	학회 로고 제정 
	10	27	약품화학 분과학회 발족(약화학분과와 의약품제조학분과 통합)



연월일			내 용
1990년대			
1990	4	20	춘계학술대회(경희대), 회장: 우원식
	6	23	제19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영남대), 지부장: 도재철
	7	31	제제기술 세미나(제약회관)
	9	21	제제기술 심포지엄(인터컨티넨탈 호텔)
	10	26	제39회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전남대 약대), 회장: 우원식
1991	1	11	미생물학 분과학회 창립
	4	26	춘계학술대회(이화여대 종합과학관), 회장: 안영근
	6	10	제3회 영지버섯 국제심포지엄(미생물학 분과학회 주관, 하얏트 호텔)
	6	15	제20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경성대), 지부장: 이종철
	8	18-23	창립 40주년(45주년) 기념 신약개발 국제학술대회(스위스그랜드호텔)
	10	15	천연약물학 국제심포지엄(신라호텔)
	10		제40회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부산대), 회장: 안영근
	11	30	병태생리학 분과학회 창립
1992	2	18	약품분석학 분과학회(서울대 약대)
	4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숙명여대 약대), 회장: 안영근
	5	23	제21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효성여대), 지부장: 김종원
	6		제4회 영지버섯 국제심포지엄 개최(미생물학 분과학회 주관, 하얏트 호텔)
	6	20	약물학 분과학회 하계 심포지엄 개최(충북대 약대)
	10	23	제41회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충남대 약대), 회장: 안영근
1993	4	23	춘계학술대회(영남대 약대), 회장: 정원근
	5	22	제22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 지부장: 임광식
	6	17	제5회 영지버섯 국제심포지엄(미생물학 분과학회 주관, 하얏트 호텔)
	7	2	미생물학 분과회 하계심포지엄(충북대)
	7	9	병태생리학 분과학회 임시총회 및 특별강연(반포회관)
	8	11	물리약학 하기워크샵 및 회의(충남대 약대)
	10	22	제42회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중앙대), 회장: 정원근
1994	4	22	춘계학술대회(강원대 약대), 회장: 정원근
	6	18	제23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영남대), 지부장: 정시련
	10	21	제43회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서울대), 회장: 정원근
1995	4	12	제6회 영지버섯 국제심포지엄(미생물학 분과학회 주관)
	5	26-27	제24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경주코롱호텔), 지부장: 이정규
	6	22-23	한국약학 80주년 기념 종합약학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인터컨티넨탈 호텔), 춘계총회, 회장: 김일혁
	10	27	제44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성균관대 자연대학캠퍼스), 회장: 김일혁



연월일			내 용
1990년대			
1996	2	1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가 미국 ISI사의 SCI 리스트(expanded)에 등재
	4	26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원광대), 회장: 김일혁
	10	19	제25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경주공코드호텔), 지부장: 윤수홍
	10	25	제45회 추계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숙명여대), 회장: 김일혁
1997	2	16	파루마콘을 팜월드로 개칭 
	3	10	분과학회 신설: 임상약학
	4	4	「약학연구 I, II」 시리즈로 출판
	4	25	춘계학술대회(대구 효성가톨릭대학), 회장: 문창규
	6	11	제7회 영지버섯 국제심포지엄(미생물학 분과학회 주관)
	7	27	제26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경주교육문화회관), 지부장: 이치호
	7	31	분과학회 신설: 한약학
	10	31	제46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덕성여대), 회장: 문창규
1998	4	4	「약학연구 I, II」 시리즈로 출판
	4	24	춘계학술대회(부산대), 회장: 문창규
	9	19	제27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영남대), 지부장: 장영동
	10	23	제47회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회장: 문창규
1999	5	22	춘계학술대회(전남대 약대), 회장: 김창중 
	8	4	미국 ISI Thomson사 방문 (김창중, 서병세)
	9	11	제28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경성대), 지부장: 문경호
	10	21	제48회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서울교육문화회관), 회장: 김창중
2000년대			
2000	4	20	춘계학술대회(경성대학교), 회장: 김창중
	9	30	제29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대구효성가톨릭대), 지부장: 석귀덕
	10	19	제49회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서울교육문화회관), 회장: 김창중
	10	27	의약분업 대토론회 및 결의대회(약사회관)
	12	10	「21세기 약학교육의 발전방향」 책자 발간 
2001	4	19	춘계학술대회(조선대학교), 회장: 박만기
	6	29	제30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 지부장: 박중희
	10	17-19	창립 50주년(55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숙명여대), 회장: 박만기 

연월일			내 용
2000년대			
2002	1	28	약학회지 크기 변경(A4크기)
	4	18-19	춘계학술대회(충북대학교), 회장: 박만기
	9	27	제31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영남대), 지부장: 남두현
	10	17-18	제51회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오송바이오엑스포), 회장: 박만기
	12	26	「대한약학회 50년사」 발간 
2003	4	17-18	녹암 한구동 박사 추모 학술상 제정, 춘계학술대회(영남대학교), 회장: 김길수
	10	17-18	제52회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코엑스 컨벤션센터), 회장: 김길수
	11	8	제32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경성대), 지부장: 신영희
2004	4	22-23	춘계학술대회(충남대학교), 회장: 김길수
	10	9	제33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경주교육문화회관), 지부장: 마은숙
	10	21-22	분과학회 신설: 개국분과
2005	4	18	춘계학술대회(서울교육문화회관), 회장: 김종국
	7	1	건강기능식품 개발전략 심포지엄(서울대학교 호암회관)
	10	15	제34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 지부장: 정해영
	11	28-29	제54회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서울교육문화회관), 회장: 김종국
2006	1	13	약학대학 6(2+4)년제 전환(고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
	4	16-17	춘계학술대회(부산 BEXCO), 회장: 김종국
	11	6-7	제55회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서울교육문화회관), 회장: 김종국
	11	25	제35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 지부장: 장영동
	12		팜월드 발간 중단
2007	5	11-12	춘계학술대회(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장: 전인구
	6	16	제36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경성대), 지부장: 박민수
	8	20	Springer사와 영문지(APR) 전자출판 계약 
	9	1	세계약학연맹(FIP) 가입 
	10	6	제1회 팜월드 포럼 개최(서울 교육문화회관)
	11	6-7	제56회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서울교육문화회관), 회장: 전인구
			분과학회 신설: 사회약학·약료경영학 분과, 산업약학 분과

연월일			내 용
2000년대			
2008	1	22	오당 이상섭 명예교수 심포지엄 후원기금 1억원 기탁 
	3	17	일본 약학회 MOU 체결 
	3	26	제2회 팜월드 포럼 개최(삼성컨벤션센터)
	3	28	FIP 임원방문
	4.30-5.3		춘계학술대회(제주국제컨벤션센터), 회장: 전인구
	7	1	제37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대구가톨릭대), 지부장: 우미희
	10	6	「나의 미래공부-약학편」 출간
	10	11	제3회 팜월드포럼(서울대 호암교수회관)
	10	23-24	제57회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서울교육문화회관), 회장: 전인구
	11	13	가송약학상 제정 협약식 
	12	8	「MT약학」, 「약학용어집」 출판 기념회  
	12	16	호남지부 창립 총회 및 학술대회(조선대학교) 지부장: 최후균
2009	1	1	약학대학 6년제 출범
	5	7-8	춘계학술대회(대전컨벤션센터), 회장: 김영중 정관 개정 (회장 선거 관련: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
	6	1	제4회 팜월드포럼(서울대 호암교수회관)
	10	15-16	제58회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서울교육문화회관), 회장: 김영중
	12	5	제38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 지부장: 이복률
2010년대			
2010	4	15-16	춘계학술대회(대구엑스코), 회장: 김영중
	6	21	제5회 팜월드포럼(서울대 호암교수회관)
	6	25	호남지부 학술대회(원광대학교), 지부장: 권동렬
	10	21-22	제59회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 회장: 김영중 분과학회 신설: 약학교육
	12	4	제39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영남대), 지부장: 이응석

연월일			내 용
2010년대			
2011	3	1	가톨릭대학 등 15개 약학대학 신설 및 약학대학 6년제 첫 신입생 입학
	4	21-22	춘계학술대회(부산 벡스코), 회장: 정세영
	5	9	중국 약학회 MOU 체결 
	5	28	제40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영남대), 지부장: 용철순
	6	16	충청지부 창립 총회 및 학술대회(식품의약품안전청) 지부장: 이종길
	6	22	한국제약협회 MOU 체결
	6	23	호남지부 학술대회(전남대학교), 지부장: 천승훈
	8	26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심포지움(서울 팔레스호텔)
	8.31-9.7		FIP 총회 참가 및 유치 활동(인도 하이데라바드)
	11	7-9	대한약학회 창립 60주년(65주년) 국제학술대회(인천 송도컨벤시아), 회장: 정세영
			분과학회 명칭 변경: 개국분과 ➡ 지역약국학 
2012	2	25	제41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경성대), 지부장: 용철순
	4	19-21	약학연합국제학술대회(제주 컨벤션센터), 회장: 정세영
			(공동주관: 대한약학회, 한국생약학회, 한국응용약물학회, 한국임상약학회, 한국약료경영학회, 한국에프디씨법제학회)
			분과학회 명칭 변경: 위생약학 ➡ 예방약학
	10	11	충청지부 학술대회(충남대학교), 지부장: 이종길
		23-24	추계 총회 및 학술대회(서울 AW컨벤션센터), 회장: 정세영
	11	9	호남지부 학술대회(우석대학교), 지부장: 신태용
	12		「대한약학회 60년사」 발간 
		8	제42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경북대), 지부장: 용철순
2013	4	18-19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전남 국립순천대학교), 회장: 서영거
	10	23-24	추계 총회 및 학술대회(충북 C&V센터), 회장: 서영거
			학술대상 상금 인상 및 명칭 변경: 학술대상: 한독학술대상, 상금 2,000만원
	8.30-9.5		FIP 총회 참가 및 유치 활동, 2017 SEOUL FIP 개최 합의(아일랜드 더블린) 
	9	12	호남지부 학술대회(순천대학교), 지부장: 김훈
	12	6	문화체육관광부 표창 수상 (2017 SEOUL FIP 유치)
	12	13	제43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경상대), 지부장: 이복률

연월일			내 용
2010년대			
2014	4	17-18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서울 The-K 서울호텔), 회장: 서영거 분과학회 신설: 방사성의약품학, 약학사 정관 개정 (회장 선거 관련: 직선제로 추대하여 이사회에서 선출)
	6	15	2013년도 APR 평가 APR Impact Factor 1.75로 증가
	8.30-9.4		FIP 총회 참가 및 유치 활동, 2017 SEOUL FIP 개최 최종 승인(태국 방콕)
	10	17	호남지부 학술대회(목포대학교), 지부장: 한동설
	10	23-24	추계 총회 및 학술대회(경북 경주현대호텔), 회장: 서영거
	12	12	제44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계명대), 지부장: 공재양
2015	1	7	약학회지 교보문고 출판 계약
	4	17	e-팜월드 창간(뉴스레터 전자발행) - 제36권 1호 통권(104호)
	4	23-24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충북 C&V센터), 회장: 손의동 규정 정비, 분과학회 명칭 변경: 감염미생물 및 면역약학 ➡ 감염미생물·면역약학, 약품생화학 ➡ 약품생화학·분자생물학
	6	4	충청지부 학술대회(충북대학교 오송바이오텍캠퍼스), 지부장: 김영수
	6	18	2017 SEOUL FIP 자원봉사단 발대식(FIP 회장, 사무총장 참석)
	6	19	2014년도 APR 평가 APR Impact Factor 2.046 으로 증가
	8	20	충북도청 등 4개 기관 MOU 체결
	8	26	경기도약사회 MOU 체결, 경기기팜아카데미프로그램 공동 개최(8월-10월)
	8.31-9.4		FIP 총회 참가 및 2017 SEOUL FIP 홍보 활동(독일 뒤셀도르프)
	10	18-21	AIMECS(아태 약화학 학술대회) 개최(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회장: 천문우, 손의동
	10	22-23	추계 총회 및 학술대회(대구 호텔인터불고엑스코), 회장: 손의동
	10	29	호남지부 학술대회(조선대학교), 지부장: 홍준희
	12	11	제45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대구가톨릭대), 지부장: 우미희
2016	2	3	“통일과 나눔” 재단에 북한의 약학연구, 약사양성을 위한 기부
	4	18-19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장: 손의동 분과학회 명칭 변경: 약료경영학 ➡ 약료경영학·사회약학 영문저널 신설 준비위 발족
	4	20	2017 SEOUL FIP 조직위원회 확대 개편 및 현판식
	5	26	대한약학회, 대한의학회, 대한치의학회, 대한한의학회 MOU 체결



연월일	내 용
2010년대	
2016 6 14	2015년도 APR 평가 APR Impact Factor 2.490 으로 증가
8.28-9.1	FIP 총회 참가 및 2017 SEOUL FIP 홍보 활동(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9	회장 선거 전자투표 실시
10 18-20	대한약학회 창립 70주년 국제학술대회(서울 더케이서울호텔), 회장: 손의동
	대한약학회, 일본약학회, 중국약학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및 학술교류 협력 강화 미팅
	 
11 7-13	중국 난징 약국 및 약학교육 글로벌 컨퍼런스, 제26차 아시아약학연맹(FAPA) 2016 총회 참석
	2017 FIP 서울총회 홍보 및 한중일 약학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및 학술교류 협력 강화 미팅
	
12	대한약학회 국/영문 홈페이지 구축
	대한약학회 70년사 발간
	대한약학회 70주년 기념 우표 발간
	 
16	제46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 지부장: 우미희
2017 1 1	3개 지부, 19개 분과, 15개 위원회, 9,000여 회원
4 20-21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충북 C&V센터), 회장: 문애리
21	제1차 서리풀 미래약학포럼(충북 C&V센터)
6 23	제2차 서리풀 미래약학포럼(한국프레스센터)
	
7 24	한국약학교육협의회 MOU 체결
	
9 10-14	2017 FIP 서울총회 개최(코엑스), 98개국 2,609명 참석
	대회장: 문애리, 조찬회, 조직위원장: 전인구, 백경신
	 
10 19-20	추계 총회 및 학술대회(더케이서울호텔), 회장: 문애리
19	정관 개정(기본재산 변경) 및 규정 개정
20	제3차 서리풀 미래약학포럼(더케이서울호텔)
11 24	제47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대구경북첨복), 지부장: 이유미

연월일			내 용
2010년대			
2018	4	19	제1차 신약개발 단계별 핵심 교육(코엑스) 제4차 서리풀 미래약학포럼(코엑스)
		20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코엑스), 회장: 문애리 APR 편집위원장 5년 임기제 규정 개정 분과학회 신설: 약사커뮤니케이션
	7	11	5년 임기 APR 편집위원장 선정, 위원장: 이석용
	10	17-19	추계 총회 및 학술대회(제주국제컨벤션센터), 회장: 문애리
		17	아시아약학회(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MOU체결 
		18	제5차 서리풀 미래약학포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오당기금운영 및 APR 학술상 규정 변경
	11	30	제48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인제대), 지부장: 이유미
2019	1	1	제51대 대한약학회 회장으로 이용복 교수 취임 3개 지부, 20개 분과, 15개 위원회, 11,489명 회원
		29	제51대 집행부 출범식 및 신년교례 
	2	28	전임회장단 초청 업무 협의 
	3	15	학회 소속 분과학회 간담회 
	4	25-26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밀레니엄 힐튼 서울), 회장: 이용복 
	7	15	윤광열약학공로상 제정 협약식(가송재단) 
		17	한국바이오협회 업무협약 체결 
	8	23	제6차 서리풀 미래약학 포럼

연월일	내 용
2010년대	
2019 9 17	약학회지 홈페이지/논문투고 심사시스템 구축 
10 14-15	추계 총회 및 학술대회(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회장: 이용복 
15	인도네시아 약학자협회 업무협약 체결 
15	2019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성과교류회 공동개최 
11 18	제33회 약의 날 행사 
20	충청지부 학술대회(단국대학교), 지부장: 서동완 
12 13	제49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경북대), 지부장: 윤현주
18	과총 2019년 학술활동 보건부문 우수학회로 선정
27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업무협약 체결 
2020년대	
2020 2 3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업무협약 체결 
27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업무협약 체결 
3.30-4.6	COVID-19로 춘계 총회 서면개최 및 학술대회 연기
4.16-5.15	제약·바이오헬스 산업 대국민 홍보 (서울역, 부산역KTX 역내) ※ 참여단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횰약품협회 

연월일			내 용
2020년대			
2020	4	17	학회회원 무료이용 전자도서관 설치(교보문고)
	5	19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위탁 연구용역사업 결과 발표
	7	15	공직약학자상 후원 협약식(건강소비자연대·헬스컨슈머)
	8	18	국·영문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반응형 기능 추가
	27		약학회지 투고논문 전문영어 교정 업체(에디티지) 계약
	9	4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업무협약 체결
	10-16		2020 바이오헬스 일자리 박람회 후원사 참여 ※ 참여단체: (주최)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후원)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일자리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 대한약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10	8	5년 임기 약학회지편집위원장 선정 (위원장: 나동희), 경영약학연구회 연구회 신설
	21-23		추계 총회 및 학술대회(온라인 생중계), 회장: 이용복 ※ 분과학회 명칭 변경: 약사커뮤니케이션 ➡ 약사커뮤니케이션·커뮤니티케어
	10.30-12.15		회원정보 갱신 작업
	12	15	약학용어집 개정증보판 발행
	-진행중		비타민제 효과 및 복용지도 가이드 발행
2021	1	1	제52대 대한약학회 회장으로 홍진태 교수 취임 3개 지부, 20개 분과, 15개 위원회, 12,377명 회원
	12	10	제50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경상대, 온라인), 지부장: 김종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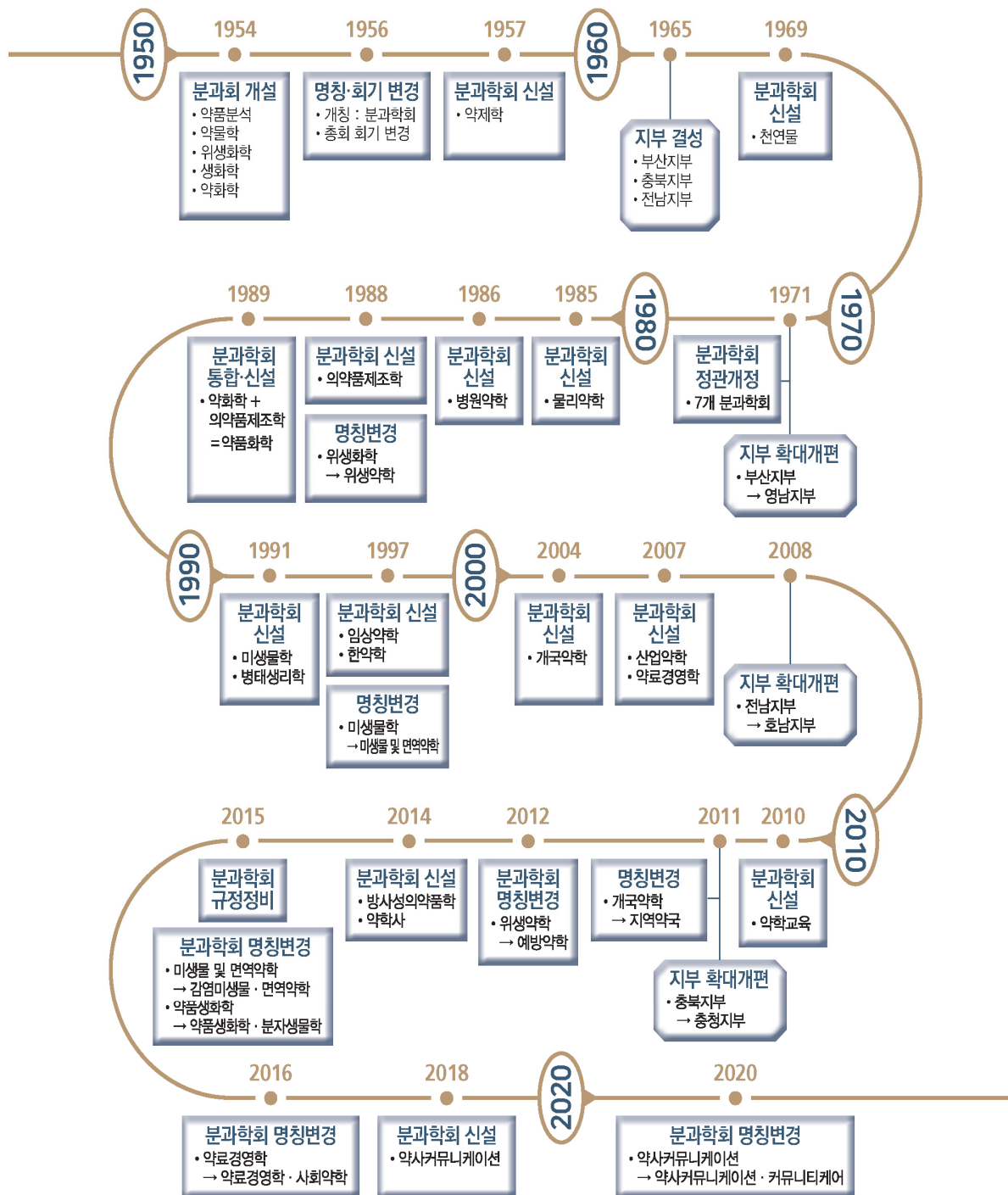
II

한눈에 보는 지부 및 분과학회 역사

1946

2021

한눈에 보는 지부 및 분과학회 역사



한눈에 보는 흐름도에 대한 소개

대한약학회는 3개 지부와 20개 분과학회(分科學會)를 두고 학술활동을 증대시키고 있다. 본회의 학술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약학진흥위원회를 1964년에 발족하여 약학연구, 제약기술, 약학교육, 약학관계 공정서, 약학용어 등 아젠다를 설정하였으나 활동의 미비로 중단되었다. 30년사에 보면 기관회원이 5명이상에 분회(分會)를 두어 활용하였으나 영속되지 않아서 기록에서 삭제하였다.

3개 지부: 1953년 대한약학회 회칙에 지방분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나, 그 당시는 특별한 활동이 없었고 1964년 10월 17일에 개정된 대한약학회정관에 지부 및 분회에 관한 사항이 보완되고 1964년 11월 4일 지부규정이 제정됨으로서 전국적으로 지부가 결성되었다. 약학대학소재지인 시도에는 지부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부산지부(1965년 8월 2일, 회장 김차덕), 충북지부(1965년 9월 15일, 회장 김명원) 및 전남지부(1965년 10월 15일, 회장 김태봉)가 결성되었으며 각 지부는 정관도 제정하였으나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부산지부만이 활동을 계속하여 후일 영남지부(1971년)로 발전하였다. 연도가 많이 지나서야 전남지부도 호남지부(2008년)로, 충북지부도 충청지부로(2011년) 개편되게 되었다.

20개 분과학회: 분과회는 1954년 5개 분과로 창립되어 세분·병합을 반복하였고 1956년에는 분과학회로 개칭되었고 현재 20개 분과학회로 활동하고 있다. 각 분과학회는 연 1-3회의 소모임을 가져 각 분과회의 특성화에 따른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30년사에 나오는 漢字로 기록된 초창기의 분과학회의 기록이 복잡하고 약간 혼돈스럽다. 이어서 1970년 10월 31일 분과학회에 대한 정관제정으로 정회원 10명의 15개의 분과학회가 탄생을 보게 되었으나, 1971년 9월 11일 다시 개정하여 정회원 20명의 7개로 운영하게 되어 즉 약제학분과학회(회장 김상민), 약품분석분과학회(회장 이왕규), 약화학분과학회(회장 채동규), 천연물분과학회(회장 김제훈), 약물학분과학회(회장 한대섭), 위생화학분과학회(회장 권숙표), 생화학분과학회(회장 김병수)가 정관으로 인정된 셈이다. 따라서 1954년에 5개 분과학회(약품분석, 약물학, 위생화학, 생화학, 약화학)를 기록하게 하였고 약제학(1957년), 천연물(1969년)분과학회가 창립이 된 것으로 기록하였다. 실질적인 분과학회 창립년도가 정관상과 실질적인 창립년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각 분과별로 특별강연,

세미나, 약학교육 및 국가고시 등에 관한 토의 등 분과별로 활동을 하는 외에 1971년부터 총회에서 행해 오던 심포지움행사를 각 분과가 담당하여 매년 실시하여 왔으며 1971년도 공해 심포지움(대한약학회 주최), 1972년도 항암제 심포지움(대한약학회 주최), 1973년도 제제분석에서 GLC의 응용심포지움(약품분석분과학회), 1974년도 생약의 약물학적 연구심포지움(약물학분과학회), 1975년도 제제설계 심포지움(약제학분과학회), 1976년도 의약품과 효소 심포지움(생화학분과학회), 1977년도 화학요법제합성에 관한 최근동향 심포지움(약화학분과학회), 1978년도 환경오염과 그 대책(위생화학분과학회), 1979년도 국산생약의 생리활성물질 심포지움(천연물분과학회), 1980년도 약학교육(대한약학회, 한국약학대학협의회 및 대한약사회 공동주최)에 관한 심포지움, 1981년도 천연물약품의 품질관리(약품분석분과학회)를 개최하였다.

8번째 분과학회는 물리약학(1985년)이었다. 이어서 9번째는 1886년에 병원약학분과학회가 창립되었다.

1988년에 의약품제조학분과학회가 신설되었으나 약화학분과학회와 합쳐 약품화학분과로 개칭되었다. 10번째와 11번째는 1991년에 미생물학분과학회와 병태생리학분과학회가 창립되었다. 이어서 12번째와 13번째는 1997년에 임상약학분과학회와 한약학분과학회가 창립되었고, 14번째는 2004년에 개국약학분과학회가, 15번째와 16번째는 2007년도에 산업약학분과학회와 약료경영분과학회가 창립되었다. 6년제 교육이 시작되어 17번째는 2010년에 약학교육분과학회가 만들어졌고, 18번째와 19번째는 2014년에 약학사와 방사성의약품학 분과학회가 만들어졌다. 20번째는 2018년에 약사커뮤니케이션학회가 만들어졌다. 1998년에 위생화학분과학회는 위생약학분과학회로 개칭하였고, 2012년에 예방약학분과학회로 재개칭하였다. 개국약학분과학회는 2011년에 지역약국분과학회로 개칭하였고, 미생물학분과학회는 1997년에 미생물 및 면역약학분과학회로 개칭 후 2015년에 감염미생물·면역약학분과학회로 다시 개칭하였다. 약품생화학분과학회는 약품생화학·분자생물학분과학회로 개칭하였다. 또한 2016년에 약료경영학분과학회는 약료경영학·사회약학분과학회로 개칭, 2020년에는 약사커뮤니케이션분과학회가 약사커뮤니케이션·커뮤니케어분과학회로 명칭이 개칭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역사로 기록하고자 하였다.

30년, 60년, 70년사로부터 기록하다 (위원장 손의동)

III
지부 · 분과학회 연표

1946

2021

지부·분과학회 연표

연월일			내 용
1950년대			
1954	7	6	약학회 산하에 5분과회 설치 (약품분석, 약물학, 위생화학, 생화학, 약화학)
1956	10	12	분과회를 분과학회로 개칭하고 총회 회기를 매년 4월에서 10월로 변경
1957	11	11	약제학분과회 발족
1960년대			
1965	8	4	부산지부 결성(지부장: 김차덕)
1965	9	15	충북지부 결성(지부장: 김명원)
1965	10	15	전남지부 결성(지부장: 김태봉)
1969	10		약화학분과회 발족
1969	12		천연물분과학회 발족
1970년대			
1970	6	30	대한약학회 약품분석분과학회 발족
	10	31	정관개정: 15개 분과학회
1971	4	3	부산지부가 영남지부로 확대개편
			창립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효성여대), 지부장: 최병창
	9	11	정관개정: 7개 분과학회 (약제학, 약품분석, 약화학, 천연물, 약물학, 위생화학, 생화학)
1972	1	22	생화학분과회 창립
	4	8	제2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 지부장: 장억규
	10		대한약학회 위생화학분과학회 발족
1973	3	31	제3회 영남지부총회 및 학술대회(대구경북약사회관), 지부장: 권태훈
1974	4	20	제4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효성대), 지부장: 권태훈
1975	4	12	제5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 지부장: 진갑덕
1976	4	10	제6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영남대), 지부장: 권태훈
1977	3	19	대한약학회 분회장 회의
1977	5	7	제7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효성여대), 지부장: 권태훈
1978	4	22	제8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 지부장: 한보식
1979	2	17	대한약학회분회장 회의
	6	16	제9회 영남지부 총회 학술대회(영남대), 지부장: 권태훈

연월일			내 용
1980년대			
1980	5	10	제10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효성여대), 지부장: 이상록
1981	5	23	제11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 지부장: 한보식
1982	5	29	제12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영남대), 지부장: 조경열
1983	4	30	제13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효성여대), 지부장: 양한석
1984	5	12	제14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 지부장: 홍승철
	12	22	약물학 분과회 총회(부산대 약대)
1985	5	11	제15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영남대), 지부장: 서병천 물리약학 신설
1986	6	14	제16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 지부장: 이정규 대한약학회 병원약학 분과학회 창립
1987	2	21	분과학회장회의 개최
	7	20	제17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효성여대), 지부장: 김종원
1988	6	4	제18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 지부장: 한석규
	9	10	의약품제조학 분과학회 발족
	10	28	분과학회 명칭 변경: 위생화학 ➡ 위생약학
1989	10	27	약품화학 분과학회 발족(약화학분과와 의약품제조학분과 통합)
1990년대			
1990	6	23	제19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영남대), 지부장: 도재철
1991	1	11	미생물학 분과학회 창립
	6	15	제20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경성대), 지부장: 이종철
	11	30	병태생리학 분과학회 창립
1992	2	18	약품분석학 분과학회(서울대 약대)
	5	23	제21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효성여대), 지부장: 김종원
	6	20	약물학 분과학회 하계 심포지엄 개최(충북대 약대)
1993	5	22	제22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 지부장: 임광식
	7	2	미생물학 분과회 하계심포지엄(충북대)
	7	9	병태생리학 분과학회 임시총회 및 특별강연(반포회관)
	8	11	물리약학 하기워크샵 및 회의(충남대 약대)
1994	6	18	제23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영남대), 지부장: 정시련
1995	5	26-27	제24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경주코롱호텔), 지부장: 이정규

연월일			내 용
1996	10	19	제25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경주콩코드호텔), 지부장: 윤수홍
1997	3	10	분과학회 신설: 임상약학
	7	31	분과학회 신설: 한약학
1998	9	19	제27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영남대), 지부장: 장영동
1999	9	11	제28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경성대), 지부장: 문경호

2000년대

2000	9	30	제29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대구효성가톨릭대), 지부장: 석귀덕
2001	6	29	제30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 지부장: 박종희
2002	9	27	제31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영남대), 지부장: 남두현
2003	11	8	제32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경성대), 지부장: 신영희
2004	10	9	제33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경주교육문화회관), 지부장: 마은숙
	10	21	분과학회 신설: 개국약학분과
2005	10	15	제34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 지부장: 정해영
2006	11	25	제35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 지부장: 장영동
2007	6	16	제36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경성대), 지부장: 박민수
	11	6-7	산업약학, 약료경영학 분과신설
2008	7	1	제37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대구가톨릭대), 지부장: 우미희
	12	16	호남지부 창립 총회 및 학술대회(조선대학교) 지부장: 최후균(전남지부가 호남지부로 확대개편)
2009	1	1	약학대학 6년제 출범
	12	5	제38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 지부장: 이복률

2010년대

2010	6	25	호남지부 학술대회(원광대학교), 지부장: 권동렬
	10	21	분과학회 신설: 약학교육
2011	5	28	제40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영남대), 지부장: 용철순
	6	16	충청지부 창립 총회 및 학술대회(식품의약품안전청) 지부장: 이종길(충북지부에서 충청지부로 확대개편)
	6	23	호남지부 학술대회(전남대학교), 지부장: 천승훈
	11	7-9	분과학회 명칭 변경: 개국분과 ➡ 지역약국학
2012	2	25	제41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경성대), 지부장: 용철순
	4	19-21	분과학회 명칭 변경: 위생약학 ➡ 예방약학
	9	28	제2회 충청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충남대), 지부장: 이종길

연월일			내 용
2012	11	9	호남지부 학술대회(우석대학교), 지부장: 신태용
	12	8	제42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경북대), 지부장: 용철순
2013	9	12	호남지부 학술대회(순천대학교), 지부장: 김훈
	12	13	제43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경상대), 지부장: 이복률
2014	4	17-18	분과학회 신설: 방사성의약품학, 약학사
	10	17	호남지부 학술대회(목포대학교), 지부장: 한동설
	12	12	제44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계명대), 지부장: 공재양
2015	4	18	규정 정비, 분과학회 명칭 변경: 감염미생물 및 면역약학 ➡ 감염미생물·면역약학, 약품생화학 ➡ 약품생화학·분자생물학
	6	4	충청지부 학술대회(오송바이오캠퍼스 충북대학교), 지부장: 김영수
	10	29	호남지부 학술대회(조선대학교), 지부장: 홍준희
	12	11	제45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대구가톨릭대), 지부장: 우미희
2016	4	18-19	분과학회 명칭 변경: 약료경영학 ➡ 약료경영학·사회약학
	11	17	호남지부 학술대회(원광대학교), 지부장: 김성연
	12	16	제46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학교), 지부장: 우미희
2017	11	16	호남지부 학술대회(전남대학교), 지부장: 이익수
	11	24	제47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부장: 이유미
2018	4	20	분과학회 신설: 약사커뮤니케이션
	11	30	제48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 지부장: 이유미
	12	16	호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조선대학교), 지부장: 이익수
2019	11	20	충청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단국대학교), 지부장: 서동완
	11	27	호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순천대학교), 지부장: 손영진
	12	13	제49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경북대학교), 지부장: 윤현주

2020년대

2020	10	21-23	분과학회 명칭 변경: 약사커뮤니케이션 ➡ 약사커뮤니케이션·커뮤니티케어
2021	12	10	제50회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경상대, 온라인), 지부장: 김종오

IV
연도별
지부장 · 분과학회장 현황

1946

2021

연도별 지부장·분과학회장 현황

연도(1965-1990)

1960	1969	1978	1987	1996	2005	2014	2023	2032	2041	2050	2059	2068	2077	2086	2095	2104	2113	2122	2131	2140	2149	2158	2167	2176	2185	2194	2203	2212	2221	2230	2239	2248	2257	2266	2275	2284	2293	2302	2311	2320	2329	2338	2347	2356	2365	2374	2383	2392	2401	2410	2419	2428	2437	2446	2455	2464	2473	2482	2491	2500	2509	2518	2527	2536	2545	2554	2563	2572	2581	2590	2599	2608	2617	2626	2635	2644	2653	2662	2671	2680	2689	2698	2707	2716	2725	2734	2743	2752	2761	2770	2779	2788	2797	2806	2815	2824	2833	2842	2851	2860	2869	2878	2887	2896	2905	2914	2923	2932	2941	2950	2959	2968	2977	2986	2995	3004	3013	3022	3031	3040	3049	3058	3067	3076	3085	3094	3103	3112	3121	3130	3139	3148	3157	3166	3175	3184	3193	3202	3211	3220	3229	3238	3247	3256	3265	3274	3283	3292	3301	3310	3319	3328	3337	3346	3355	3364	3373	3382	3391	3400	3409	3418	3427	3436	3445	3454	3463	3472	3481	3490	3499	3508	3517	3526	3535	3544	3553	3562	3571	3580	3589	3598	3607	3616	3625	3634	3643	3652	3661	3670	3679	3688	3697	3706	3715	3724	3733	3742	3751	3760	3769	3778	3787	3796	3805	3814	3823	3832	3841	3850	3859	3868	3877	3886	3895	3904	3913	3922	3931	3940	3949	3958	3967	3976	3985	3994	4003	4012	4021	4030	4039	4048	4057	4066	4075	4084	4093	4102	4111	4120	4129	4138	4147	4156	4165	4174	4183	4192	4201	4210	4219	4228	4237	4246	4255	4264	4273	4282	4291	4300	4309	4318	4327	4336	4345	4354	4363	4372	4381	4390	4399	4408	4417	4426	4435	4444	4453	4462	4471	4480	4489	4498	4507	4516	4525	4534	4543	4552	4561	4570	4579	4588	4597	4606	4615	4624	4633	4642	4651	4660	4669	4678	4687	4696	4705	4714	4723	4732	4741	4750	4759	4768	4777	4786	4795	4804	4813	4822	4831	4840	4849	4858	4867	4876	4885	4894	4903	4912	4921	4930	4939	4948	4957	4966	4975	4984	4993	5002	5011	5020	5029	5038	5047	5056	5065	5074	5083	5092	5101	5110	5119	5128	5137	5146	5155	5164	5173	5182	5191	5200	5209	5218	5227	5236	5245	5254	5263	5272	5281	5290	5299	5308	5317	5326	5335	5344	5353	5362	5371	5380	5389	5398	5407	5416	5425	5434	5443	5452	5461	5470	5479	5488	5497	5506	5515	5524	5533	5542	5551	5560	5569	5578	5587	5596	5605	5614	5623	5632	5641	5650	5659	5668	5677	5686	5695	5704	5713	5722	5731	5740	5749	5758	5767	5776	5785	5794	5803	5812	5821	5830	5839	5848	5857	5866	5875	5884	5893	5902	5911	5920	5929	5938	5947	5956	5965	5974	5983	5992	6001	6010	6019	6028	6037	6046	6055	6064	6073	6082	6091	6100	6109	6118	6127	6136	6145	6154	6163	6172	6181	6190	6199	6208	6217	6226	6235	6244	6253	6262	6271	6280	6289	6298	6307	6316	6325	6334	6343	6352	6361	6370	6379	6388	6397	6406	6415	6424	6433	6442	6451	6460	6469	6478	6487	6496	6505	6514	6523	6532	6541	6550	6559	6568	6577	6586	6595	6604	6613	6622	6631	6640	6649	6658	6667	6676	6685	6694	6703	6712	6721	6730	6739	6748	6757	6766	6775	6784	6793	6802	6811	6820	6829	6838	6847	6856	6865	6874	6883	6892	6901	6910	6919	6928	6937	6946	6955	6964	6973	6982	6991	7000	7009	7018	7027	7036	7045	7054	7063	7072	7081	7090	7099	7108	7117	7126	7135	7144	7153	7162	7171	7180	7189	7198	7207	7216	7225	7234	7243	7252	7261	7270	7279	7288	7297	7306	7315	7324	7333	7342	7351	7360	7369	7378	7387	7396	7405	7414	7423	7432	7441	7450	7459	7468	7477	7486	7495	7504	7513	7522	7531	7540	7549	7558	7567	7576	7585	7594	7603	7612	7621	7630	7639	7648	7657	7666	7675	7684	7693	7702	7711	7720	7729	7738	7747	7756	7765	7774	7783	7792	7801	7810	7819	7828	7837	7846	7855	7864	7873	7882	7891	7900	7909	7918	7927	7936	7945	7954	7963	7972	7981	7990	7999	8008	8017	8026	8035	8044	8053	8062	8071	8080	8089	8098	8107	8116	8125	8134	8143	8152	8161	8170	8179	8188	8197	8206	8215	8224	8233	8242	8251	8260	8269	8278	8287	8296	8305	8314	8323	8332	8341	8350	8359	8368	8377	8386	8395	8404	8413	8422	8431	8440	8449	8458	8467	8476	8485	8494	8503	8512	8521	8530	8539	8548	8557	8566	8575	8584	8593	8602	8611	8620	8629	8638	8647	8656	8665	8674	8683	8692	8701	8710	8719	8728	8737	8746	8755	8764	8773	8782	8791	8800	8809	8818	8827	8836	8845	8854	8863	8872	8881	8890	8900	8909	8918	8927	8936	8945	8954	8963	8972	8981	8990	9000
니콜라예																																																																																																																																																																																																																																																																																																																																																																																																																																																																																																																																																																																																																																																																																																																																																																																																														

연도(1991-2021)

[illegible]

V

지부 · 분과학회 역사 및 현황

지부

• 영남지부	37
• 충청지부	47
• 호남지부	55

분과학회

• 감염미생물·면역약학 분과학회	62
• 물리약학 분과학회	69
• 방사성의약품학 분과학회	82
• 병원약학 분과학회	91
• 병태생리학 분과학회	99
• 사회약학·약료경영학 분과학회	108
• 산업약학 분과학회	116
• 생약·천연물 분과학회	123
• 약물학 분과학회	129
• 약사커뮤니케이션·커뮤니티케어 분과학회	151
• 약제학 분과학회	158
• 약품분석학 분과학회	181
• 약품생화학·분자생물학 분과학회	198
• 약품화학 분과학회	203
• 약학교육 분과학회	215
• 약학사 분과학회	218
• 예방약학 분과학회	240
• 임상약학 분과학회	254
• 지역약국 분과학회	263
• 한약학 분과학회	273

01

영남지부



1. 지부 개요

대한약학회 영남지부인 영남약학회는 1965년에 설립된 대한약학회 부산지부를 모태로 하여 “약학의 진보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학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10년까지는 경성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영남대학교 4개 대학의 학장이 매년 순회하면서 지부장을 역임하여왔다. 그러나 약학대학 6년제의 시행과 함께 영남지역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계명대학교, 및 인제대학교가 새로 신설되어 총 8개의 약학대학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회원 간 친목 위주의 학회에서 한걸음 도약하여 “학술 및 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1년 정관을 개정하여 조직을 정비하였다. 이로써 영남약학회가 대한약학회의 지부 개념으로 성장/발전하였다.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2011년도 용철순 교수(영남대)부터 대한약학회 부회장으로서 영남지부장을 겸하게 되었다. 이후 이복률(부산대), 공재양(계명대), 우미희(대구가톨릭대), 이유미(경북대), 윤현주(인제대) 교수님께서 영남지부장을 이끌어오셨고, 현재 김종오 교수(영남대)가 대한약학회 영남지부장으로 재임 중이다.

2. 지부 역사

2-1. 연도별 임원 현황표

연도	지부장	연도	지부장	부산지부장					
1965	김차덕	1966	이종철						
연도	지부장	연도	지부장	연도	지부장	연도	지부장	연도	지부장
1971	최병창	1981	한보식	1991	이종철	2001	박종희	2011	용철순
1972	장억규	1982	조경열	1992	김종원	2002	남두현	2012	용철순
1973	권태훈	1983	양한석	1993	임광식	2003	신영희	2013	이복률
1974	노영재	1984	홍승철	1994	정시련	2004	마은숙	2014	공재양
1975	진갑덕	1985	서병천	1995	이정규	2005	정해영	2015	우미희
1976	권태훈	1986	이정규	1996	윤수홍	2006	장영동	2016	우미희
1977	서석수	1987	김종원	1997	이치호	2007	박민수	2017	이유미
1978	한보식	1988	한석규	1998	장영동	2008	우미희	2018	이유미
1979	권태훈	1989	한석규	1999	문경호	2009	이복률	2019	윤현주
1980	이상록	1990	도재철	2000	석귀덕	2010	이응석	2020	윤현주

2-2. 창립 역사 및 임원활동

1971년 창립총회 이후 경성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영남대학교 4개 대학의 학장이 순회하면서 지부장을 역임하고, 학회를 개최하였다. 약학대학 6년제의 시행과 더불어 영남지역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계명대학교, 인제대학교가 새로 신설되어 총 8개의 약학대학 영남지부에 속하게 되었다. 이에 기존 회원 간 친목 위주의 학회에서 한걸음 도약하여 “학술 및 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1년 정관을 개정하여 조직을 정비하였다. 42회(2012년) 정기총회부터 대구경북권 대학과 부산경남권 대학이 가, 나, 다 순으로 순회하며 총회를 주최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 50회 정기총회가 2021년으로 순연되었다.

3. 현재 임원 현황

직위	성함	소속
지부장	김종오	영남대
총무	최동영	영남대
학술	최준석	대구가톨릭대
재무	배정우	계명대
감사	윤현주	인제대
운영위원	강효정	경북대
	우동균	경상대
	송세현	경성대
	김기석	계명대
	김하룡	대구가톨릭대
	윤인수	부산대
	장재훈	영남대
	조관형	인제대

4. 주요 학술 및 교육활동사항

대한약학회 영남지부인 영남약학회는 1965년에 설립된 대한약학회 부산지부를 모태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연혁은 다음과 같다.

» 대한약학회 영남지부 활동상황

회수	일 시	장 소	지부장명	발표논문수
1	1971. 4. 3	효성여대 약학대학	부산대 최병창	6
	■ 제 1회 창립총회 - 특별강연: 허 령 박사(경희대 약대학장), 유호열 박사(경북대 치대 교수) - 학술발표: 천문우(효대), 이경희외1인(부산대), 윤용균(부산적십자병원), 정시련(영남대), 최윤수외3인(경북 위생시험소), 심상혁(부산대)			
2	1972. 4. 8	부산대 약학대학	영남대 장억규	9
	■ 제 2회 정기총회 - 특별강연: 전세규 박사(부산수산대), 최내영 교수(부산대 공대) - 학술발표: 김상열(효대), 이신웅(충남대 의대), 이상록(부산대), 서정현(부산대), 홍승철(부산대), 이치호(부산대), 김기현(부산대), 양한석(부산대), 박중훈(경대의대부속병원)			
3	1973. 3. 31	경북 약사회관	효성여대 권태훈	11
	■ 제 3회 정기총회 - 특별강연: 김종윤 박사(영남대) - 학술발표: 임광식(영남대), 이치호(영남대), 노영재·김기룡(부산대), 김기현(부산대), 서정현(부산대), 홍승철(부산대), 이치호(부산대), 김기현(부산대), 이상록(부산대), 이무영(부산대), 서병천(영남대), 강인숙(영남대), 이신웅(충남대), 조경열(효대), 김상열(효성여대)			
4	1974. 4. 20	효성여대 약학대학	효성여대 노영재	7
	■ 제 4회 정기총회 - 특별강연: 한구동 박사 - 학술발표: 천문우(효대), 이경희(부산대), 한보식외3인(영남대), 이상록(부산대), 이신웅외1인(충남대), 김기현(부산대), 김종윤(영남대)			
5	1975. 4. 12	부산대 약학대학	영남대 진갑덕	6
	■ 제 5회 정기총회 - 특별강연: 한석규 박사(부산대) - 학술발표: 김종원(효대), 이신웅(충남대), 서석수(부산대), 노영재외1인(부산대), 서정현외1인(부산대), 홍승철(부산대)			
6	1976. 4. 10	영남대 약학대학	효성여대 권태훈	7
	■ 제 6회 정기총회 - 특별강연: 허근 박사(영남대) - 학술발표: 이종달외1인(영남대), 한석규(부산대), 이종현(효대), 이신웅(충남대), 이치호(부산대), 이도영(영남대), 서정현(부산대)			
7	1977. 5. 7	효성여대 약학대학	부산대 서석수	8
	■ 제 7회 정기총회 - 특별강연: 김영미 박사(부산대) - 학술발표: 김종원(효대), 한석규외1인(부산대), 최보길외1인(영남대), 문상목외2인(부산대), 임구외4인(영남대), 최종원외1인(영남대), 이신웅(영남대)			
8	1978. 4. 22	부산대 약학대학	영남대 한보식	3
	■ 제 8회 정기총회 - 특별강연: 전경희 박사(영남대) - 학술발표: 임광식외1인(부산대), 최종원외1인(영남대), 김기현(부산대)			

회수	일 시	장 소	지부장명	발표논문수
9	1979. 6. 16	영남대 약학대학	효성여대 권태훈	4
	■ 제 9회 정기총회 - 특별강연: 장현갑 박사(영남대 문리과대 심리학과) - 학술발표: 도재철외1인(영남대), 손기호외1인(영남대), 이신웅외1인(영남대), 김영희(효대)			
10	1980. 5. 10	효성여대 약학대학	부산대 이상록	11
	■ 제 10회 정기총회 - 특별강연: 이원정 교수(경북대 의대) - 학술발표: 서석수외1인(부산대), 임광식외3인(부산대), 최종원외3인(영남대), 손기호외1인(영남대), 이정수외1인(영남대), 이수근외2인(영남대), 양한석외2인(부산대), 김종원(효대), 김영희외2인(효대)			
11	1981. 5. 23	부산대 약학대학	영남대 한보식	6
	■ 제 11회 정기총회 - 특별강연: 박조열 교수(부산대 의대) - 학술발표: 최종원외2인(영남대), 권용준(효성여대), 이상록·손병화(부산대), 이상일외2인(영남대), 조경열외1인(효성여대), 이치호외1인(부산대)			
12	1982. 5. 29	영남대 약학대학	효성여대 조경열	7
	■ 제 12회 정기총회 - 특별강연: 문병조 교수(경북대), 김경순(효성여대) - 학술발표: 석경순외2인(효성여대), 우미희외2인(효성여대), 최종원외2인(영남대), 서정현(부산대), 최우식(부산대), 임광식외3인(부산대), 박종희외1인(부산대)			
13	1983. 4. 30	효성여대 약학대학	부산대 양한석	6
	■ 제 13회 정기총회 - 특별강연: 최우식(부산대), 한석규외1인(부산대) - 학술발표: 홍승철외2인(부산대), 최보길외1인(영남대), 이인자외3인(효성여대), 석귀덕외1인(효성여대), 윤복희외2인(효성여대), 안금수외1인(효성여대)			
14	1984. 5. 12	부산대 약학대학	부산대 홍승철	11
	■ 제 14회 정기총회 - 특별강연: 윤응찬 교수(부산대 자연과학대) - 학술발표: 김상열·박미영(효성여대), 신용정·김종윤(영남대), 김종원·이경숙(효성여대), 임경택(동아대), 추연재외3인(영남대), 김영희외2인(영남대), 김기현외1인(부산대), 조경열·박혜경(효성여대), 최우식(부산대), 한석규외1인(부산대), 윤종우외2인(영남대)			
15	1985. 5. 11	영남대 약학대학	영남대 서병천	11
	■ 제 15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최우식(부산대), 이경희외2인, 이신웅외2인(영남대), 이신웅외3인(영남대), 이상명외1인(동의대), 한석규외1인(부산대), 이경희외1인, 허근외3인(영남대), 이신웅외1인(영남대), 김종협외2인(영남대), 진갑덕외1인(영남대)			
16	1986. 6. 14	부산대 약학대학	경성대 이경규	6
	■ 제 16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서영아외3인(영남대), 배은숙·석귀덕(효성여대), 백석환외3인(영남대), 박민수(부산산업대), 조경열외3인(효성여대), 박종민외4인(영남대)			

회수	일 시	장 소	지부장명	발표논문수
17	1987. 7. 20	효성여대 약학대학	효성여대 김종원	9
	■ 제 17회 정기총회 - 특별강연: 장영동(영남대), 이인자(효성여대) - 학술발표: 김종원외1인(효성여대), 양한석외2인(부산대), 박종철외2인(부산대), 윤수홍·이명진(효성여대), 신억섭외2인(영남대), 권용준외1인(효성여대), 최우식(부산대), 한석규외1인(부산대), 윤종우외2인(영남대)			
18	1988. 6. 4	부산대 약학대학	부산대 한석규	5
	■ 제 18회 정기총회 - 특별강연: 이복률(경성대) - 학술발표: 최윤수외2인(효성여대), 이순권외2인(영남대), 박영주외2인(영남대), 발표자로-최재수외2인(부경대), 손병화(부경대)			
19	1990. 6. 23	영남대 약학대학	영남대 도재철	5
	■ 제 19회 정기총회 - 특별강연: 손종근(영남대) - 학술발표: 박민수외2인(경성대), 문경호외1인(경성대), 이치호외1인(부산대), 박민수외2인(경성대), 박종희외1인(부산대)			
20	1991. 6. 15	경성대 약학대학	경성대 이종철	3
	■ 제 20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이태웅, 문전옥(부산대), 박영주외1인(영남대)			
21	1992. 5. 23	효성여대 약학대학	효성여대 김종원	3
	■ 제 21회 정기총회 - 특별강연: 용철순(영남대) - 학술발표: 김정선외2인(부산대), 이강미외1인(효성여대), 조규옥외3인(효성여대)			
22	1993. 5. 22	부산대 약학대학	부산대 임광식	5
	■ 제 22회 정기총회 - 특별강연: 김남득(부산대) - 학술발표: 최재수(부경대), 박종희외1인(부산대), 전용주외2인(영남대), 이호영외5인(부산대), 이숙영외2인(영남대)			
23	1994. 6. 18	영남대 약학대학	영남대 정시련	3
	■ 제 23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이복률(부산대), 오두만(효성여대), 장현욱(영남대)			
24	1995.5. 26-27	경주코롱호텔(경성대 주관)	경성대 이정규	2
	■ 제 24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이승호(영남대), 전병학(부산대)			
25	1996. 10. 19	경주공코드호텔(대구효성가톨릭대 주관)	효성가톨릭대 윤수홍	2
	■ 제 25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김대덕(부산대), 우미희(효성가톨릭대)			
26	1997. 7. 27	경주교육문화회관(부산대 주관)	부산대 이치호	3
	■ 제 26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김은준(부산대), 김정애(영남대), 이만형(효성가톨릭대)			

회수	일 시	장 소	지부장명	발표논문수
27	1998. 9. 19	영남대 약학대학	영남대 장영동	2
	■ 제 27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이응석(영남대), 정지형(부산대)			
28	1999. 9. 11	경성대 약학대학	경성대 문경호	2
	■ 제 28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손종근(영남대), 전병학(부산대)			
29	2000. 9. 30	대구효성가톨릭대 외국어교육관	효성가톨릭대 석귀덕	4
	■ 제 29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최한근(영남대), 권영길(대구효성가톨릭대), 사홍기(대구효성가톨릭대), 정태천(영남대)			
30	2001. 6. 29	부산대 약학대학	부산대 박종희	2
	■ 제 30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박장수(부산대), 김희수(부산대)			
31	2002. 9. 27	영남대 약학대학	영남대 남두현	3
	■ 제 31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백석환(영남대), 임동순(부산대), 용철순(영남대)			
32	2003. 11. 8	경성대 약학대학	경성대 신영희	2
	■ 제 32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김형식(부산대), 류봉규(영남대)			
33	2004. 10. 9	경주교육문화회관(대구가톨릭대 주관)	대구가톨릭대 마은숙	2
	■ 제 33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하남출(부산대), 나영화(대구가톨릭대)			
34	2005. 10. 15	부산대 약학대학	부산대 정해영	5
	■ 제 34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정연진(부산대), 김남득(부산대), 곽미경(영남대), 제현동(대구가톨릭대), 나동희(경성대)			
35	2006. 11. 25	부산대 약학대학	영남대 장영동	3
	■ 제 35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이준희(부산대), 강원구(대구가톨릭대), 정병선(영남대)			
36	2007. 6. 16	경성대 약학대학	경성대 박민수	3
	■ 제 36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이은경(부산대), 정해영(부산대), 이은경(영남대)			
37	2008. 7. 1	대구가톨릭대 약학대학	대구가톨릭대 우미희	4
	■ 제 37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우종수(영남대), 윤유석(부산대), 나민균(영남대), 신범수(대구가톨릭대)			
38	2009. 12. 5	부산대 약학대학	부산대 이복률	4
	■ 제 38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강재선(경성대), 김애경(대구가톨릭대), 정성훈(부산대), 민보경(대구가톨릭대)			
39	2010. 12. 4	영남대 약학대학	영남대 이응석	2
	■ 제 39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박필훈(영남대), 주상훈(대구가톨릭대)			

회수	일 시	장 소	지부장명	발표논문수
40	2011. 5. 28	영남대 약학대학	영남대 용철순	8
	■ 제 40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이유미(경북대), 이윤석(경상대), 나동희(경성대), 천경수(계명대), 신범수(대구가톨릭대), 김남득(부산대), 정태천(영남대), 박유미(인제대)			
임시 총회	2011. 8. 27	경성대 약학대학	영남대 용철순	
	■ 임시총회 - 기존 영남약학회를 대한약학회 영남지부로 개편하면서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 총회			
41	2012. 2. 25	경성대 약학대학	영남대 용철순	7
	■ 제 41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김종석(전북대), 고용석(식약청), 박종훈(숙명여대), 이응석(영남대), 민병선(대구가톨릭대), 이복률(부산대), 이승진(이화여대)			
42	2012. 12. 8	경북대 약학대학	영남대 용철순	8
	■ 제 42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권진원(경북대), 손기호(경성대), 이수연(계명대), 유진옥(부산대), 최혁재(영남대), 김연정(인제대), 우동균(경상대), 김익균(대구가톨릭대)			
43	2013. 12. 13	경상대 약학대학	부산대 이복률	10
	■ 제 43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강상수(경상대), 신용철(경상대), 김민수(부산대), 배은영(경상대), 신광희(경북대), 원권연(대구가톨릭대), 장재훈(영남대), 조관형(인제대), 표재성(경성대), Joydeb Kumar Kundu(계명대)			
44	2014. 12. 12	계명대 약학대학	계명대 공재양	10
	■ 제 44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김동영(영남대), 김성옥(인제대), 백인환(경성대), 서영호(계명대), 윤화영(부산대), 이민영(경북대), 최준석(대구가톨릭대), 한선영(경상대), Victor Hong(계명대), 이용재(DGMIF), 서영거(서울대)			
45	2015. 12. 11	대구가톨릭대 약학대학	대구가톨릭대 우미희	5
	■ 제 45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최재수(부경대), 신명철(경상대), 곽재환(경성대), 서혜선(부산대), 김성옥(인제대)			
46	2016. 12. 16	부산대 약학대학	대구가톨릭대 우미희	4
	■ 제 46회 정기총회 - 토론패널: 김정애(사회자, 영남대), 강재선(경성대), 민병선(대가대), 손동환(계명대), 송경식(경북대), 윤현주(인제대), 이윤석(경상대), 정연진(부산대), 정병선(영남대) - 학술발표: 나동희(경북대), 육심명(계명대), 남주원(영남대), 김익균(대가대)			
47	2017. 11. 24	대구경북첨복	경북대 이유미	5
	■ 제 47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김남득(부산대), 이창섭(경상대), 김동욱(경북대), 이병호(대구경북첨복), 박범준(부산대)			
48	2018. 11. 30	인제대 약학대학	경북대 이유미	5
	■ 제 48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손문호(대구경북첨복 신약개발지원센터장), 김태환(대구가톨릭대), 민경아(인제대), 한용해(CJ헬스케어 이노베이션센터장), 김주현(영남대)			

회수	일 시	장 소	지부장명	발표논문수
49	2019. 12. 13	경북대 약학대학	인제대 윤현주	6
	■ 제 49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허태린(경북대), 김태경(부산대), 진정욱(대구경북첨복), 장현욱(영남대), 민경아(인제대), 이승미(대구가톨릭대)			
50	2021. 12. 10	경상대 약학대학(온라인)	영남대 김종오	9
	■ 제 50회 정기총회 - 학술발표: 김대철((주)솔본), 손우성((주)노보렉스), 신주영(성균관대), 황성환(부산대), 류주희(경북대), 박민희(경성대), 김동연(경상대), 김수영(영남대), 이수진(대구가톨릭대)			



〈제 47회 학술대회 및 총회〉 2017 / 지부장 이유미

- 학술발표: 김남득(부산대), 이창섭(경상대), 김동욱(경북대), 이병호(대구경북첨복), 박범준(부산대)



〈제 48회 학술대회 및 총회〉 2018 / 지부장 이유미

- 학술발표: 손문호(대구경북첨복 신약개발지원센터장), 김태환(대구가톨릭대), 민경아(인제대), 한용해(CJ헬스케어 이노베이션센터장), 김주현(영남대)



〈제 49회 학술대회 및 총회〉 2019 / 지부장 윤현주

- 학술발표: 허태린(경북대), 김태경(부산대), 진정욱(대구경북첨복), 장현욱(영남대), 민경아(인제대), 이승미(대구가톨릭대)

5. 맺음말

대한약학회 부산지부를 바탕으로 1971년에 설립된 영남지부 영남약학회는 대구경북, 부산경남 지역의 약학 교육 및 연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명백합니다. 모든 영남지부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이 없었다면 영남지부가 현재까지 이어져 잘 정착되지 못했을 것이기에 모든 영남지부 교수님들께 역대 지부장들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대한약학회 산하 지부로서 매년 정기적인 학술대회 및 총회를 통해서 활발한 학술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자료 수집과 내용 작성에 도움을 주신 2021년 총무 최동영 교수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초창기 대한약학회 부산지부를 창립하신 김차덕, 이종찬 교수님과 영남약학회/영남지부를 창립하시고 이끌어오신 역대 지부장님들, 최병찬, 장억규, 권태훈, 노영재, 진갑덕, 권태훈, 서석수, 한보식, 권태훈, 이상록, 조경열, 양한석, 홍승철, 서병천, 이정규, 김종원, 한석규, 도재철, 이종철, 김종원, 임광식, 정시련, 이정규, 윤수홍, 이치호, 장영동, 문경호, 석귀덕, 박종희, 남두현, 신영희, 마은숙, 정해영, 박민수, 우미희, 이복률, 이웅석, 용철순, 이복률, 공재양, 우미희, 이유미, 윤현주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 영남지부 지부장 김종오

02

충청지부



1. 지부 개요

(사)대한약학회 충청지부는 1965년 설립된 충북지부(지부장: 김명원 교수)를 발전시켜 약학대학 충청지역 약학회원을 중심으로 약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학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1년 창립되었다.

2. 지부 역사

초대 지부장(2011-2년)에 충북대학교 약대 이종길 교수에 이어 충남대학교 약대 김영호 교수가 2대 지부장(2013-4년), 충북대학교 약대 김영수 교수가 3대 지부장(2015-6년), 고려대학교 약대 이기호 교수가 4대 지부장(2017-8년), 단국대학교 약대 서동완 교수가 5대 지부장(2019-20)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충북대학교 약대 황방연 교수와 충남대학교 약대 김상검 교수가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충청지부는 지부 4개 대학은 물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약학회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격년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3. 현재 임원 현황

직위	성함	소속
운영위원	정재경	충북대
	이경은	충북대
	이재영	충남대
	채정우	충남대
	변영주	고려대
	이기용	고려대
	김윤균	단국대
	최민구	단국대
총무위원장	박천웅	충북대
학술위원장	윤희열	충남대
재무위원장	윤재석	충북대
감사(전임 지부장)	서동완	단국대

4. 주요 학술 및 교육활동사항

창립총회

- 일시: 2011년 6월 16일
- 장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후생관
- 참여 기관 및 회원 소개
 - 정세영(제47대 약학회 회장, 경희대), 육순홍 교수(고려대), 안상미 교수(단국대), 김영호 교수(충남대), 오기완 교수(충북대), 김인규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이형규 박사(생명공학연구원), 명창선 교수(충남대), 홍진태 교수(충북대)

(사)대한약학회 충청지부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

- 일시: 2011년 6월 16일 (목) 14:30
 - 장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후생관 2층 국제회의실(2-5호)
 - 주최: (사)대한약학회 충청지부
- 사회: 황방연 교수 (충북대)

14:30~15:00	등록
15:00~15:20	개회사: 이종길 지부장 축 사: 정세영 대한약학회회장 축 사: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축 사: 윤여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15:20~17:20	Session 1 Chair: 명창선 교수 (충남대)
15:20~15:35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및 교수 소개 육순홍 교수 (고려대)
15:35~15:50	단국대학교 약학대학 및 교수 소개 안상미 교수 (단국대)
15:50~16:05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및 교수 소개 김영호 학장 (충남대)
16:05~16:20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및 교수 소개 오기완 학장 (충북대)
16:20~16:40	Coffee break
16:40~16:55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회원 소개 김인규 과장 (식약청)
16:55~17:10	생명공학연구원 및 회원 소개 이형규 본부장 (생공연)
17:10~17:20	산업체 및 기타 기관 회원 소개 명창선 교수 (충남대)
17:20~17:50	Session 2 Chair: 한상배 교수 (충북대)
17:20~17:50	오송바이오밸리 사업 소개 홍진태 교수 (충북대)
17:50~18:20	Session 3 사 회: 황방연 교수 (충북대)
17:50~18:20	(사)대한약학회 충청지부 창립총회
18:30	Reception

지 부 장 : 이종길 (충북대 약대)
 운영위원 :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김영호 (충남대 약대), 김재현 (단국대 약대),
 박영인 (고려대 약대), 오기완 (충북대 약대), 이형규 (생명공학연구원 오송출판본부)
 총무위원장: 황방연 (충북대 약대)
 학술위원장: 한상배 (충북대 약대)
 재무위원장: 이미경 (충북대 약대)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 프로그램> 2011 / 지부장 이종길



〈충청지부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 2011 / 지부장 이종길

제2회 학술세미나

- 일시: 2012년 10월 11일
- 장소: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 학술발표
 - Prof. Hai-ying Bao(China), 김규봉 교수(단국대), 김영수 교수(충북대), Dr. Georg Hempel (Germany), 김정기 교수(고려대), 강종순 박사(생명공학연구원), 안성훈 박사(화학연구원), 나민균 교수(충남대)
- 발표 제목
 - Research on an antitumor new drug from Medicinal fungi - Fomitopsis pinicola (Hai-ying Bao)
 - Metabolomics and its application on drug development (김규봉)
 - MD-2 is a pharmacological target against inflammatory diseases (김영수)
 - Optimizing pharmacotherapy in children with cancer using clinical pharmacometric research (Georg Hempel)
 - Puzzling inefficiency of influenza vaccines (김정기)
 - Small animal imaging in drug discovery (강종순)
 - New technology trends in ADME/PK study for drug discovery (안성훈)
 - New secondary metabolites with antimicrobial and cytotoxic activities from marine organisms (나민균)

2012

International Symposium

Trends in
fundamental technologies
for drug discovery

2012년 10월 11일(목) 1:20 p.m.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

충남대학교 의약품개발연구소
(사)대한약학회 충청지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BK21 신의약개발약료사업단
산학연관 네트워크 지원사업(대전TP)

〈제2회 학술대회 초대장〉 2012 / 회장 이종길

Invitation

It is our great pleasure to invite you to the 2012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ends in fundamental technologies for drug discovery", which is co-organized by Institute of Drug Research & Developmen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d the Chungcheong Regional Chapter,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Korea

Recently, substantive issues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new drug have risen. This symposium will be focused on international research-based on the study that are essential to develop new drugs. In this regard, this symposium has been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science and education in this field. Eight distinguished speakers from Germany, China, and Korea are invited in this symposium and will present about their recent investigations on pharmaceutical sciences.

We are sure that this symposium will provide the valuable information to the research work in this field. We welcome you all and wish you an enjoyable and enlightening symposium.

Sep. 28, 2012

Prof. Young Ho Kim, Dean, Director
College of Pharmacy /
Institute of Drug Research & Developmen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 Chong-Kil Lee,
President of the Chungcheong Regional Chapter,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Korea



〈제2회 학술세미나〉 2012 / 회장 이종길

제3회 학술세미나

- 일시: 2015년 6월 4일
- 장소: 충북대학교 오송바이오캠퍼스
- 학술발표
 - 이희순 교수(충북대), 염영일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영택 교수(단국대), 정혜광 교수(충남대), 이계형 박사(한국화학연구원), 송대섭 교수(고려대), 김태성 박사(식품의약품안전처)
- 발표 제목
 - Novel Heterocyclic Compounds: Nuclear Factor- κ B (NF- κ B) Inhibitory Activities and Cytotoxic Activities (이희순)
 - NDRG3-Mediated Lactate Signaling in Hypoxia (염영일)
 - Discovery of Novel Small Molecule RAGE (Receptor for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Inhibitors as Potential Disease-Modifying Agent for Alzheimer's Disease (한영택)
 - Anti-tumor Effects of Metformin: Effects of Metformin on AhR and Nrf2 Expression in Cancer Cells (정혜광)
 - Discovery of Potent and Selective PI3K Inhibitors (이계형)
 - Large Animal Models for Efficacy Test of Viral Vaccine and Adjuvants (송대섭)
 - Paradigm Shift to Alternative Test Methods for the Advancement of Regulatory Science (김태성)

Program	
Opening Remark	
Dr. Youngsoo K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대한약학회 충청지부장	
Session I	
Lecture I	Chair: Dr. Chong-Kil Le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3:30 ~ 14:00	Dr. Heesoon Le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Novel Heterocyclic Compounds: Nuclear Factor- κ B (NF- κ B) Inhibitory Activities and Cytotoxic Activities
Lecture II Chair: Dr. Hyun Sun Lee (KRIBB)	
14:00 ~ 14:30	Dr. Young Il Yeom (KRIBB) NDRG3-Mediated Lactate Signaling in Hypoxia
Lecture III Chair: Dr. So Young Park (Dankook University)	
14:30 ~ 15:00	Dr. Young Taek Han (Dankook University) Discovery of Novel Small Molecule RAGE (Receptor for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Inhibitors as Potential Disease-Modifying Agent for Alzheimer's Disease
Lecture IV Chair: Dr. Young Ho Ki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5:00 ~ 15:30	Dr. Hye Gwang Je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ti-tumor Effects of Metformin: Effects of Metformin on AhR and Nrf2 Expression in Cancer Cells
15:30 ~ 16:00	Coffee Break
대한약학회 충청지부 2015 Symposium on Drug Discovery 일시: 2015. 6. 4 (목), 오후 1:30-5:30 장소: 오송바이오캠퍼스 충북대학교 205 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1 호)	
Session II	
Lecture V	Chair: Dr. Sunkyoung Lee (KRICT)
16:00 ~ 16:30	Dr. Gohyoung Lee (KRICT) Discovery of Potent and Selective PI3K Inhibitors
Lecture VI	Chair: Dr. Ki Yong Lee (Korea University)
16:30 ~ 17:00	Dr. Daesuh Song (Korea University) Large Animal Models for Efficacy Test of Viral Vaccine and Adjuvants
Lecture VII	Chair: Dr. Soo Jung Sohn (MFDS)
17:00 ~ 17:30	Dr. Tae Sung Kim (MFDS) Paradigm Shift to Alternative Test Methods for the Advancement of Regulatory Science
Closing Remark	
Dr. Uy Dong Sohn (Chung-Ang University) 대한약학회장	



〈제3회 학술세미나〉 2015 / 회장 김영수

제4회 학술세미나

- 일시: 2019년 11월 20일
- 장소: 단국대학교 약학관 113호
- 학술발표
 - 변영주 교수(고려대), 손명진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재영 교수(충남대), 정경아 박사(식품의약품안전처), 류재용 박사(한국화학연구원), 노윤석 교수(충북대), 강명주 (단국대), 정재환(단국대 융합기술대학)
- 발표 제목
 - Discovery of new biofilm inhibitors derived from gingerols(변영주)
 - Human pluripotent stem cell-derived hepatic organoids (손명진)
 - Chondroitin sulfate-based nanoparticles for tumor penetration (이재영)
 - Systems biology and AI for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류재용)
 - UBE2N protects against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linked to defect in mitophagy (노윤석)
 - Design of microcrystal suspension of entecavir-3-palmitate for parenteral long-acting delivery (강명주)
 - Microneedle applications to drug delivery and diagnostics (정재환)

2019년 (사)대한약학회 충청지부 학술대회 및 총회

제약바이오 최신기술 동향과 산업화를 위한 실증/사례 연구



일시 2019년 11월 20일 (수) 13:30~18:00
장소 단국대학교 약학관
주최 (사)대한약학회 충청지부
후원 (사)대한약학회
 단국대학교 생명과학기술연구원(IBST)

모시는 글

‘제약바이오 최신기술 동향과 산업화를 위한 실증/사례 연구’라는 주제로 (사)대한약학회 충청지부 학술대회가 단국대학교 약학관에서 11월 20일 개최됩니다. 최신 제약바이오 연구동향 및 기술을 이해하고 산학연 연구자간 협력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대한약학회 충청지부장 서동완

행사 일정표

13:00-13:30	등록
13:30-13:40	개회사 서동완 교수 (대한약학회 충청지부장/단국대학교 약학대학) / 축사 이용복 교수 (대한약학회/전남대학교 약학대학)
13:40-15:40	Session I
13:40-14:10	Discovery of new biofilm inhibitors derived from gingerols 변영주 교수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14:10-14:40	Human pluripotent stem cell-derived hepatic organoids 손영진 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4:40-15:10	Chondroitin sulfate-based nanoparticles for tumor penetration 이재영 교수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15:10-15:40	개발 항암제 임상시험에 대한 일반적 고려사항 정영아 박사 (신용의원생명진료소)
15:40-16:00	Coffee break
16:00-18:00	Session II
16:00-16:30	Systems biology and AI for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류재용 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6:30-17:00	UBE2N protects against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linked to defect in mitophagy 노윤석 교수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17:00-17:30	Design of microcrystal suspension of entecavir-3-palmitate for parenteral long-acting delivery 강영주 교수 (단국대학교 약학대학)
17:30-18:00	Microneedle applications to drug delivery and diagnostics 정재환 교수 (단국대학교 융합기술대학)
18:00-18:10	폐회식
18:10-	총회 및 만찬

〈제4회 학술대회 초대장〉 2019 / 회장 서동완



〈제4회 학술세미나〉 2019 / 회장 서동완

5. 맺음말

충청지부는 지부 4개 대학은 물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약학회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격년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충청지부의 회원들과 인적 교류를 독려하여 충청권 약학교육의 발전과 약학연구의 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한약학회 75주년 기념사업으로 준비하는 ‘대한약학회 지부와 분과학회 역사’ 작업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충청지부 발전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지부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 충청지부 지부장 황방연, 김상겸

03

호남지부



1. 지부 개요

호남지부는 호남지역 약학대학 간 체계적이며 정기적인 교류를 통한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조의 장을 마련하고자 1965년 10월 15일 결성한 전남지부를 2008년 7월 10일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최후균 학장의 제안으로 당시 호남지역의 4개 약학대학 학장(오인준, 손동환, 임종필)이 모여 (사)대한약학회 호남지부 창립을 논의하고 (사)대한약학회 호남지부 창립 취지문 작성 및 발기인 서명을 받고 2008년 12월 16일 조선대 약대에서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학술대회를 개최, 회원들 간의 친목과 학문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2020, 2021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외활동이 활발하지 못했으나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 다시금 활발한 활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호남지부는 호남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약학 인력 양성을 위하여 약학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능동적 대처하고 지역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활성화 및 산학 컨소시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호남지역 약학대학의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류 및 연구 성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호남지역 약학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 학제 개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현재는 호남지역 8개교 약학대학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약학 양성, 제약산업의 발전, 약학진흥에 관한 심의연구 장려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 추진하고 있다.

지부장(소속)	연락처	주소
윤구(목포대학교)	061-450-2707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약학대학

2. 지부 역사

2-1. 연도별 임원 현황표

연도	회장	소속
2008	최후균	조선대
2009	최후균	조선대
2010	권동렬	원광대
2011	천승훈	전남대
2012	신태용	우석대
2013	김 훈	순천대
2014	한동설	목포대
2015	홍준희	조선대
2016	김성연	원광대
2017	이익수	전남대
2018	전 훈	우석대
2019	손영진	순천대
2020	채한정	전북대
2021	윤 구	목포대

2-2. 창립 역사 및 임원활동

1965년 10월 15일 전남지부가 결성되어 약학대학 간의 소규모 교류만이 이루어졌다. 체계적이며 정규적인 모임을 통한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 등에 관한 정보교류와 협조의 장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지역의 연구 활성화, 제약산업의 발전 등 약학 관련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기구가 필요했다.

이러한 이유로 호남지역의 약학 연구 역량 강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고 그에 부합하는 약학 인력 양성을 위해 약학대학의 교육 현안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대한약학회 호남지부를 2008년 12월 16일 확대 결성하였다. 2008년, 2009년 조선대학교 최후균 교수님이 회장을 역임하시고 2010년에는 원광대학교 권동렬 교수님, 2011년에는 전남대학교 천승훈 교수님이 회장을 역임하셨다. 2011년 15개 약학대학이 신규로 설립되었고 호남에는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정원 30명으로 시작하게 되어 호남지부 회원 학교로 참여하게 되었다. 2012년 우석대학교 신태용 교수님이 회장을 맡아서 운영해주셨으며 기존 4개 대학이 돌아가며 회장교를 마치고 새로이 2013년 순천대 김훈 교수님, 2014년 한동설 교수님이 회장을 역임하시며 학술대회를 이끌었다. 2015년부터 다시 조선대학교부터 시작하여 홍준희 교수님, 2016년 원광대학교 김성연 교수님, 2017년 전남대학교 이익수 교수님, 2018년 우석대학교 전훈 교수님, 2019년 순천대학교 손영진 교수님이 회장을 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후 신규로 2개교가 더 개교하였고 두 개교 모두 호남지부에 해당하는 전북대학교와 제주대학교여서 호남지부 회원교가 현재의 8개 학교로 확대되었다. 이후 2020년 전북대학

교 채한정 교수님이 신생교로 회장을 맡아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활동이 전면 중단되어 간단한 간담회로 학술대회가 대체되었으며 2021년에는 목포대학교 윤구 교수님이 회장을 맡았으나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 지부 활동이 정체되어있는 상황이다. 차후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는대로 정기총회를 거쳐 전북대학교와 제주대학교를 정관에 넣는 작업과 학술대회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3. 현재 임원 현황

직위	성함	소속
지 부 장	윤 구	목포대
부지부장	유진철	조선대
감 사	채한정	전북대
간 사	박은영	목포대

4. 주요 학술 및 교육활동사항

일자	구분	장소	내용
2008. 12. 16.	학술대회 및 총회	조선대학교	호남지부 확대 개편 및 연구 발표
2010. 6. 25.	학술대회 및 총회	원광대학교	Antiarrhythmic Constituents of Korean Natural Plants 등 4개 주제 강연
2011. 6. 23.	학술대회 및 총회	전남대학교	Conditional knockdown of p70 S6 kinase in liver protects against hepatic steatosis and systemic insulin resistance 등 6편 발표, 전라남도 한방산업진흥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 소개
2012. 11. 9.	학술대회 및 총회	우석대학교	
2013. 9. 12.	학술대회 및 총회	순천대학교	Enhanced oral absorption of a highly hydrophilic polar drug by forming ionic complex with bile acid derivative 등 6개 주제 강연, 대학원생 6명 발표
2014. 10. 17.	학술대회 및 총회	목포대학교	The pathomechanism of RtxA1 toxin in vibrio vulnificus infection 등 6개 주제 강연
2015. 10. 29.	학술대회 및 총회	조선대학교	Natural Product in Drug Discovery 등 6개 주제 강연
2016. 11. 17	학술대회 및 총회	원광대학교	호남지역 약업계의 미래와 전망 Reelin in the regulation of synaptic plasticity 등 6개 주제 강연
2017. 11. 16	학술대회 및 총회	전남대학교	호남지역 약학 연구의 교류 및 발전 방향 My recent studies on exosomes and heparin derivatives 등 6개 주제 강연

일자	구분	장소	내용
2018. 11. 15	학술대회 및 총회	우석대학교	호남지역 약학 연구의 교류 및 발전 방향 Drug discovery from natural products 등 6개 주제 강연
2019. 11. 27	학술대회 및 총회	순천대학교	호남지역 약학연구의 새로운 발전방향 Impact of Fine Particle Air Pollution on Vascular Ageing and its Underlying Mechanism 등 6개 주제 강연

2008년 12월 16일에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호남지부 확대 개편 총회 및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으며 2010년 원광대학교 약학대학에서 Antiarrhythmic Constituents of Korean Natural Plants 등 4개 주제 강연의 학술대회를 열었다.

2011년에는 6월 23일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광주은행홀에서 호남지부 학술대회를 진행하였고,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배은주(우석대) 교수가 Conditional knockdown of p70 S6 kinase in liver protects against hepatic steatosis and systemic insulin resistance, 이성희(원광대) 교수가 Mucosal innate immunity regulates intestinal tumorigenesis, 기성환(조선대) 교수가 Interleukin-22 as a Potential Therapeutic Agent for the Alcoholic Liver Injury, 임영준(전남대) 교수가 Structural and Functional Analysis of the human TSG101/HIV-1 Gag PTAP Interaction, 윤구(목포대) 교수가 천연물 유래 인슐린저항 개선 유효성분의 구조 최적화 연구, 그리고 김민선(순천대) 교수가 Neurotoxic Effects of Environmental Toxicant 1,2-DAB 주제로 학술 발표를 하였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정희 원장의 전라남도 한방산업진흥원과 이주선 박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의 소개 및 순천대 약대(이성태 부학장), 목포대 약대(한동설 학장), 우석대 약대(신태용 학장), 원광대 약대(이영미 학장), 조선대 약대(이원재 학장), 전남대 약대(천승훈 학장)의 각 학교 소개가 이어졌다.

2012년에는 11월 9일 우석대에서 약학대학에서 총회 및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2013년에는 9월 112일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대회의실에서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진우(목포대) 교수가 Enhanced oral absorption of a highly hydrophilic polar drug by forming ionic complex with bile acid derivative, 한영택(우석대) 교수가 Discovery of Novel RAGE(receptor for advanced glycation end-products) Inhibitors as Potential Disease-Modifying Agent for Alzheimer's Disease, 오현철(원광대) 교수가 남극지역류 유래 생리활성물질연구, 김정만(전남대) 교수가 Regulation of Signaling and Endocytosis of G protein-coupled Receptors, 신상미(조선대) 교수가 The molecular mechanisms of naturally occurring compounds in ameliorating the oxidative stress, 최경희(순천대) 교수가 학생 필수 실무실습 시행의 실제 등 총 6편의 주제 발표를 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Kushal Sharma(목포대)

학생이 Identification of voltage gated potassium channels at the inner hair cell afferent synapse in the mammalian cochlea, 천세명(우석대) 학생이 Protocatechuic acid extends lifespan and increases stress resistance in caenorhabditis elegans, 장보윤(원광대) 학생이 Novel strategies for the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induced by climate change, 양희선(전남대) 학생이 Structural mechanism of intracellular lipid transport by lipid transfer proteins, 김가람(조선대) 학생이 Role of Tumor progression locus2 on the signaling pathway of interleukin-17 to mediate tumorigenesis and breast cancer, 김광진(순천대) 학생이 Developing anti-osteoporotic agents 등 대학원생들의 발표가 있었다.



〈순천대학교 학술대회〉 2013 / 회장 김훈

2014년에는 목포대학교 약학대학에서 10월 17일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총 6명의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셨으며 김영란(전남대) 교수의 The pathomechanism of RtxA1 toxin in *Vibrio vulnificus* infection, 안숙희(원광대) 교수의 Effects of gene polymorphisms on the risk of warfarin bleeding complications after stabilization of anticoagulation, 김주영(우석대) 교수의 Preparation of desmopressin orally disintegrating microparticles using the fluidized-bed coating process, 지준필(조선대) 교수의 Semi-fluorinated block copolymers for delivery of therapeutic



〈목포대학교 학술대회〉 2014 / 회장 한동설

agent, 장동조(순천대) 교수의 Design, Synthesis and Biological Evaluation of (-)-Deguelin Analogues as Novel HSP90 Inhibitor Targeting Angiogenesis, 주관교인 목포대학교의 백동재 교수의 Synthesis and evaluation of fatty amide chain modified alpha-galactosylceramide analogues for NKT Cell activation의 총 6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2015년에는 10월 29일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에서 Natural Product in Drug Discovery 등 6개 주제 강연이 있었다.

2016년에는 11월 17일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멀티미디어실에서 호남지역 약업계의 미래와 전망이란 주제하에 서정원(원광대) 교수의 Research for the novel compound regulating proliferation, migration and differentiation of neural stem cells, 이금화(조선대) 교수의 Reelin in the regulation of synaptic plasticity, 이미경(우석대) 교수의 Endocytosis mechanisms for the uptake of lipid-based nanoparticles in cancer cells, 이은영(목포대) 교수의 Molecular participants in spontaneous activity of neonatal cochlear supporting cells, 백수희(순천대) 교수의 Population pharmacokinetic modeling of an antihypertensive drug, 임영준(전남대) 교수의 Structural mechanism of antifungal resistance by fungal transcription factor Upc2 and its implication for drug discovery의 총 6편의 학술발표가 있었다.

2017년에는 11월 16일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1호관 102호실에서 신대환(목포대) 교수의 CD133 antibody-conjugated immunoliposomes for glioblastoma stem cell therapy, 황승림(조선대) 교수의 My recent studies on exosomes and heparin derivatives, 장동조(순천대) 교수의 Imaging and applications of activity-based fluorescent probes and [18F]-PET tracers targeting biomarkers of hypoxia, 이상민(원광대) 교수의 Extracellular matrix remodeling in vivo for enhancing tumor-targeting efficiency of nanoparticles using the pulsed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김권섭(전남대) 교수의 Interaction of EGFR to δ -catenin leads to δ -catenin phosphorylation and enhances EGFR signaling, 황인현(우석대) 교수의 New natural products with diverse chemical structures from targeted types of fungi의 총 6편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2018년에는 11월 15일 우석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조남기(전남대) 교수의 Drug discovery from natural products, 이금화(조선대) 교수의 Development and modulation of inhibitory synapse in the brain, 조승식(목포대) 교수의 Purification and partial characterization of a serine metalloprotease C142 from Bacillus subtilis C142 and mass production using medium sized fermentor for commercialization, 양진원(우석대) 교수의 biological role of prohibition 1 in liver, 신소영(원광대) 교수의 Application of 3D printing technologies for the development of novel drug formulations, 백만정(순천대) 교수의 Metabolic profiling and pattern analyses for monitoring of biomarkers in mouse model with asthma의 총 6편의 학술발표가 있었다.

2019년에는 11월 27일 순천대학교 천연물신약연구소 2층 죽호홀에서 호남지역약학연구의 새로운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백수희(순천대) 교수의 순천대학교 실무실습 현황과 지역약국실습에 대한 고찰, 김은애(조선대) 교수의 연구약학 실무실습 진행 현황 및 지향점, 김광준(우석대) 교수의 Short-term clinical outcomes and assessment of diabetes self-care activities of the community pharmacy diabetes care service in South Korea: a pilot study, 옥민호(목포대) 교수의 Impact of fine particle air pollution on vascular ageing and its underlying mechanism, 기지예(원광대) 교수의 Pharmacological effect of prohibited combination pair Panax ginseng and Veratrum nigrum on colorectal metastasis in vitro and in vivo, 김규동(전남대) 교수의 Development of biologically interesting molecules based on medicinal chemistry의 총 6편의 발표가 있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인하여 대규모 학술행사를 개최할 수 없어 주관대학인 전북대학교 약학대학에서 1, 2차로 나누어 간담회를 갖았다. 1차 12월 9일, 2차 12월 16일에 전북대 채한정 학장, 원광대 이성희 학장, 우석대 강민구 학장, 조선대 유진철 학장, 목포대 윤구 학장, 순천대 손영진 학장, 전남대 김권섭 학장, 제주대 석승현 학장이 모여 6년제 약대 교육과정, 약학교육인증평가 대비 계획 및 진행사항, 의약학계열 편입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1, 2차 간담회〉 2020 / 회장 채한정

2021년에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대규모 학술행사는 무리라는 판단으로 향후 간담회 형식의 총회를 통해 호남지부 정관 수정을 진행하고자 한다.

5. 맺음말

2020년, 2021년 사사유래 없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학술대회, 정기총회를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정착이 되면 다시 호남약학회 지부회원님들이 모여 학술대회도 열고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차후 더욱 발전된 호남지부를 기대해 봅니다.

2021 호남지부 지부장 윤구

04

감염미생물·면역약학 분과학회



1. 학회 개요

미생물은 인류와 함께 발전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 인간과 함께 할 것이다. 미생물은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는 의학과 약학의 중요한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항생제, 항암제, 소염제 등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많은 약물의 소중한 보고이자 생산에 필수적인 수단이다. 또한 면역은 우리 몸의 방어기전과 치료, 백신 개발의 핵심 기전이다. 영국의 의사였던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법을 개발한 이래, 많은 연구자들이 천연두,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파상풍, 폐렴 등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여 질병 극복에 공헌하였으며, 수많은 미생물학자들이 항생제를 개발하고 대량 생산하여 인류의 수명을 두 배 이상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감염미생물 및 면역약학 분과회는 단일 분과이지만 질병을 일으키는 기전과 방어하는 기전, 약물의 원천과 생산, 작용 표적, 그리고 질병의 발생으로부터 전파와 예방까지 너무나 많은 부분을 아우르는 중요한 분과이다. 최근 들어 미생물과 면역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동물 병원체로만 알려졌던 미생물이 인간에게서도 질병을 일으키고 있으며, 열대지방에서만 발생하던 말라리아가 이제는 지구온난화와 운송수단의 발달로 전 세계에서 관찰되고 있다. 이제 미생물 감염 질병은 국경과 경계가 없어진 상태이며, 전세계의 공동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AIDS, 말라리아, 독감, 콜레라 등은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질병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리되어야만 하는 질병이 되었다. 최근의 COVID-19 사태는 바이러스 감염이 얼마나 쉽게 팬데믹화 될 수 있는 지와, 이를 막기 위해 국가간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새로운 병원체가 계속 보고되고 있으며,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다제 내성균의 출현 및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들이 관찰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보건관리 기구들이 미생물을 응용한 유전공학 제품, 백신, 면역 치료제 등 생물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백신연구소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IVI)를 설립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하여 새로운 질병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과거에 병원균으로 분류되어 있던 균이 이제는 정상세균군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인체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상세균군으로써 인체의 발달과 건강, 심지어 뇌와 지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새로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최근 프로바이오틱스 산업의 비약적 발전이라는 큰 파급효과를 낳았다. 또한 미생물 감염에 있어 동물과 사람 사이에 명확한 장벽이 있다고 생각되던 것도, 최근에는 많은 인수공통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이러한 장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감염미생물 및 면역약학 분과회는 회원 교수들과 함께 이러한 새로운 학문적, 사회적, 임상적, 산업적 필요성에 부응하고, 미생물-면역분야의 새로운 사조와 증가한 중요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또한 2011년도부터 시행된 6년제 약학대학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발맞추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및 면역계에 대한 기본지식부터 임상에 빈번히 사용 되는 항생제, 생물의약품들, 감염성 질환과 면역계 질환, 그리고 실제 임상 사례들까지 폭넓은 지식과 응용을 위한 교육을 심화하고 있다.

2. 학회 역사

2-1. 연도별 임원 현황표

연도	회장	소속	주요내용
1970-1971	김병각	서울대	미생물약품화학분과회로 창립했으나 천연물화학분과회와 통합분과로 운영함
1991-1992	김병각	서울대	미생물학 분과학회로 창립함
1993-1994	한성순	충북대	
1995	정규선	숙명여대	
1996-1997	김기호	중앙대	
1998-1999	최응칠	서울대	
1999-2000	심미자	서울시립대 생명공학과	
2001-2002	이강만	이화여대	
2003	남두현	영남대	
2004	이동권	성균관대	
2005	김홍진	중앙대	
2006	김동현	경희대	
2007-2008	유진철	조선대	
2009-2010	이종길	충북대	
2011	김경제	삼육대	
2012	임재윤	우석대	
2013	송석길	충북대	
2014	신혜순	덕성여대	
2015	황광우	중앙대	
2016	임미정	숙명여대	
2017	이성태	순천대	
2018	김동욱	한양대	
2019	조유희	차의과대	
2020	정광원	가천대	
2021	이준희	부산대	

2-2. 창립 역사 및 임원활동

»분과학회의 창립: 미생물약품화학분과학회 (1970년-1972년)

감염미생물 및 면역약학 분과학회의 시작은 5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에 당시 대한약학회의 분과회 설립 규정에 따라 15개 분과회 중 하나로 미생물약품화학분과회가 창립되었다. 김병각 교수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께서 초대 분과회장을 맡으셨으나, 1972년 정관개정에 따라 정회원 수가 2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기면서 천연물화학 분과와 함께 통합 분과회로 운영되게 되었다.

»분과학회의 재시작: 미생물학 분과학회 (1991년-1997년)

1990년대에 들어서 정관에 따른 정회원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1991년 1월 11일, 미생물학 분과회가 재창립 되었다. 이때 “미생물학 분과회”라는 명칭으로 독립한 본 분과회가 이후 몇 차례 명칭 변경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91년에 다시 시작한 분과회는 1997년 미생물 및 면역학분과로 거듭날 때까지 착실히 초기의 기초를 다져 나갔다. 특히 초창기 시작되었던 분과회 주관의 영지버섯 국제심포지엄과 하계 심포지엄 및 세미나가 정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분과회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분과회 활동이 있었다.

- 1991년 6월 10일 제3회 영지버섯 국제 심포지엄 (하얏트호텔)
- 1992년 6월 제4회 영지버섯 심포지엄 개최 (하얏트호텔)
- 1993년 6월 17일 제5회 영지버섯 심포지엄 개최 (하얏트호텔)
- 1995년 4월 12일 제6회 영지버섯 심포지엄 개최 (하얏트호텔)
- 1997년 6월 17일 제7회 영지버섯 심포지엄 개최 (하얏트호텔)
- 1993년 7월 2일 분과회 심포지엄 개최 (충북대)
- 1995년 12월 8일 세미나 개최
- 1997년 12월 5일 심포지엄 개최 (면역반응과 신약개발) (중앙대)

지금과 달리 학회나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이 드물고 힘들던 시기에, 이러한 학술행사들을 지속적으로 개최했던 초기 노력들이 저희 분과회가 굳건히 자리잡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시기에 분과회를 이끌었던 분과 회장님들은 이렇듯 많은 봉사과 공헌을 하셨다. 간략히 초기 회장님들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회장직 수행 당시의 소속과 직함이다.

- 1970-1971년, 1991-1992년 분과회장 김병각 교수 (서울대)

김병각 회장은 1971년에 처음 미생물약품화학 분과회가 창립될 당시에도 회장을 맡으셨었으며, 다시 1991년에 미생물학 분과회로 독립될 때에도 다시 회장을 맡으시면서 저희 분과 기초를 다지셨

다. 1966년부터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1979-1980 한국균학회 회장을 맡으시는 등, 진균류 및 방선균류의 배양, 성분, 원형질체 융합, 및 약효에 관한 연구와 항생물질의 내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1993-1994년 분과학회장 한성순 교수 (충북대)

한성순 회장은 69년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임용된 이래, 약사금탑상, 한국생약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시는 등 약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다.

- 1995년 분과학회장 정규선 교수 (숙명여대)

정규선 회장은 1970년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에서 교수를 시작하신 후, 대한약학회 재무간사, 미생물분과학회장을 역임하셨고, 서울시 약사회 학술위원을 비롯해 보사부 중앙약사심의위원, 대한약학회 신약개발 국제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약학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셨다.

- 1996-1997년 분과학회장 김기호 교수 (중앙대)

김기호 회장은 1967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임용된 이래, 1982년-1985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학장을 역임하시는 등 약학 교육 발전을 위해 기여하셨다.

▶분과학회의 발전: 미생물 및 면역약학 분과학회 (1998년-2011년)

분과회는 당시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면역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7년에 분과회 명칭을 미생물학 분과회에서 미생물 및 면역약학 분과학회로 개칭하면서 한단계 거듭나게 되었다. 이 때부터 새로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분과회의 도약기가 시작되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우리 분과회가 출간한 종합미생물학, 신종합미생물학 교재가 보급되면서 약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분과회 교재 및 실험서의 교재 채택이 증가하면서 분과회 재정이 확보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하계연수 및 동계 심포지엄이 재정비되어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분과회원 간의 교류도 활발해졌고 다음의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 2002년 2월 1-2일 동계심포지엄 (무주리조트)
- 2002년 6월 21-22일 하계 심포지엄 (지리산프라자호텔)
- 2003년 2월 14-15일 동계심포지엄 (무주리조트)
- 2003년 7월 10-11일 하계 심포지엄 (천안상록리조트)
- 2004년 2월 18-19일 동계심포지엄 (천안상록리조트)
- 2005년 2월 17-18일 동계심포지엄 (무주리조트)

또한 이 시기에 우리 분과회장으로도 활약해 주신 이강만, 남두현, 김홍진, 교수가 항생물질학(이강만, 2001), 생물의약품학(김홍진, 남두현, 2011년) 등을 저술하여 여러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게 되었다. 이는 미생물 및 면역약학 분야의 지평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약학 교육에 큰 기여한 중요한 활동이었다. 아래는 이 시기의 분과회장은 다음과 같다.

- 1998-1999년 분과회장 최응칠 교수 (서울대)
- 1999-2000년 분과회장 심미자 교수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
- 2001-2002년 분과회장 이강만 교수 (이화여대)
- 2003년 분과회장 남두현 교수 (영남대)
- 2004년 분과회장 이동권 교수 (성균관대)
- 2005년 분과회장 김홍진 교수 (중앙대)
- 2006년 분과회장 김동현 교수 (경희대)
- 2007-2008년 분과회장 유진철 교수 (조선대)
- 2009-2010년 분과회장 이종길 교수 (충북대)
- 2011년 분과회장 김경제 교수 (삼육대)

▶ 분과학회의 현재: 감염미생물 및 면역약학 분과학회 (2012년-현재)

신종플루라고 불리웠던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으로부터 대두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2011년도부터 시행된 6년제 약학대학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부응하고자 우리 분과학회는 2012년에 미생물 및 면역약학 분과회에서 감염미생물 및 면역약학 분과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는 약학의 임상교육 심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병원미생물, 감염성 질환, 면역질환, 항생제, 생물의약품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체 분과회원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었다. 2013년에 감염치료약학 교재를 출판하여 감염성 질환의 임상치료분야 교육을 강화하였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에는 약대 6년제의 정착과 시스템화를 위해서 국가시험, 표준교과과정, 실무실습, 평가인증제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 분과회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약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재의 개발에도 노력을 경주하여, 약품미생물학과 최신면역학 등의 분과회 교재를 편찬하였고, 이들은 약학대학의 표준교재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약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또한 바이오의약품학(김홍진, 남두현, 최준석 공저, 2019년)을 비롯한 생물의약품학과 감염치료약학 분야 교재의 개정 출간이 있었다. 더불어 임상 문항을 개발하여 분과회 문제집을 재정비하는 일도 진행되어, 약품 미생물학 요약 및 연습과 출판이 이루어졌다.

또한 임상 실무 실습교육에 응용될 수 있는 기본지식으로서 병원성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증, 나아가 임상에 빈용되는 항생제와 생물의약품 그리고 임상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있으며, 실험미생물학 실험서도 출판하였다. 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교육적 차원의 활동들이다. 가장 최근이었던 이 기간 동안의 분과회장은 다음과 같다.

- 2012년 분과회장 임재운 교수 (우석대)
- 2013년 분과회장 송석길 교수 (충북대)
- 2014년 분과회장 신혜순 교수 (덕성여대)
- 2015년 분과회장 황광우 교수 (중앙대)
- 2016년 분과회장 임미정 교수 (숙명여대)
- 2017년 분과회장 이성태 교수 (순천대)
- 2018년 분과회장 김동욱 교수 (한양대)
- 2019년 분과회장 조윤희 교수 (차의과대)
- 2020년 분과회장 정광원 교수 (가천대)
- 2021년 분과회장 이준희 교수 (부산대)

3. 현재 임원 및 회원 현황

3-1. 임원 현황

직위	성함	소속
회장	이준희	부산대
수석부회장	최성숙	삼육대
부회장	최준석	대구가톨릭대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기	고려대
재무위원회 위원장	하은미	대구가톨릭대
학술위원회 위원장	강효정	경북대
국시위원회 위원장	임재운/신혜순	우석대/덕성여대
자문위원회 위원장	조윤희	차의과대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효선	덕성여대
상조위원회 위원장	한정민	연세대
감사	민혜영	중앙대

3-2. 정회원 현황

강복윤(전남대), 강재선(경성대), 강효정(경북대), 고현정(강원대), 김정제(삼육대), 김광미(단국대), 김동욱(한양대), 김동현(경희대), 김성훈(연세대), 김연정(인제대), 김우성(이화여대), 김정기(고려대), 김홍진(중앙대), 민혜영(중앙대), 송석길(충북대), 신혜순(덕성여대), 유수연(순천대), 진철(조선대), 윤재우(계명대), 이민영(경북대), 이성태(순천대), 이용구(한양대), 이원식(성균관대), 이재철(성균관대), 이종길(충북대), 이준희(부산대), 이창섭(경상대), 이충호(동국대), 인경수(경희대), 임미정(숙명여대), 임재운(우석대), 장선영(아주대), 장재훈(영남대), 장준(이화여대), 전희숙(가천대), 정광원(가천대), 정연석(서울대), 정용우(고려대), 조사연(중앙대), 조승식(목포대),

조유희(차의대), 조효선(덕성여대), 최성숙(삼육대), 최준석(대가대), 하은미(대가대), 한용문(동덕여대), 한정민(연세대), 허태희(가톨릭대), 황광우(중앙대), 이용구(한양대), 박영준(제주대), 이향미(동덕여대)

4. 맺음말

현재, 감염미생물 및 면역약학 분과회는 다시 한번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COVID-19 팬데믹 사태는 감염성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불러일으켰으며, 다시 백신 개발과 생산이 제약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앞으로도 항 바이러스제의 개발과 생산이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의 중요성으로부터 약학 전문인이 행정과 외교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될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서도 최근의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의 엄청난 성장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 건강에 미생물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대한 약학분야에서 감염미생물 및 면역약학 분과가 차지하는 교육과 연구에서의 위상은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그동안 분과회를 창립하시고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님들과, 많은 활동을 함께 해오신 분과회 회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21 감염미생물면역약학 분과학회 회장 이준희

05

물리약학 분과학회



1. 학회 개요

현대 약학은 종래의 기술적 경험과학으로부터 계량적, 이론적 단계로 들어가고 있으며, 화학, 생물학, 물리학 및 의학등의 경계영역에 속하는 학문이어서 그 성격이 복잡 다양하여 체계적 통일성이 결여되기 쉬운 학문이다. 이에 약학의 기본이 되는 물리약학의 학문은 약사들에게 생물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의 물리적, 화학적, 분자생물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다른 여러 학문에서 선택되어진 원리와 방법으로 구성된 응용과학의 기본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초기의 물리약학(physical pharmacy)은 약학 실무에 적용되는 정량적이고 이론적인 과학 원리를 다루는 약학의 한 분야로 그 자체의 광범위한 원리를 개발하여 약학의 사실적 지식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통의 화학의약품외에도 생물학적 의약품의 많은 적용 및 활용으로 현대 물리약학은 약학 실무에서 생체 고분자의 3차 구조적 특성을 포함한 생물의약적인 특성(biomedical aspects)까지도 아우르며 고도로 통합된 지식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바이오의약품이 의약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약학 분야에서는 생체고분자의 기능뿐만 아니라 구조 및 물성을 연구하는 것이 다른 어떤 학문 분야에서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물리약학은 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원리에서 열역학, 용액, 제형원리, 속도론, 계면과학, 고분자과학 및 약물전달 등 약학 과학의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최근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의 기본 원리를 아우르는 의약 생명공학, 바이오의약품의 프리포물레이션, 고분자 약물전달체 및 표적화 등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분과회 초창기 홍문화, 이길상, 정기용 교수는 마틴의 physical pharmacy 책을 ‘약품물리화학’ 교과서로 만들어 물리약학 교육의 장을 열고, 각 학교의 교육 과정에 도입되어 오다가, 1985년 물리약학 분과회가 정식으로 결성되었다. 이후 정기용, 유병설, 이광표, 이계주, 한석규, 정우태, 최윤수, 이종달, 김종국, 오인준, 최후균, 오승열, 황성주, 이승진, 이봉진, 손동환, 박은석, 박일영, 육순홍 회장을 거쳐 현재 이범진 교수가 회장으로 분과회를 이끌고 있다. 매년 분과회 모임을 통해 물리약학 교재 편찬 및 교류를 진행해 왔으며, 약학교육 및 연구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최근 약학교육의 6년제 시행 이후, 약학 전반의 기초에 해당하는 학문인 물리약학은 약사국가고시에 포함되었으며, 각 약학대학에서는 물리약학 교수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약 49여명의 교수들이 물리약학 분과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약학회 및 약학교육협의회의 분과회 중 지속 적으로

회원수가 늘어나는 가장 성장이 빠르고,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과회가 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물리약학 교육을 위해 물리약학 분과회에선 새로운 교과서인 ‘마틴의 물리약학’ 교재를 새롭게 출판하였으며, 정기적인 수정, 보완을 통해 교재의 완성도 및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준교과 과정, 약사 국가시험 등을 논의하여 6년제 제도의 정착을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또한 매년 분과회 심포지엄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물리약학 교육 및 연구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학회 역사

2-1. 연도별 임원 현황표

연도	회장	소속	주요 내용 및 임원
1970	정기용	이화여대	
1972-1984			1971년 15개 분과회의에 속했으나, 1972년 7개 분과로 축소되면서 공식적인 기록은 없음. 1985년에 병원약학회와 더불어 물리약학분과회가 다시 신설됨.
1985-1986	정기용	이화여대	
1987-1989	유병설	서울대	
1990-1991	이광표	중앙대	
1992-1994	이계주	충남대	
1995-1996	한석규	부산대	
1997	정우태	충북대	
1998-1999	최윤수	효성여대	
2000-2004	이종달	영남대	
2005-2008	김종국	서울대	
2009-2010	오인준	전남대	
2011-2012	최후균	조선대	총무: 오경택
2013	오승렬	숙명여대	총무: 안희철
2014	황성주	연세대	총무: 김진기
2015	이승진	이화여대	부회장: 이봉진, 총무: 손우성, 학술: 김진기
2016	이봉진	서울대	부회장: 손동환, 총무: 서민덕, 학술: 손우성
2017	손동환	원광대	부회장: 박은석, 총무: 박정숙, 학술: 서민덕
2018	박은석	성균관대	부회장: 박일영, 총무: 이윤석, 학술: 박정숙
2019	박일영	충북대	부회장: 육순홍, 총무: 박진우, 학술: 이윤석
2020	육순홍	고려대	부회장: 이범진, 총무: 김주영, 학술: 박진우
2021	이범진	아주대	부회장: 미 정, 총무: 박성진, 학술: 김주영

2-2. 창립 역사 및 임원활동

» 물리약학 협의회 발족

기록에 의하면 1970년에 물리약학분과회가 창립되었으며 한시적으로 약제학 분과와 통합 분과회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1982년 11월 2일 관철동 소재 대한약품공업협회(현 제약협회)에서 6개 약학대학 교수 8명이 창립 멤버가 되어 ‘약품물리화학 및 약품공학 교수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다음은 당시의 회의록이다.

- 약품물리화학 및 약품공학 교수 협의회(1982. 11. 2)
- 일시: 1982. 11. 2(화) 14:00
- 장소: 대한약품공업협회 2층 회의실
- 참석자: 정기용(이화여대), 유병설(서울대), 김종국(서울대), 김종윤(영남대), 한보식(영남대), 신화우(원광대), 김남희(성신여대, 불참), 이광표(중앙대), 이계주(충남대)
- 회의내용: 1) 협의회 대표 선출, 회장: 정기용, 간사: 김종국
2) 회원확보 방안, 20개 약학대학의 강의 담당자를 재확인하고 참여하도록 권유한다.

당시 국내 약대에는 ‘물리약학’이라는 명칭의 강의는 없었다. 물리약학의 선수과목에 해당하는 물리화학, 약품물리 혹은 제제공학, 화학공학 등의 강의를 일부 약대의 제약학과에 개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연구회 명칭을 정한 것이다. 이후에 김양배(서울대), 이은옥(숙명여대), 한석규(부산대), 정우태(충북대), 이종달(영남대), 오인준(전남대), 최윤수(효성여대) 교수가 회원이 되면서 당시 약대에서 물리화학 및 약품공학관련 강의를 일부라도 담당하였던 모든 교수가 회원이 되었다.

이후 협의회에 무기약품제조화학 담당교수들이 회원으로 합류하고, 신설 약대에 채용된 교수가 동참하면서 20개 약대 중에서 11개 약대에 소속된 교수가 회원이 되었다. 정기용(이대), 유병설(서울대), 김양배(서울대), 김종국(서울대), 이은옥(숙대), 이광표(중앙대), 김종윤(영남대), 이종달(영남대), 최윤수(효성여대), 신화우(원광대), 이계주(충남대), 정우태(충북대), 한석규(부산대), 오인준(전남대) 교수가 회원이 되면서 모임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 물리약학분과학회 설립

협의회는 초기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에서 교육방향과 교재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는 다른 성격의 협의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1984년에는 대한약학회에 분과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모임의 명칭을 물리약학으로 변경하였다. 1985년 대한약학회 회장으로 한덕룡 교수가 취임하면서 정식으로 물리약학 분과가 설립되었다. 물리약학 교수 협의회 회장인 정기용 교수가 초대 분과학회장, 협의회 간사이었던 김종국 교수가 물리약학 분야 편집위원을 맡게 되었다. 물리약학 분과설립을 자축하는 의미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과 공동으로 1986년 10월 23일(목)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

서 ‘의약품의 물성과 설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물리약학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후 매년 분과 모임을 갖고, 세미나 혹은 심포지움을 하면서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이 당시 약학회에서는 분과회 임원진이었던 홍문화, 이길상, 정기용, 김종국, 유병설 교수님들이 물리약학 분과를 대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초기 물리약학분과회의 토대를 닦아주시는 많은 역할을 하였다. 이후 90년대에 들어 분과학회도 자리가 잡혀가기 시작하였고, 정서영, 이광표, 황성주, 이계주, 한석규, 박일영, 최윤수, 이종달등의 교수님들이 80년대 창설 교수님들의 뒤를 이어 물리약학분과회의 발전을 위해 약학회내외에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1990년 6월 8일에는 1989년 12월 15-16 양일 동안 작고한 유병설 당시 물리약학 분과학회장을 추모하는 국제심포지움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개최하였다. 1992년에 충남대 약대 이계주 교수가 분과학회장이 되면서 서울대 약대에서 사용하던 실험실습서를 바탕으로 ‘물리약학 실험실습서’도 만들었다. 1994년에는 Martin의 physical pharmacy 개정판을 번역하여 재편집한 것을 종전에 사용하던 ‘약품물리’대신 ‘물리약학’이란 명칭의 교과서로 만들어 물리약학 분과학회 이름으로 출간하였다. 또한 1997년 10월 31일 덕성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한약학회 정기총회 기간 중에 개최한 물리약학 분과학회 모임에서 당시에 대두된 6년제 교육안과 약사국가고시 개편안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약사국가고시에 물리약학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분과학회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아울러 ‘물리약학 학부교육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데 회원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연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로 분과학회장으로 선출된 효성여대 약대 최윤수 교수는 1998년 1월 18-19 양일간 충남대 약대에서 물리약학분과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물리약학 교과과정의 점검 및 교육내용의 통일된 가이드라인 설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 당시 합의 되었던 내용은, “물리약학 교육은, 그동안 국가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강의명칭, 내용, 시간, 학점, 전공필수 여부 등에 자율성이 허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약학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물리약학 교육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과 교육지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1) 전국 약대의 물리약학 및 관련과목 개설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2) 물리약학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대학에 개설토록 노력하며, 3) 전공교수가 없는 대학에 전공교수를 채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4) Martin의 physical pharmacy 번역본인 물리약학을 참고하여 강의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분과회의 도약기가 시작되며 양적, 질적 향상을 준비하게 되었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설 약대의 증설과 함께 많은 젊은 교수님들의 분과회 유입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분과회 규모가 팽창됨과 동시에, 분과회 교재 및 실험서의 교재 채택이 증가하면서 분과회 재정이 확보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계 및 동계연수의 개최, 그리고 재정비된 약학회 분과 심포지엄 개최가 되면서 분과회원 간의 교류 및 분과회 활동도 활발해졌다. 전통적으로 물리약학 교재는 Martin저의 ‘Physical Pharmacy’가 활용되다가, 2010년대에 분과회 전체 교수님들이 참여하여 새롭게 번역 출간한 ‘마틴의 물리약학 (Sinko저)’ 교재가 약학대학의 표준교재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물리약학교육의 수월성 및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

2013년부터는 분과회 회장임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면서 많은 교수님들이 분과회의 선두에 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2015년부터는 더 효율적이고 활발한 분과회가 되도록 부회장과 학술간사를 신설하여 명실상부한 학술단체로서의 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물리약학 교육 및 연구를 심화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기존 의약품제제뿐 아니라 새로운 의약품 트렌드인 생물의약품 분야에서의 전문성 확보에도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였다.

많은 약대인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물리약학이라는 교과목은 원래 약사국시과목이 아니었다. 그러나 2011년 15개 약대가 신설됨과 동시에 약대 6년제 (2+4년제) 교과과정으로 전환이 일어나고 개정교과과정에 의해 교육을 받은 첫 졸업생이 배출된 2015년에 변경 교과과정에 의한 첫 약사국가시험이 치러질 때, 물리약학은 2교시 산업약학과목의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야로 진입하게 되었다. 기존의 다른 분과회와 달리 물리약학 전공교수님들이 약사국가시험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았었는데, 2015년을 기점으로 물리약학분과도 원치않았으나 국시출제관리에 대한 의무가 생기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분과회 차원에서 물리약학 교수님들의 교육내용에 대한 규격화 및 내용 통일성을 담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와 관련된 분과회 연수 및 교육 워크숍등의 개최를 2011년 (회장 최후균, 총무 오경택)부터 2021년 지금까지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 더불어 분과회 교수님들의 국시문항출제에 대한 훈련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현재와 앞으로의 분과회 임무는 교육 및 국시와 관련된 약대 통6년제의 시스템화를 위해서 약사국가시험, 표준교과과정, 실무실습, 평가인증제 등과 관련된 분과회 역할을 확립하는데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이와 관련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3. > 현재 임원 및 회원 현황

3-1. 임원 현황

직위	성함	소속
회장	이범진	아주대
부회장	미정	
감사	윤순홍	고려대
감사	박일영	충북대
총무 간사	박성진	가천대
학술 간사	김주영	우석대
국시위원회 위원장	오경택	중앙대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윤석	경상대

3-2. 정회원 현황

강명주(단국대), 강성민(덕성여대), 강수진(동덕여대), 강진양(삼육대), 강한창(가톨릭대), 강희은(가톨릭대), 김민수(부산대), 김종오(영남대), 김주영(우석대), 김진기(한양대), 김태환(대구가톨릭대), 김하형(중앙대), 민경아(인제대), 민경현(전북대), 박성진(가천대), 박소연(계명대), 박은석(성균관대), 박일영(충북대), 박정숙(충남대), 박진우(목포대), 변영로(서울대), 서민덕(아주대), 석승현(제주대), 손동환(계명대), 손영진(순천대), 손우성(주노보렉스, 객원회원), 송세현(경성대), 신명철(경상대), 안희철(동국대), 오경택(중앙대), 오승열(숙명여대), 오유경(서울대), 원권연(대구가톨릭대), 육순홍(고려대), 이미경(우석대), 이범진(아주대), 이봉진(서울대), 이상민(경희대), 이수재(충북대), 이승진(이화여대), 이윤석(경상대), 이혁진(이화여대), 조관형(인제대), 조현중(강원대), 지준구(경북대), 최정욱(전남대), 최한곤(한양대), 황성주(연세대), 황승림(조선대)

4. 주요 학술 및 교육활동사항

▶ 물리약학분과 심포지움 (대한약학회 정기총회)

1998년 10월 23일에는 경희대 수원캠퍼스에서 개최된 대한약학회 정기총회에서 ‘물리약학분과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움부터 물리약학분과 단독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지 않았으며, 주로 대한약학회의 춘·추계 학술대회 때 분과학회 차원에서 심포지움을 조직하여 학술대회의 여러 심포지움 중의 하나로 참여하게 되었다.

모시는 글

상하의 계절에 피친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한약학회 물리약학분과위원회에서는 생리활성물질수연구회적 협찬을 받아 '97 물리약학심포지움'을 다듬고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연구내용의 발표에 더불어 산,학,연 및 각 연구실에서 실험에 전념하시는 여러분들과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간주 발전하는 학회로 이끌어 주십시오.

최대한의 상하간의 활발한 학술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97년 6월 10일
대한약학회 물리약학분과위원회
생리활성물질수 연구회

***** 심포지움 Program *****

- 13:30 ~ 등록 및 개회
- 문제제기 : 이종달 교수 (영남대 약대)
- 좌 장 : 전인구 교수 (동덕여대 약대)
13:40 ~ 14:20 Pharmacokinetics and Targeting to the Inflamed Tissue of Carboxymethyl Dextran Conjugates of DA5018, a Capsaicin Derivative.
이상득 박사 (동아제약)
- 14:20 ~ 15:00 Pharmaceutical Approach to Development for Gene Delivery by Using Cationic Lipid.
김경미 박사 (원광대 약대)
- 15:00 ~ 15:10 Coffee Break
- 좌 장 : 오만준 교수 (전남대 약대)
15:10 ~ 15:50 NMR Study on the Interaction of cAMP Receptor Protein with cAMP, DNA, and RNA Polymerase.
이태우 연구원 (서울대 약대)
- 15:50 ~ 16:30 Solution Structure and Interaction of the Activator Contact Domain of the RNA Polymerase α Subunit.
전영호 박사 (LG Biotech.)
- 16:30 ~ 16:40 Coffee Break
- 좌 장 : 이강준 교수 (성균관대 약대)
16:40 ~ 17:20 Shaking Intensity and Dose Uniformity of Ophthalmic Suspensions.
권정애 박사 (한독약품)
- 17:20 ~ 18:00 제약현장에 있어서의 물리약학.
정준주 박사 (제일제당)
- 중 합 : 한석규 교수 (부산대 약대)
- 18:00 ~ 폐회 및 간담회

'97 물리약학심포지움
일자 : 1997년 6월 20일 (금)
시간 : 오후 1:30 ~ 오후 7:00
장소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 학회장소 지도 **



〈물리약학분과회 단독 심포지움 프로그램〉 1997 / 회장 정우태
제형 및 생리활성 분자 구조를 주제로 서울대 약대에서 개최됨

예외적으로, 2000년 2월 18일에는 이종달 분과학회장을 비롯한 물리약학분과 회원들이 모여서 물리약학분과 주최로 이계주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의약품의 물성과 제제설계 심 심포자움”을 충남대 약대에서 개최하였으며, 2005년에는 대한약학회 회장이었던 서울대 약대 김종국 교수가 분과학회장을 겸하게 되면서 대한약학회의 춘·추계 학술대회 때 분과학회에서는 분자구조 및 물성, DDS 등 주제를 다양화하여 심포자움을 조직하였다. 2008년 분과학회장인 전남대 약대의 오인준 교수는 ‘약품물리화학 및 약품공학 교수 협의회’의 창립회원 중 마지막 현직 교수로 10번째 물리약학 분과학회장을 맡아 6년제 교육과정을 준비하게 되었다.

모시는 글

새천년술 맞이하여 직친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한약학회 물리약학분과학회에서는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이계주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여 “의약품의 물성과 제제설계 심포자움”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연구내용의 발표와 더불어 산·학·연의 각 연구실에서 실험에 전념하시는 여러분들과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간주 발전하는 학회로 이끌어 주십시오.

직친여러분 상호간에 활발한 학술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0년 2월 1일
대한약학회 물리약학분과학회
회 장 이 종 달

심포자움 Program

13:00 ~ 등록 및 개회

13:20 ~ 13:30 물리약학 분과학회 회장 인사말
(이종달 교수, 전남대 약대)

13:30 ~ 13:40 충남대 약대 학장 축사 (정경수 교수)

좌 장 : 오승일 교수 (숙명여대 약대)

13:40 ~ 14:20 Dibucaine의 광증감 작용에 대한 연구
한석규 교수 (부산대 약대)

14:20 ~ 15:00 Design of a new transdermal delivery system of estradiol and evaluation *in vitro* and *in vivo*
김봉규 박사 (Institute of Drug Delivery System)

15:00 ~ 15:10 Coffee Break

좌 장 : 오인준 교수 (전남대 약대)

15:10 ~ 15:50 Development of thermo-reversible insulin liquid suppository
김종국 교수 (서울대 약대)

15:50 ~ 16:30 *Leptospermum scoparium* 수증기 추출물중 케톤체 분획물의 항균력, 병용효과 및 외용 제제 설계
김은희 박사 (파천연구소)

16:30 ~ 16:40 Coffee Break

좌 장 : 이법진 교수 (강원대 약대)

16:40 ~ 17:20 사이클로옥시게나제의 활성부위의 구조
박일영 교수 (충북대 약대)

중 합 : 정우태 교수 (충북대 약대)

17:40 ~ 폐회 및 간담회

**松靜 李啓宵 教授 停年 紀念
2000물리약학심포자움**

일 자 : 2000년 2월 18일 (금)
시 간 : 오후 1:00 ~ 오후 6:00
장 소 :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 학회장소 지도 **



심포자움 관련 연락처
충남대 약대 황성주
Tel: 042-821-5922, Fax: 042-823-3078
E-mail: hwangsj@hanbat.chungnam.ac.kr

〈이계주 교수 정년퇴임 기념 심포자움 프로그램〉 2000 / 회장 이종달

▶ 춘계 추계 분과회 정기 모임

분과회의 춘계 정기 모임은 주로 1학기초에 동계 약학회 전에 개최되며, 회장단의 연고지역에서 보통 개최되고 있다. 분과회가 현 체제를 갖춘 2011년도 이후부터는 적어도 년 2회 정기적으로 분과회 모임을 열어 회원들간의 정보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하계 정기 모임은 독자적으로 개최하지 않고, 회원들의 약학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약학회 추계 학술대회중에 모임을 열고 있다. 춘계 모임에서는 당해연도 분과회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내역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집중되어 있다면, 추계 모임에서는 분과회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분과회 워크숍

분과회 정기 모임과는 별도로 약사국시관련 출제영역 협의 사항, 교재번역 및 개정관련 논의 사항, 국시 문항개발 관련 논의사항 및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미나 개최등을 분과회 워크숍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워크숍은 횟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코로나가 발병한 2019년 전에는 적어도 년 1회 이상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꾸준히 물리약학 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왔다. 2020년 코로나 사태이후로 2021년 현재까지 모임의 제약 때문에 원활한 워크숍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현 상황이 진정되면 정기 워크숍을 재개할 계획이다.

그동안 워크숍에서 공유되었던 가장 큰 주제는 물리약학강의의 통일성 유지였다. 물리약학은 과목의 특성상 담당교수님들의 전공배경이 물리학, 공학, 나노바이오, 약학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비록 같은 교재를 이용해 강의한다고 해도 강의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강조될 수 있기 때문에 강의 내용을 일정정도 통일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분과회 워크숍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공유의 장이 되었고, 실제로 교재의 내용을 세분하여 교수님들이 필수로 강의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들을 정리하였고, 매 워크숍마다 이런 내용을 갱신해오고 있다.

워크숍의 또 다른 기능은 분과교수님들의 재교육에 있다. 비록 물리약학이란 학문을 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년 엄청난 양의 새로운 지식이 양산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모든 교수들이 늘 언제나 새롭게 갱신된 최신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은 상당히 녹록치 않은 일이다. 따라서 분과회에서는 워크숍을 통해 어떤 분야의 최신지견을 가지고 계신 분과회 내외부 인사를 모시고 재교육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다. 실례로 2017년 4월 20일 분과회 워크숍에서 중앙대 약대 김하형 교수님께서 ‘바이오횡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품질평가’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으며, 이를 통해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시밀러/바이오벤텍터의 특성중 어떤 항목들의 평가가 중요하며, 주요 분석방법과 앞으로 이분야의 전망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함양하는데 좋은 시간이 되었다.

»교육 TFT의 운영

전술한 바와 같이 물리약학은 약대 6년제 개편과 더불어 2015년부터 새롭게 약사 국시에 편입이 되었다. 따라서 분과회 교수님들의 약사 국시 참여 경험은 상당히 적을 수 밖에 없었다. 2011년부터 양적 팽창되었던 분과회에 체계적으로 쌓인 국시 경험이 없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분과회는 2011년도부터 분과회 차원의 국시 참여 준비를 교육 TFT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TFT의 명목상 정식 발족은 2016년도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미 이전부터 이에 준하는 활동을 몇몇 적극적인 분과회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 교육 TFT를 통해 교재, 요약집의 개정 및 강의내용에 대한 통일 교안 확보, 교재내용과 국시의 연관성 유지를 집중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분과회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이 TFT는 분과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폐쇄적 소수집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 누구나 원하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상설팀으로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 여름 겨울 연수모임

분과회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규모를 갖춘 분과회로서의 자리매김은 다른 분과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정기 모임 및 학술활동인 분과회를 통한 대외 공식적인 활동만으로 분과회의 토대를 튼튼하게 닦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2000년대 후반부터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분과회 연수 모임을 개최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2021년 중국 황산, 2013년 일본 큐수, 2015년 베트남 다낭, 2016년 중국 계림, 2017년 일본 아오모리 & 아키타, 2019년 베트남 다낭등등에서 ‘교육과정 개선 및 연구교류’를 위한 학술 대회를 수차례 개최하였다.



〈중국 황산에서 분과연수 모임〉 2012 / 회장 최후균

5. 주요 인사 동정

» 김중국 교수

김중국 교수는 서울대 약대에 1978년부터 2008년까지 정년 제직하시고 이후 신설약대인 인제대 약대에서 학장을 역임하셨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제44대 대한약학회장을 역임하시기도 하셨다. 초창기 물리약학 분과회 확립에 많은 기여와 공로를 하셨다. 2020년 10월에 10년 이상 국민 건강 증진에 헌신하고, 국내 약학 발전에 공로가 큰 대한약학회 회원에게 수여되는 상인 윤광열 약학공로상을 수상하셨다. 같은 물리약학분과회 교수님인 성균관대 약대 박은석 교수님도

동시에 수상하셨다.

김종국 교수님은 약물전달시스템 연구 분야에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재임 기간중 국내외 36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시며 약학 발전을 이끄셨으며, 약학자 양성 및 관련 분야 전문가도 많이 배출하는 공헌을 하셨다.



〈인제대 약대에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는 김종국 학장〉

» 황성주 교수

황성주 교수는 1991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충남대 약대에 재직하셨고, 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연세대 약대에서 재직하시며 종합약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계시다.

2013-2014년 (사)한국에프디시범제학회 회장, 2014년 물리약학분과회장, 2017년 (사)한국약제학회 회장, 2019년-2020년 의약품품질과학분과회장을 역임하시고, (재)품질연구재단 부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약학 발전에 기여하셨다. 1995년 한국약제학회 장려상, 2002년 CRS-Capsulgel Award, 2008년 한국약제학회 학술상, 2010년도 기초과학 우수성과 99인 선정되시었고, 2011년 과기총 우수논문상, 2012년 교육부장관 표창, 2015년 연세대 우수연구업적교수상, 2016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7년 연세대 우수연구업적 교수상을 수상하셨으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우수한 실적으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으셨다.

식약처가 출연연구개발과제도 운영하기 시작한 2015-2016년 의약품 전문분과위원장 및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정책심의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의학학단 약학분야 책임전문위원(Chief of Review Board)으로 활동하면서, RB분야간 조정을 비롯하여 새롭게 부각되는 임상약학 분야와 사회약학분야를 RB 분야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초임계 유체기술(NRL, 2003), 나노기술이용신제형개발 실용화연구(도약연구, 2008),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사업(2018)의 연구 책임자로서 신개념 약물제제 개발 연구에 매진하고 계시다. 현재 배출된 150 여명의 전문 인력들이 대부분 제약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160여편의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분과학회지 International Journal of Pharmaceutics의 아시아지역 대표 Editor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 이외에도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GMP 교육위원회 위원 (2015-), 식약처 TC76 전문위원 및 의료제품 기술심의회 위원 (2016-)으로 활동하고 있고, 2020년에는 (주)아이큐어와 공동으로 생체이용률 증진기술(Enhancing Bioavailability)을 이용하는 ebabio를 창업하여 보다 균일하고 정교한 microspheres, liposome, lipid nanoparticle 제형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 이승진 교수

이승진 교수는 이화여대 약대에 재직하시며 2015년 제13대 약대학장을 역임하셨고, 30여년의 연구경력을 자랑하는 약물전달학, 생체재료학, 재생의학 분야의 권위자중 한분이다. 현재까지 바이오신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내시며 국제학술지에 200편이상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셨다. 약물전달과 관련된 국제학회인 Controlled Release Society에서 한국지역 회장, 2002 CRS Symposium Chair을 역임하셨고, 의약전달학회, 학국약제학회, 한국생체재료학회 회장직을 수행했다.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한국연구재단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문위원장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셨다. 2005년 과기총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신바 있고, 많은 제약업체에서 자문교수로 활동중이시고, 줄기세포치료제 전문기업인 (주)히에라바이오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제약바이오 산업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다.

» 이봉진 교수

이봉진 교수는 서울대 약대에 1991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재직하고 계시고, 주요 연구분야는 ‘생체고분자의 구조-기능 관계 연구를 통한 신약개발’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활발히 해오셨다. 또한 서울대 약대 25대부터 27대까지 (2013-2019년) 3연속 학장을 역임하셨다. 약학대학뿐만아니라, 물리약학분과회를 비롯한 대한약학회, 한국응용약물학회, 한국생화학회, 한국생물리학회, 한국분자생물학회, 한국자기공명학회, 한국펩타이드학회, 한국약제학회, 약학회지, JBMB, BBA 및 Antibiotics (Basel) 편집위원 등 다양한 학회에서 활동을 하였고 임원직을 역임하셨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기바이오센터, 국립도서관, 한국학술진흥재단, 오창 초고자장 NMR 센터, 한국기조과학지원연구원, 한국신약개발 연구자협의회, 한국과총, LG Biotech, Crystal Genomics, 비씨월드 제약 등 정부유관 단체 및 산업체에서 자문등의 역할을 여전히 활발히 해왔다. 또한 벤처기업 (주)Promeditech을 창업하여 상장시켰으며 현 (주)마스터메디텍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계시다. 현재 서울대학교 평위원회 상임위원장(연구분과) 으로 활동 중이다.

2003년 이선규 약학상, 2012년 이조웅 학술상, 2012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016년 의약평론가상, 2017년 한독학술대상, 2019년 애니젠 학술상, 2020년 서울대 학술연구상, 2021년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셨고, BRIC의 한빛사에 총 7편 (2012-2019년)의 논문이 선정되기도 했다.



〈2017년 제48회 한독학술대상 수상자인 이봉진 교수〉

» 손동환 교수

손동환 교수는 원광대 약대에 재직하시며 2번의 학장(2001년-2003년, 2007년-2009년)을 역임하셨고, 현재 계명대 약대학장을 역임하고 계신다. 2014년 한국약제학회장, 2017년 물리약학분과회장등을 역임하시며 활발한 학술활동뿐 만 아니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약사시험위원장 및 현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제6대 이사장(2020-2022년)을 역임하시며 약학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시고 계시다.

» 박일영 교수

박일영 교수는 충북대 약대에 1995년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계시며 약대학장과 약품자원개발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다. 질환 연구에도 많은 논문을 발표하셨으며 특히 암의 분자생물학 및 생리활성 분자들의 구조와 활성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내셨다. 물리약학교육에 대한 애정이 많으셔서, 그동안 출간된 많은 물리약학 교재의 검수 및 오류 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시며 교재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시고 계시다.

6. 맺음말

현재 분과회가 있기까지 많은 선배 교수님들과 많은 젊은 교수님들의 노고가 많았었음은 참언부언하지 않아도 명확한 사실이다. 이번 약학회 75년 기념서를 발간하는데 있어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히 언급되지 않았던 선배 교수님, 현 분과 교수님들 모두 분과회의 중요한 버팀목이자 공로자이시다. 모든 분과회 교수님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물리약학분과가 오늘같이 잘 정착되지 못했을 것이기에 모든 분들께 역대 회장단들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여전히 분과회에 많이 산적해 있는 과제들, 약대 6년제 교육제도의 정착 및 물리약학 연구활성화를 위해 매년 분과회 심포지엄 및 워크샵, 교육 TFT를 착실히 운영하며 물리약학 교육 및 연구의 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그동안 분과회를 창립하시고 이끌어 오신 초창기 주역이셨던 홍문화, 이길상 교수님들과
역대 회장님이신 정기용, 유병설, 이광표, 이계주, 한석규, 정우태, 최윤수, 이종달, 김종국, 오인준,
최후균, 오승열, 황성주, 이승진, 이봉진, 손동환, 박은석, 박일영, 육순홍, 이범진 교수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2021 물리약학 분과학회 회장 이범진
총무 박성진

06

방사성의약품학 분과학회



1. > 학회 개요

방사성의약품은 과거 대한민국의 핵의학 장비가 충분치 못했던 시기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으나, 국가의 의료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의 핵의학 장비들이 도입되고 암의 비침습적 진단 등에 이용되면서 취급하는 대형병원과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2017~2019년까지의 국내 연평균 방사성의약품 생산량은 513.6억원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2019)). 이전에는 방사성의약품이 GMP 대상이 아니었으나, 대한민국이 미국, 유럽, 일본 등과 함께 하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하고 2015년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방사성의약품도 2017년 7월 1일 이후에는 GMP 대상이 되었으며, 이후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가이드스 (2014.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준하여 관리되고 있다. 미국에는 이미 방사성의약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약사들이 있으며 미국약사회의 홈페이지에 방사약학(Nuclear Pharmacy)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며 미국약사고시 준비서인 CPR에도 ‘Nuclear Pharmacy’가 독립된 Chapter로 서술되어 있으며 ‘NAPLEX 연습문제’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20년 FDA 승인 약물 53종 가운데 4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방사성 의약품이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빈도가 급속도로 증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약학 연구와 교육에서는 연구자가 극소수이고 통합 6년제 표준교육과정에서도 제외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성의약품학 분과학회는 매년 학술대회 심포지엄 개최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통하여 약학대학생에게 방사약학 실험실습 교육을 제공하여 약학분야에서 방사성의약품의 명맥을 이어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분과학회는 방사성의약품의 신약개발 및 임상활용의 진보 발전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회 역사

2-1. 연도별 임원 현황표

연도	회장	소속	주요임원
2013-2019	이복률	부산대	부회장: 박일영 (충북대) 총무: 변영주 (고려대) 학술: 서승용 (가천대) 편집/재무: 정종화 (경북대)
2019-현재	박일영	충북대	총무: 변영주 (고려대) 학술: 서승용 (가천대) 편집/재무: 정종화 (경북대)

2-2. 창립 역사 및 임원활동

약학대학에서 방사성의약품학을 교육해 온 역사는 50여년에 이른다. 1967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제약학과를 신설하면서 학제개편을 하며 1969년부터 새로운 교과과정을 운영하였는데, 신 교과과정에 방사화학이 전공선택과목으로 도입된 후, 전국의 약학대학에서 차례로 방사화학, 또는 방사성의약품학이 강의되기 시작하였다. 선택과목이다 보니 방사성의약품학을 주전공으로 하는 전임교원은 드물었고, 무기약품제조, 약품물리, 유기약품제조를 전공으로 하는 교수들이 방사성의약품학의 강의를 병행 담당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방사성의약품학 분과회는 따로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약학대학의 방사성의약품학 교재로는 1978년에 초판 인쇄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나운용 교수 저술의 방사성의약품학과 1996년 초판인쇄된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김종윤 교수 저술의 최신방사약학이 전해져 온다. 이후 몇 차례의 교재 개발이 이루어졌고, 약학대학 6년제 전환에 따른 학제 개편으로 현재는 무기약품학과 통합한 무기 및 방사성의약품학을 교재로 하여 전국의 약학대학에서 방사성의약품학이 강의되고 있다.

대학병원에 핵의학과가 도입되고 비침습성 진단 방법으로 방사성의약품의 사용빈도가 늘어가고, 대한민국이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하여 방사성의약품도 GMP 규제 아래 들어오면서 방사성의약품학의 교육도 그에 맞게 발전할 필요가 있어, 2013년 12월 8일 숙명여자대학교 약학관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과에서 방사성의약품을 담당하는 정재민 교수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과 최연성 교수를 초빙하여 워크숍을 여는 등, 담당교수들의 교육협력 모임이 차츰 활발해졌다. 담당교수들의 교육협력 모임을 무기 및 방사성의약품 분과회로 승격시키고자 2010년 이후 꾸준히 약학회와 협의한 바, 2014년 가을 약학회 정기총회에서 방사성의약품 분과회로 공식적인 인준을 받게 되었다. 초대 분과회장은 부산대학교 약학대학의 이복률 교수가 담당하였는데, 이후 매년 대한약학회 춘계 또는 추계 학술대회에서 심포지엄을 열었고 원자력안전연구원에 직접 학생들을 보내 2-3주간의 방사성의약품 실험실습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복률 교수의 정년퇴임 후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의 박일영 교수가 분과회장을 맡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의 변영주 교수와 가천대학교 약학대학의 서승용 교수, 경북대학교 약학대학의 정종화 교수들이 분과회의 임원을 맡아 심포지엄의 주관을 맡고 방사성의약품의 연구와 전국 담당 교수들의 강의 협력과 교재 개발에 애쓰고 있다. 이번에 경상대학교 약학대학에 방사성의약품이 주전공인 김동연 교수가 부임하면서 약학대학에서의 방사성의약품의 연구 인력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3. > 현재 임원 및 회원 현황

3-1. 임원 현황

직위	성함	소속
회장	박일영	충북대
총무	변영주	고려대
학술	서승용	가천대
편집/재무	정종화	경북대

3-2. 정회원 현황

강보선(건양대), 박용대(한국원자력연구원), 박일영(충북대), 변영주(고려대), 서승용(가천대), 신동해(이화여대), 신현일(주)한국표지화합물연구소, 오현철(원광대), 유정수(경북대), 이복률(부산대), 이태섭(한국원자력의학원), 임재청(한국원자력연구원)

4. > 주요 학술 및 교육활동사항

» 2014년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 약학교육과 연구에 있어 방사성의약품의 현황과 전망 (Current Status and Prospective of Radiopharmaceuticals in Pharmacy Education & Research)

방사성의약품학 분과학회는 2014년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을 통해 방사성의약품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조망하였다. 심포지엄을 통해 약학대학이 2+4년제로 개편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는 약학교육뿐만 아니라 난치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치료가 요구되는 신약연구에 있어서 방사성의약품학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양전자단층촬영(PET) 방사성의약품을 [18F]FDG를 처음 합성한 일본의 Tatsuo Ido박사가 첫 강연자로 PET 방사성의약품의 역사와 발전에 대하여 강연하였고,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신개념치료기술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사업단의 단장인 유국현 교수가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신개념치료기술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어서, 방사성동위원소관련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원의 신병철 박사가 국가원자력연구시설에서의 현장실험실습을 통한 전문 방사약사 양성 방안에 대해 강연하였고, 한국표지화합물연구소의 신현일 박사가 C-14 방사성동위원소 표지화합물 합성과 ADME 연구에 대해 강연하였다.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 2014 / 회장 이복률

» 2015년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의 역할 (Roles of Diagnostic Radiopharmaceuticals for Personalized Medicine)

방사성의약품 분과학회는 2015년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을 통해 약학분야에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던 방사성의약품과 방사선 기술 관련 교육과 연구에 대해 조망하였다. 당시 방사성 의약품의 의료 현장에서의 수요 급증장으로 국가에서도 방사성의약품 개발 플랫폼 구축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한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던 시기였다. 연자로 초청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정환정 교수가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또는 병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사성핵종의 표지, 탐침 개발, 영상화 및 방사성의약품 관련 교육을 위한 방사약학 실험실습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하였고, 인하대학교 화학과 김동욱 교수가 친생체 F-18 표지 방법을 이용한 세포 및 나노입자 추적 PET 영상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방사성동위원소관련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신병철 박사가 국가원자력 연구시설을 이용한 방사약학 실험실습에 대해 소개하였고,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이병철 교수와 한국원자력의학원 강주현 박사가 각각 전이체 단백질 분포와 관련된 질환의 관찰 및 추적을 위한 새로운 양전자단층촬영 프로브 개발과 핵의학영상 기반 분자영상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 2016년 약학대학생 방사약학 실험실습 (2016. 1. 25 - 28, 한국원자력 연구원)

방사성의약품학 분과학회는 2016년 약학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원자력 연구시설을 이용한 방사성의약품학 실험실습 교육을 참여하였다. 전국에서 100여명이 훨씬 넘는 약대생들이 지원하였으나 원자력연구원의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방사성의약품학 수강자 우선, 고학년 학생 우선, 성적 우수자 우선 원칙으로 학교별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게 되었으나 높은 관심도와 우수한 강사진,

알찬 교육내용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방사성의약품학 분과학회에서는 약교협과 연구재단, 식약처, 미래부, 방사성 동위원소 협의회, 약사회 등 유관기관에 방사성의약품 취급 약사 특수 면허의 필요성과 함께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기로 결의하였다.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 진행한 약학대학생 대상 방사약학 실험실습〉 2017 / 회장 이복률


대한약학회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KOREA

대한약학회 방사성의약품학 분과학회

수 신 자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참 조 원자력교육센터장

제 목 1차 방사성의약품학 실험실습교육 요청

1. 귀하의 건승하심과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다음과 같이 실험실습교육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습기간 : 2016. 1. 25. ~ 1.28 (4일)

나. 교육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및 실험실

다. 교육내용 : 방사성의약품학 실험실습

라. 참가인원 : 약학대학 학부생 22명
인술교수 4명

붙 임 : 1차 실험실습 참가자 명단 1부, 끝.

대한약학회 방사성의약품학분과학회장


〈약학대학생 방사성의약품학 실험실습 교육 공문〉 2017 / 회장 이복률

» 2016년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 약학 연구와 교육에서의 방사성의약품 (Radiopharmaceuticals in Pharmaceutical Research and Education)

방사성의약품 분과학회는 2016년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을 통해 방사성의약품 관련법의 정비 및 국가적 차원의 투자 증대로 약학분야에서 중요하게 자리잡은 방사성의약품과 방사선 기술에 대한 교육과 연구에 대해 조망하였다. 연자로 초청된 삼성서울병원 핵의학과 이경한 교수가 최근 임상적용이 시작되었거나 전임상 또는 임상 중개 중인 방사성의약품과 이를 이용한 새로운 분자영상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변영주 교수가 전립선암 전이를 조기 진단하는 분자영상 리간드 개발의 최근 연구 동향 및 전립선암에서 과발현되는 단백질을 동시에 타겟팅하는 화합물 연구에 대해 강연하였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전종호 박사는 동물 종양모델에서 항암제를 이용한 치료효과를 분자영상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방사성의약품의 개발에 관해 발표하였다. 방사성의약품과 방사선 기술에 대한 약학 교육을 위하여,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박일영 교수가 2017년 8월부터 시행될 방사성의약품 제조소 GMP를 대비하여 제조소의 부담을 줄이고 방사성의약품의 제조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면허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적절히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신병철 박사가 차세대 방사약학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사약학 실험실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대해 발표하였다.

» 2017년 약학대학생 방사약학 실험실습 (2017.2.13.-2.17, 2017.2.20.-2.24,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의약품학 분과학회는 2017년 약학대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의약품학 실험실습 교육을 참여하였다. 교육은 방사선안전취급 기초, 중성자 방사화 분석, 중성자 radiography,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방사선 계측을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전문인력이 교육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또한, 참가자를 A와 B조로 나누어 실험실습을 진행하고 조별로 발표와 질의시간을 통하여 방사약학의 이론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 2017년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혁신적 접근을 통한 방사성의약품 연구 개발 (Innovative Approache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Radiopharmaceuticals)

방사성의약품 분과학회는 2017년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외 학교, 연구소, 산업체 의 혁신적 접근방법을 통한 방사성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해 집중 조망하였다. 연자로 초청된 원자력연구원의 최선주 박사는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사성의약품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는 분자영상을 이용한 신약개발 연구에 대해 강연하였다. 해외 연자로 초청된 Xing Yang 박사는 북경대학교와 존스홉킨스대학교 겸임 교수로, 전립선암의 분자영상화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본 심포지엄에는 특별히 신약개발 분야의 연구전문회사로 ADME study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Carbon-14, H-3 등의 표지화합물

합성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 주식회사 큐라캠의 최고기술책임자인 김윤식 부사장이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합물 합성 및 평가 활용에 대해 소개하였다. 마지막 연자로,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장동조 교수가 방사성화합물을 활용한 저산소증 표적 분자 탐침의 개발 및 바이오마커 영상화, 표적 유효성에 대한 최근 연구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심포지엄을 마치고 분과학회 회장인 이복률 교수가 방사성의약품학 분과학회를 대표하여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최보길 교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전남대학교 최보길 교수에게 감사패 전달〉 2017 / 회장 이복률

» 2018년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 방사성의약품과 분자영상제, 도전과 기회 (Radiopharmaceuticals and Molecular Imaging Prob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방사성의약품 분과학회는 2018년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을 통해 차세대 원천기술로 각광받는 방사성의약품과 분자영상 연구에 대해 조망하였다. 국외 연자로 초청된 City University of Hongkong의 Kannie Chan 교수는 최신 MRI 영상화 기술인 CEST-MRI의 뇌 종양 및 신경질환에 대한 적용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국내 연자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김희권 교수,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육심명 교수,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 김은하 교수를 초청하였다. 김희권 교수는 전이체단백질(TSPO)에 친화성을 갖는 새로운 리간드를 합성하여 동물실험을 통해 그 작용을 증명한 연구, 육심명 교수는 EGFR 타겟팅 골드 나노입자와 현재 임상에서 사용중인 Lutetium-177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삼중음성 유방암 국소 치료법에 대한 연구, 김은하 교수는 단분자 수준에서 생체내 약동학/약력학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고해상도 동반 분자영상제 개발 연구에 대해 강연하였다.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 2018 / 회장 이복률

» 2019년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 약학교육과 연구의 새 시대를 위한 방사성의약품과 분자영상화 기술 (Radiopharmaceuticals and Molecular Imaging Technology for the New Era of Pharmacy Education & Research)

방사성의약품 분과학회는 2019년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을 통해 차세대 원천기술로 각광받는 방사성의약품과 분자영상기술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약학 연구와 교육에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조망하였다. 연자로 초청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유정수 교수는 양전자단층촬영에 적용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방사성 구리-64를 이용한 방사성의약품 개발 및 핵의학 영상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성지혜 박사는 광유전학 기반 분자영상기술을 통해 살아 있는 세포 내에서 타겟 단백질의 활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조절하는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원자력의학원의 심재훈 박사는 원자력의학원에 설치된 신개념 치료기술개발 플랫폼 사업단의 현황과 신약개발에 있어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활용연구에 대해 소개하였다. 심포지엄에서는 특별히 부산대 이복률 교수를 마지막 연자로 초청하였다. 이복률 교수는 방사성의약품 분과학회 회장으로 오랫동안 봉사해왔으며, 심포지엄을 통해 약학교육에 있어서 방사성의약품학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하였다. 심포지엄 말미에, 분과학회 회장인 박일영 교수가 방사성의약품학 분과학회를 대표하여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이복률 교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부산대학교 이복률 교수에게 감사패 전달〉 2019 / 회장 박일영

5. 관련학회 정보

대한방사성의약품 학회 (Korean Society of Radiopharmaceuticals and Molecular Probes)

1) 홈페이지: <http://www.ksramp.or.kr>

2) 현 집행부 정보 및 연락처

회장: 한국원자력의학원 강주현 박사

부회장: 한국원자력의학원 이교철 박사

총무이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운상 교수

3) 학회지: Journal of Radiopharmaceuticals and Molecular Probes

대한약학회 방사성의약품학 분과학회 소속으로 가천대 서승용 교수와 경북대 정종화 교수가 학회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6. 맺음말

방사성의약품학 분과학회장 박일영, 총무 간사 변영주, 학술 간사 서승용, 편집/재무 간사인 정종화 교수가 작성하였다.

2021 방사성의약품학 분과학회 회장 박일영

07

병원약학 분과학회



1. 학회 개요

1980년대 이전 우리나라의 병원약제업무는 의약품 공급과 조제업무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 약사 직능교육 강화, 환자 지향적 약학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미국에서 선진 약학을 수학한 Pharm.D들이 국내 귀국하여 임상약학 연구 및 교육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면서 병원약제업무 및 병원약학의 범위가 임상약제업무로까지 확대되었다. 1981년 한국병원약사회가 설립되고 본격적인 회무를 시작하면서 1983년 병원약사들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추계 학술대회, 학술세미나를 처음으로 개최하였고, 1984년부터 병원약사회지 발간, 1985년 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 1986년 중간관리자연수교육, 1988년 임상약학강좌가 시작되었고, 1995년 춘계 학술대회와 1997년 신규약사 연수교육 등 지속적으로 교육 및 학술행사가 확대 발전되었다. 2006년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 중 약제분과 토의가 신설되었으며, 병원협회 학회 약제분과 참여, 2007년부터는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창립총회에 회원이 참석 한 이후 지속적으로 학술과 연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 국제학회 참석은 1982년 한국에서 개최된 아시아약학연맹(FAPA) 참석을 시작으로 199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미국병원약사회(ASHP) 학술대회 참석 및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일본의료약학회 연회, 한중일 주사제 임상정보 심포지엄, 중국 북경자금성국제약사포럼 참석, 2007년에는 제35차 국제병원연맹(IHF) 총회 중 병원약학 세션을 진행하였고, 2008년에는 국제약학연맹(FIP) 제65차 총회 중 제1차 병원약학 세계포럼 참석 등 아시아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제학회 참석과 논문 발표 등 병원약사의 국제교류활동도 활성화되고 있다.



〈제 22회 일본의료약학회연회〉 2017 / 회장 이영희

병원약학은 2003년 한국병원약사회의 사단법인 전환과 2021년 한국병원약사회 창립 40주년, 병원약학교육연구원 창립 10주년 등 한국병원약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2. 학회 역사

2-1. 연도별 임원 현황표

연도	회장	소속	직위
1986-1988	김낙두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장
1989-1994	이민화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장
1995-1999	이민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2000-2002	노환성	서울아산병원	약제부장
2003-2004	최진석	단국대학교병원	약제부장
2005-2008	손인자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장
2009-2010	송보완	경희대학교병원	약제부장
2011-2012	이혜숙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장
2013-2014	이은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장
2015-2016	한옥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무팀장
2017-2020	이영희	아주대학교병원	약제부장
2021-	최경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무정보팀장

2-2. 창립 역사 및 임원활동

대한약학회 병원약학 분과학회는 1986년에 당시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장으로 한국병원약사회 회장을 맡고 있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김낙두 교수의 강력한 의지와 열정에 힘입어 창립되었으며, 김낙두 교수가 초대 학회장을 맡아 1988년까지 연임하였다. 1989년부터는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장으로 취임하여 한국병원약사회장으로 당선된 이민화 교수(서울대학교 약학대학)가 병원 약학 분과학회장을 맡아 1999년까지 약 10년간 활동하였다. 2000-2002년에는 서울아산병원 노환성 약제부장, 2003-2004년에는 최진석 단국대학교병원 약제부장, 2005-2008년 손인자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장, 2009-2010년 송보완 경희대학교병원 약제부장, 2011-2012년 이혜숙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장, 2013-2014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은숙 약제부장, 2015-2016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한옥연 약무팀장, 2017-2020년 아주대학교병원 이영희 약제팀장, 2021년 현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최경숙 약무정보팀장이 분과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5-1999년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 2012년까지는 한국병원약사회 회장이 대한약학회 분과학회장으로 활동하였고, 2013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 중 1인이 대한약학회 분과학회장을 겸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병원약학분과협의회장이 대한약학회 분과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연도별 임원 현황표). 2016년 병원약학 분과회원은 60명이었으며, 2021년 현재 병원약학 분과회원은 44명이 가입되어있다.

3. ▶ 현재 임원 및 회원 현황

3-1. 임원 현황

직위	성함	소속	비고
회장	최경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병원약학분과협의회장
총무	손현아	한국병원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사무국장

3-2. 정회원 현황

김순주(서울성모병원), 김언연(유한양행), 김일호(화순전남대병원), 김재연(서울아산병원), 김정미(삼성서울병원), 김향숙(서울대병원), 남궁형욱(분당서울대병원), 노환성((주)에이팜코리아), 문혜원(개국약국), 박종민(영남대 의료원), 서성연(서울대병원), 서영아(서울아산병원), 손순주, 손인자(국립중앙의료원), 송보완(경희의료원), 윤태원(울산대병원), 윤홍철, 이광섭(건국대병원), 이영희(아주대병원), 이용화(서울대병원), 이해숙(대한약사회), 장보현(경북대병원), 장진경(인천성모병원), 정선희(서울대병원), 조운숙(서울대병원), 조은정(서울대병원), 진영대, 최경업(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선(서울성모병원), 최정화, 최지혜(서울대), 최진석, 한옥연(서울성모병원)

4. ▶ 주요 학술 및 교육활동사항

▶ 학술

대한약학회 병원약학분과 심포지엄은 2000년 이후 활발하게 개최되었다. 2001년 10월 대한약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중 <엑시머레이저 수술과 약물요법>을 주제로 병원약학분과 심포지엄이 진행된 바 있으며, 2005년 4월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서는 <Current Issues in Drug Utilization Review>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다. 또한, 2006년 5월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외래환자 약제서비스 향상을 위한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병원약학분과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2006년 제 22차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 약제분과 토의를 처음 실시하였다. ‘의약분업 이후 약제업무 변화’를 주제로 진행된 이 날 분과토의에는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2007년 이후에도 타 분과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연합 심포지엄에 병원약사가 연자로 계속 참여하고 있다.



〈제 22차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 약제분과 토의〉 2006 / 회장 손인자

2012년 한국병원약사회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의 이해 및 안전한 사용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심포지엄에서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강창을 교수가 바이오의약품의 개론,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생약국 이정석 국장님이 바이오의약품 관련 정책 및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발표해주셨다. 심포지엄 II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김석중 교수가 세포치료제의 임상적용, 한양대학교 약학대학 이주연 교수가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항체의약품 중심으로’라는 내용으로 발표해주셨다. 병원약학 분과에서는 〈약물안전사용의 최적화-임상시험연구에서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분과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2012 / 회장 이혜숙

2018년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한 약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심포지엄 1부 주제 1에서는 환자 중심 팀의료 활동 사례를 주제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김형숙 선생께서 감염약료에 대하여, 전북대학교병원 약제부 박미선 선생께서 응급실 약료에 대하여 발표해주셨다. 주제 2에서는 병원약사 업무와 관련법 이해를 주제로 삼성서울병원 최재혁 변호사가 의료기관 소송과 환자 안전(사례 중심)에 대하여 발표해 주셨다. 심포지엄 2부에서는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 인증제의 주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며, 보건복지부 인증혁신TF 위원장인 김운 교수님께서 환자안전과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하여, 서울아산병원 약제팀 나양숙 질향상위원장이 환자안전을 위한 고위험약물 관리에 대하여 발표해주셨다.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2018 / 회장 이영희

2020년에는 <도약하는 미래약사>의 주제로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한국 병원약사회 창립 4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2019년 대한병원협회 주관 제 10회 Korea Healthcare Congress(KHC) 약제분과 세션에서는 <의료전환기의 병원약사의 리더십>, <병원약사 교육 체계-사례 중심>의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2021년 대한병원협회 주관 제 12회 Korea Healthcare Congress(KHC) 약제분과 세션에서는 <뉴노멀시대, 변화하는 약료서비스>의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연구

대한약학회 병원약학분과에서는 연구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연구 지원을 위하여 1996년부터 병원약학 연구논문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부터 해외학회 논문 발표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병원약사회지는 1984년제 1호가 발간되었다. 1988년 제 5권 제 1호에 생명공

학과 의약품에 대한 특집 주제로, 생명공학의 현황과 전망, 생명공학의 원리, 생명공학과 진단시약, 종양학분야에서의 생명공학의약품의 임상적 응용 등의 논문으로는 병원약국 제제의 안정성 연구, 간호사의 투약에 관한 실태조사, 학술강좌로는 방사선약학 개념, 성장호르몬 등이 수록되었다.

1998년 제15권 제 4호에는 특집으로 미국의 병원약사 교육제도, 서울대학교병원의 병원약사 수련제도, 삼성서울병원의 병원약사 수련제도,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현 서울아산병원)의 병원약사 수련제도,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현 서울성모병원)의 병원약사 수련제도, 고객만족과 친절 서비스 등이 수록되었다. 논문으로는 Vancomycin 사용의 적절성 평가, 흡연과 청각소실의 관계에 대한 연구조사, 포비돈 요오드(Betadin®)액의 안정성 시험 등, Roxithromycin과 Cisapride 병용시 약물상호작용에 관한 정보제공사례, 자동 정제 포장기(ATC) 사용에 따른 정제 중량 변동에 대한 연구, 신기능상태에 따른 항균제 적절투여에 관한 기초연구, Acyclovir 정제의 용출시험 및 함량균일성 평가, Etoposide의 혼합조제시 안정성 실험 등이 게재 되었으며, 학술강좌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병태생리학적 고찰, 약제업무소개로 TPN 업무의 전산화와 운영현황 등이 수록되었다. 2021년 제38권 제3호 병원약사회지에는 특집으로 디지털 치료제와 미래, 논문으로 상급종합병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음압격리병동에서 약사의 역할 보고, 병용금지 약물의 처방 현황 분석을 통한 임상적 중재방안 제시, 퇴원환자 약물조정 업무 효과에 근거한 치료이행과정 약료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혈액질환자에서 발생한 호중구감소성 균혈증에서 경험적 항생제 내성의 위험인자분석, 단일기관 소아청소년 입원환자에서의 허가 외 약물 사용 현황 분석, 의료기관의 도매상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개발-델파이 기법 활용 중심으로 등의 논문이 기술되었으며, 업무 개선사례로는 코로나19 영남권역 예방접종센터 운영에서의 백신 관리, 학술강좌로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현황 및 유효성, 안정성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병원약사회지에 수록된 특집, 논문, 학술강좌의 내용도 다양화됨을 알 수 있다. 병원약사회지는 해마다 다르기는 하나, 최대 6호 발간되어 많은 병원약사회원들의 연구가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병원약사회지는 2016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었다.

» 교육

병원약제업무 및 병원약학은 2000년 의약분업 도입과 2004년 의료기관평가제도 및 2010년 의료기관인증제도의 전환, 2009년 약대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됨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음과 동시에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게 되었다.

먼저, 2000년 의약분업 도입으로 외래환자 조제업무는 의약분업 예외 환자에 한정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가 축소되었고, 병원약사의 업무는 입원환자 위주의 약제서비스로 그 중심이 옮겨지게 되었다. 병원약사의 역할은 처방조제업무 중심에서 환자 바로 곁에서 임상약제업무를 수행하는 ‘환자 중심의 약제서비스’로 변화되었다. 아울러 보건의료직능 각 분야의 전문화 및 세분화 추세, 다학제(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간 협력으로 시행되는 팀의료 확산에 따라, 그에 걸맞는 약사의 전문성 강화, 관련 직능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요구되었다.

한국병원약사회에서는 2008년 전문약사제도 운영규정이 제정되었으며, 2010년 제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총 75명의 전문약사가 배출되었으며, 2014년 소아약료 분과 신설, 2016년 감염약료 및 의약정보 2개 분과 신설, 2017년 노인약료 분과 신설로 감염약료, 내분비질환약료, 노인약료, 소아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의약정보,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이상 10개 전문분야별 자격시험이 실시되었다. 2020년 제 11회 전문약사자격시험에서는 10개 전문분야 1,172명의 전문약사가 배출되었다. 2020년 4월에는 전문약사 근거를 신설한 약사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2023년 4월 8일부터 전문약사 법제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문약사 법제화로 약사의 역할확대와 약사의 전문영역에 대한 객관성과 책임감 및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제 표준의료서비스 심사를 거친 의료기관에 발급되는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 인증 등 국제공인 병원평가제도 확산과 의료기관평가 결과 공표,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 대한 각종 정보 확산에 따라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및 삶의 질에 대한 환자과 국민들의 기대수준도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 약학대학 학생교육

약학대학 교육 관련하여서는 약학대학 학제가 개편되고 2013년 약대 학생 실무실습교육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 전국 병원약국에서는 의료기관 실무실습교육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는 표준 교육커리큘럼 마련과 교육기관의 표준화, 교육자 양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약학대학 학생들 사이에서 의료기관 실무실습교육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에 6년제 약사 최초 배출과 함께 우수한 6년제 약사 다수가 병원약국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6년제 약사들이 충분히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직능에 보람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 기반 구축, 기 4년제 졸업 약사들의 평생교육 등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재단법인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은 2011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의 첫 번째 발간사업으로 전국 병원의 약제부서장 등 30여명의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2014년 1월 [병원약학 실무] 초판을 발간하였다. 실습서에는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처방 검토 및 조제, 일반 환자 및 특정약물 복용 환자의 복약상담, 주사제 처방 검토 등 13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처방에 사용되는 일반약어, 표준단위 및 실험실적 검사의 정상범위 등은 부록으로 포함하였다. 초판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2015년 1월 제 2판을 발간하였다. 2013년부터 시작된 약학대학 필수실무실습 및 심화실무실습은 의료기관, 지역약국, 제약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 32개 약학대학에서 통합 6년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어 학생선발에 변화를 통하여 우수한 인재 배출이 예상된다.

5. 맺음말

1986년 창립된 대한약학회 병원약학 분과학회는 김낙두 초대회장을 비롯하여 이민화 학회장님 등 역대 학회장님의 의지와 열정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학술활동은 2007년 이후에도 타 분과

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연합 심포지엄에 병원약사가 연자로 계속 참여하였으며, 병원약사를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연구 활동 또한 활발히 진행되어 1988년 학회지에서는 권당 3-4편의 논문이 게재 되었으나, 1998년 학회지에서는 권당 10여 편 이상 게재 되는 등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약사의 역할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화 및 인공지능을 응용한 의사결정지원, 디지털 치료제 및 디지털 기기를 통한 환자관리가 현실에 적용되고 있다. 병원약학 분과학회는, 빠르게 발전하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하여 나날이 높아지는 의료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여, 약물요법의 질 향상, 환자안전, 의약품사용안전 관리 등 환자 중심의 약제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개선과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우리나라 병원약학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2021 병원약학 분과학회 회장 겸 병원약학분과협의회장 최경숙

08

병태생리학 분과학회



1. > 학회 개요

우리나라 약학교육은 2011년부터 4년제에서 6년(2+4년)제로 학제가 전환되었고 1년간의 실무 실습교육이 도입되었다. 약학교육의 기초인 해부·생리학과 더불어 기초와 임상을 연결하는 데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는 병태생리학이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거슬러 보면,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 후 약사의 직능에 질병과 약물 선택, 질병과 약물 용량 및 복용지도가 강조되면서 질병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더 두드러졌다.

임상에서 환자를 접하는 약사는 그 환자를 위한 약물 처방에 대한 올바른 지식뿐 아니라 인체와 약물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약학의 최종 목표 중 하나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약품의 개발과 의약품을 이용한 질병 치료이므로 질병에 대한 이해는 약학교육에 있어 필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인체는 항상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항상성, homeostasis)이 있으며, 항상성이 깨진 상태, 즉 질병이 있으면 인체의 세포, 조직의 형태 및 장기의 기능 이상 등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 현기증 등의 증후(symptoms)와 객관적으로 전문가가 보고 판단하는 호흡수, 맥박, 창백함 등의 증상(또는 징후, sign)이 야기된다. 인체·해부생리학은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분야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으로 정상인의 인체구조와 기능을 다루는 학문이고, 병태생리학은 질병의 원인 및 발병 기전을 연구하여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약물치료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학문이다

질병을 연구하는 병태생리학은 환자에게 적당한 약물과 제형 등을 선택하여 부작용 없는 양질의 약물요법을 교육하는 약물치료학과 더불어 임상 약학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특정 질병에 대한 진단기술의 개발, 의약품의 치료 효능 및 약리 기전 검색, 독성 등 신약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약품 효능 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생체 외 (in vitro), 생체 내 (in vivo) 질병 모델 확립과 분자생물학적인 발병기전까지의 전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학문 분야로서 우리 분과학회의 역할은 다양하다.

병태생리학분과학회는 1991년 11월 30일 창립되었다. 초대 회장으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김창중 교수를 선출하였다. 이후 이명구(충북대 약대), 김남득(부산대 약대), 정춘식(덕성여대 약대), 이선미(성균관대 약대), 강영숙(숙명여대 약대), 김정애(영남대 약대), 이유미(경북대 약대)

교수가 회장을 역임하였다. 역대 회장단의 노력과 회원들의 물심양면 후원의 결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분과학회 자체 동계·하계 세미나, 워크숍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대한약학회에서도 분과학회 창립 이래 꾸준히 분과 심포지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다. 분과학회는 여러 활동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병태생리학 교수법 향상, 발전하는 학문의 동향 파악 및 회원 간의 학문적인 교류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약학대학 학제가 2+4제로 전환이 되고 15개 약학대학이 신설되면서 많은 신입 교수가 임용됨에 따라 분과학회 회원의 수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에 병태생리학 교육의 표준화와 교수법 향상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2013년 동계 및 하계 병태생리학 교수법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처음 해외에서 개최한 분과학회 세미나는 2016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동계 세미나였다. 오키나와 세미나를 통해 짧은 시간 내 분과학회가 많이 발전했음을 회원들이 인식하게 되었고 자긍심을 느낀 바 있다. 해외 세미나 개최는 지속되어 2017년 2회(홍콩, 일본 삿포로), 2019년 1회(베트남 다낭) 개최하였다. 2020년과 2021년은 COVID-19 팬더믹으로 분과학회 자체 국내외 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했다.

해부생리학과 병태생리학 담당 교수들이 2006년 교과서 선정을 필두로 2011년 인체생리학 7판(라이프사이언스)과 Rubin's 병태생리학 5판(군자출판사), 2013년 Rubin's 병태생리학 5판 수정보완판(군자출판사), 2014년 병태생리학 요약집(군자출판사), 2016년 인체생리학 9판(라이프사이언스), 2017년 Robbins and Cotran 병태생리학 9판(범문에듀케이션), 2019년 병태생리학 요약집(범문에듀케이션) 및 2020년 Hole's 인체해부생리학 15판(라이프사이언스)을 출간하였다. 원활한 교재 출간을 위해 2017년 2월 병태생리학분과회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바 있으며, 현재 37개 약학대학의 해부생리학과 병태생리학 강의 교수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분과학회 회원들은 다양한 질병을 연구하고 있고, 연구 분야도 생리 기전과 병리 기전 연구로부터 타겟 발굴 및 치료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2022년 통합 6년제 학제의 전환을 맞이하여 전공기초 과목인 해부생리학 교육 강화와 약학교육의 필수과목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병태생리학의 지속적인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도 분과학회는 더욱 매진할 것이다.

2. 학회 역사

2-1. 연도별 임원 현황표

연도	회장	소속	주요임원
1992	김창중	중앙대	총무: 오우택
1993-1994	이신웅/김창중	영남대/중앙대	
1995	김창중	중앙대	

연도	회장	소속	주요임원
1996-1997	이명구	충북대	
1998	이명구	충북대	
1999	이명구	충북대	
2000	이명구	충북대	
2001-2002	이명구	충북대	
2003-2004	이명구	충북대	
2005-2006	이명구	충북대	총무: 심상수
2007-2008	김창중	중앙대	
2009-2010	김남득	부산대	부회장: 심상수, 총무: 김정애
2011-2012	정춘식	덕성여대	부회장: 이미옥, 총무: 정인재
2013-2014	김남득	부산대	부회장: 신영기, 총무: 임은옥
2015-2016	이선미	성균관대	부회장: 정이숙, 총무: 강태진
2017-2018	강영숙	숙명여대	부회장: 정인재, 총무: 양영덕
2019	김정애	영남대	부회장: 이유미, 총무: 최진성
2020	이유미	경북대	부회장: 정인재, 총무: 박병덕
2021	정인재	덕성여대	부회장: 이호영, 총무: 남궁완

2-2. 창립 역사 및 임원활동

병태생리학분과학회는 주로 병태생리학과 해부·생리학을 교육하고 있는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하였다. 우리나라 약대에서 최초로 병태생리학 담당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중앙대학교 김창중 교수 및 강원대학교 김형춘 교수와 생리·해부학 담당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영남대학교 이신웅 교수나 서울대학교 오우택 교수가 주축이 되어 1991년 10월 5일에 팔레스호텔에서 회원 32명(대한약학회 회비납부자)이 모여 발기인 모임을 가진 후 동년 10월 12일에 평의원회(현재의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받고, 동년 10월 25일 대한약학회 총회에서 승인받은 11번째 분과학회이다. 이때 다음 대한약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심포지엄을 신청하기로 하여 학술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약제에서 환자 지향적(patient-oriented) 약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인 분과 모임으로 기존의 10개 화학 지향적(chemical-oriented) 분과회와 차별되는 분과학회라고 볼 수 있다.

본 분과학회는 1991년 11월 30일에 대한약사회관 1층 강당에서 66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창립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술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때 다음 춘계 학술대회에서 심포지엄을 신청하여 학술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병태생리학분과회 초창기에는 병태생리학 교육을 담당하셨던 김창중(중앙대학교 약대), 김형춘(강원대학교 약대) 교수와 생리학 교육을 담당하셨던 이신웅(영남대학교 약대), 오우택(서울대학교 약대) 교수 등이 주도하였으며, 여기에 임상약학 교육을 담당하셨던 최준식(조선대 약대), 이명구(충북대 약대), 권광일(충남대 약대) 교수 등과 실제 임상 지향적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던 서울대병원 약제부의 신현택(Drug Information Center, 후에 숙명여대 약대 교수) 및 신완균(Pharmacokinetic Center, 서울대 약대 교수) Pharm.D. 등과 약국,

복지부와 제약업계에서 환자 지향적 업무를 담당하는 약사뿐만 아니라 분과회 소속 교수들의 문하생인 대학원 졸업생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66명이 발기인이 되었다. 이 발기인 모임에서 회원들은 생리학 또는 병리학 학회는 의료계의 생리학회 또는 병리학회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또 임상약학이라는 용어는 당시에 약학자들의 거부감이 커 ‘병태생리학분과회’로 명명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 후 임상 지향적 교육 담당 교수님들은 1998년도에 별도로 임상약학 분과회를 결성하여 분과학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다음은 1991년 11월 30일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 발기인 명단이다.

강효숙 곽재욱 권광일 권오익 김동섭 김명희 김봉문 김수희 김정례 김종은 김준겸 김창중 김태두 김학선 김형민 김환묵 김형춘 류재천 류정수 박은희 박전희 박혜란 서수경 선우연 신명수 신완균 신윤용 신현택 안년형 안형수 염윤기 오우택 우선찬 유정수 유헌묵 이덕행 이명구 이송득 이순교 이신웅 이윤일 이혁구 이현우 임동구 임중식 장용운 전완주 정금용 정찬현 정해영 정진모 정현삼 조길도 조승길 조정희 조중형 조 현 주재현 천세영 최광식 최윤석 최윤정 최종원 최준식 최충식 한경수 (이상 66명)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았다. 회장: 김창중(중앙대 약대 교수), 총무: 오우택(서울대 약대 교수), 학술: 임동구(전남대 약대 교수), 편집: 권광일(충남대 약대 교수), 재무: 조승길(중앙대 약대 강사), 감사: 이신웅(영남대 약대 교수)

〈병태생리학 분과학회 발족 취지문〉

대한약학회가 창립 40주년을 맞게 된 오늘, 한국 약학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이는 약학의 연구범위가 확충되었고 10개 분과학회로 분과되어 발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학에서는 약 50개로 분과된 것을 고려한다면 약학의 분과는 아직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약학은 의약품 개발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와 예방법을 개발하여 인류의 안녕을 추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약학은 임상지향적 약학발전에 소극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질병의 병리기전이 밝혀져야만 그의 치료법이나 예방법이 개발될 수 있고 나아가 신약개발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임상지향적 약학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개발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가고 있는 시점에서 학문적 기초가 되는 생리 및 병리기전에 관하여 심도있는 연구가 절실히 요망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한국 약학에 있어서 생리 및 병리학의 중요성에 비해 소외된 경향이 있었던 바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종합과학으로서 약학의 균형있는 발전에 커다란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신약개발에 있어서도 올바른 발전을 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체의 생리 및 병리기전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약품이 창출되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생리현상뿐만 아니라 질병의 원인, 병리기전, 질병 모델 및 그의 치료 방법과 의약품의 독성을 연구하는 병태생리학을 육성 발전시킨다면 질병의

치료와 예방은 물론이고 의약개발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에 병태생리학의 기초지식과 그의 응용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병태생리학의 보다 깊이 있는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고, 학문의 세분화를 통해 기존 분과학회와의 상호보완과 교류를 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종합과학으로서 약학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병태생리학 분과학회 발족의 목적이 있습니다.

1991년 11월 30일

병태생리학분과학회 발기인

대표 김창중

3. ▶ 현재 임원 및 회원 현황

3-1. 임원 현황

직위	성함	소속
회장	정인재	덕성여대
부회장	이호영	서울대
감사	이유미	경북대
총무	남궁완	연세대
학술	남궁완	연세대

3-2. 정회원 현황

강영숙(숙명여대), 강태진(삼육대), 권광일(충남대), 김권섭(전남대), 김남득(부산대), 김만수(인제대), 김상건(동국대), 김원동(한양대), 김익균(대구가톨릭대), 김정애(영남대), 김향건(순천대), 남궁완(연세대), 노윤석(충북대), 류인균(이화여대), 박병덕(계명대), 배규운(숙명여대), 배은주(전북대), 백인환(경성대), 서정원(원광대), 손동주(충북대), 송경(덕성여대), 송대섭(고려대), 신영기(서울대), 신은주(강원대), 심원식(가천대), 안형수(동덕여대), 양영덕(차의과대), 우동균(경상대), 우선희(충남대), 윤수정(이화여대), 윤휘열(충남대), 은재순(우석대), 이경림(이화여대), 이금화(조선대), 이명구(충북대), 이미옥(서울대), 이민영(경북대), 이유미(경북대), 이윤희(서울대), 이은영(목포대), 이종길(경희대), 이지윤(중앙대), 이충현(단국대), 이호영(서울대), 이효종(성균관대), 임은옥(부산대), 임주희(우석대), 전유진(이화여대), 정기웅(경성대), 정용우(고려대), 정이숙(아주대), 정인재(덕성여대), 최민식(동덕여대), 최준정(연세대), 최진성(가톨릭대), 하은미(대구가톨릭대), 한상배(충북대), 한용현(강원대), 한진이(충북대)

4. 주요 학술 및 교육활동사항

» 교재 발간

연도	교재	출판사
2011	인체생리학 7판	라이프사이언스
2011	Rubin's 병태생리학 5판	군자출판사
2013	Rubin's 병태생리학 5판 수정보완판	군자출판사
2014	병태생리학 요약집	군자출판사
2016	인체생리학 9판	라이프사이언스
2017	Robbins and Cotran 병태생리학 9판	범문에듀케이션
2019	병태생리학 요약집	범문에듀케이션
2020	Hole's 인체해부생리학 15판	라이프사이언스

» 심포지엄/세미나/워크숍 개최

- 1991 병태생리학분과학회 창립기념 심포지엄 (대한약사회)
- 1992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 병태생리분과 심포지엄 (숙명여자대학교 강당)
- 1993 병태생리분과학회 3차 심포지엄 (반포회관)
- 1994 병태생리분과학회 4차 심포지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 1994 병태생리분과학회 5차 심포지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 1996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병태생리학의 최근 연구동향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 1997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 병태생리학의 최근 연구동향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 1997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최근의 병태생리기전 연구동향 (덕성여자대학교)
- 1998 병태생리분과학회 6차 심포지엄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 1998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병태생리학의 최근 연구동향 (경희대학교)
- 1999 병태생리분과학회 7차 심포지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 1999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Mechanism of oxidative stress and development of its inhibitors (서울교육문화회관)
- 2006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Molecular pathogenesis and pharmacological intervention in the neuronal degeneration (서울교육문화회관)
- 2007 병태생리분과학회 9차 심포지엄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 2009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Ion Channel and Disease (서울교육문화회관)
- 2010 병태생리학분과학회/충남대 약대 BK21 신의약사업단 하계심포지엄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 2010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Shock and Organ Ischemia (라마다 플라자 청주호텔)
- 2011 병태생리학분과학회 하계 심포지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 2012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 Advances in hypoxic signaling in human pathophysiology (제주컨벤션센터)
- 2012 병태생리학분과학회 하계 심포지엄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 2013 병태생리학분과학회 동계 워크숍 (대전)
- 2013 병태생리학분과학회 하계 워크숍 (대전)
- 2013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염증성 장질환 및 대장염 연관 대장암의 최신 연구동향 (충북 오송 CV센터)
- 2014 국시문항개발능력향상워크숍 (이화여자대학교)
- 2014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혈관신생조절변이에 의한 질병의 치료 전략 (호텔현대경주)
- 2015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Recent advances in molecular pathogenesis of gastrointestinal diseases (호텔인터불고엑스코 대구)
- 2016 병태생리학분과학회 동계 세미나/워크숍 (일본 오키나와)
- 2016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 Current advances in chronic inflammatory diseases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 2016 병태생리학분과학회 동계 심포지엄/워크숍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 2017 병태생리학분과학회 동계 세미나/워크숍 (홍콩)
- 2017 병태생리학분과학회 하계 세미나/워크숍 (일본 삿포로)
- 2017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Novel Strategies for Cancer Therapies (충청북도 C&V센터)
- 2018 병태생리학분과학회 동계 세미나/워크숍 (부산)
- 2018 병태생리학분과학회 하계 세미나/워크숍 (강릉)
- 2019 병태생리학분과학회 동계 세미나/워크숍 (베트남 다낭)
- 2019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 New insight into the metabolic syndrome (밀레니엄 서울힐튼)
- 2019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Current advances of the diseases in the nervous system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 2020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Molecular mechanisms, prevention and clinical management in sarcopenia (서울교육문화회관)
- 2021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내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최신동향 (전북대학교)



<하계 심포지엄(충남대학교)> 2010 / 회장 김남득



〈동계 세미나(베트남 다낭)〉 2019 / 회장 김정애

5. 주요 인사 동정

»초대 회장 김창중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창중 교수(2010년 정년퇴임)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으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생리학, 병리학)과 미국 Thomas-Jafferson 대학교 의과대학(내과학)에서 기초의학을 수학한 이후 국내 최초로 약학대학 병태생리학 교수로 임명되어 1980년 약학대학 내 병태생리학 과목을 개설하였다. 또한 1993년에 중앙대 약대 학장에 취임하여 3년간 모교 약학교육의 발전 업무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2002년에는 약학연구소 8대 소장(2002-2003년)으로 취임하여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의 발전에도 힘썼다. 학장 재임 때 약학대학 내에 특수대학원인 의약식품대학원을 국내 최초로 신설하여 1994-1995년 초대 원장 취임 및 2000-2001년 4대 원장에 재임하면서 학부에서 미진하게 교육된 약무행정, 사회약학, 향장품학, 산업약학 및 병원임상약학 전공 등을 개설하여 약사의 직능을 확대·개발하는 교육을 펼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김창중 교수 (초대 회장)

»주요 학회장 활동 동정

대표적으로 김창중 교수는 대한약학회 41대 회장(1999-2000년)을 역임하면서 「21세기 약학교육의 발전 방향(2000년)」책자를 발간하여 미래 약학교육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국제학회지 등재 추진 등을 통하여 대한약학회를 국제학회로 진입시키고자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1년 대한약학회 병태생리학 분과학회를 창설하고 초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해당 분과학회가 정착하고 성장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약학회관 건립을 위해 기금을 모금하기 시작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약학대학협의회 회장(1995-1996년) 재임 기간 중인 1995년에는 전국 약대 교수 215명의 서명을 받은 후, 한약학과 신설을 반대하고 의료일원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 외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 8대 이사장(2016-2019년), 의약사평론가회 부회장(1997년), 한국생약학회와 한국약제학회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약학발전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기술개발 및 제약산업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공직기관장

대표적으로 김창중 교수는 교수로 재직 당시 2001년 정부에서 발족한 “대통령자문기구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2002-2003년)으로서 6년제 약학교육제도 채택 결정에 기여하였다. 「약학교육의 내실화 및 약사인력의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약사연수교육 내실화 및 효율성제고 방안」에 관하여 정책과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대통령께 건의함으로써 약학계 및 약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수상 및 연구단장

약학교육에서 환자 지향적 약학교육의 도입이 정착되는 데 크게 공헌하여 대한약학회로부터 「학술장려상」(1991년) 및 「약학교육상」(2001년)을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매체들과 약학전문지 등에 약학 전문지식과 약학 발전을 위한 제언을 게재하여 약학발전에 공헌한바 「약사금탑」(대한약사회 약학연구부분, 2001년), 「동암 약의 상-금탑」(약업신문 약학부분, 2001년)과 「약사평론가 기장」(의학신문사, 1995년)을 받았다. 또한 우수한 연구 활동과 약효재평가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약산업 발전에 공헌하였기에 한국제약협회로부터 「창립 50주년 공로패」(1995년)도 받았다. 또한 약학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995년) 및 서울시 주최 「서울 사랑 시민상」(1995년)을 수상하였다.

6. 맺음말

1991년 창립된 이래 병태생리학분과학회의 회원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의 초석이 되는 생리 및 병리기전에 관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병태생리학 교육을 통해 임상 지향적 약학교육을 선도해 왔다. 최신 연구 경향 파악과 연구성과 발표를 통한 연구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술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왔다. 분과학회 회원 수는 약 100여 명에 이르며, 근무처도 대학, 제약회사, 기타 연구소, 개국 약국 등 다양하다. 현재 대학에서 해부생리학과 병태생리학 교육을 담당하는 약 50명의 교수는 교재 발간과 약교협의 약학교육 과정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분과학회 역사를 정리하면서 특히 초창기 분과학회의 창립 과정을 살펴보았다. 분과학회 초창기에 관여하셨던 교수님들이 정년 퇴임하기 전에 분과학회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작성한 역사의 부족한 부분은 다음 임원진에서 지속적으로 추가해 줄 것을 기대한다. 작은 자료들이 모여 훌륭한 역사의 증거물이 된다는 교훈을 얻는 기회이기도 했다. 체계적 기록이 지속적인 분과학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작성을 위해 자료 정리를 도와주신 남궁완(연세대학교) 총무님과 주요 인사 김창중 교수님에 대해 기술해 주신 이지운(중앙대학교) 교수님, 사진과 자료를 보내 주신 김남득(부산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한 역대 회장님, 총무님, 분과학회 모든 교수님, 그리고 창립 관련 자료를 보내 주신 김창중(중앙대학교) 명예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09

사회약학 · 약료경영학 분과학회



1. 학회 개요

2007년 대한약학회 약료경영학 분과학회를 창립하였다. 2008년 “한국약료경영학회” 창립(초대 회장: 신현택 숙명여대 약대 교수)으로 시작된 우리 학회는 2012년 4월 학문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약료경영학회”와 “보건사회약학연구회(2011년 1월 창립)”를 통합하여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로 재창립되었다. 지난 10여년 동안 의약품 관련 경영, 정책,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연 2회 학술대회를 개최해왔고, 최신의 연구방법론을 다루는 연수교육과 학술지 발간을 꾸준히 해 왔다.

2. 학회 역사

2-1. 연도별 임원 현황표

연도	회장	소속	주요임원
2012-2014	신현택	숙명여대	감사: 전인구 수석부회장: 한병현, 최경업 부회장: 이범진, 이의경, 오정미, 권경희, 서동철, 강혜영, 추연성, 송영천, 박인춘 총무이사: 손현순
2015-2016	이의경	성균관대	감사: 전인구, 최경업 부회장: 박인춘, 서동철, 신광식, 유태무, 이범진, 이재현, 최태홍, 장선미, 최상은, 강혜영, 오정미, 지은희, 권경희, 이모세, 송영천, 김수경, 이상원 총무이사: 하동문
2017-2018	서동철	중앙대	감사: 권경희, 오정미 부회장: 박인춘, 이봉용, 김대원, 나현오, 김대중, 이범진, 이재현, 최태홍, 한은아, 장선미, 강혜영, 최상은, 홍송희, 김수경, 이모세, 송영천, 유미영, 이상원 총무이사: 이승미
2019-2020	홍송희	서울대	감사: 권경희, 오정미 부회장: 박인춘, 이봉용, 김대원, 나현오, 김대중, 이범진, 이재현, 한은아, 장선미, 강혜영, 최상은, 홍송희, 김수경, 이모세, 송영천, 유미영, 이상원 총무이사: --
2021-2022	강혜영	연세대	감사: 권경희, 오정미 부회장: 김대원, 김대중, 나현오, 박인춘, 손현순, 이범진, 이재현, 장선미, 최상은, 배은영, 권진원, 조은, 이인향, 이상원, 김수경, 조윤숙, 김성욱, 유미영, 김준수, 서혜선 총무이사: 한은아

2-2. 창립 역사 및 임원활동

합리적인 정책 및 과학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약사, 의약품, 관련 산업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기여를 향상하고자 2008년에 “한국약료경영학회”로 창립되었다(초대 회장: 신현택 숙명여대 약대 교수). 2011년 1월에는 보건사회약학 분야의 교수 및 연구자들이 “보건사회약학연구회”를 설립하여 활동하였다. 2012년 4월에는 학문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약료경영학회”와 “보건사회약학연구회”를 통합하여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로 학회명이 변경되고 신현택 교수가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학회 회원이 확대되었다. 이후 2015-2016년 2대 회장에 성균관대 약대 이의경 교수, 2017-2018년 3대 회장에 중앙대 약대 서동철 교수, 2019-2020년 4대 회장에 서울대 약대 홍송희 교수, 2021-2022년 5대 회장에 연세대 약대 강혜영 교수가 취임하였고, 특히 제2대(2015-2016년) 이의경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2019-2020)으로 활동하여, 우리 학회의 사회적 리더십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 학회는 학계, 공공기관, 병원,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법무법인, CRO,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차세대 학문을 이끌어갈 대학원생 및 연구원들이 주요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학회 탄생

- 2008.11.24. 한국약료경영학회 출범
- 2011.1. 보건사회약학연구회 설립
- 2012.4.3. 보건사회약학연구회와 한국약료경영학회가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로 통합하여 재출범 (2012.3.30 대한약학회 학회명 변경건 이사회 통과)

» 역대 회장

[한국약료경영학회]

2008-2012 신현택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보건사회약학회]

2011-2012 한병현 박사 (BGS)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2012-2014 신현택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2015-2016 이의경 교수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2017-2018 서동철 교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2019-2020 홍송희 교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2021-2022 강혜영 교수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3. 현재 임원 및 회원 현황

3-1. 임원 현황



직위	성함	소속
회장	강혜영	연세대
부회장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퇴직)
	김대중	다이이찌산쿄
	나현오	가톨릭대
	박인춘	대한약사회
	손현순	차의과대
	이범진	아주대
	이재현	성균관대
	장선미	가천대
	최상은	고려대
	배은영	경상대
	권진원	경북대
	조은	숙명여대
	이인향	영남대

직위	성함	소속
부회장	이상원	성균관대
	김수경	대한약사회
	조윤숙	서울대병원
	김성옥	인제대
	유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준수	한국애브비
	한은아	연세대
	서혜선	경희대
감사	권경희	동국대
	오정미	서울대
총무	한은아	연세대
학술	서혜선	경희대

3-2. 정회원 현황

강혜영(연세대), 고기현(PHC포럼), 곽혜선(이화여대), 권자영(대한약사회), 김선희(의약품정책연구소), 김성옥(인제대), 김수경(한국보건 의료연구원), 김영선(케이벨트), 김영진(PHC포럼), 김예지(대한약사회), 김은경(서울대), 김은영(중앙대), 김은준(서울시약사회), 김주희(아주대), 김현아(숙명여대), 나현오(가톨릭대), 모현아(성균관대), 문홍섭(목포대), 박혜경(의약품정책연구소), 배훈(약바로쓰기운동본부), 백진희(서울대병원), 서동철(중앙대), 서예원(분당서울대병원), 서희남(강북삼성병원), 손현순(차의과대), 송윤경(대구가톨릭대), 신경도(경기도약사회), 신광희(경북대), 신성주(대한약사회), 신수영(아주대), 신완균(서울대), 신헌연(덕성여대), 심미경(차의과대), 아영미(영남대), 안숙희(원광대), 양재욱(삼육대), 원희목(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유기연(동덕여대), 유봉규(가천대), 이경은(충북대), 이명자(서울시약사회), 이모세(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이병구(바우약국), 이숙향(아주대), 이승미(대구가톨릭대), 이승희(천사약국), 이영숙(계명대), 이윤정(단국대), 이의경(성균관대), 이재현(성균관대), 이정연(이화여대), 이주연(서울대), 이진순(서울시약사회), 이진희(약사공론), 이해재(우석대), 이희영(건양대), 장민정(연세대), 장선미(가천대), 정선영(중앙대), 정은경(경희대), 정지은(한양대), 제남경(부산대), 조동환(약사공론), 조혜경(성균관대), 좌석훈(대한약사회), 진병조(한국제약바이오협회), 진혜경(PHC포럼), 최경식(한양대), 최경희(순천대), 최수안(고려대), 최영옥(서울시약사회), 최혜덕(영남대), 하정은(서울대), 홍송희(서울대)

4. 주요 학술 및 교육활동사항



〈추계학술대회〉 2014 / 회장 신현택

» 학술대회 개최

- 2008 가을 창립 심포지엄: 약료경영약학의 과제
- 2009 봄 학술대회(대한약학회 연합): Managed care pharmacy perspectives on national formulary
- 2009 가을 학술대회: 건강보험재정 위기에서 지속가능한 약제보험을 위한 위험분담방안
- 2010 봄 학술대회: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 2010 가을 학술대회: 소비자 중심의 선택약가제도
- 2011 봄 학술대회: 우수약무기준에 근거한 약국서비스 질 향상
- 2011 가을 학술대회(한국약학교육협의회 공동): 글로벌 조화의 소비자 중심 보험약제 보장성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강화
- 2011 가을 학술대회(대한약학회 연합): 약대 6년제 교육, 왜 보건사회약학인가?
- 2012 봄 학술대회(대한약학회 연합):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시장진입에 대한 전망
- 2012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 2014 춘계연수교육 개최
- 2014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 2015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 2016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 2016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 2017 전기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개최

- 2017 후기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개최
- 2018 전기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개최
- 2018 후기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개최
- 2019 전기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개최
- 2019 후기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개최
- 2020 후기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개최
- 2021 전기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개최

2008년 가을에 한국약료경영학회는 “약료경영약학의 과제”를 주제로 창립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이후 2011년까지 연 2회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2012년에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로 출범한 이후에 자체적으로 연2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을 진행하였고, 연1회 이상 대한약학회 연합 심포지엄에 참여하고 있다. 2021년 춘계학술대회에서는 “Pharmaceutical Policy in Post-Corona Era”를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의약품 정책의 방향에 대한 기초연설과 코로나19 백신과 코로나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코로나 시대 이후의 약사의 역할에 대한 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하였고, 연수교육에서는 네트워크 메타분석 이론 및 실습, 질적 연구 방법 이론 및 실습, 성향점수를 이용한 교란요인 통제방법의 이론 및 실습, 매칭 보정 간접비교 방법 이론 및 실습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었다.

» 학술세미나

2008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월 2회씩 학술세미나 및 formulary forum 개최하였다.

[학술세미나 주제]

- Long-term care pharmacy practice
- Formulary Management
- 근거중심약료(evidence-based pharmacotherapy)
- 의약품 경제성 평가에 대한 소고
- 약국관리와 관련된 판례
- 한국제약산업의 현재와 미래
- Real World Data를 이용한 약물평가 연구
- The Issues in Generic Substitution of Antiepileptic Drugs /Translational Investigation of Turmeric Supplements for the Treatment of Experimental Arthritis: A Review of Lessons Learned
- 고혈압, 당뇨병 노인의 복약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Risk Sharing Program
- 우울증 순응도 평가 연구

-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Risk Communication & Management
- 효과적인 의약품정보 전달 및 마케팅을 위한 소통의 기술
- 약물경제성평가의 의미와 전망
-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부의 의약품정책
- 시판후 약물감시체계[PMS] - 의약품 재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 노인들의 의약품 오남용 실태평가와 제도
-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평가를 위한 체계적문헌고찰
- 약학교육 변화와 약사의 직능
- 신약도입과 관련한 의약품 의사결정제도의 국제적 동향
- AMCP 22nd annual meeting 참관기
- 외국의DUR 및 처방평가제도와 정책적 함의
- 약가결정 체계와 약가협상
- 바이오시밀러의 현황 및 전망
- 외국의 특허만료의약품 약가정책
- The Economic Burden of Chronic Disease in terms of Medical Expenditure and Lost Productivity
- Pharmacy School and Pharmacist at a crossroad -Lessons learnt from the UK case
- 개인화 맞춤치료를 위한 약료서비스 및 임상연구
- 의약품 분류체계의 검토
- 다수준분석의 이해와 활용
- 항암제 적정보험급여를 위한 제언
- 사용량-약가연동제 실태조사 및 발전 방향 연구
- 바이오시밀러 허가 심사
- 노인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성과분석(outcomes research)
- 신약의 가치 반영

» 학술지 발간

한국약료경영학회에서는 2009년에 “한국약료경영학회지” 창간호를 발간한 이후에 2010-2011년에는 연2회 학술지를 발간하였다. 한국보건의사회약료경영학회로 출범한 후에는 “한국보건의사회약료경영학회지”로 명칭이 변경되어 2015-2016년에는 연1회, 2017년부터는 연2회 발간하고 있고, 2021년 6월에는 제9권 제1호를 발간하였다.

» 학회 주관 저술 활동

2011. 10 번역서 [약료경영개론 (Managed Care Pharmacy)] 신일북스.

2011. 11. 12 [약료경영개론] 출판기념회

» 학회 주관 교육 활동

학회 인증 데일리팜 팜아카데미 온라인 강좌(총 12강) : 지역약국 약사를 위한 DUR 실무

5. > 관련학회 정보

- 학회 홈페이지: <http://kasmcp.or.kr>
- 사무국 주소: (우)21983, 인천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진리관D동 206호
- 전화: (032)749-4150 | 이메일: kasmcp@naver.com

6. > 맺음말

우리 학회는 약사와 의약품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적극적인 학문과 토론의 장을 열어나가고자 한다.

2021 사회약학·약료경영학 분과학회 회장 강혜영
총무 한은아

10

산업약학 분과학회



1. 학회 개요

산업약학분과는 학계, 산업계, 공공연구기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제약바이오산업 유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위한 만남의 장이 되고자 한다. 분과회원들은 다학제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약연구개발 전주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협력, 현안도출 및 발전방안모색 등을 통해 제약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 학회 역사

2-1. 연도별 임원 현황표

연도	회장	소속	주요임원
2007-2012	김재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13-2021	김애리	차의과대	부회장: 정진현/박영준 총무: 민경훈, 학술: 장민선, 편집: 김미현, 대외협력: 정호철

2-2. 창립 역사 및 임원활동

2007년에 산업약학분과회가 창립되었으며 김재환 (당시 한올바이오파마 부사장) 박사님께서 2012년까지 초대회장을 역임하였다. 제2대 임원진은 2013년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제3대 임원진은 2022년 새로 구성될 예정이다.

3. 현재 임원 및 회원 현황

3-1. 임원 현황

직위	성함	소속
회장	김애리	차의과대
부회장	정진현/박영준	연세대/아주대
학술간사	장민선	숙명여대
총무간사	민경훈	중앙대
편집간사	김미현	가천대

3-2. 정회원 현황

강경구(동아제약), 강석모(바이오톡스텍), 구태성(충남대), 구혜민(숙명여대), 권희승(한독), 김경운(한독약품), 김동연(일양약품), 김동환(건양대), 김민주(녹십자), 김보령(약학정보원), 김상훈(동아제약), 김성섭(충남대), 김애리(차의과대), 김영훈(영진약품), 김용일(한미약품), 김재환(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김주은(대구가톨릭대), 김중효(일동생활건강), 김태성(JW중외신약), 김태현(부광약품), 김학준(원희목의원실), 김형욱(건양대), 나동희(중앙대), 류재국(한미약품), 류형선(다산메디칼), 민향원(한국유씨비제약), 박영준(아주대), 박재현(한미약품), 박전의(JW크레아젠), 박정규(새한제약), 박홍진(한국오츠카제약), 서동욱(LG화학), 손주선(삼양제넥스), 송대섭(고려대), 신영근(충남대), 신준현(CJ제일제당), 심유란(스마트바이오팜), 심현주(전북대), 우영아(종근당), 원재희(한국엠에스디), 윤병호(한독약품), 윤수진(성균관대), 윤승천(뚝도시장약국), 윤태종(아주대), 이기형(공주대), 이덕근(동국제약), 이민석(대웅제약), 이인숙(휴온스), 이재화(신라대), 이정석(식약처), 임현태(코아팜바이오), 장민선(숙명여대), 장석구(플레신코리아), 전선덕(파마킹), 정재훈(동아제약), 정호철(이화여대), 정호철(비스메르), 천선아(C&C신약연구소), 최학배(하플사이언스), 최현경(중원대), 편범(대웅제약), 하종렬(유유제약), 황성주(연세대)

4. 주요 학술 및 교육활동사항

» 저술활동

산업약학분과 2대 임원진의 첫 성과는 “제약산업학” 발간이었다.

2013년 2월 20일 초판 발행 후, “제약산업학-From market to bench, From bench to market-”을 부제로 2016년 2월 3일 제2개정판에 이어 2021년 9월 1일 제3개정판을 출간하였다. 제약바이오산업 인재육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공의 학부 또는 대학원 교재로, 그리고 산학연관 현장에서 교육 또는 참고자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학계, 산업계, 공공연구기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분야별 전문가가 저자로 참여하여, 제약바이오산업이라는 큰 주제하에 시장과 연구개발 측면을 고루 다루고자 하였다. 저술과정에서 여러 산업약학분과회원들께서 섹션디렉터 및 챕터 저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시며 서로 협력하였다.



〈「제약산업학」 제3개정판 상하권 표지 (2021)〉



〈저자대표 이봉용 박사의 인사말 (『제약산업학』 제2개정판 출판기념회)〉 2016 / 회장 김애리



〈심창구 전 서울대교수의 축사 (『제약산업학』 제2개정판 출판기념회)〉 2016 / 회장 김애리



〈「제약산업학」 제2개정판 출판기념회 (저술에 참가한 저자와 출판 축하를 위해 학계, 공직, 산업계에서 20 명 인사 참석)〉 2016 / 회장 김애리

»분과 워크샵

2016년 1학기 산업약학분과 제약산업학 강의 워크샵

대학 학부 및 대학원에서 제약산업학을 강의하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제약산업학 교재 저자 직강 후 제약산업학 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 수준 및 전달 방법 등에 관해 토의하였다. 강사로는 강원대 안성훈 교수, 숙명여대 장민선 교수, 차의과학대학교 김애리 교수가 수고하였다.

»분과 심포지엄

산업약학분과에서 주도한 약학회 심포지엄들은 바이오제약 관련 현안을 다루고 미래를 제시하여 산학연관 모두 참여하는 다학제 다기관 행사로 높은 참석율을 보여주었다.

»2014년 추계 분과 총회 및 심포지엄: Creating values by open innovation in pharma R&D

글로벌 제약산업은 초대형 주력제품의 특허만료로 인한 매출 감소, 신약 연구개발 생산성 저하 및 의료전달체계의 변화 등의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다양한 제약산업 이해당사자들은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형성, R&D아이디어 발굴, 기술개발 및 제품화 협력 등 ‘개방형혁신’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내 기업, 기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 흩어져 있는 아이디어, 기술, 프로젝트 등이 모두 개방형혁신의 중요한 요소이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사업화, 개발, 연구 등 전주기에 걸친 여러 모양의 개방형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 및 성공사례들과 미국이나 유럽의 CPI, IMI 등 관·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개방형혁신의 나아갈 바를 모색하였다.



〈추계 분과 총회〉 2014 / 회장 김애리



〈추계 분과 총회 - 전임회장 김재환 박사 감사패 증정식〉 2014 / 회장 김애리
좌: 김애리 현 회장; 우: 김재환 전임 회장

» 2015년 춘계 분과 총회 및 심포지엄: 항체-약물결합체 (Antibody Drug Conjugate) 개발의 현황과 미래 전망 (The recent trends and future perspectives of antibody-drug conjugates)

ADC는 단클론항체의 특이성과 약물의 세포독성의 두 구성요소를 조합하여 효능과 특이성을 지닌 약물로서 최근 많은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이다. ADC의 개발에는 최적화된 항체와 표적 항원의 선택, 최적화된 링커의 기술개발, 최적화된 약물의 효능과 양적관계(stoichiometry), 그리고 항체와 약물간 융합 등의 기술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기술은 은 국외 뿐 아니라 국내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ADC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본 심포지움은 생물화학적 기술, 규제, 체내분포, 독성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ADC의 현재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 2016년 추계 분과 총회 및 심포지엄: 신약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strategies to create values from naive technologies)

R&D 기술 사업화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초연구부터 응용연구, 기술개발, 후속 연구지원, 기술이전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적이며 시장 중심적인 사업화 관점, 즉, R&BD (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본 심포지움은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성과로부터 가치창조를 극대화하기 위한 R&BD 전략을 기초연구부터 사업화에 종사하는 다양한 분야의 청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심포지움에서 대학의 연구자, 사업단 및 R&D 기획 부처의 사례와 경험을 통해 초기단계 기술의 가치 극대화 및 국내의 우수한 보건의료분야 기술이 글로벌시장에 적극 진출 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 2018년 추계 분과 총회 및 심포지엄: 약학 빅데이터의 특성과 활용 (Characterization and application of pharmaceutical big data)

제약사/연구소/학교 등에서 신약 연구개발을 위해 갖출 데이터베이스의 형태와 특성, DB 데이터 분석법 (예시: 마케팅과 'PK/PD' 모델), 인공지능 알고리즘 및 예측 모델을 이용한 신약개발 방법, 신약 후보 물질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글로벌 현황 등을 소개하였다.

5. 주요 인사 동정

김애리 회장

차의과학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장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 (NET) 의약품분과위원장
한국핵신의약품컨소시엄 (KIMCo) 운영위원
국가신약개발사업단 (KDDB) 투자심의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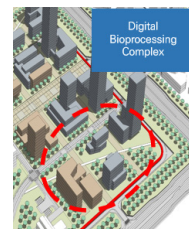
정진현 부회장

2018년 보건복지부 후원 제약바이오산업특성화
대학원 연세대학교 단장

2020년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 후원
K-NIBRT 바이오공정인력양성사업
교육센터장(1,500억 자금)

2021년 한국 PDA (Parenteral Drug Association)
회장 취임

2019년 에티오피아 아다마과기대 제약산업연구소
설립 EDCF 차관기획사업 책임자

**장민선 학술간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장

**정호철 대외협력간사**

산업약사회 자문위원

이화여대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 운영위원

두 단체 공동 〈제약생명공학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산업계 약사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
연세대 K-NIBRT 겸임교수로서 K-NIBRT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 참여

**6. 맺음말**

김재환 제1대 회장님을 비롯하여, 산업약학분과 임원진과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산업약학분과학회가 발전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관련 산학연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을 원하시는 약학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 산업약학 분과학회 회장 김애리

11

생약·천연물 분과학회



1. 학회 개요

생약·천연물분과학회는 생약과 천연물 지식에 기반한 성분의 분리, 화학구조의 규명, 생물활성의 탐색, 효과적인 생산 및 제조 방법의 탐구 등 생약 및 천연물과 그 성분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1957년 약용식물학과 생약학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이선주 교수(서울대)를 초대 회장으로 대한약학회 내의 식물생약분과회를 창립하였으며, 그 후 초대회, 강연회, 채집대회 등의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였다. 이어 1970년 약용식물학, 생약학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대한약학회 천연물분과학회가 발족하면서 식물생약분과회의 기능을 승계했으며 당시의 식물생약분과회 회원은 자동적으로 천연물분과학회 회원이 되었고 초대회장에 김제훈 교수(서울대 생연)가 선출되었다. 그 후, 2010년대 초반에 생약천연물과학분과회라는 이름으로 개칭하였으며, 최근 생약천연물분과학회로 개칭하였다.

생약·천연물분과학회는 (사)한국생약학회, 한국생약학교수협의회, 천연약물연구회, 한국약학대학약초원협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생약과 천연물의 교육과 연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한약학회의 가장 큰 분과학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2. 학회 역사

2-1. 연도별 임원 현황표

연도	회장	소속	주요임원
1970-1977	김제훈	서울대	
1978-1982	김일혁	중앙대	
1983-1984	지형준	서울대	
1985-1986	이인란	이화여대	
1987-1988	김태희	숙명여대	
1989-1990	육창수	경희대	
1991-1992	정명현	조선대	
1993-1994	김종원	효성여대	
1995-1996	김창민	강원대	
1997-1998	이경순	충북대	

연도	회장	소속	주요임원
1999-2000	문영희	조선대	
2001-2004	정시련	영남대	
2005-2006	노재섭	충북대	
2007-2008	김영호	충남대	
2009-2010	정지형	부산대	
2011-2012	이익수	전남대	
2013-2014	우은란	조선대	
2015-2016	이민원	중앙대	
2017-2018	김윤철	원광대	
2019-2020	서은경	이화여대	
2021-	황완균	중앙대	학술 : 박소영, 총무 : 정길생, 편집 : 양희정

2-2. 창립 역사 및 임원활동

1940년대-1950년대의 약용식물과 생약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시대적 조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56년 약용식물학과 생약학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정식은 아니지만, 대한약학회 내에 식물생약분과회라는 형태의 조직을 만들고 매월 초독회 또는 토론회, 세미나 및 채집대회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당시에는 약학회의 다른 분과의 활동이나 조직이 없는 상태인지라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1957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식으로 대한약학회 식물생약분과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선주 교수(서울대)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고 매월 또는 두 달에 한번 때로는 1년에 4차 분과회를 열었고 개최 장소는 각 대학 또는 연구소를 순회하면서 당번대학 또는 당번연구소가 되었다. 당번대학 또는 당번연구소는 초독회, 특별강연 등을 준비하였으며,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내장산, 속리산, 대둔산 등 우리나라 명산명소를 찾아 장거리 채집회 등을 개최하여 서로 학술토론, 정보교환 및 친목하고 심신을 단련하였다. 또한, 문헌초록집을 인쇄하여 회원에게 배부하였고 수출입 생약과 국내 생약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준을 정하고자 많은 관련 자료도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대학약학회 식물생약분과회의 학술활동은 1969년 12월 27일 역사적인 한국생약학회의 출범 직전인 1969년 12월 26일까지 계속되었고 49회의 분과회가 개최되었다. 그 당시의 분과회장은 초대회장이신 이선주 교수를 비롯하여 임기홍, 류경수, 한대석 교수 등이 있다. 한국생약학회가 역사적인 창립과 더불어 학회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당시의 식물생약분과회는 학회로 흡수 통합됨과 더불어 발전적으로 조직해체가 되었다. 이어 1970년 10월 대한약학회 추계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끝난 직후 약용식물학, 생약학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대한약학회 천연물분과학회가 발족하면서 발전적으로 해체된 식물생약분과회의 기능을 승계했으며 당시의 식물생약분과회 회원은 자동적으로 천연물분과학회 회원이 되었고 초대회장에 김제훈 교수(서울대 생연)가 선출되었으며 이어 김일혁, 김병각, 지형준 교수 등이 천연물분과학회장으로 승계되면서 수차례 걸쳐 대한약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천연물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을 직접 주관하여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다. 1986년에는 분과학회 이름으로 「天然物化學」이라는 교과서를 발간, 학부 및

대학원 교육에 활용하였으며 2010년대 초반에 생약천연물과학 분과라는 이름으로 개칭하였으며, 최근 생약천연물분과학회로 개칭하였다.

그간 생약천연물분과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역대회장은 김제훈 초대회장을 비롯하여 김일혁(중앙대 약대), 김병각(서울대 약대), 지형준(서울대 생연), 이인란(이화여대 약대), 김태희(숙명여대 약대), 육창수(경희대 약대), 정명현(조선대 약대), 김종원(효성여대 약대), 김창민(강원대 약대), 이경순(충북대 약대), 문영희(조선대 약대), 정시련(영남대 약대), 노재섭(충북대 약대), 김영호(충남대 약대), 정지형(부산대 약대), 이익수(전남대 약대), 우은란(조선대 약대), 이민원(중앙대 약대), 김윤철(원광대 약대), 서은경(이화여대 약대) 및 현 회장인 황완균(중앙대 약대) 교수 등 주로 생약학 및 약용식물학 교수들이 역임했다.

3. 현재 임원 및 회원 현황

3-1. 임원 현황

직위	성함	소속
회장	황완균	중앙대
학술	박소영	단국대
총무	정길생	충남대

3-2. 정회원 현황

강교빈(숙명여대), 강문규(메이준생활건강), 강민아(전남대), 강삼식(서울대), 강세찬(경희대), 강소영(전남대), 강영화(경북대), 강정일(제주대), 강형원(원광대산본한방병원), 강희경(제주대), 고병섭(한국한의학연구원), 고성권(세명대), 고재영(아모레퍼시픽), 고현주(한불화장품), 곽종환(성균관대), 구경아(경상대), 구교철(파마팩스), 권동렬(원광대), 권병목(한국생명공학연구원), 권용삼(동아제약), 권학철(KIST), 김경범(광동제약), 김고은(식약처), 김기현(성균관대), 김대근(우석대), 김도희(서울의료원), 김동선(한국한의학연구원), 김동현(팜스동현), 김명석(하원제약), 김무성(중외제약), 김미란(한림제약), 김범태(전북대), 김보애(목원대), 김봉현(부부한의원), 김상태(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상현(충북대), 김선여(가천대), 김선여(가천대), 김성환(한국화학연구원), 김성훈(경희대), 김세재(제주대), 김소라(서울과학기술대), 김수남(KIST), 김승현(연세대), 김영민(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영섭(한국화학연구원), 김영호(충남대), 김영희(상명대), 김우경(동국대일산병원), 김윤철(원광대), 김은영(광동제약), 김은정, 김일광(원광대), 김정아(경북대), 김종훈(전북대), 김주선(서울대), 김지민(대화제약), 김지영(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지영(서울대), 김지은(파마팩스), 김진미(GIST), 김진희(대구한의원), 김진희(한불화장품), 김철영(한양대), 김현영(경남과학기술대), 김현정(목포대), 김현진(유니젠), 김형자(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혜경(경성대), 김호경(한국한의학연구원), 김호현, 김홍표(아주대), 나민균(충남대), 남궁우(순천향대), 남길수(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남상집(이화여대), 노문철(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주환(한국한의학연구원), 노창현(한국원자력연구원), 다런리엄스(광주과학기술원), 두효비(동아에스티), 량춘(원광대학교학제일부속병원), 룩란잔발(원광), 류병준(한국화학연구원), 류영배(한국생명공학연구원), 마충제(강원대), 문영희(조선대), 민병선(대구가톨릭대), 민영실(중원대), 박기훈(경상대), 박명환(엠보연구소), 박소미(중외신약), 박소영(단국대), 박순혜(풍림무약), 박시원, 박영현(순천향대), 박장현(서울대), 박재주, 박재한(운화), 박종대(고려인삼연구), 박종필(세명대), 박종혁(한림대), 박종희(부산대), 박주희(부산대), 박태욱(대웅제약), 박해룡(경남대), 박향란(MInzu University of China), 박헌주(서울대), 박현봉(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현선(덕성여대), 박희준(상지대), 배지영(제주대), 백남인(경희대), 백미은(한약진흥재단), 서동진, 서승철(로하스), 서우덕(농촌진흥청), 서은경(이화대), 서찬곤(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서창섭(한국한의학연구원), 설동열(셀트리온제약), 성윤영(한국한의학연구원), 성충기(전남대), 손동욱(KT&G), 손미원(바이로메드), 손병화(부경대), 송경식(경북대), 송명중(경기의약연구센터), 송영진(한국이콜랩), 송채은(한국천연물공학연구소), 송호현(아모레퍼시픽), 신대희(영진약품공업), 신영준(안국약품), 신유수(농촌진흥청), 신장우(유한양행), 심상희(서울대), 안경섭(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광석(경희대), 안미정(경상대), 양민혜(부산대), 양은주(경북대), 양지윤(국립산림과학원), 양현옥(세종대), 양희정(강원대), 엄병현(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여은경(경기의약연구센터), 오동찬(서울대), 오미현(식약처), 오성준(동화약품주식회사), 오수진(파마팩스), 오원근(서울대), 오좌섭(단국대), 오창경(제주산업정보대), 오현주(호남대), 왕명현(강원대), 우은란(조선대), 원용훈(덕성여대), 유병수(원광대), 유수연(순천대), 유수정(한국해양연구원), 유승래, 유영효(녹십자), 유태경, 유혜동(퓨젠바이오파마), 윤기동(가톨릭대), 윤성일, 윤유식(중앙대), 윤의중(극지연구소), 윤태숙, 윤형영(파마킹), 윤혜숙(서울대), 이가영(한국한방산업진흥원), 이강노(성균관대), 이강우(Unigen), 이경복(건양대), 이광호(성균관대), 이규하(식약처), 이기용(고려대), 이동성(조선대), 이동용(동국대), 이동호(고려대), 이동환(대한피부과학연구소), 이문순(충북대), 이미경(충북대), 이미영(한국한의학연구원), 이미진(경기의약연구센터), 이민경(동의대), 이민아(순천대), 이민원(중앙대), 이민호(오비엠랩), 이병희(식약처), 이봉경(서울대), 이봉호(한밭대), 이상국(서울대), 이상민(아모레퍼시픽), 이상학(씨앤씨신약연구소), 이상현(중앙대), 이선아, 이성진(강원대), 이수영(한밭대), 이승재(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승호(KT&G), 이승호(영남대), 이영철(유니젠), 이윤희(KT&G), 이은하(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익수(전남대), 이재혁(남부대), 이정규(경성대), 이정노(코리아나화장품), 이정민(삼일제약), 이정범(순천향대), 이제현(동국대), 이종석(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종성(성균관대), 이종수(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원), 이종현(동덕여대), 이종화(식약처), 이주원(종근당바이오), 이지숙(서울대), 이진구(단국대), 이진태(대구한의대), 이찬우(아모레퍼시픽), 이학주(국립산림과학원), 이향화(서울대), 이현선(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형규(인섹트바이오텍), 이혜나, 이호영(코어파마), 이화진(세명대), 임남희(한국한의학연구원), 임동술(삼육대), 임방호(대한약품공업), 임숙(식약처), 임순성(한림대), 장대식(경희대), 장영표(경희대), 장재혁(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장형진(경희대), 전승호(현대약품), 전용진(일동제약), 정길생(충남대), 정다영(한국한의학연구원), 정다운(광주과학기술원), 정만길(연세대), 정미란(경희대), 정상원(한국한의학연구

원), 정상훈(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선화(파마팩스), 정은주(경남과학기술대), 정의수(단정바이오), 정익수(보락), 정인호(대화제약), 정일민(건국대), 정일윤(한국원자력연구원), 정지형(부산대), 정태우(중앙대), 정필문(한국한의학연구원), 정현아(전북대), 정현주(원광대), 정호현(성균관대), 정화진(서울대), 정희옥(LG생활건강), 제금련(식약처), 조남기(전남대), 조병옥(아토피엔에이), 조영웅(동아에스티), 조영호(건양대), 조정희(메가바이오숲), 조제영(사노피코리아), 진영원(서울대), 진창현(한국원자력연구원), 차배천(상지대), 차진욱(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채규윤(원광대), 채성욱(한국한의학연구원), 채한화(국립축산원), 천진미(한국한의학연구원), 최광선(한독약품), 최대성(한국원자력연구원), 최돈웅(식약처), 최병욱(한밭대), 최상윤(한국식품연구원), 최윤희(경기과학기술진흥원), 최재수(부경대), 최재영(한미약품), 최정호(고려제약), 최춘환(경기과학기술진흥원), 최태준(대화제약), 최혁재(영남대), 최형균(중앙대), 탁정애(서울대), 표미경(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하니나, 하배진(신라대), 한경림(서울대), 한덕룡(한국오가피기술연구소), 한상미(농촌진흥청), 한샘(해양과학기술원), 한창균(한국인삼공사), 현경예(동의대), 현숙경(동의대), 홍경화(경기의약연구센터), 홍빛나(남부대), 홍은영(CJ제일제당), 황방연(충북대), 황성연(메가바이오숲)

4. > 관련학회 정보

- (사)한국생약학회
www.ksap.or.kr, ksap92@hanmail.net, 02-584-2167, 회장 민병선 교수
(대구가톨릭대 약대)
- 한국생약학교수협의회
회장 김윤철 교수 (원광대 약대)
- 한국약학대학약초원협의회
회장 황완균 교수 (중앙대 약대)
- 천연약물연구회
회장 오원근 교수 (서울대 약대)
- (사)한국응용약물학회
www.ksap.or.kr, ksap92@hanmail.net, 02-584-2167, 회장 장춘곤 교수
(성균관대 약대)
- (사)한국대사체학회
www.komets.or.kr, metabol@komets.or.kr, 010-9120-9222, 회장 김정현 교수
(고려대 생명공학과)

5. 맺음말

우리 생약·천연물분과학회는 대학은 물론 (사)한국생약학회, (사)한국응용약물학회, 천연약물 연구회, 한국생약학교수협의회 그리고 한국약학대학약초원협의회와 같은 관련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생약·천연물 연구와 교육 발전을 위한 회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또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 성과 교류와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생약·천연물분과 학회는 적극적인 학문과 토론 그리고 교류의 장을 열어나가고자 한다. 생약·천연물분과학회의 오랜 역사를 되돌아보고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며,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 생약·천연물 분과학회 회장 황완균

12

약물학 분과학회



1. 학회 개요

약물학분과학회는 기초 약학적 지식에 기반한 약물 작용의 원리와 기전, 약동학, 약력학, 약물대사 및 독성 등에 대한 기본 원리로부터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진단에 약물을 임상적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적 지식 함양과 신약 연구개발에 이르기까지 약학교육과 연구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1954년 창립된 이래 초기의 분과학회는 회원간의 친목 도모와 교재 발간 등 약학대학에서의 교육시스템 확립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나, 1966년 약물학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학술교류를 시작하여 1970년을 전후하여 미국, 캐나다, 일본 및 호주 등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는 약학자들이 점차로 약학대학의 약물학 교수진으로 임용되면서 분과학회 활동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초창기에 약물학 강의를 시작한 교수들은 김재완(덕성여대, 1959년), 홍성욱(동덕여대, 1962년), 김낙두(서울대, 1965년), 홍승철(부산대, 1962년), 김학성(충북대, 1965년), 허근(영남대, 1967년), 허인회(중앙대, 1967년), 고석태(조선대, 1967년) 교수 등이다.

이후 조태순(연세대 의대, 1972년; 성균관대, 1980년), 주왕기(강원대, 1972년), 고건일(원광대, 1975년), 윤재순(이화여대, 1979년), 이종화(삼육대, 1979년), 이순철(충남대, 1981년), 은재순(우석대, 1981년), 박은희(숙명여대, 1981년) 교수에 이어 최종원(경성대, 1985년), 권용준(대구가톨릭대), 안형수(동덕여대, 1987년) 교수 등으로 이어졌다. 서울대는 김낙두 교수에 이어서 1982년 고광호 교수와 1986년 이명걸 교수가 임용되어 약물학 전공 연구실로 3명의 교수가 충원되었다.

1990년대에는 오기완(충북대, 1991년), 정성현(경희대, 1993년), 김상건(덕성여대, 1992년; 서울대, 1999년), 김경만(전남대, 1993년), 김화정(이화여대, 1995년), 정재훈(삼육대, 1996년), 손의동(영남대 의대, 1995년; 중앙대, 1997년), 이석용(가톨릭의대, 1988년; 성균관대, 1997년) 교수가 약물학 전공으로 임용되었다.

2000년대에는 홍진태(충북대, 2001년), 장춘곤(성균관대, 2001년), 임동순(부산대, 2002년), 이용수(관동의대, 1996년; 덕성여대, 2002년), 명창선(관동의대, 2001년; 충남대, 2003년), 강건욱(조선대, 2003년; 서울대, 2011년), 곽미경(영남대, 2004년; 가톨릭대, 2011년), 하헌주(연세대 의대, 1990년; 이화여대, 2004년), 최현진(전남대, 2004년; 차의과대, 2012년), 제현동(대구가톨릭

대, 2005년), 송윤선(숙명여대, 2007년), 신은주(강원대, 2008년), 김현정(중앙대, 2009년) 및 박필훈(영남대, 2010년) 교수가 새로이 본학회에 합류하였다.

2010년 약학교육이 6년제 학제로 개편됨과 더불어, 15개의 신규대학이 증설되어 약물학 교수가 다음과 같이 크게 증원되었다. 2010년에 공재양(경상대), 옥민호(목포대), 조정숙(동국대)와 최영희(동국대) 교수, 2011년에 김민선(순천대), 김윤균(단국대), 박규환(경북대), 박성규(고려대), 배수경(가톨릭대), 배정우(계명대), 안상미(단국대), 이진우(연세대), 정철호(계명대) 와 한선영(경상대) 교수, 2012년에 김소희(아주대), 임형신(한양대), 정혜진(경상대), 최지웅(가천대) 교수가 약물학 전공 교수로 임용되어 본학회에 합류하였다.

2011년에 김용기(숙명여대)와 송경(원광대) 교수, 2012년에 신상미(조선대), 이승희(서울대)와 최동영(영남대) 교수, 2013년에 강규태(덕성여대)와 김영미(한양대) 교수가 약물학분과학회에 입회하였다. 2014년에 노민수(서울대), 박성혁(서울대), 이승진(충남대), 최창익(동국대)과 허주영(전남대) 교수, 2016년에 박은영(목포대)과 허경선(충남대) 교수, 2017년에 이성훈(중앙대), 최민식(동덕여대)과 최윤식(경성대) 교수, 2018년에 김희진(삼육대), 양진원(우석대)과 윤재석(충북대) 교수, 2019년에 양윤미(강원대) 교수가 본학회에 합류하였다.

2020년 전북대학교 약학대학이 신설되었고, 소운조(전북대)와 채한정(전북대) 교수가 본학회에 입회하였고, 2021년 황성환(부산대)와 구자현(서울대) 교수가 신규 임용되어 본학회에 합류하였다.

본학회 정회원은 약학대학 약물학 및 관련 교과목 담당교수 외에도, 의과대학 약리학 전공 교수, 제약회사나 국공립연구소, 정부기관의 관련 전공자 등이 참여하여 신약개발에 대한 연구를 다져가고 있다. 대한약학회 학술대회에서 타 분과학회와 공동심포지엄 개최, 대한약리학회, 한국응용약물학회, 독성학회 등, 관련학회에서의 적극적인 학술활동 등으로 분과의 벽을 넘어 약학 연구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약리학회(WCP, World Congress of Basic and Clinical Pharmacology) 에도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2006년 중국의 북경대회에 고광호 교수 등 10여명이 참가하였고, 2014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는 손의동, 김상건, 이석용 교수 등 많은 참석하였고 2018년 일본교토대회는 이은방 교수 등 10여명이 참가하여 학문 및 연구역량을 높여가고 있다. 대한약리학회에도 본학회 많은 교수들이 학술대회에 참가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2. 학회 역사

2-1. 연도별 임원 현황표

연도	회장	소속	주요임원
1966	홍사악	서울대 의대	부회장: 조윤성, 간사장: 김재완
1967-1968	조윤성	서울대	부회장: 한대섭, 간사장: 김재완, 간사: 김낙두, 조태순 평의원: 강형태, 김낙두, 김제동, 김재완, 김학성, 조태순, 최근우, 한대섭, 홍성욱, 홍승철 편집위원: 김낙두, 조태순, 추원성, 최근우, 한대섭, 고문: 홍사악
1969-1970	한대섭	경희대 의대	부회장: 홍성욱, 간사: 김재완
1971	한대섭	경희대 의대	평의원: 한대섭, 홍사악, 홍성욱 등 편집위원: 허인회
1972	한대섭	경희대 의대	평의원: 고석태, 김기원, 김재완, 김종호, 이상의, 한대섭, 홍성욱, 홍사악 편집위원: 허인회
1973	홍성욱	동덕여대	부회장: 김재완 평의원: 고석태, 김낙두, 김재완, 조태순, 한대섭, 홍사악, 홍성욱 편집위원: 허인회
1974-1975	홍성욱	동덕여대	부회장: 김재완, 간사: 김낙두, 편집위원: 허인회 평의원: 김낙두, 김재완, 조태순, 한대섭, 홍성욱, 홍사악
1976	홍성욱	동덕여대	평의원: 고석태, 한대섭, 홍성욱, 허인회, 허근 편집위원: 허인회
1977	김재완	덕성여대	평의원: 고석태, 김재완, 홍성욱, 허인회 편집위원: 김낙두
1978	김재완	덕성여대	평의원: 고석태, 김낙두, 김응찬, 김재완, 윤성중, 이은방, 조윤성, 조태순, 허근, 홍성욱 편집위원: 허인회
1979	김재완	덕성여대	평의원: 김재완, 김낙두, 김태희, 김학성, 이은방, 이상의, 허근 등
1980	김재완	덕성여대	평의원: 김재완, 김낙두, 김학성, 이은방, 이상의, 조태순 등
1981-1982	김재완	덕성여대	평의원: 고석태, 김재완, 김학성, 이상의, 이은방, 조태순, 홍성욱 등 약학회 편집위원장: 김낙두
1983-1984	김낙두	서울대	총무: 이은방
1985-1986	조태순	성균관대	
1987-1988	허근	영남대	총무: 허인회
1989-1990	허인회	중앙대	총무: 안형수
1991-1992	고석태	조선대	
1993-1994	김학성	충북대	
1995-1996	윤재순	이화여대	
1997-1998	이은방	서울대	총무: 정성현
1999	권용준	대구가톨릭대	총무: 이석용

연도	회장	소속	주요임원
2000-2001	박은희	숙명여대	총무: 이석용
2002	고건일	원광대	총무: 손의동
2003	고광호	서울대	총무: 손의동
2004	고광호	서울대	총무: 정재훈
2005	은재순	우석대	총무: 정재훈
2006	은재순	우석대	총무: 이용수
2007	최종원	경성대	총무: 이용수
2008	오기완	충북대	총무: 김화정
2009	이명걸	서울대	총무: 김화정
2010	김형춘	강원대	총무: 장춘곤
2011	손의동	중앙대	부회장: 이석용, 총무: 명창선
2012	이석용	성균관대	부회장: 하헌주, 총무: 강건욱
2013	하헌주	이화여대	부회장: 김상건, 총무: 최현진
2014	김상건	서울대	부회장: 김화정, 총무: 곽미경, 박필훈
2015	김화정	이화여대	부회장: 정재훈, 총무: 송윤선, 박규환
2016	정재훈	삼육대	부회장: 조정숙, 총무: 박규환, 김소희
2017	조정숙	동국대	부회장: 안상미, 총무: 임형신, 배정우
2018	안상미	단국대	부회장: 명창선, 총무: 배정우, 김민선
2019	명창선	충남대	부회장: 장춘곤, 총무: 강규태, 배수경
2020	장춘곤	성균관대	부회장: 최현진, 총무: 강규태, 허경선
2021	최현진	차의과대	부회장: 송윤선, 총무: 정철호, 최영희

2-2. 창립 역사 및 임원활동

약학회가 창립된 1951년 이후 3년만인 1954년에 약물학분과회가 설치되었고, 약물학분과회는 특이한 활동 없이 지내다가 1966년 2월16일에 약학대학 교수들을 주축으로 분과회와는 별개로 대한약학회 정관 제7장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약물학회를 창립 발족하였다. 약물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당시 종로구 운니동에 소재하였던(현 운현궁) 덕성여대 회의실에서 26명의 회원이 모인 창립총회를 통해 제1대 약물학회 회장에 홍사악(경성약전 16회 졸업, 서울대 의대 졸업, 서울대 의대 약리학교실), 부회장에 조윤성(서울대 약대), 간사장에 김재완(덕성여대 약대) 교수를 선출하였다. 간사에 김낙두와 이철우 교수, 평의원에 강형태, 김낙두, 김연훈, 김재완, 김학성, 조태순, 최병우, 한대섭과 홍승철 교수, 편집위원장에 홍사악 교수, 편집위원에 김낙두, 조태순, 최근우와 한대섭 교수를 선출하고 1) 연구발표와 학술강연회, 2) 산학향상에 대한 심의, 연구 및 건의, 3) 약물학과 관한 교육과 지식의 보급 및 지도 계몽, 4) 국내외 의 학술정보 교환, 및 5) 학술활동의 진흥 및 보조에 관한 사업을 갖기로 하였다.

본학회는 1966년 8월 30일 덕성여대에서 개최된 평의원회 및 11월 26일 제2회 정기총회에서 제2대 회장에 조윤성 교수, 부회장에 한대섭 교수, 간사장에 김재완 교수, 간사로 김낙두와

조태순 교수, 평의원으로 강형태, 김낙두, 김제동, 김재완, 김학성, 조태순, 최근우, 한대섭, 홍성욱과 홍성철 교수, 편집위원에 김낙두, 조태순, 추원성, 최근우 및 한대섭 교수, 원문에 홍사악 교수를 선출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1) 전문지 구독 기증의 교섭(회장단에 위임), 2) 연 4회의 임시총회 및 세미나 개최 (춘기는 2월경 약사 국가고시 전후, 나. 하기는 8월경 하기방학 중, 추기는 10월경 약학총회 전후, 및 동기는 1월경 동기방학 중), 3) 편집위원회에서 외국문헌(전문지)의 논문 및 중요 논문의 초록을 사본으로 전 회원에게 배부토록 함 및 4) 년 300원 회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다.

1969년 2월 18일 제 3회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한대섭(일본에서 약전 졸업, 서울대 의대 졸업, 경희대 의대) 교수, 부회장에 홍성욱 교수, 간사에 김재완 교수 등이 선출되었다.

1971년 9월 1일 대한약학회 정관에 약물학분과학회가 설치되면서 약물학회는 약물학분과학회로 개칭하고 약물학분과학회 활동은 1971년 9월에 새롭게 정관을 개정하여 7개 분과학회(약제학, 약품분석, 약화학, 천연물, 약물학, 위생화학, 생화학)로 되면서 시작되었다. 1971년 10월 29일 동덕여대에서 개최된 5회 정기총회에서 평의원에 홍사악, 한대섭, 홍성욱 교수 등을, 편집위원에 허인회 교수를 선출하였다.

1972년 9월에 그동안 약물학회를 주축으로 해오던 학술활동을 약물학분과학회 활동으로 일원화하였다. 분과학회장에 한대섭(경희대) 교수, 편집위원에 허인회(중앙대) 교수, 평의원에 고석태(조선대), 김종호(경희대 화학과), 김재완(덕성여대), 김기원(KIST), 이상의(동아제약), 한대섭(경희대), 홍성욱(동덕여대)과 홍사악(서울의대) 교수가 선출되었다.

1973년 1월 19일 경희대 약대에서 열린 총회에서 회장에 홍성욱(경성약전 15회, 동덕여대) 교수, 부회장에 김재완 교수가 선출되었다. 3월 19일 제1회 월례회에서 평의원에 고석태, 김낙두, 김재완, 조태순, 한대섭, 홍사악 교수와 홍성욱 교수, 편집위원으로 허인회 교수를 선출하였다. 12월 28일에 제 6회 월례회에서 1974년도 약물학분과학회 임원개선이 있었는데 회장에 홍성욱 교수, 부회장에 김재완 교수, 간사에 김낙두 교수, 평의원에 김낙두, 김재완, 조태순, 한대섭, 홍성욱과 홍사악 교수, 편집위원에 허인회 교수가 선출되었다.

1974년 10월 26일 23회 총회에서 회장에 홍성욱 교수, 평의원에 고석태, 김재완, 조태순, 한대섭, 홍성욱, 홍사악, 허인회 교수들, 편집위원으로 김낙두 교수를 선출하였다.

1976년 1월 20일에 회장 및 편집위원은 유임되었고, 평의원으로 고석태, 한대섭, 홍성욱, 허인회 및 허근 교수를 선출하였다.

1977년 2월 8일 회장에 김재완 교수를 선출하고, 평의원에 고석태, 김재완, 허인회 및 홍성욱 교수를 선출하였으며, 편집위원은 김낙두 교수가 유임되었다.

1978년 1월 20일 약물학분과학회 회원이 52명으로 증원됨으로써 10명의 평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고석태, 김낙두, 김응찬, 김재완, 윤성중, 이은방, 조운성, 조태순, 허근, 및 홍성욱 교수 등이 평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편집위원으로 허인회 교수를 선출하였다.

1979년 2월 10일에 선출된 평의원은 김재완, 김낙두, 김태희, 김학성, 이은방, 이상의 및 허근 교수 등이었다.

1980년 2월 6일 평의원으로 김재완, 김낙두, 김학성, 이은방, 이상의 및 조태순 교수 등을 선출하였다.

1981년 2월 6일에 평의원으로 고석태, 김재완, 김학성, 이상의, 이은방, 조태순과 홍성욱 교수 등을 선출하였으며, 본 분과학회 김낙두 교수가 약학회 편집위원장으로 약학회지 발간의 중책을 맡게 되었고, 1987년에는 이은방 교수는 대한약학회 편집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분과학회장은 대학임용 또는 연배 순으로 2년 또는 1년간씩 맡아왔다. 1983-1984년 김낙두 교수, 1985-1986년 조태순 교수, 1987-1988년 허근 교수, 1989-1990년 허인회 교수, 1991-1992년 고석태 교수, 1993-1994년 김학성 교수, 1995-1996년 윤재순 교수, 1997-1998년 이은방 교수, 1999년 권용준 교수, 2000년 박은희 교수, 2001-2002년 고건일 교수, 2003-2004년 고광호 교수, 2005-2006년 은재순 교수, 2007-2008년 오기완 교수, 2009-2010년 이명걸 교수, 2011년 손의동 교수, 2012년 이석용 교수, 2013년 하헌주 교수, 2014년 김상건 교수, 2015년 김화정 교수, 2016년 정재훈 교수가 회장을 역임하였다. 2017년 조정숙 교수, 2018년 안상미 교수, 2019년 명창선 교수, 2020년 장춘곤 교수가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2021년 최현진 교수가 분과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2016년 4월에 회장인 정재훈(삼육대, 현 전북대) 교수는 약물학분과학회 규정을 제정하여 회장선임 및 회계 및 운영체계를 정비하였다. 이후 2021년 약물학분과회와 구분하여 약물학분과학회 규정을 제정하여 (2021. 8. 25), 회원의 구성, 주요 사업, 학술 행사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학회 운영체계를 재정비하였다.

3. 현재 임원 및 회원 현황

3-1. 임원 현황

직위	성함	소속
회장	최현진	차의과대
부회장	송윤선	숙명여대
총무	정철호	계명대
총무	최영희	동국대

직위	성함	소속
학술위원회 위원장	김소희	아주대
자문위원회 위원장	임동순	경희대
연구기획위원회 위원장	송윤선	숙명여대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필훈	영남대
편집강행위원회 위원장	이석용	성균관대
국시위원회 위원장	곽미경	가톨릭대
국제화홍보위원회 위원장	강건욱	서울대
친교위원회 위원장	손의동	중앙대

3-2. 정회원 현황

강건욱(서울대), 강규태(덕성여대), 곽미경(가톨릭대), 구자현(서울대), 김경만(전남대), 김민선(순천대), 김상건(동국대), 김소희(아주대), 김영미(한양대), 김용기(숙명여대), 김윤균(단국대), 김현정(중앙대), 김화정(이화여대), 김희진(삼육대), 노민수(서울대), 명창선(충남대), 박규환(경북대), 박성규(고려대), 박성혁(서울대), 박은영(목포대), 박필훈(영남대), 배수경(가톨릭대), 배정우(계명대), 소윤조(전북대), 손문호(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손수정(식약처), 손의동(중앙대), 송경(원광대), 송윤선(숙명여대), 신은주(강원대), 안상미(단국대), 양윤미(강원대), 양진원(우석대), 옥민호(목포대), 윤재석(충북대), 이석용(성균관대), 이성훈(중앙대), 이승진(충남대), 이승희(서울대), 이용수(덕성여대), 이진우(연세대), 임동순(경희대), 임형신(한양대), 장춘곤(성균관대), 정성현(경희대), 정재훈(전북대), 정철호(계명대), 정혜진(경상대), 제현동(대구가톨릭대), 조정숙(동국대), 채한정(전북대), 최동영(영남대), 최민식(동덕여대), 최영희(동국대), 최윤식(경성대), 최지웅(가천대), 최창익(동국대), 최현진(차의과대), 하헌주(이화여대), 한선영(경상대), 허경선(충남대), 허주영(전남대), 홍진태(충북대), 황성환(부산대)

4. 주요 학술 및 교육활동사항

» 교육 활동

약물학분과학회(창립당시 약물학회)에서는 제1차 사업으로 약물학 교재를 출판하고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약물학 교육에 힘쓰고 있다. 1960년을 전후하여 대부분 약대의 약물학은 의대 약리학 교수가 강의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약학대학의 통일된 교재가 없었다. 약물학회에서는 제1차 사업으로 약물학 교재를 편찬하기로 하고 김낙두(서울대), 김재완, 조태순 및 홍사악 교수 등이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여 약물학 교재(집현사)를 1966년 4월 20일에 최초로 출판하였다. 이 책은 건국 이래 최초로 발간된 약물학 교재로 이 후 약물학 교재 개정의 토대가 되었다. 1977년에 약물학 교재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문성사에서 재출판하였다. 그 후 매년 수정 출판하였으며, 이후 매년 수정 출판하였다.

1998년에 2세대 약물학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개정 보완된 교재(신일상사)가 출판된 이래 2011년 11월 9일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약물학분과학회 추계회의에서 약물학 교과서 12판 개정 진행을하기로 결정하였고, 기존 4년제 교육과정 중의 약물학 실습 강의 계획서를 공유하여 신설약대를 포함한 약대 6년제 약물학 실습과목 현황을 파악하고 보완 작업을 진행하였다.

3세대 약물학 교재(범문사)는 이석용(성균관대) 교수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3세대 약물학 교재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약물학분과학회가 Basic & clinical pharmacology (Katzung 저; McGraw Hill)의 번역판을 개정편찬하여 집필하고, 범문에듀케이션에서 2015년 3월에 출판하여 2015년 1학기부터 약물학 교과서로 사용하였다. 편집대표 이석용(성균관대) 교수와 편집위원(강건욱, 김용기, 박필훈, 송윤선, 임형신, 제현동, 최영희, 최창익, 최현진 교수)를 중심으로 총 49인의 약물학분과학회 교수가 참여하여 번역 집필하였다. 이후 2018년 개정을 통해 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2021년 현재 약물학(Basic & clinical pharmacology, 14판 번역서)교재가 약학대학의 약물학 강의에 사용되고 있다. 더불어 2021년 Basic & clinical pharmacology 15판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개정작업으로 약물학분과학회 교재를 준비하고 있다.

약물학분과학회에서는 약물학 교재 집필과 함께 약학대학 6년제 교육과정에서 약물학 교육 및 전공 범위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해오고 있다. 2009년 7월 9-10일에 분과학회 하계연수에서 11명의 분과학회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약물학 강의의 발전 방향과 6년제 교과과정, 현재 각 약학대학의 약물학 전공 범위에 대한 논의 및 분과학회의 역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6년제 교과 과정에 있어 약물학 강의의 발전 방향과 교육방법을 분과학회에서 공론화한 첫 번째 공식회의로 기록된다. 12월 10일 약물학분과학회 동계연수에서는 13명의 분과학회 교수와 국내 의대에 재직 중인 약사 출신 교수인 노재열(성균관대 의대) 교수와 이창호(한양대 의대)교수를 초빙하여 약물학 교육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현재 의과대학에서의 약리학 강의의 변화를 청취하고 6년제 약학교육에 있어서 교재편찬, 약물학 강의의 지향점 및 강의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등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14년에는 약물학 chapter별 상품명 정리 작업을 통해 약물의 성분 및 작용기전은 물론 임상에서의 실제 적용에 필요한 정보를 교육 및 학습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반영한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2020년에는 2022년부터 시작될 약학대학 통합6년제 시행을 위한 약물학 교육의 세부역량기반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약물학 실습에 대한 재정비가 시작되었다.

» 연구 및 학술활동

약학대학의 약물학 연구실은 대학마다 약효학교실, 약물학실 또는 약리학실로 명칭을 다르게 써오다가 1970년대에 대부분의 대학이 약물학연구실로 연구실명을 통일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에는 각 교수의 연구내용에 따라 연구실명을 세분화된 명칭으로 표방하고 있다. 1990년 전까지의 약물학분과학회 교수들의 연구 활동은 천연물을 이용한 작용 및 효능 검색이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생약연구소(현 서울대약대천연물과학연구소)의 이은방 교수는 각종 천연물을 이용하여 항궐양 약물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 애엽(쑥, eupatilin)이 위염에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동아제약에서 천연약물로는 처음으로 위염치료제인 스티렌을 개발하였다. 1990년 이후 약물학 연구는 분자 수준에서의 연구, 세포내 신호전달체계 및 유전자 수준에서의 연구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게놈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의약품개발과 난치성질환에 대한 신약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약물학분과학회(창립당시 약물학회)의 학술교류 활동의 시작은 1966년이었다. 약물학분과학회는 1966년 창립 이후 총회 개최를 시작으로 오늘날 하계/동계 심포지엄에 이르기까지 약물학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지속적 학술 교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1966년 8월 5일 홍성욱 교수 신병 치료차 도미하게 되어 위로연을 열었으며 12월 9일에 덕성여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이향우(연세대) 박사가 “단백질의 메틸화하고 그 생화학적 의의”에 대해서 특별강연을 하였다.

1971년 10월 29일 동덕여대에서 개최된 5회 정기총회에서는 고계창(경희대) 교수가 “Effects of metabolic substrate on halothane depressed human atria”에 대해 특별강연을 하였다.

1972년 3월 4일 덕성여대에서는 분과학회가 개최되어 분과학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일본 동북대에서 약물학을 연구하고 귀국한 조태순 교수의 “amino-thiocholine계 화합물의 자율신경에 대한 약리작용”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었다. 9월 29일 덕성여대에서 임시총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캐나다 미니토바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mayo clinic에서 박사연구원으로 활약하다 귀국한 김낙두(서울대) 교수의 “칼륨 결핍에 의한 부전심장에서 분리한 소포체의 Ca^{2+} uptake”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었다.

1973년부터는 일본 및 구미지역에서 연구를 한 많은 약학자의 귀국으로 비교적 활발한 분과학회 활동이 이어졌다. 3월 19일에 열린 제 1회 월례회에서는 일본에서 2개월간 연구를 마치고 온 김재완 교수가 일본에서의 약물학적 연구의 동향에 대한 특별강연을 하였다. 5월 12일에 열린 제 2회 월례회에서는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이은방(서울대) 교수가 길경의 약리학적 연구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6월 22일 제 3회 월례회를 중앙대 약대에서 갖고 연사로 유명고(서울대) 교수를 초청해서 수소결합과 약효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13일에는 동덕여대 약대에서 제 4회 월례회를 갖고 캐나다에서 연구하고 돌아 온 조영동(연세대 의대) 교수의 조직배양과 그의 이용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었다. 10월 26일 덕성여대에서 제 5회 월례회를 열고 원자력연구원 조기승 박사의 지혈의 기전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으며, 12월 28일에 제 6회 월례회에서는 1974년도에 있을 symposium 개최 준비회의를 진행하였다.

1974년은 특히 활발한 학회 활동이 있었던 해였다. 1월 22일에 김재완 교수의 저서인 “약제와 처분”의 출판기념회를 국립의원구내 Scandinavian club에서 개최하고 그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당시에는 약에 관한 서적으로는 교재 이외에는 거의 전무하던 때였으므로 개국약사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았다. 6월 21일 서울대 약대에서 개최된 월례회에서는 호주에서 2년간 연구하고 돌아온 김학성(충북대) 교수의 수종 신화합물이 β -adrenergic nerve에 대한 작용과 호주의 약리학계 동향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었다. 7월 4일에는 월례회를 열고 역시 일본 동북대에서 연구하고 귀국한 생약연구소의 신국치 박사로부터 증식성 염증에 대한 생화학적 연구에 대한 특별강연을 들었다. 10월 11일 숙명여대에서 가진 월례회에서는 캐나다 퀸대학교 의대 생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신선호 박사의 내분비학의 최근동향(LH홀몬을 중심으로)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10월 26일 서울대에서 열린 대한약학회 총회에서 약물학분과학회가 주관하여 생약의 약물학적 연구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12월 22일에 덕성여대에서 개최된 월례회에서는 대판대에서 3년간 연구를 수행한 허근(영남대) 교수가 allopurinol 감화효소에 관한 특별강연을 하였다.

1976년 4월 1일 덕성여대 약학과에서 월례회가 개최되었고 장현갑(서울대 사회대) 교수의 약물과 학습에 관한 특별강연이 있었다.

1978년 7월 20일 덕성여대에서는 2년간 미국 뉴욕대학교 약리학교실에서 연구하고 귀국한 김명석(서울대 의대) 교수를 초빙하여 “심장사립체와 칼슘 유리”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979년 6월 8일 숙명여대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일본 동경대 약물작용학 교실에서 학위를 받고 귀국한 박은희(고려인삼연구소) 박사의 “흰쥐 수정관 평활근의 신경절단에 대한 히스타민의 효과”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이 있었다.

1981년 3월 6일에 카톨릭의대 약리학 교실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종엽(삼육대) 교수의 “가토(집토끼) 신기능에 미치는 PAH의 영향”에 관한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4월에는 덕성여대 교수이며 본 분과학회 회장인 김재완(덕성여대) 교수가 신경조직배양에 관한 연구차 미국 maryland대 해부학교실로 도미하였다.

2000년대 이후 분과학회 세미나 등의 연구 교류와 회원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국내외 워크샵과 심포지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02년에 제주도에서 세미나(신임교원 성대 장춘곤교수, 덕성여대 이용수 교수)를 개최하였으며, 2004년에는 싱가포르-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분과학회 해외 워크샵을 진행하여, 회원들의 학술 교류 및 친목 도모의 장을 마련하였고, 이후 국내 및 국외에서 분과학회 워크샵을 활성화하여 약물학 연구 및 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몽골, 2006년 북경 (IUPHAR), 2007년 삿포르에서 분과학회 심포지엄을 진행하였다.



〈제주도 세미나〉 2002 / 회장 고건일

2008년에는 유한양행을 방문하여 견학 및 분과학회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2009년 5월 7일에 대한약학회 춘계 국제학술대회 기간 중 분과학회 교수 12명과 대한약학회 약물학분과학회 심포지엄 연사인 Kuniaki Saito(일본 Kyoto대), Akira Hara(일본 Gifu 대)와 정윤희(중앙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관련 인사 5명이 참석하여, 약물학분과학회 춘계 회의를 진행하였다. 7월 9-10일에 거제도에서 분과학회 하계연수를 개최하였고 11명의 분과학회 회원(이명걸, 김상건, 정재훈, 손의동, 김경만, 강건욱, 제현동, 하헌주, 김화정, 송윤선 및 최현진 교수)이 참석하였다. 하계 연수에서는 2009년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의 약물학분과 심포지엄 진행을 하헌주(이화여대) 교수가 맡기로 결정하였고, 분과학회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15일 대한약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약물학분과학회 심포지엄(오가나이지: 하헌주 교수)을 “Novel therapeutic targets in cardiovascular diseases”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본 분과학회 심포지엄에는 조한중(미국 Emory 대학), 이경민(이화여대), 국현(전남대), 한진(인제대)와 창동신(이화여대) 교수의 연구 발표로 구성되었다. 또한 12월 10일 13명의 분과학회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동계회의를 개최하였다.



〈하계 심포지엄〉 2009 / 회장 이명걸

2010년 4월 15일에는 춘계 대한약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일본약학회 회장(신경약리학 전공)을 기조연설자로 초청하였고 및 이와 연계하여 약물학분과학회 심포지엄을 한일약학회 공동 심포지엄으로 (오가나이지:김형춘, 좌장: 장충곤과 노리 마츠시 교수), “Recent understanding on the neuropsychopharmacological research and therapeutic strategy for treatment of neurological disorders”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3명씩의 연자의 발표가 있었고, 당일 점심에 16명의 분과회 교수와 4명의 일본 측 심포지엄 연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일심포지엄과 더불어 한일 연구자간의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7월1일 춘천 바이오신업진 흥원을 방문하여 약물학분과학회 연수 및 심포지엄을 진행하였고, 바디텍 방문 및 중앙대 약대 김현정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12월 1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명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동계 약물학분과학회 회의를 진행하였고, 박필훈(영남대) 교수의 “Adiponectin as an anti-inflammatory mediator: Regulation of tumor necrosis factor- α expression and protective role in alcoholic liver disease”와 최영희(동국대) 교수의 “Effects of cysteine on the pharmacokinetics of docetaxel in rats with protein-calorie malnutrition: increased gastrointestinal absorption by cysteine”의 세미나 발표가 있었다.

2011년에는 4월21일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 부산횃집에서 약물학분과학회 춘계회의를 진행하였고, 30여명의 교수가 참석하여 약학교육 및 연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의뢰한 “약물에 따라 주의해야할 질병 정보집 2”에 대해 분과학회 차원에서 검토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하계, 추계 및 동계 분과학회 시 심포지엄의 연제 및 연자 등에 관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6월 21-25일까지 중국 서안에서 약물학분과학회 하계 심포지엄을 진행하였다. 11월 9일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Recent advances and future prospects in gastrointestinal pharmacology”라는 주제로 약물학분과학회 심포지엄을 진행하였다 (오가나이지:손의동 교수, 좌장: 조정숙과 하헌주 교수). 12월16일에 중앙대 약대 R&D Center University Club에서 분과학회 동계세미나를 진행하였고, 20명 이상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국대 약대 안상미 교수와 서흥캡셀 양주환 회장의 연구 발표가 있었다. 특히 정념 퇴임하

신 김낙두, 윤재순과 이은방 교수가 참석하여 오랜만에 후배 교수들과 약학연구 및 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견을 주신 뜻깊은 시간이었다.



〈중국 서안 진시황릉 하계세미나(좌) & 중앙대 동계 세미나(우)〉 2011 / 회장 손의동

2012년에는 6월 27-30일 중국 황산에서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른 약사국시 개선방안 설명회 및 약학대학 평가인증 방향 연구에 대한 하계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이석용(성균관대)와 정재훈(삼육대) 교수가 약사국시 개선방안 및 약학대학 평가인증 방향에 대하여 각각 발표를 진행하였다. 8월 22일-23일 설악아이파크 콘도 금강홀에서 “약물학 연구의 최신동향”이라는 주제로 분과학회 소속 교수와 대학원생이 참가하여 분과학회 하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본 심포지엄을 계기로 대학원생들간 연구 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도 대한약학회 기간 중 분과학회 회의(좌)와 황산에서 하계 국제세미나(우)〉 2012 / 회장 이석용

2013년에는 4월 18-19일 개최된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New Promise in GPCR Drug Discovery (오가나이지: 임도운 교수)”를 주제로 약물학-약품화학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학문 분야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7월 8-9일 설악아이파크콘도에서 약물학분과학회 하계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분과학회 교수 20명, 학생 및 연구원 103명, 총 123명이 참여하여 15개 학술발표와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우수발표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하였다. 또한 “약물학 실습 교재 온라인 시스템”을 소개하여 실습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설악산 등반을

통해 분과학회간 친목을 도모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10월 17-18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3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Pharmacological Advances in Neurobiology”를 주제로 김영인(가톨릭대), 김혜선(서울의대), 최재웅(가천대), 김민선(순천대) 교수들을 연자로 분과학회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오가나이지: 정철호 교수). 12월 12일에는 수라온 한정식에서 21명의 분과학회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약물학분과학회 동계 세미나로 정철호(계명대) 교수의 “The Strategy for overcoming gefitinib resistance in NSCLCs” 세미나 발표가 있었다.



〈하계 심포지엄〉 2013 / 회장 하현주

2014년에는 1월 20-23일까지 19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일본 오키나와에서 2014년 분과학회 동계워크숍을 개최하였다. 4월 17일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 약품생화학분과와 공동으로 “New perspectives on cancer and energy metabolism” 주제(오가나이지 김화정, 정철호 교수)로서 2개의 세션을 구성하였고 일본 약학회측 연자 2명을 포함한 한-일 약학회 공동 심포지엄으로도 함께 운영하였다. 7월 3-4일 현대 설악아이파크에서 20개 실험실/총 102명 참여한 가운데 하계 분과학회심포지엄 개최하였다. 하계 심포지엄은 분과학회 학술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는데 대학원생 및 대학원생 및 연구원 10명의 연구발표가 있었고, 대한약리학회 송동근 회장님 초청 강연이 있었다. 10월 24일에 2014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The Application of Innovative Pharmacology Tool for the Integrated Translational Research”를 주제로 분과학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오가나이지: 배정우, 배수경 교수). 11월 7일에는 “Pharmacological Basis for pharmaceutical sciences and new drug development”라는 주제로 대한약리학회 약물학분과학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12월 19일에는 분과학회 동계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허주영(전남대) 교수의 연구 발표가 있었다.



〈오키나와 동계워크샵〉 2014 / 회장 김상건

2015년에는 2월 2-4일 일본 규슈에서 18명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약물학적 중개 연구 방법 연구”라는 주제로 동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김화정(이화여대) 교수의 “뇌신경 연구의 약물학적 중개연구”와 송윤선(숙명여대) 교수의 “임상효능 증진을 위한 중개적 뇌졸중 연구”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었다. 본 심포지엄을 통해 중개연구 방법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회원들간의 연구 교류 활성화 장이 마련되었다. 4월 24일 춘계 대한약학회에서 후성유전학 조절기반의 약물타겟 중개연구 “Translational research in drug targets based on epigenetics” 주제로서 6분의 연자를 초청하여 약물학분과학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오기나이지 안상미, 임형신 교수). 또한 춘계 대한약학회 기간 중 30명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춘계 약물학분과회 회의를 진행하고, 약물학분과학회 차원에서 약물학 교과서를 개정 편찬 및 약물학 교재로의 사용을 결정하였고, 대한약리학회 추계 심포지엄의 공동진행을 계획하였다. 7월9일-10일 강원도에서 약물학분과 22개 연구실의 교수 및 대학원생 참석하에 분과학회 하계 심포지엄을 계획하였으나 메르스 감염 확산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로 취소되었고, 8월 27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12명의 교수가 참석하여 약물학분과학회 하계 회의를 진행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약사문화개발워크샵 및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15년 3월부터 약물학 교재로 신규 채택된 약물학분과회 교과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추계 대한약학회의 약물학분과 심포지엄의 주제를 “신약개발을 위한 산학협력(가제)”로 정하고, 회장과 학술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5년 분과회 동계 워크샵을 이탈리아(밀라노-피렌체-로마)에서 진행하기로 분과학회 교수들의 주인이 있었으며 18명이 참석하기로 하였다. 10월22일 대한약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신약개발을 위한 산학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4명의 연자(하헌주-이화여대, 김원기-고려대, 손문호-동아ST, 이종욱-대웅

제약)를 모시고 심포지엄을 진행하였다. 12월 17일에 산천 봉피양에서 25명의 분과학회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약물학분과학회 동계 세미나로 이승희(서울대) “Gene Regulatory Networks for Motor Neuron Generation”와 신상미(조선대) “The Role of Sestrin2 in Metabolic Stress”의 세미나 발표가 있었다.



〈큐슈 동계심포지움(좌)와 남양주 두물머리에서 하계회의(우)〉 2015 / 회장 김화정

2016년에는 6월 21일 보나베띠 서울역점에서 14명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분과회 하계회의를 진행하였고 허경선(충남대)의 “Disturbed flow-induced endothelial proatherogenic signaling pathway via regulating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s”세미나가 있었고, 하계 연변 국제 심포지엄과 추계 분과회 심포지엄의 일정 및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7월25-28일에 분과학회 하계 심포지엄을 연변대학교(중국)에서 연변 국제심포지엄으로 진행하였고, 분과학회에서는 8명의 교수가 참석하였다. 10월 19일 추계 대한약학회에서 약물학분과학회 심포지엄은 “유전자 편집 및 운반 기술의 약물학적 응용”이라는 주제로 4명의 연자(김형범-연세대, 김석중-툄젠, 허경선-충남대, 구자현-서울대)의 연구 발표가 진행되었다.



〈하계 연변 국제 심포지엄〉 2016 / 회장 정재훈

2017년에는 2월 2-3일에 분과학회 동계 심포지엄을 강원도 속초 아이파크 콘도미니엄에서 개최하였다. 16개 약물학 실험실에서 총 62명 참가하여 대학원생들의 연구내용과 강원대 안성훈

교수를 초빙하여 심포지엄을 진행하였으며, 최신 연구 성과 및 이와 관련된 연구 동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4월21일에는 충청북도 C&V센터에서 개최된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 부문 중 약물학 분과학회가 주도하여 ‘신약개발을 위한 최첨단 오믹스 기법의 응용’이라는 주제로 5명의 연자로 박영자(고려대) 교수의 “Discovery of novel diagnostic biomarkers and drug candidates in malaria infection using high resolution metabolomics”, 조주연(서울대 의대) 교수의 “Application of metabolomics and genomics for new drug development in early clinical trials”, 이상규(경북대) 교수의 “The novel application of protein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for toxicological research”, 박성혁(서울대) 교수의 “Live metabolomics reveals new insights in cisplatin resistance in bladder cancer”, 정경아(가톨릭대 약대) 박사의 “New aspect of NFE2L2/NRF2 as a modulator of cancer mitochondria through miR-181c”의 최신 연구 성과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또한 10월19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약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약물학 분과학회가 주도하여 ‘신약 분자 표적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4명의 연자로 조완섭(충북대 경영대) 교수의 “Big data platforms in healthcare and their application in pharmacy”, 조성진(심플소프트주식회사) 박사의 “Drug discovery using publicly available data”, 홍진태(충북대) 교수의 “Use of big data for drug target discovery”, 노민수(서울대) 교수의 “Systems pharmacology tools for biological insight mining from public bio-big data”의 최신 연구 성과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12월 14일 서울에서 동덕여대 최민식 교수의 ‘Visible-light induced trans-nitrosylation’ 주제로 서울 중구 STX 남산타워 만복림에서 동계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연구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계 심포지엄〉 2017 / 회장 조정숙

2018년에는 4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 약물학분과학회가 주도하여 ‘면역기반 뇌질환 치료제’이라는 주제로 5명의 연자로 석경호(경북대 의대) 교수 “Neuroinflammation: Brain on Fire”, 조은혜(아주대 의대) 교수 “The other side of brain inflammation: Repair”, 최윤경(건국대 융합생명공학) 교수 “Heme oxygenase metabolites improve brain functions via cell-cell crosstalk after cerebral injuries”, 최동영(영남대) 교수 “Enhanced MPTP-mediated dopaminergic neurodegeneration in the IL-32beta transgenic mice”, 이종길(경희대) 교수 “New roles of acid sphingomyelinase in Alzheimer's disease and aging”의 최신 연구 성과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6월 25-26일에는 순천대학교 천연물신약연구소에서 하계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개 약물학 실험실에서 총 71명 참가하여 대학원생들의 연구내용과 김홍표(아주대) 교수의 초청강연으로 진행하였으며, 최신 연구 성과 및 이와 관련된 연구 동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10월 17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약물학 분과학회가 주도하여 ‘섬유성질환과 표적발굴’이라는 주제로 4명의 연자로 이봉용(넥스트젠 바이오사이언스) 박사 “Challenges to Drug Discovery over Emerging Indication, Fibrosis”, 고은희(울산대 의대) 교수 “Nitric Oxide Produced by Macrophages Induce Adipose Tissue Fibrosis”, 노윤석(충북대) 교수 “Gp130 promotes liver fibrosis and cancer in hepatocyte-specific TAK1-deficient mice”, 한창엽(원광대 의대) 교수 “Target identification for liver fibrosis: HSC inactivation and hepatocyte survival”의 최신 연구 성과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12월 14일 서울 중구 만복림에서 동계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윤재석(충북대) 교수의 ‘스트레스 반응성 전사인자 Npas4의 약물개발 타겟으로의 가능성’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연구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계 심포지엄(좌)와 대만 워크샵(우)> 2018 / 회장 안상미

2019년에는 4월 27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에서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GPCR 신약개발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정가영 (성균관대), 강건욱 (서울대), 남궁완(연세대), 남궁준 (연세대)의 연구 발표를 포함한 분과회 심포지엄을 진행하였다(좌장: 이진우, 허경선 교수). 8월 16-24일에는 17명의 교수가 참가하여 오스트리아에서 하계 국제워크샵을 진행하였다.



〈동계 심포지엄〉 2020 / 회장 장춘곤

2020년에는 7월 6일 하계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성훈(중앙대) 교수가 “칼슘의존성 염소이온이 뇌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중추신경의 신경소낭 대사”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최신 연구 성과 및 이와 관련된 연구 동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12월 19일에는 동계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양윤미(강원대) 교수가 “Hyaluronan: from biomarker to therapeutic target for liver fibrosis”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최신 연구 성과 및 이와 관련된 연구 동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2020년 대한약리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만성염증성 질환의 최신연구동향을 주제로 약물학분과학회 주최 심포지엄 세션을 개최하였다.

2021년에는 대한약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 4월 22일에 “Exosome: basics and biomedical applications”라는 주제로 생화학분과학회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약물학분과학회 오거나이저: 김소희 교수). 백문창(경북대) 교수의 “Anticancer drug development by inhibiting the secretion of exosomes derived from cancer cells”, 권영직(UC Irvine, USA) 교수의 “Extracellular blebs: A new class of extracellular vesicles with facile production and broad applications for clinical translation and commercialization”, Gao Bin(NIH) 박사의 “Exosome in fatty liver diseases”, Moon James(University of Michigan) 교수의 “Engineered nanoparticles for cancer immunotherapy”라는 4명 연자의 연구발표로 세션을 구성하였고, COVID-19로 인한 온라인(강연 생중계)로 진행된 심포지엄이었음에도 엑소좀의 기초 및 생물학적 응용에 관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5. 주요 인사 동정

약물학분과학회 교수들은 연구 및 교육 활동 외에도 대학의 주요 보직을 포함한 기관장 및 다수 학회에서의 학회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대학교보직 봉사활동

약물학분과학회 교수들은 각 대학에서 학장 또는 부총장으로 취임하여 약학대학은 물론 각 대학의 발전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1983년 김학성 교수가 충북대 약학대학장으로 취임하였고, 1989년 허인회 교수가 중앙대 약학대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같은 해 주왕기 교수가 강원대 약대의 초대 학장으로 취임하였고, 1995년 약학대학장에 재임하였다. 2001년에 김형준 교수가 강원대 약대 학장에 취임하였고, 2007년에 손의동(중앙대), 2011년 오기완(충북대)과 최종원(경성대) 교수, 2012년 임동순(부산대)와 정재훈(삼육대) 교수가 각 대학의 약학대학장으로 취임하였다. 신설 약대에서도 2011년 공재양(경상대)과 고광호(차의과대), 2012년 안상미(단국대), 2013년 조정숙(동국대) 교수가 약학대학장으로 취임하여 신설약대의 기반을 확립하고 교육 및 연구 발전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4년 김경만(전남대), 2015년 명창선(충남대), 2017년 하헌주(이화여대)와 곽미경(가톨릭대), 2018년 박필훈(영남대), 2020년 채한정(전북대), 임동순(경희대)과 홍진태(충북대), 2021년 김상건(동국대)와 김민선(순천대) 교수가 각 대학의 약학대학장으로 취임하여 약학대학의 6년제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시기에 약학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경쟁력 있는 약학교육 및 연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87-1989년 허인회(중앙대) 교수가 학생처장, 1998년 김학성(충북대) 교수가 대학원장, 2016년 오기완(충북대) 교수는 대학원장 및 대외협력 연구 부총장, 2020년 송운선(숙명여대) 교수는 학생처장으로 취임하여 약학대학뿐 아니라 각 대학에서도 대학의 행정 및 교육 업무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학회장 활동동정

약학대학 연구 활동의 중심이자 연구자들의 교류의 근간이 되고 있는 대한약학회 회장으로는 2015-2016년에 손의동 교수가 49대 대한약학회 회장으로 봉사하였고, 2021년에 홍진태 교수가 52대 대한약학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응용약물학회에서도 약물학분과학회 교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김재완 교수(1992-1994년)는 한국응용약물학회 초대회장을 역임하였고, 그 뒤를 이어 조태순(1995-1996년), 고석태(1997-1998년), 이은방(2000년), 김학성(2001년), 고광호(2004년), 은재순(2005년)과 오기완(2011년) 교수가 한국응용약물학회장을 역임하면서 약물학뿐 아니라 인접 전공 분야를 아우르는 다학제적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고, 학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최근에는 2015년 정재훈과 2021년 장춘곤 교수가 응용약물학회장에 취임하여 봉사하였다. 대한약리학회에서는 허근교수가 1990년에 회장을 역임하였고, 김낙두 교수(1996년), 그 뒤를 이어 손의동(2013년), 김상건(2017년), 및 이석용(2019년) 교수가 회장을 역임하면서 약학대학뿐 아니라 의과대학, 치과대학의 약리학 분야의 연구 활동을 선

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독성학회에서는 김상건 교수가 한국독성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이석용 교수는 2015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대한약학회 공식 학술지인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의 편집위원장으로 봉사하면서 우수 학술논문의 발표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JCR impact factor를 크게 향상시켜(2021년 기준 4.946), 본 학술지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공직기관장

허근 교수는 제2대 식약청장을 역임하였고, 식약동우회의 초대 회장을 맡아 약물학에 근간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안전한 식의약 생활에 기여하였다.

»수상 및 연구단장

약물학분과학회 교수들의 경쟁력에 기반한 연구 역량은 다수의 수상과 좋은 논문 및 연구 과제 의 확대로 이어졌다. 주요 수상자로, 정재훈 교수(2009년 한국응용약물학회 학술본상), 이명걸 교수(2010년 수당상), 손의동 교수(2017년 대한약사회 연구부분 약사금탑상, 2021년 대한약학회 한독학술대상), 김상건 교수(2015년 대한약학회 한독학술대상), 장춘곤 교수(2017년 한국응용약물학회 학술본상)가 수상하였다. 또한 우수한 연구활동으로 ERC(김상건 교수), MRC(홍진태 교수), DARIC(장춘곤 교수)와 같은 다수의 대형 연구 과제를 수주하여 약물학 뿐 아니라 약학 연구의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부산대 약대에 부임했다가 KAIST로 옮긴 김은준 교수는 국가과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6. > 관련학회 정보

- 한국응용약물학회

www.ksap.or.kr, ksap92@hanmail.net, 02-584-2167, 학회장 장춘곤 교수 (성균관대 약대)

- 대한약리학회

www.kosphar.org, head@kosphar.org, 02-326-0370, 학회장 김치대 교수 (부산대 의대)

- 한국독성학회

www.ksot.or.kr, ksot@ksot.or.kr, 02-888-3248, 학회장 박정덕 교수 (중앙대 의대)

7. > 맺음말

1954년 창립된 이래 약물학 연구와 교육에 정진해 온 약물학분과학회의 발자취는 바로 약학회와 한국 약학교육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약학교육을 위한 교재 발간, 기초연구와 임상적용을 아우르는 교육 시스템 개발, 통합6년제 교육 방향에 부합하는 세부역량기반 교육과정 재 정비 등, 약학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약학대학 약물학 및 관련 교과목 담당교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또한, 대한약학회 산하 분과로서의 학술활동 뿐 아니라, 국내외에서의 약물학분과학회 하계심포지움과 동계세미나 등을 통해 활발한 학술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인접 전공 분야를 아우르는 다학제적 연구활동으로 확장해나가고 있다. 대한약학회 75주년 기념사업으로 준비하는 ‘대한약학회 지부와 분과학회 역사(가칭)’ 작업을 통해 그간의 약물학분과학회의 끊임없는 노력과 성장이 담긴 발자취를 확인하고 이를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약물학분과학회의 역사가 이어질수록 더 큰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끝으로, 자료 수집에서부터 내용 작성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정리해주신 2021년 분과학회 총무 정철호와 최영희 교수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기억하기 어려운 오래전 자료들을 챙겨 보내주신 선배 교수님들과 역대 총무님 들께도 감사드린다.

2021 약물학 분과학회 회장 최현진

13

약사커뮤니케이션 · 커뮤니티케어 분과학회

1. 학회 개요

전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로서 약물요법의 관리자로서의 약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약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약료서비스 시행에 있어서 환자와 타보건의료인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국내에서도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이를 준비하고 있으며, 약사의 역할은 지역기반 서비스 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미 수 년전부터 방문약료 등 약사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향후 더 지속적으로 약사의 역할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분과학회는 환자중심의 효과적인 약사커뮤니케이션을 발전시키고, 커뮤니티케어에서의 약사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분과학회는 한국임상약학회, 한국병원약사회, 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지역약국학회 등 연관학회, 대한약사회와 협력하여 약학교육에 약사커뮤니케이션의 이론 및 실무가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커뮤니티케어에서의 약사 역할 정립, 이들에 대한 학술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다.

2. 학회 역사

2-1. 연도별 임원 현황표

연도	회장	소속	주요임원
2018-2019	이숙향	아주대	감사: 문홍섭, 서동철 부회장: 양재욱, 유봉규, 이재현, 홍송희, 곽혜선, 최경식, 이의경, 김은경 사무총장: 강혜영 총무위원장: 장선미 학술위원장: 이영숙 편집위원장: 손현순
2020-2020	양재욱	삼육대	감사: 문홍섭, 서동철 부회장: 최경식, 강혜영, 곽혜선, 김수경, 김은경, 나현오, 손현순, 조동환, 홍송희, 신혜연 사무총장: 장선미 총무위원장: 이주연 학술위원장: 김은영 편집위원장: 이영숙

2-2. 창립 역사 및 임원활동

고령화 정보화사회에서 새로운 약사상 실현을 위한 발전적인 약료서비스 및 헬스커뮤니케이터로서 건강서비스제공 등을 통해 약사 역할의 실제적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PHC (Pharmacy Healthcare Communication) 포럼이 당시 원희목 이화여대 임상보건대학원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원장을 초대 대표로 출범하였다.

PHC 포럼 활동의 일환으로 임상약학, 사회약학 교수로 구성된 집필진을 구성하고 약사커뮤니케이션 교재를 발간하였으며, 약사커뮤니케이션이 우수한 교육과 약사의 역량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약학교육에 이를 체계적으로 도입, 확대하기 위해서 약사커뮤니케이션 분과학회(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 학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초대 학회장으로는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이숙향 교수가 맡았다.

2020년에는 삼육대학교 약학대학의 양재욱 교수가 2대 학회장을 맡았다. 이후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방문약료 등 약사의 역할이 강조됨과 더불어 약학계 내 구심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커뮤니티케어에 있어서 약사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의 이름을 걸고 하는 학회의 조직과 활동이 필요함을 인지하여, 사회약학 전공과 임상약학 전공의 긴밀한 협력 구조인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 커뮤니티 케어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2020년 6월 2일 온라인 총회를 거쳐 정관을 변경하고, ‘약사커뮤니케이션·커뮤니티케어’ (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케어학회)로 분과학회 명칭을 변경하고 환자중심의 커뮤니티케어를 본 분과학회의 목적으로 추가하였고 이에 대한 분과학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3. 현재 임원 및 회원 현황

3-1. 임원 현황

직위	성함	소속
회장	양재욱	삼육대
고문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신완균	(전)서울대
	이병구	(전)이화여대
	이의경	성균관대
	이숙향	아주대
	최경식	한양대
부회장	강혜영	연세대
	곽혜선	이화여대
	김수경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은경	서울대
	나현오	가톨릭대
	손현순	차의과대

직위		성함	소속
부회장		조동환	약사공론
		홍송희	서울대
		신혜연	덕성여대
감사		문홍섭	목포대
		서동철	중앙대
사무총장		장선미	가천대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주연	서울대
	부위원장	아영미	영남대
		정지은	한양대
학술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중앙대
	부위원장	진혜경	PHC 포럼
		이희영	건양대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계명대
	부위원장	최수안	고려대
		장민정	연세대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성옥	인제대
	부위원장	이모세	대한약사회 부회장
		하정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정보위원회	위원장	이정연	이화여대
	부위원장	배훈	PHC 포럼
		최영옥	서울시약사회
재무위원회	위원장	고기현	PHC 포럼
	부위원장	최경희	순천대
		이진순	서울시약사회
기획위원회	위원장	박혜경	의약품정책연구소
	부위원장	안숙희	원광대
		권자영	대한약사회
		좌석훈	대한약사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PHC 포럼
	부위원장	김영선	서울시약사회
		이명자	서울시약사회
홍보위원회	위원장	신성주	서울시약사회
	부위원장	조혜경	신테카바이오
		김예지	대한약사회

3-2. 정회원 현황

이영미(영남대), 양재욱(삼육대), 이영숙(계명대), 이주연(서울대), 정지은(한양대), 진혜경(PHC 포럼), 최경식(한양대), 최미경(다정약국), 최혜덕(영남대)

4. 주요 학술 및 교육활동사항

» 2018-2019



04/ Chapter 01: 환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64/ Chapter 06: 직국적인 전문인으로 자기표현하기	173/ Chapter 11: 소아청소년대상 커뮤니케이션
14/ Chapter 02: 커뮤니케이션 모형	73/ Chapter 07: 환자 투약 상담	204/ Chapter 12: 의료직능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업관계 구축
25/ Chapter 03: 백면역학 커뮤니케이션	86/ Chapter 08: 환자의 약물요법관리 향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232/ Chapter 13: 보건의료전문가와 전차 커뮤니케이션
39/ Chapter 04: 커뮤니케이션 행태요소	127/ Chapter 09: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259/ Chapter 14: 역사 커뮤니케이션의 윤리 원칙
53/ Chapter 05: 경청과 공감에 기반한 환자-약사의 신뢰관계 형성하기	145/ Chapter 10: 독수상환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김수
서 동 철
신 환 균
원 희 목
조 통 환

지자
연 세 대 학교 강 혜 영
서 울 대 학교 김 은 경
충 앙 대 학교 김 은 영
이화여자 대학교 김 현 아
한 양 대 학교 이 정 연
성 공 관 대 학교 정 지 은

〈약사커뮤니케이션 교재 출판(2018)〉



〈약사커뮤니케이션 학회 창립총회〉 2018 / 회장 이숙향

» 2020-2021



〈약사와 커뮤니케이션 번역 7판(2020)〉

목차

- 머리말
- 1 약사 실무에서 환자중심의 커뮤니케이션
- 2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원칙과 구성요소
- 3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 4 커뮤니케이션의 장애물
- 5 경청 그리고 공감적 커뮤니케이션
- 6 자기주장 표현하기
- 7 면담 및 평가
- 8 환자의 약물치료법 관리 돕기
- 9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 10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 11 의약품에 대한 소아 청소년과의 커뮤니케이션

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케어학회
제3회 정기 학술대회
커뮤니티 기반 환자 맞춤형 약로서비스

초청의 글

무엇을 가늠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단어가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름을 잊게 하는 계절입니다. 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케어학회는 감염병의 위기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커뮤니티 기반 환자 맞춤형 약로서비스를 주제로 제3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19에 같은 감염병 관리의 상황에서의 소통과 위기관리를 위한 약사의 역할과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을 되짚어 보고, 국내외 지역사회 기반 환자 맞춤형 약로서비스의 현주소와 국제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학회 참석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국가미래를 위한 계승을 위해 열리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와 행사로 운영되오니, 학회 회원 및 여러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케어학회 회장 양재욱

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케어학회 제 3회 정기 학술대회
커뮤니티 기반 환자 맞춤형 약로서비스

일 시 2020년 11월 8일 (일요일) 14:00 ~ 17:30

장 소 실시간 온라인 중계 (Zoom Webinar)

후 원 PHC Forum, 약사공론

등 록 연회비: 2만원 (학부생 무료)
등록비: 사전등록 1만원 (학부생 무료), 현장등록 4만원
등록요청: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직책을
phcomm2@gmai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우리 1005-503-677402 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케어학회
제3회 정기 학술대회
커뮤니티 기반 환자 맞춤형 약로서비스

PROGRAM

시간	내용	좌장/발표자
14:00	개회 및 인사말씀 원희목 (평택의료포럼), 이숙진 (전일 학회회) 양재욱 (현 학회회장)	
14:00-14:10	특별강연	좌장 이숙진 (전일 학회회)
14:10-14:50 (30분)	코로나 19 시대의 약사의 역할과 커뮤니케이션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약사의 역할과 커뮤니케이션 중요성	조원준 (전문위원) (서울대약대)
14:50-15:20 (30분)	지역사회 기반 환자 맞춤형 약로 서비스	좌장 김은영 (전일 학회회)
15:20-15:50 (30분)	해외지역사회 기반 환자 맞춤형 약로 서비스 현황 일본의 현황과 약사의 역할 - 미국사례	신재규 (KCPH부총)
15:50-16:10 (20분)	해외지역사회 기반 환자 맞춤형 약로 서비스 현황 제약업 서비스 제도 및 시스템 - 일본사례	나현오 (아들대약대)
16:10-16:30 (20분)	국내 방문약로 현황과 제도적 지원방안	강선미 (아들대약대)
16:30-17:10 (40분)	연차 및 패널 토론	좌장 김명진 (아들대약대)
17:10-17:30 (20분)	폐회 정수연 (장사구약사회 이사), 윤선희 (부정사(약사협회)) 노주원 (분당서울대병원), 김주진 (전일 학회회)	연차 및 패널

〈제3회 추계학술대회〉 2020 / 회장 양재욱

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케어학회

제4회 정기 학술대회

약학대학 커뮤니케이션 교육

초청의 글

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케어학회에서는 2021년 제4회 정기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고자 합니다. 이번 가을철 학술대회에서는 새로운 2022년 약학대학 통합 6년제 학제에서 강조되고 있는 '약사커뮤니케이션' 교육활성화를 일환으로 "약학대학 커뮤니케이션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교육현장의 내용을 접하실 수 있도록 약학대학 및 의대, 치대, 간호대, 교육공학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이번 학회를 통해 약사 커뮤니케이션 관련 교과를 설계운영하시는 교수자,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실무자, 그리고 약대 학생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교환과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두 번대로 진행되는 제4회 가을 학회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국가정책지원의 충수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을 활용하여 Zoom Webinar로 진행을 예정입니다. 약대 학부교육과정에서의 약사커뮤니케이션 교육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과 적극 부탁드립니다.

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케어학회 회장 양재욱

주 제	약학대학 커뮤니케이션 교육
일 시	2021년 10월 24일(일) 14:00-18:00
장 소	실시간 온라인 Zoom Webinar
등록비	사전등록: 2만원, 직전등록: 4만원 (학회 회원 50%할인, 학부생 무료)
입금계좌	우리 1005-503-877402 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학회
등록마감	사전등록 10월 22일 자정, 직전등록 학회 당일 12시
등록요령	등록비 입금 후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직책을 phoosm2@gmail.com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케어학회

제4회 정기 학술대회

약학대학 커뮤니케이션 교육

[사회 및 진행] 김은영 (학술위원장, 중앙대 약대)

시간	내용	좌장/발표자
개회 및 인사발령		
14:00-14:20	개회사	양재욱 회장
	폐회사	원희욱 (제왕바이오협회 회장), 김재영 (대한약사회 회장) 한동주 (서울시 약사회 회장), 박명달 (경기도 약사회 회장) 홍승덕 (대한약학회 회장), 손동현 (약학대학 교육협의회 이사장)
실무자 1. 약학대학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교육		
14:20-14:35 (15분)	약학대학 커뮤니케이션 교육 (사례 1)	안숙희 (원광대)
14:35-14:50 (15분)	약학대학 커뮤니케이션 교육 (사례 2)	이연향 (경남대)
14:50-15:05 (15분)	약학대학 커뮤니케이션 교육 (사례 3)	진혜경 (동국대)
15:05-15:15 (10분)	약학대학 커뮤니케이션 교재 및 교육용 강의자료 활용 (교수자 대상)	최경식 (한양대/검정목 (인제대))
실무자 2. 보건의료 전문직의 커뮤니케이션 교육		
15:20-15:50 (30분)	의과대학 커뮤니케이션 교육과 교육목표	박일환 (단국대 의대)
15:50-16:20 (30분)	치과대학 커뮤니케이션 교육과 교육목표	진보형 (서울대 치대)
16:20-16:50 (30분)	간호대학 커뮤니케이션 교육과 교육목표	김수미 (서울대 간호대)
16:50-17:20 (30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교육을 위한 방법론적 고찰	양행일 (서울대 교육학2과)
종합토론 및 Q & A		
17:20-17:50 (30분)	질문 및 토론	이영숙 (계명대)
17:50	폐회	연자 및 참석자

〈제4회 추계학술대회〉 2021 / 회장 양재욱

5. 맺음말

약사커뮤니케이션 · 커뮤니케이터 분과학회는 2018년에 출범한 신생학회로 고령화 정보화 사회에서 새로운 약사상 실현을 위한 발전적인 헬스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의 일원으로의 활동 등을 통해 약사 역할의 실제적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임상약학, 사회약학 전공 교수 뿐 아니라 실무에 참여하는 약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약학대학과 약사의 교육 뿐 아니라 약사 역할을 변화시켜나가는 시스템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자료 수집과 내용 작성을 해주신 2021년 분과학회 총무 이주연 교수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같이 활동하고 있는 동료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린다.

2021 약사커뮤니케이션 · 커뮤니케이터 분과학회 회장 양재욱

14

약제학 분과학회



1. 학회 개요

약제학분과학회는 기초약학을 기반으로 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및 예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적용되어 보다 유효하고 안전하게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연구하는 약학의 중요한 학문 분야인 약제학의 전문적 지식 함양, 신약 및 의약품 연구개발 및 약학교육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약제학분과회가 1957년 발족된 이후 64년이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학회 학술대회의 심포지엄 개최, 회원간 학술교류 및 친목도모, 약제학 관련 교재 발간 및 개정 등의 활기찬 활동을 계속하며,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성능과 품질 면에서 우수한 제제를 만드는 이론과 기술, 제제의 성질과 약효, 제형의 선택과 적용방법, 조제기술과 복약지도, 적용 후의 체내동태 등을 주제로 하여 물리약제학, 제제학, 제제공학, 생물약제학과 약동학, 조제학 및 임상약제학 등으로 넓게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으로 기여해 왔다.

또한 약제학분과회 회원들은 약학회 창립 시부터 대한약학회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 및 간사, 진흥위원 및 간사, 서무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며 약학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봉사하여 왔다.

2. 학회 역사

2-1. 연도별 임원 현황표

연도	회장	소속	주요임원
1957-1970	우종학	서울대	
1971	용재익	숙명여대	
1972-1973	김상민	서울대	
1974	이완하	성균관대	
1975	김재완	덕성여대	
1976-1977	김재백	원광대	
1978	진갑덕	영남대	
1979-1980	김수억	경희대	
1981-1986	이민화	서울대	
1987-1990	지웅길	충남대	

연도	회장	소속	주요임원
1991-1994	서성훈	경희대	
1995-1996	구영순	이화여대	
1997-2000	김길수	이화여대	
2001-2004	이치호	부산대	총무: 김대덕
2005-2006	최준식	조선대	총무: 김대덕
2007-2008	심창구	서울대	총무: 한효경
2009-2012	전인구	동덕여대	총무: 한효경
2013	손영택	덕성여대	부회장: 최영욱; 총무/학술/교육: 이재희
2014	최영욱	중앙대	부회장: 용철순; 총무/학술/교육: 윤유석
2015	용철순	영남대	부회장: 손동환; 총무/학술/교육: 윤유석
2016	손동환	원광대	부회장: 이용복; 총무/학술/교육: 윤유석
2017	이용복	전남대	부회장: 조애리; 총무/학술: 조혜영; 교육: 신범수
2018	조애리	덕성여대	부회장: 김대덕; 총무: 조혜영; 학술: 조정원; 교육: 신범수
2019	김대덕	서울대	부회장: 이범진; 총무: 조혜영; 학술: 조정원; 교육: 신범수
2020	이범진	아주대	부회장: 오의철; 총무: 조정원; 학술: 유진욱; 교육: 조혜영; 국시: 이미경
2021	오의철	가톨릭대	부회장: 최한곤; 총무: 신범수; 학술: 유진욱; 교육: 조혜영; 국시: 이미경

2-2. 창립 역사 및 임원활동

1951년 11월 27일 대한약학회가 6.25 동란으로 피난 중에 부산에서 창립되기 1년 전인 1950년 우종학 교수가 편집위원으로 피선된 이후 1957년 11월 11일 약제학분과학회 고 우종학 교수(서울대)를 초대분과학회장으로 하여 발족된 이후 김상민 교수(1972-1973)와 김수억 교수(1979)를 거쳐 64년이 흘렀다. 1980년까지 30여 년 간은 이렇다 할 분과학회 활동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약학회 집행부의 일원으로 약학회 창립 당시부터 우종학 교수(서울대), 고 이완하 교수(성대) 및 김수억 교수가 편집위원, 진흥위원 또는 간사로 68년까지 봉사하였으며, 67년부터 고 용재익 교수(숙명여대)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였다. 71년에는 고 김신근 교수가 서무간사로 활동한 바 있다. 부회장으로는 우종학 교수(1970)와 김수억 교수(1981-1982)가 활동을 하였으며, 감사로 김수억 교수(1970)가 발탁된 바 있다. 1972-1978년에는 이민화 교수가 편집 부간사 또는 편집위원으로, 1979-1980년에는 서성훈 교수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약제학 전공 교수들은 1980년 초 이전까지는 회지발간과 회무에 참여하는 일이 대다수이었다. 분과학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노일협 약학회장 시절부터이다. 약제학분과학회 회장으로는 이민화 교수(1981-1986), 지용길 교수(1987-1990), 서성훈 교수(경희대)(1991-1994), 구영순 교수(이화여대)(1995-1996), 김길수 교수(이화여대)(1997-2000), 이치호 교수(부산대)(2001-2004), 최준식 교수(조선대)(2005-2006), 심창구 교수(서울대)(2007-2008), 전인구 교수(동덕여대)(2009-2012), 손영택 교수(덕성여대)(2013), 최영욱 교수(중앙대)(2014), 용철순 교수(영남

대)(2015), 손동환 교수(원광대)(2016), 이용복 교수(전남대)(2017), 조애리 교수(덕성여대)(2018), 김대덕 교수(서울대)(2019), 이범진 교수(아주대)(2020)가 그 맥을 이어 봉사하여 왔다.

약학회 회장직을 수행한 약제학 분과학회 교수로는 김길수 교수(03-04)와 김종국 교수(2005-2006), 전인구 교수(2007-2008), 이용복 교수(2019-2020)가 있으며, 간사장으로는 전인구 교수(2001-2002), 사무총장으로 이범진 교수(2011-2012), 편집위원장으로 심창구 교수(2001-2002)와 이용복 교수(2007-2008)가, 부편집장으로 박은석 교수(2007-2008), 출판위원장으로 전인구 교수(1997-1998)가 PharmWorld를 처음 소식지로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약제학분과 편집위원으로 민신흥 박사(1981-1982), 김길수 교수(1983-1990), 심창구 교수(1991-1994), 전인구 교수(1995-1996), 최영욱 교수(1997-2000), 손영택 교수(2001-2006), 김대덕 교수(2007-2008), 용철순 교수(2009-2010), 이범진 교수(2011-2012)가 학회 발전과 회지 발간에 노력하여 왔으며 한효경 교수(2007-2011)가 분과 학술행사 간사로서 주제 개발에 견인차 역할을 하여 왔다.

초기 약제학 분야의 연구내용과 학술발표의 주제는 1980년 이전의 프로시딩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약학회지 등에 기재된 단편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고자 한다. 약학회지에 보고된 한국 최초의 약제학 분야의 연구로는 1960년 10월 장용피 기체에 관한 연구(국립화학연구소의 김수억, 지달현, 문정현, 이금정), 시판 제산제의 제산도 평가(유병설)이며 이어 1963년 5월 카페인과 니코틴아미드의 복합체 형성(채동규), 1963년 9월 가열멸균의 동력학적 연구(우종학), 헥사민 수용액의 안정성(우종학)이 그 뒤를 잇는다.

1956년 제5회 총회(서울대 약대)에서는 제1회장에서 벤질알코올 제조시험보고(김수억, 송한진, 지달현)와 연질환제의 제피시행에 관한 연구(우종학, 김신근)의 2편이 보고되었다.

1957년 제6회 총회(이화여대)에서는 총 34편이 보고되었으며, 제2회장(생약, 제제, 위생, 유기, 무기 부분)에서 발표된 내용에는 연질환제의 제피시행(우종학), 일반결합제와 식물성 결합제의 비교(서명자, 김석만), 국산 정제류의 중량편차 및 붕해도 조사보고(김수억, 지달현, 이월희, 홍청자), 정제 첨가제의 붕해도에 미치는 영향(김수억, 지달현, 김권호, 이규송, 이월희, 홍영자), PAS와 INAH의 동시분리정량법에 대하여(김재백, 고인석) 등 5편이 발표되었다.

1958년 제7회 총회(덕성여대)에서는 총 77편이 보고되었으며, 녹용성분연구 제2보(용재익), 제제 분야에서는 유동액기스 제조과정에 있어서 계면활성제가 미치는 영향(우종학, 김신근), 비타민 C 주사액의 제조시험 보고(김수억, 이규송, 민혜홍), 종합비타민 액제의 안정도에 관한 연구(제1보)(김수억, 지달현, 이규송, 문정현, 오유진, 정경순)의 보고 등 4편이 있었다.

1959년 제8회 총회(성균관대)는 4개 회장으로 나누어 총 55편이 발표되었는데 제1회장에서 발표된 약제학 분야의 주요 내용은 종합비타민제에 있어 수분이 비타민 A와 비타민 C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고인석, 박영숙, 서인창, 하이중), 국산 바이알의 품질조사 보고(김수억, 오유진,

지달현, 강원식), 셀락에 의한 장용 코팅 연구(우종학, 김신근, 윤성섭), 장용피 기체에 관한 연구(김수익, 문정현, 지달현, 이금정), 연고에 있어 기체의 상위에 의한 체내흡수상황에 관한 연구 제1보(우종학, 정미영, 김신근), 염화칼슘 용기에 대한 조사보고(김수익, 김병순, 이규송) 등 5편이 있었다.

1960년 제9회 총회(서울대)는 4개 회장으로 나누어 총 47편이 발표되었는데 제1회장에서 발표된 약제학 분야의 주요 내용은 슬러그법에 의한 비타민 C 정제의 안정도 시험 보고(김수익, 이금정, 이규송), White Lotion 제조에 관한 연구(제1보)(고운식, 고두훈), 바이알용 고무마개의 제제학적 시험 보고(김수익, 이규송, 문정현, 김병순), 각종 제형의 중량 또는 용량편차에 관한 통계학적 연구 제1보-제2보(이은방, 우종학), 장용피 기체에 관한 연구 제2보(김수익, 지달현, 문정현, 이규식, 김정자), 필름형 코팅의 제제학적 응용에 대하여(김수익, 지달현, 오유진, 안두규, 이종홍) 등 7편이 있었다.

1961년 제10회 총회(서울대)는 4개 회장으로 나누어 총 62편이 발표되었는데 제1회장에서 발표된 약제학 분야의 주요 내용은 슬러그법에 의한 비타민 C 정제의 안정도 시험 보고(김수익, 이금정, 이규송), White Lotion 제조에 관한 연구(제2보)(김종갑, 고두훈, 박명자), 소화효소제의 약제학적 연구(제1보) (우종학, 권종극), 각종 제형의 중량 또는 용량편차에 관한 통계학적 연구(제3보)(우종학, 이민화) 등 4편이 있었다.

1962년 제11회 총회(서울대)에서는 특별강연으로 “미국 약학교육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성균관대 최종인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일반 발표는 4개 회장으로 나누어 총 40편이 발표되었는데 제1회장(약화학, 약제학)에서는 9편이 발표되었는데 멸균 공정을 위한 새로운 장치에 대하여 국제약품의 마리노 루모리 박사의 발표 1편이 있었다.

1963년 제12회 총회(서울대)에서 일반 발표가 4개 회장으로 나누어 총 49편이 발표되었는데 제1회장(약화학, 약제학)에서는 10편이 발표되었는데 의약품에 사용되는 초자용기의 용출 알칼리도에 대하여(김수익, 이규송, 김금정), 살균방부제에 관한 연구(제1보): 계면활성제가 살균방부제에 미치는 영향(우종학, 권순경), 핵사민 수용액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우종학), 가열멸균의 동력학적 연구(우종학) 등 4편이 있었다. 한편 약학회지에 제7권 제2, 3호에 가열멸균의 약동학적 연구의 약제학 논문이 수록된 것이 최초의 일이다.

1965년 제14회 총회(덕성여대)에서 일반 발표가 총 46편이 발표되었는데 약제학 관련 발표는 살균방부제에 관한 연구(제3보)(우종학, 민신흥), 수종 당류의 수용액의 가열멸균에 관한 연구(우종학, 김순희) 2편이었다.

1966년 제15회 총회(서울대)에서 일반 발표가 총 34편이 발표되었는데 약제학 관련 발표는 현탁제에서 양이온 및 양성계면활성제의 영향(우종학, 이진환), 클로람페니콜 직장 흡수에 대한

수중 기체의 영향(우종학, 김신근, 이민화), 콜린살리실레이트의 직장 흡수(우종학, 김신근, 이민화), 수중 알칼로이드류의 항균작용(우종학, 박철수) 등 4편이었다.

1967년 제16회 총회(서울대)에서 일반 발표가 총 72편이 발표되었는데 약제학 관련 발표는 약제의 복합 투여시 흡수 및 배설(김재완), 대한약전 제1개정 수재 연고제의 정도(김종갑, 김창중), 아카시아 및 알긴산나트륨과 수중 방부제와의 복합체 형성(우종학, 김신근, 민신흥), 식물유의 항미생물 작용(우종학, 김종국) 등 4편이었다.

1968년 제17회 총회(서울대)에서 일반 발표가 총 69편이 발표되었는데 약제학 관련 발표는 설폰아미드류의 흡수에 미치는 중추신경계 약물의 영향(김종갑, 김창중), 설폰아미드류의 흡수에 미치는 콜린 작동약물의 영향(김종갑), 설폰아미드류의 직장흡수에 미치는 히알우로니데이스의 영향(우종학, 정옥경), 사람에서 설파티아졸의 불활성 속도(김재백) 등 4편이었다.

1969년 제18회 총회(서울대)에서 일반 발표가 총 89편이 발표되었는데 약제학 관련 발표는 아스코르브산과 그 산재의 안정성(우종학, 김신근, 박경희), 복합제제 투여시 흡수 및 배설의 생물 약제학적 연구: 살리실아미드 흡수에 대한 부교감신경약물의 영향(김재완, 김길향), 아미노피린 분자화합물의 흡수 연구(한세호), 수중 항생물질의 장관흡수(김종갑) 등 4편이었다.

1970년 제19회 학술대회(서울대)에서 일반 발표가 총 71편이 발표되었는데 약제학 관련 내용으로는 국소마취제가 직장내에서의 설파약물의 흡수에 미치는 영향(이진환), 다량 배치 생산에 있어서 각종 분말 혼합기의 혼합성능 비교(조병춘, 호광민), 암치료제 10종의 분배계수 측정(옥치완), 의약품 흡착에 관한 연구 I (우종학, 김신근, 이민화, 이용주), 분말성 제제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아스코르브산 분해에 미치는 탈크의 영향)(우종학, 김신근, 이민화, 정기화), 카라기난과 방부제와의 상호작용(우종학, 김신근, 이민화, 민신흥), 베타-시클로텍스트린과 설폰아미드와의 상호작용(우종학, 김신근, 이민화, 민신흥), 의약품(테르타사이클린)의 소화관 흡수에 미치는 시클로텍스트린의 영향 I (우종학, 김신근, 이은방, 김용주, 한세호), 알코올수축정과 확산분석에 의한 함량 측정과의 비교연구(박종훈), 설파닐아미드 유도체의 동(II) 착화합물에 대한 약제학적 연구(김재백), 복합항지간제에 대한 연구(우종학, 김신근, 이기승, 이계주, 우제승), 제제 중 프로판텔린브롬화물의 안정성(지달현, 용군호, 최병기, 김길수), 의약품의 지용성에 관한 연구(이은옥, 김은정) 등 12편으로 발표 수자가 크게 늘었다.

1971년 제20회 학술대회(서울대)에서 일반 발표가 총 35편이 발표되었는데 약제학 관련 내용으로는 액제 중 메토클로프라미드의 안정성(김용배, 이상희, 현영우), 아스코르브산의 색소퇴색에 미치는 영향 및 수중 안정제의 효과(김용배, 이상희, 강건일) 2편에 머물렀다. 이 해에 한국약제학회가 설립되었다.

1972년 제21회 학술대회(국립보건연구원)에서 일반 발표가 총 62편이 발표되었는데 약제학

관련 내용으로는 연고제의 경도 연구(김종갑, 이숙경), 크림형 연고제의 유동학적 성질(이계주, 라운용), 유산균 제제의 경시변화(이인재, 박기덕), 소화효소제의 제조에 따른 문제점 I, II (김용배, 신현종 등), 국산원료약품의 품질(박성배 등), 베타사클로텍스트린과 의약품(페노바르비탈)과의 상호작용 III (민신흥), 암피실린나트륨의 약제학적 연구(김정우, 우종학, 이민화, 김신근), 분말성 제제의 안전성 연구: 주종 제산제 중의 아스코르브산의 안정도와 보존 습도와의 관계(신상철, 김신근, 유종학, 이민화) 등 9편이었다.

1973년 제22회 학술대회(서울대)에서 일반 발표가 총 31편이 발표되었는데 약제학 관련 내용으로는 의약품의 제조설계 및 조작 분석의 최적화(김용배), 압출-구화공정에 의한 구형과립제조의 제영향인자에 대한 검토(이강춘, 민신흥, 이상희, 김용배), 함량균일성에 관한 연구(심응기, 이규송, 한익수, 김병주) 등 3편이었다.

1974년 제23회 학술대회(서울대)에서 일반 발표가 총 30편이 발표되었는데 약제학 관련 내용으로는 In vitro에서 날리딕스산의 항균활성에 미치는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증제의 영향(김효숙, 이민화, 김신근), 압출-구화공정에 의한 구형과립제조의 제영향인자 검토 II (이강춘, 민신흥, 이상희, 김용배), 약제의 안정성 예측방법(이영호, 김기원, 김정우) 등 3편이었다.

1975년 제24회 학술대회(국립보건원)에서는 제제설계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려 문제제기(김종갑), 함량균일성(김실수), 난용성 약물의 공침물에 관한 용출특성(이민화), 제제 안정성(김재백), 제어방출기술의 이론과 응용(문상흡), 생체이용률(김신근), 결론(용재익)이 있었다. 일반발표는 총 41편이 발표되었는데 약제학 관련 내용으로는 메탐피실린리지네이트 합성 및 항미생물활성(김종갑, 이숙경), 수용액 중 인도메타신 분해의 동력학적 연구(전인구, 우종학, 이민화), 페니라민말레산 염과 그 유도체의 활성탄 흡착(신순희, 김신근), 메벤다졸 현탁액의 안정성(한관섭, 용군호, 김길수, 허영훈), 스트렙토마이신의 생물학적 반감강하 신기능 관련과 약물동태(조윤성, 조영원, 허영훈), 암피실린나트륨 제제의 생체이용률(조윤성, 김광우), 직타법에 의한 프레드니솔론 정의 제조에 대한 첨가제의 영향(권종원, 강건일, 민신흥, 이상희, 김용배) 등 7편이었다.

1976년 제25회 학술대회(국립보건원)에서는 일반발표가 44편이 발표되었는데 약제학 관련 내용으로는 분체혼합물의 균일성(김길수, 이민화), 푸로세미드 공침물의 용출특성(신상철, 우종학, 이민화), 연고제의 제제설계에 있어서 첨가제 영향(권종원, 김원배, 민신흥, 김용배) 등 3편이었다.

1977년 제26회 학술대회(영남대)에서 일반 발표가 총 56편이 발표되었는데 약제학 관련 내용으로는 미세결정화한 아스피린의 정제의 분해와 용출(심우원, 이민화, 우종학), 황산암모늄과 강암모니아 용액으로 반응으로 제조한 수산화알루미늄겔의 산중화의 동력학(한건, 김신근), 전도도법에 의한 유제의 안정성 연구(김원배, 김신근), 유기용매가 무정형 클록사실린나트륨에 미치는 영향(백우현, 김정우, 봉득환), 금속이온이 프로판텔린브롬화물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심응기, 이해빈,

김길수, 이복희), 부신피질호르몬의 폴리에톡시레이트드 나놀린콜레스테롤에 의한 가용화(오원식, 김수억), 원형 구멍을 통한 과립상 sands의 유동성(민신흥, 이상희, 김용배), 병태동물에서 암피실린의 생물약제학적 연구(이진환, 최준식) 등 8편이었다.

1978년 춘계학술행사(숙명여대)에서는 특강으로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제산제 병용시 상호작용에 대해 국립의료원 약제과 김순아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심포지엄에서는 김재완 교수의 좌장으로 의약품의 안정성에 관한 주제로 김재백, 이민화, 최병기, 이병국, 백우현, 김수억, 용재익, 정지석, 김중선, 김종갑 교수가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질의 토론이 있었다. 제27회 학술대회(중앙대)에서 우종학 교수가 수상강연을 하였다. 일반발표는 총 58편이 발표되었으며, 약제학 관련 논문은 11편이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믹서 과립화(이강춘 등), 부펙사맥 외용기제(김충규, 김원배 등), 국소기제의 유동학적 성질(민신흥 등), 푸로세미드 공침물(신상철), 붕해제에 따른 정제의 붕해성(이희운 등), 약물상호작용(와르파린-니플름산)(양중익 등), 리팜피신 공침물(김영일, 김종갑), 항생물질 현탁액중 에리트로신 흡착(백우현 등), 액상제제중 보존제 사용실태(오세종 등), 병태동물에서 에탐부톨염산염의 생물약제학적 연구(이진환 등) 등 11편이었다.

1979년 4월 18-20일에는 대한약학회와 대한약품공업협회 공동주최로 약공회관 강당에서 GMP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주요내용은 보사부 GMP 시행방침에 대한 설명(지달현), 생산과 공업경영, 경영과 관리, 공업의 경영관리(이근희), GMP 기초해설(윤군호), 공장시설 실례해설(홍순익), 제조공정관리, 특수작업장내의 미생물오염관리, 공기여과와 HEPA filter의 성능검사, 가압증기멸균의 시설검사(김종국), 일본 중소제약기업의 GMP 실시현황과 GMP 공장설계(일본TMK 건축설계사 岡橋良)이었다. 1979년 제28회 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에서는 71편의 일반 논문이 7개 분과별로 발표되어 약학의 전문 분야가 독립적으로 발표되고 물리약학과 약제학이 독립되는 장이 열리게 되었다. 약제학 분야에서는 함량균일성(신양식 등), 공존 의약품 중 티아민의 안정성(심응기 등), 세팔렉신 결정다형(최병기 등), 제제 중 뉴클레오시드 정량(최병기 등), 고용매 중 용해도(이치호 등), 입도분석(민신흥 등), 설파메톡사졸-트리메토프림-PVP 공침물(백우형 등), 리지노메틸암피실린의 혈중농도 비교(김종갑 등), 메토클로프라미드-PVP 공침물(유봉신, 용재익), 에리트로베이트나트륨과 프로메타진염산염의 광안정성(김신근, 김선희), 이조 초기의 외국과의 약물 교류(김신근) 등 12편이었다.

1980년 총회 및 학술대회(서울대)에서는 대한약학회, 약학대학협의회, 대한약사회 공동주최로 약학교육발전에 관한 심포지엄에 고인석, 허금, 이상섭, 노일협, 한덕룡, 이상희, 권경곤, 정기용, 심영섭, 김재완, 이왕규 교수 등 11명의 약대 교수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제개편을 대대적으로 논의하였다. 일반발표로는 약제학 분야에서 이민화 및 김수억 교수의 좌장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코팅 미립자의 용출속도 조절, 고상 안정성, 정제중 아스피린과 살리실산 동시정량, 복합제제의 용출 측정, 용출에 미치는 첨가제 영향, 신세노관수송, 파라벤의 안정성에 대한 시클로텍스트린 영향, 담즙산염이 분배계수와 흡수에 미치는 영향, 함량균일성 변화, 시판

정제의 품질평가 등 10편이었다.

1981년 약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총회 및 학술대회(숙명여대)에서는 약화학과 약제학이 공동 세션으로 일반구두발표가 있었는데 약제학 분야의 일반발표는 이완하 및 이민화 교수의 좌장으로 5편이 편이 발표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단백결합, 마이크로캡슐, 결정다형, 아르기닌염 형성에 의한 가용화, 신세노관 수송 등이었다.

1982년 총회 및 학술대회(조선대)에서는 17편의 일반구두 발표가 있었다. 좌장은 한석규, 이진환, 구영순 교수가 맡았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약물-약물 및 약물-생체고분자 상호작용, 타우린 흡수, GLC 분석법 최적화, 안정성, 알부민 미소구체 제조, 현탁액의 응결, 흡착이론, 미분쇄 이론, 비이온계면활성제의 담점 변화, 마이크로캡슐의 제조, 제산력평가 분포산제의 중량편차 등이 보고되었다.

1983년 당시 분과회로는 천연물, 약물학, 분석, 약제학, 생화학, 약화학, 위생의 7개 분과학회가 있었다. 과학의 달 기념 춘계학술발표에서는 4명의 특강이 있었으며 그 중 약제학 분야에서는 약물의 체내동태 예측(심창구)이 발표되었다. 1983년 총회 및 학술대회(중앙대)에서는 약제학 분과에 29편의 일반구두발표가 있었다. 좌장은 김길수, 이진환, 지용길, 민신흥, 한석규 교수가 맡았으며 그 주요내용은 약물-생체고분자 상호작용, 니트로푸란토인정의 용출, 약물 함유 황납 매트릭스, 시클로텍스트린 복합체, w/o/w 다중유제, 날리딕스산의 장관 부위별 흡수, 쌍화탕에 의한 BSP 동태변화, EC-DEP 필름에서 살리실산 방출, 컴퓨터 프로그램 MULTI 이용, 좌제 기제 연구, 함량 균일성, 실리콘 고무로부터 헤파린 용출, 인도메타신 미셀 가용화, 폴리파리시클로판류의 호스트 화합물 설계, 리포솜의 제법, 알부민 미립구, EC 마이크로캡슐, 페니토인 생체이용률, 서방 아스피린 응집물제조, 분부건조 코팅, 크림제의 유동학적 성질 변화 등이 보고되었다.

1984년 7월 12일에는 신축대한약사회관 강당에서 대한약사회관 신축기념 심포지엄을 열어“2천년대를 내다 본 약사의 기능”이라는 주제로 노일협 교수 좌장으로 문제제기(한덕용), 약학 교육분야(유병설), 약국분야(김낙두), 보건위생분야(용근호), 산업분야(민신흥), 결론(김재완)이 있었다. 2004년 영남지부 학술보고(총 12편) 중에는 에나민 형성에 의한 약물의 직장흡수에 관한 연구(김기헌, 대판대학 약학부 神川邦久, 鎌田皎)가 발표되었다. 1984년 10월 29-30일에 열린 한일제제기술 워크숍(코리어나호텔 22층)에서는 고평제제를 주제로 하여 다국적기업과의 합작에 의한 제제공장 건설(이병국), 제제기술과 제제기계의 진보(船越嘉郎), 제제공학에서의 분체의 부착성 및 응집성(大塚昭信), 액중조립법의 개발과 응용(川島嘉明), 약제분말의 혼합 특성(최우식), 과립제조기술과 트러블 대책(藤本哲磨), 의약품의 조립연구(三宅康夫), Controlled Drug delivery Technology(宮南 啓), 타정기술과 그 트러블 대책(古和田儀一郎), 코팅기술과 그 트러블 대책(本山 示), GMP 측면에서 본 고평제제의 제조관리(백우현), 제제공장의 Layout 및 제정사공처리(김종국) 등의 발표가 있었다. 1984년 총회 및 학술대회(서울대)에서는 Gifu대 Y. Kawashima 교수의 구형 결정화 기술에 관한 특별강연과 24편의 일반구두발표가 있었다. 이때 좌장은 김길수, 이치호, 민신흥, 이제

주, 이민화, 김종국 교수가 맡았으며 그 주요 내용은 리포솜, 안정성, 제제의 HPLC 분석, INAH 제어방출제개발, 리보플라빈-살리실산유도체의 분자간 상호작용, 인지질막 투과성, 약물-쌍화당 상호작용, 리팜피신-에탐부톨 고체분산제, 가교 알부민 마이크로스피어 개발, 보존제의 분리정량, 알기네이트 수용액의 유동학, 분무건조입자의 용출, 약물수송체로서의 리포솜, 용매침착법에 의한 용출증대, 바이오머에서 헤파린 용출, 수용성 폴리파라시클로판-약물 상호작용, 정제의 압축압력, 인도메타신 마이크로캡슐, 칼슘센노시드가 약물흡수에 미치는 영향, 리포솜을 이용한 면역분석법개발 등이 보고되었다.

1985년 9월 19-20일 삼정호텔 2층에서 “제7차 한일 제제기술워크숍”이 약학회와 대한약품공업협회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서 무균실 설계 및 관리(이병국), 주사제 제조공정개요(김영일), 주사제용 고무마개의 필요조건과 전망(西田茂一), 고압증기멸균기법(김종국), 명균제 제조공정의 밸리데이션(김길수), 여과의 기초이론과 응용(최우식), RO 시스템과 멤브레인 여과(박두진), 수액병의 제조공정과 품질관리(오세무)가 발표되었다. 1985년 총회 및 학술대회(원광대)에서는 일반구두발표로 26편의 발표가 있었다. 주요 내용은 자성 젤라틴 미소구체, 마이크로에멀전, 흡수촉진제, 인지질 막의 상전이온도변화, 매트릭스형 경피치료시스템, 알부민-약물결합, 체내속도론, 아미드류의 흡수촉진, 약물상호작용, 키토산 혼합분쇄물, 생체이용률, 좌제의 직장 흡수, 실리콘 디바이스 개발, 계면활성제-요소 상호작용, 미셀가용화, 리포솜내 DNA 봉입, 시클로텍스트린-약물 상호작용, 마이크로캡슐의 피막 가소화 영향 등이었다.

1986년 총회 및 학술대회(서울대)에서는 분과 특별강연으로 새로운 부형제로서의 시클로텍스트린(K.H. Frömring 교수, 동베를린대)에 관한 발표가 있었고, 약제학, 물리약학, 병원약학 합동으로 39편의 일반구두 발표가 있었다. 젤라틴 마이크로스피어, ECD를 이용한 혈중약물분석, 헤파린 방출, 연고기제 조성, 혼합분쇄물의 용출속도 증가, 간장해와 대사, 약물상호작용, 생체이용률, 체내동태변화, 알기네이트염 형성, 필름제로부터 방출, 겔형성 서방정, 이온성 약물의 체내동태, 마이크로캡슐, 경비흡수, 비등정 설계, 다중유제, 경피흡수시스템, 결정구조, 리포솜막의 미소 점성, 다중막 리포솜의 삼투거동, 간표적 알부민 마이크로스피어 등이 보고되었다.

1987년 총회 및 학술대회(영남대)에서는 의약품의 제제개발과 품질평가의 심포지엄이 열렸으며 발표자는 민신흥, 일본 쇼와대 Mitsuo Matsumoto 교수, Shoji Awazu 교수, 이치호, 이승진, 김영일, 이민화 교수이었다. 분과 일반구두발표 22편이 발표되었는데 그 주제는 급성신장해시 테오픈린 체내동태, 프로리포솜, 분무코팅에 의한 서방정 제조, polyelectrolyte coating, 철서방정, BSP 단백질결합에 대한 쌍화당 영향, 시메티딘-이소니아지드 상호작용, 프라지판텔 체내 동태, 시클로텍스트린 복합제, 페노바르비탈 전처리시 BSP 동태, o/w 마이크로에멀전의 물성, 경비흡수, 테오픈린 간대사 클리어런스, 헤파린화 폴리우레탄의 제조와 특성, 약물송달시스템으로서의 자성체, 알부민 미소구체, 클로니딘 경피 투과, 반코마이신의 단백질결합, 콜린마그네슘살리실산의 생물학적동등성, 테오픈린 동태에 미치는 페니토인 영향 등이었다.

1988년 총회 및 학술대회(성균관대)에서는 분과 일반구두발표 17편과 포스터 발표 4편이 있었다. 키토산 서방제제, 마이크로캡슐, 담즙산염 공침물, 알기네이트정제, 이뮤노마이크로스피어에 의한 표적화, 조립기술, 정제의 생체이용률, Cassia seed에 의한 콜레스테롤 흡착, 용출, 신장해시 약물동태, 고지혈증에 대한 송이엑스 영향, PVC 용기 흡착, 로나졸락 아르기네이트염, 뇌내 약물수송, 약물체내동태, 타액을 이용한 생체이용률, 인터페론 경피흡수 등이 보고되었다.

1989년에는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동덕여대)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1편의 체내동태에 관한 일반구두발표와 1편의 정제의 용출 관련 포스터 발표만이 있었다.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충북대)에서는 특강으로 Showa 대, Watanabe 교수의 흡수촉진제에 의한 펩티드류의 직장흡수가 발표되고 Kanazawa 대학의 Akira Tsuji 교수의 펩티드류의 리셉터 매개 조직분포 및 생리학적약물속도론이 발표되었다. 심포지엄으로는 약물수송체 개발(7명)이 개최되었는데 국외 초청연사는 일본 교토대학 약학부 Yamotsu Kondo 교수이었다. 일반발표로는 한건, 구영순, 용재익, 심창구, 최준식 및 전인구 교수의 좌장으로 18편의 논문이 구두로 발표되었으며 4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주요내용은 이부프로펜 프로드럭, 구강점막부착정, 서방정의 생물학적동등성연구, 효소유도 및 간혈류량 감소영향, 키토산 혼합분쇄물, 단클론항체를 이용한 표적화, 시클로텍스트린 복합체 형성, 뇌내 펩티드 내재화, 오큐빈의 체내 동태, 다중피크 현상, 신클리어런스의 농도의존성, EVA를 이용한 TDS, 딜티아젠펙과 그 대사체의 체내동태 등이었다.

1990년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경희대)에서는 약제학분야에 정서영 박사의 좌장으로 3편이 구두로 발표되었는데 스타노졸롤의 신 배설기전과 약동학, 마이크로캡슐의 제조 및 라니티딘 염산염정의 서방출성이 주제이었다.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전남대)에서는 15편의 일반구두발표와 3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약물수송 및 동태, 장관흡수, 좌제, 겔제, 히드로겔, 미소구체, 마이크로캡슐, 인공궤장개발, iontophoresis에 의한 경피흡수, 혈중농도의 다중 피크현상, 페노바르비탈 전처리시 약물동태, 총수담관 결찰에 따른 간기능 변화 등이었다.

1991년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이화여대)에서는 리포솜의 특성과 약물수송체로서의 역할(6명)의 심포지엄이 있었고, 효소소화성 팽윤히드로겔의 제조에 대한 포스터 발표가 1편이 보고되었다. 1991년 40주년 기념 신약개발국제학술대회에서는 약물전달시스템 분야에서 표적화 기술, 펩티드 약물 전달, 약물전달의 조절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국내외 13인의 석학들의 발표가 있었다. 1991년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에서는 11편의 일반연제발표가 있었으며 xerogel제제, 다중피크현상, 간표적성, 약동학, 팽윤성히드로겔, 알기네이트 미소구체, 마이크로캡슐, 수식된 프로리포솜, 소장 흡수, 스테로이드 antidrug, 이뮤노리포솜의 체내동태 등이 발표되었다. 포스터 발표는 20편이 있었는데 중공좌제, 용출증가, 필름제, 다공성 분체와의 상호작용, 요소 제제의 붕해, 생체이용률, 서방성제제의 용출시험, 프로리포솜, 시클로텍스트린 복합체형성, 약물상호작용, 혈액-뇌관문 담체수송, 알기네이트 비드 등이 발표되었다.

1992년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에서는 13편의 구두발표와 12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는데 뇌내

송달, 제제의 약물동태, 간내 이송, 4급 암모늄의 간수송기전, 경피흡수, 프로리포솜, 활성펩타이드류의 효소분해, 경구항생제 개발, 프로리포솜, 임상약동학적 상호작용, 펩타이드류의 경점막 수송, 제어방출제제, 구강부착정, 오메프라졸 제제설계, 안정성 등이 주제이었다.

1993년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영남대)에서는 단지 8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는데 표면수식 프로리포솜의 간타겟팅, 간-담즙이행, 단백결합 변화, 리포솜의 안정성, 체내동태, 고체분산체, 생체이용률 변화, 폴록사머 겔 등이 주 대상이었다.

1994년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강원대)에서는 신약창출연구토론회가 열려 약제학분과에서는 약물역학, 약동학, 대사속도측정 및 분말엘릭실제에 관한 5편의 구두 발표와 19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는데, 안정화, 공용혼합물, 철흡수, 생체이용률, 케토프로펜 겔제, 생분해성 마이크로스피어, 간표적화, pH 감응 제산제 방출, 유동학, 프로리포솜, 위내부유정제, 좌제의 직장흡수증진 등에 대해 발표되었다. 1994년 추계 총회(서울대)에서는 경피흡수와 집단약동학에 대한 2편의 일반구두 발표와 41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는데, 생체이용률, 패치제, 경점막 및 경피흡수, 직장점막 흡수, 경비흡수, 프로드럭, 시클로텍스트린류, 가용화 및 용출증가, 방출조절, 마이크로에멀전, 약물동태, 안정성, 이식정, 미소구체, antisense의 활성, YH 439의 체내동태, 좌제의 방출, 혼합미셀에 의한 가용화 등이 그 대상이었다.

1995년 한국약학 80주년 기념 종합약학학술대회에서는 총 15개의 심포지엄 중 분과 심포지엄으로는 약물수송체 개발의 최근동향에 관한 심포지엄이 있었으며, 이와 함께 열린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서울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는 32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 멜라토닌 방출제제, 마소구체, HP β CD 고체분산체, 플루로닉 겔, 공침물, 간경변시 테오피린 체내 변화, antisense의 경피흡수, 개구리알의 디펩티드 수송체 발현, 임파수송, difructose의철 흡수 영향, 니코틴 패치의 동태, 유기양이온의 간흡수기전, 유기양이온의 간담즙 수송, 리포솜을 이용한 피부흡수, 프로리포솜의 경피흡수, 오메프라졸 신제형, 인슈린 자동조절방출, 염산슈도에 페드린 제제의 생물학적동등성, 사이클로스포린 신처방의 생체이용률, rhEGF의 안구 분포, 드로페리돌 결정다형, 레지네이트를 이용한 파모티딘의 안정화, 리피오돌 유사유제의 안정화, 이프리플라본 부유정 등이었다.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서성균관대)에서는 초청 특강으로 일본위생시험소의 Nobuo Aoyagi 박사의 일본에서의 경구용 고형제제의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과 쇼와 약대의 松本光雄 교수의 일본의 약제사 양성과 약학교육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45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1996년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숙명여대)에서는 분과특강으로 미국화이자제약의 권영길 박사로부터 “유기 양이온의 간담즙 추출: 구조-수송 관계”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일반발표로는 32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 젤라틴 마이크로캡슐 제조, 아시알로페투인-아시클로버 접합체, ACL-리포솜의 제조와 동성평가, 리포솜 봉입 약물의 장관 흡수, 복합비타민 액제 제조, 제조합 사람 표피성장인자의 분해억제, 포접 복합체의 흡수촉진, 오메프라졸 경피흡수, DA5018 외용진통제의 제제설계, 생체접착성 겔의 방출, PVA 겔로부터 피부투과증진, PVA 히드로겔 좌제

의 방출-흡수 관계, 폴리(에틸렌글리콜)수식 칼시토닌의 접합 및 특성, 온도 감응성 나노입자, 고품질 지질 나노입자, 폴리포스파젠 서방 이식제, 치주조직 치료용 고분자 차폐막과 미소 캡슐, 다당류를 이용한 결장 약물송달, 그 외 10편의 체내 동태연구 등이었다.

1997년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대구효가대)에서는 18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는데 그 주제는 DDB 고체분산체와 가용화, 이중제어막을 갖는 서방성제제, 키토산을 이용한 마이크로캡슐, 미세구의 수성 코팅과 멜라토닌 방출, 멜라토닌 매트릭스 정제의 처방화, 인도메타신 말톨에스테르의 생물약제학적 평가, 클렌부테롤 경피흡수 촉진, 아크리플라빈-구아노신 복합제제의 동태, YH 439 분석법 검증 및 약물동태, 코직산 프로드럭의 피부투과, 디클로페낙나트륨의 포접복합제의 위점막 손상 비교, 경구용 세프테졸 프로드럭의 개발, 키토산 마이크로캡슐의 항균효과, 친수고분자를 이용한 세파클러 지속성 매트릭스 제제 설계, 소화효소제의 지방소화력에 미치는 생약의 영향 등이었다.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덕성여대)에서는 국제심포지엄에서 CMC 신청을 위한 ICH 가이드라인(미국 BMS 오춘경 박사)과 항생제의 투약계획을 위한 약력학적 방법(허경상 박사)이 발표되었고 46편의 포스터가 발표되었다.

1998년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대)에서는 일반 구두 발표가 5편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조직 재생용 폴리락트산 막의 활용, YH-1885의 약물 동태(단회, 반복투여시), 패치제의 약물방출 시험법, 방사성표지 나노스피어의 표적지향성 진단제제로의 활용, DK-35C의 약물동태이었다. 포스터는 27편이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뇌수막염 유도시 벤질페니실린의 뇌척수액중 소실 감소, DDB의 장관흡수과정, DK1001 및 1002의 체내 동태, 소수화 폴루란의 자기조립나노입자, 적혈구 고스트 셀을 이용한 HPE-101의 작용기전, DK-35C의 안정성, 조직성장인자 함유 콘드로이틴-키토산 스펀지, 이온화 칼슘-키토산 복합정제, 세프라딘 함유 알기네이트 비드, 새로운 위내 체류형 정제, 간 손상시 쿠르쿠민의 지질과산화 영향, 디히드로에보디아민의 생체시료분석과 혈액 분배 및 단백질결합 변화, 음이온 약물의 간-담즙 수송, 고분자 매트릭스정, 이온토포레시스에 의한 케토프로펜 전달, 니페디핀의 PEO 정제의 방출, K-Betest 프로그램 개발, 에스트라디올 결정 habit의 피부투과 영향, 프로스타글란딘 E1의 경피흡수제, 디클로페낙 외용 마이크로에멀전 설계, SJ 계열 항암제의 가용화 및 유제 설계, Rehmanniae 근을 이용한 항비만약물 개발 등이었다.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경희대 수원캠퍼스)에서는 서울대의 약물동태에 관한 7편의 논문과 성균관대의 폴리(에틸렌글리콜) 수식 칼시토닌의 제조 및 특성분석에 관한 1편의 구두발표가 있었다. 포스터 발표는 34편이 있었다.

1999년 춘계 학술대회(전남대)에서는 분과 심포지엄으로 약물전달시스템의 진보(4명)가 있었으며, 46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그 주요내용은 가용화, 마이크로에멀전, 나노입자, 구강붕해정, 박칼수송, 서방출기술, 구강부착 패치, 경피흡수촉진, 나노스피어, 피부투과, 약전 제제균일성, 불화물의 안정성, 항암제의 주사제설계, 생물학적동등성, 마이크로캡슐, 생분해성 마이크로스피어, 안정성 향상, 담즙산 이온쌍의 담즙배설, 다공성 제어방출막, 국소약물송달, 경피용 감압점착제, 서방출

캡슐, 구강붕해정, 약물동태 등으로 다양한 제제기술과 제제개발 및 그 평가가 주를 이루어 약제학 분야의 국제수준의 발전을 엿볼 수 있다. 1999년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31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2000년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경성대)에서는 약제학 및 약동학 분야에 41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으며, 2000년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김진석, 손동환 교수의 좌장으로 gene 전달시스템과 효과적인 의약품 개발의 심포지엄(4명)이 있었고, 약제학 및 약동학 분야에 46편의 논문이 포스터로 발표되었다.

2001년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조선대)에서는 5편의 구두발표와 35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2001년 춘계 총회 및 창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숙명여대)에서는 생물학적동등성, 생물접합약물, 경피 또는 경안전달시스템, 약물대사 등 체내동태 평가의 고속검색기술 등이 다루어졌고 약제학 및 약동학 분야에 54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2002년에는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오송)에서는 심창구, 정석재 교수의 좌장으로 새로운 후보 약물의 ADME의 고속 검색(6인)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일반발표로는 약동학을 포함하여 약제학 분야 41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2003년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영남대)에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서의 시료 크기에 대한 구두발표 1편이 있었고 약동학 분야 23편을 포함하여 48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주요 내용은 배양 비강 상피 단층막을 통한 약물수송, 아세트아미노펜의 HPMC 매트릭스 정제, 수용체 매개 유전자 전달, 투과촉진제를 이용한 이온삼투 조절, 구강용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비드, 수불용성 약물 함유 콜로이드성 담체의 방출시험 모델, 비경구용 지질나노 분산체, 외용 프로스타틴 E1 에틸 에스테르 겔제, 자기미세유화시스템, 수용성 HPMP 나노입자 코팅 정제의 팽윤 및 방출, 폐길레이션, 재조합 사람 표피성장인자의 경구송달용 다액포 DepoFoam입자, 용매추출법에 의한 미소구체의 제조, 플라스미드 DNA의 리포솜 봉입, 경구 고형제제의 첨가제, TGF- β 1 방출 키토산 미소구체 등이었다. 약동학 분야는 생체이용률, 생물학적동등성, 약물동태연구, 약물동태학적 상호작용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2004년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코엑스컨벤션센터)에서는 의약품개발전략(6명)에 관한 심포지엄과 57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2004년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충남대)에서는 이범진, 오승열 교수의 조직, 박은석, 김대덕 교수의 좌장으로 생체이용률 향상(4명)의 심포지엄과 약동학 관련 논문 23편을 포함하여 53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2004년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덕성여대)에서는 김대덕, 박은석 교수의 조직, 이범진, 최한곤 교수의 좌장으로 암과 유전자 치료를 위한 약제학적 접근법(5명)의 심포지엄과 29편의 약물동태 연구를 포함하여 58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2005년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이범진, 손동환 교수의 조직, 최보경,

사흥기 교수의 좌장으로 의약품의 개발과 평가(4명)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고, 34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2006년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벡스코)에서는 변영로 교수의 조직, 심창구 교수의 좌장으로 약물전달시스템(5명)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고, 약물동태 연구 24편을 포함하여 총 48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이범진 교수의 조직, 한효경, 사흥기 교수의 좌장으로 생체이용률과 약학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고, 약물동태 연구 25편을 포함하여 총 45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는데 약물전달시스템 및 제제학적 연구보다 약물동태 및 혈중약품 분석 등의 논문 수가 많아졌다. 이는 국내 신약연구와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 및 허가에 요구되는 약물동태학적 자료의 요구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7년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부터는 각종 심포지엄 발표전문을 프로시딩에 게재하는 원칙을 가지고 책자의 크기가 심포지엄 발표전문은 A4 크기로 하여 1천 페이지 이상의 분량을 두 권으로 나누어 발간되었다. 약제학 분야에서는 이범진 교수의 조직, 한효경, 사흥기 교수의 좌장으로 슈퍼 제네릭 의약품의 활성화 및 발전방향(5명), 새로운 약물전달기술 및 치료적 응용, ANDA와 SUPAC에 관한 국제규제, 황성주 교수의 조직, 황성주, 여재천 박사의 좌장으로 제약공정 밸리데이션의 실제(6명)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고, 심창구 교수의 조직, 김대덕 교수의 좌장으로 약학용어 정비 및 표준화사업의 의의에 관한 미니 워크숍(3명)이 열렸다. 일반발표로는 약물동태 연구 27편을 포함하여 75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어 그 규모가 크게 증가되었다. 2007년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이범진 교수의 조직, 한효경, 김인규 박사의 좌장으로 ANDA 및 SUPAC에 관한 글로벌 규제(국외 3명, 국내1)에 대하여 심포지엄이 있었고, cGMP 및 공정밸리데이션의 현황(국외 2명, 4연제)에 대한 소개와 토론이 있었다. 일반발표로는 약물동태 분야 34편을 포함하여 87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2008년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학회 사상 처음으로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FIP 회장인 Kamal K. Midha 박사가 기조강연자로 초청되어 의약품 품질평가와 글로벌 규제조화에 대한 강의를 있었으며, 이범진 교수의 조직, 좌장으로 신약개발을 위한 파트너십과 기술 이전 전략(5명)에 관한 심포지엄과 황성주 교수의 조직, 김재환, 황성주 교수의 좌장으로 GMP 업그레이드와 밸리데이션 현황(4명)에 관한 심포지엄이 있었다. 일반발표로는 약물동태 연구 27편을 포함하여 75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어 그 규모가 크게 증가되었다. 2008년 가을총회 및 학술대회(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일본약학회 회장인 Tetsuo Nagano 교수가 한일 MOU에 따라 초청되어 축사와 기조강연과 한일 연합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았다. 약제학분야에서는 박영준 박사의 조직, 한효경, 최성업 박사의 좌장으로 혁신기술을 이용한 제품개발전략(6명)에 관한 심포지엄, 심창구, 신재국 교수의 조직과 좌장으로 약물 발견과 개발에서의 약물대사와 수송체(7명)의 심포지엄이 있었다. 일반발표로는 약물동태 관련 연구 16편을 포함하여 57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2009년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대전컨벤션센터)에서는 이범진 교수의 조직, 전인구, 한효경 교수의 좌장으로 개량신약의 개발과 그 제조방법 전략(국내 3명, 국외 GSK 오춘경 박사 1명)에 관한 심포지엄이 있었으며, 약물동태 관련 연구 30편, 제제설계 등의 연구 58편을 포함하여 총 88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2009년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이용복 교수의 조직, 박영준, 이인숙 박사의 좌장으로 새로운 복합제제 개발(5명)에 관한 심포지엄이 있었으며, 일반 발표로는 약물동태 관련 연구 25편, 제제설계 등의 연구 42편을 포함하여 총 67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2010년도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대구엑스코)에서는 전인구 교수의 조직, 전인구, 한효경 교수의 좌장으로 약물전달의 최적화를 위한 통합적 전략(국내 4명, 국외 FDA Sally Choe 박사 1명)에 관한 심포지엄이 있었으며, 약제학과 물리약학 분야에 총 59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2011년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부산벙스코)에서는 약제학 및 물리약학 분야에 총 59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2011년 약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송도컨벤시아)에서는 전인구, 한효경 교수의 조직, 한효경, 이범진 교수의 좌장으로 후보 약물의 개발 가능성 증진을 위한 통합적 접근법: 효과적인 위해성 평가와 Druggability의 최적화(국내 4명, 국외 Setsunan대 Shinji Yamashita 교수 1인)에 관한 심포지엄이 있었으며, 일반발표로는 약제학 및 물리약학 분야에 총 59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2012년도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제주컨벤션센터)에서는 전인구 분과회장과 중앙대학교 이재휘 교수가 “Latest research trends in novel Dosage form Design and Drug products Development”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구성하였다. 미국 미주리대학교의 이치현 교수가 Novel Dosage Form Design for Drug Eluting Stent 내용으로 특별 강연하였으며, 부산대학교 유진욱 교수, 중앙대학교 오경택 교수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임화경 박사가 연구 주제를 발표하였다.

2013년도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순천대학교)에서는 서울대학교 김대덕 교수와 한양대학교 최한곤 교수의 좌장으로 “Optimization of Drug Delivery through controlling pharmacokinetics”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하였다. 정세호 박사가 Biopharmaceutics Strategy During Discovery and Early Development 내용으로 특별 강연하였으며, 조선대학교 지준필 교수, 영남대학교 김종오 교수, 부산대학교 정연진 교수, 목포대학교 윤인수 교수가 연구 주제를 발표하였다.

2014년도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경주현대호텔)에서는 최영욱 분과회장과 윤유석 분과총무가 “신약개발을 위한 최신 제제기술 동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구성하였다. 제약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과 글로벌 의약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제제기술과 생물약제학적 평가기술에 관한 최신 연구동향에 관한 6명 연자의 발표가 있었으며, 특히 미국 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Tycho Heimbach 박사가 Combining In-Vivo Animal Models with Physiologically Based Pharmacokinetics (PBPK) Modeling to predict human exposure and

bioavailability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2015년도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대구엑스코)에서는 용철순 분과회장과 윤유석 분과총무가 “제제기술 및 약물전달시스템의 최신 동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구성하였다. 국내 제약산업의 특성상 글로벌 수준의 의약품 제조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제제와 약물전달시스템의 개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혁신신약 개발의 핵심인 제제기술/약물전달시스템의 최신 연구동향과 생물약제학적 기법의 미래 전망에 관한 연구발표를 진행하였다. 2015년도 분과 신입교수인 서울대학교 이우인 교수, 우석대학교 김주영 교수, 삼육대학교 박준범 교수가 신약 및 신제제 기술에 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또한 미국 어번대학교 화공학과와 미국 Allan E. David 박사가 “Smart nanomaterials for improved drug targeting”의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2016년도에는 대한약학회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약제학 분과학회의 공식적 심포지엄을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손동환 분과회장과 윤유석 분과총무가 베트남 하노이 대학교 약학대학과 International Special Symposium을 구성하였고, 2016년 1월 26일에 “Current Drug Discovery and Pharmaceutical Technology for New Drug Development” 주제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하였다. 분과회원 20명이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하였으며 부산대학교 유진욱 교수, 동국대학교 정성훈 교수, 경상대학교 신명철 교수, 영남대학교 정지현 교수 및 원광대학교 신소영 교수가 발표 강연하였다. 하노이 약대에서는 Tran Hai Yen, Nguyen Hai Nam, Tran Van On 교수가 발표하였다. 손동환 분과회장과 Nguyen Dang Hoa 학장(rector)은 학술 및 제제기술 교류 활성화의 계기를 다지는 의미 있는 연설을 하였다.

2017년도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더케이서울호텔)에서는 이용복 분과회장과 조혜영 분과학술/총무가 “입자형 제형 개발과 체내 동태 연구의 최근 진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구성하였다. 국내 제약기업들의 신약 개발 시 약제학적인 관점에서의 성공확률을 개선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발표를 진행하였다. 충북대학교 박찬웅 교수, 한양대학교 김진기 교수, 부산대학교 윤인수 교수가 초기제형(preformulation) 개발 전략과 체내 흡수 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강연하였다. 또한 short talk 세션으로 서울대학교 박준환 박사가 난용성 약물의 생체이용률을 개선하는 전략을 소개하였다.

2018년도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조애리 분과회장과 조혜영 분과총무 및 조정원 학술간사가 “신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약물송달과 조직공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구성하였다. 표적 치료제라는 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등장한 이후 암세포 표적 지향성 약물 전달 시스템 개발과 조직공학 치료의 동향에 관한 연구발표를 진행하였다. 중국 Soochow 대학교 Jinghao Cui 교수, 베트남 의학약대학교 Van-Thanh Tran 교수, 차의과학대학교 김애리 교수, 가톨릭대학교 구효정 교수가 암 치료를 위한 DDS 기술과 신약 탐색을 위한 암 조직모델 개발에 대해 강연하였다.

2019년도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는 김대덕 분과회장과 조혜영 분과총무 및 조정원 학술간사가 “첨단 약물전달시스템 및 특수질환 제제 개발”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구성하였다. 노령화, 식습관의 서구화 및 미세먼지 증가 등으로 안구 관련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안구를 타겟으로 하는 신물질의 개발 및 필요한 양의 약물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제형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베트남 Ton Duc Thang 대학교 THAO T.D. TRAN 교수, 서강대학교 김현철 교수, 서울대학교 김정훈 교수, 인제대학교 민경아 교수가 안구를 타겟으로 하는 신물질의 개발 및 안구약물전달시스템의 개발동향에 대해 강연하였다.

2020년도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10월21일(수) 13:10-15:00, 온라인학술대회)에서는 이범진 분과회장, 조정원 분과총무 및 유진욱 학술간사가 “Innovative nanotechnologies for specialized drug delivery systems”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구성하였으며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실시간 생중계가 되는 온라인 심포지엄으로 진행되었다. 신규 의약품 개발에서 나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약물전달시스템 연구는 신약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본 심포지엄에서는 유전자전달기술, 바이오의약품 전달기술 및 항암표적화 전달기술 분야의 혁신나노기술을 소개하고 개발동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국외연자로는 Hideyoshi Harashima (Hokkaido University) 교수가 유전자 전달용 다기능성 envelope형 나노 장치: 개념과 나노약물로의 임상적 응용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였다. 국내연자로는 정지훈(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나노미네랄 기반 바이오의약품 표적화 전달시스템에 대해 강연하였고, 양수근(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항암치료의 또 다른 선택지로 항암 국소 및 병용치료제 설계의 제제학적 접근에 대해서, 신대환(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이포실론비 기반 병용약물 전달을 이용한 항암 치료에 대해서 강연하였다. 실시간 강연에 163명이 참석하였고, 28명이 다시보기로 총 191명이 시청하였다. 한편, 책임감 있는 교재 개정을 위한 교육위원회와 약사국가고시/예비시험문항개발 및 검토위원 추천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국시위원회를 신설하였다.

2021년도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전북대학교)에서는 오의철 분과회장, 신범수 분과총무 및 유진욱 학술간사가 “RNA 기반 치료제 전달시스템의 최신 경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구성하였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RNA기반 백신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감염병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치료제 개발의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고, 특히 RNA 전달시스템이 핵심기술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RNA 기반 치료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체내 전달을 위한 혁신기술을 소개하고 미래 개발 전망에 관한 연구발표를 진행하였다. 영남대학교 김종오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이혁진 교수 및 한국과학기술원 김선화 박사가 microRNA 전달기술, 지질나노입자 및 RNA conjugates 등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연구분야의 최신 기술동향에 대해 강연하였으며, mRNA 전달체의 권위자인 Ohio state University의 Yizhou Dong 교수가 “Development of nanomaterials for mRNA therapeutics, genome editing and cell therapy”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3. 현재 임원 및 회원 현황

3-1. 임원 현황

직위	성함	소속
회장	오의철	가톨릭대
부회장	최한곤	한양대
총무위원장	신범수	성균관대
학술위원장	유진욱	부산대
교육위원장	조혜영	차의과대
국시위원장	이미경	우석대

3-2. 정회원 현황

강민주(동아ST), 강복기(대웅제약), 강선호, 강승래(비씨월드제약), 강승안(고려제약), 강신희(중외제약), 강진양(삼육대), 강찬순(서울식약처), 강해화(성균관대), 강현구(한미약품), 강희은(가톨릭대), 고기성(종근당), 고영탁(가천대), 곽현희(동아제약), 구자성(한올바이오파마), 구효정(가톨릭대), 국윤모(유영제약), 권미화(원자력의학원), 권오승(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민호(삼진제약), 길명철(CTC바이오), 길영식(삼아제약), 길희주, 김경선(한국에자이), 김경수(경남과학기술대), 김기원(신풍제약), 김기택(목포대), 김길수(이화여대), 김대덕(서울대), 김도환(신풍제약), 김동욱(경북대), 김동욱(경북대), 김동욱(청주대), 김동호(한미약품), 김미라(한미약품), 김민정(부산대병원), 김병수(중외제약), 김병하(한독약품), 김병혁(동국제약), 김보연(식약처), 김세미(종근당), 김세연, 김세현(신풍제약), 김영일(삼양애니팜), 김영중(건일제약), 김우경(신풍제약), 김원(환인제약), 김은정(한독약품), 김인규(식약처), 김재선(유유제약), 김정석(한국유니온생명과학), 김정일(삼진제약), 김정훈(동국제약), 김정훈(한독약품), 김종호(경희대), 김지연(대웅제약), 김진기(한양대), 김진석(숙명여대), 김태한(한독약품), 김태환(대구가톨릭대), 김현욱(한미약품), 김흥기(SK케미칼), 김희성(광동제약), 남규열(한국유나이티드제약), 노형곤(신풍제약), 단현광(동구제약), 맹한주(가천대), 문병관(셀트리온화학연구소), 민경아(인제대), 박경승(우성제약), 박나영(서울대), 박덕상(디에스피글로벌), 박명훈(알피코프), 박미진(한독약품), 박상엽(삼양바이오팜), 박세완(한림제약), 박영민(강원대), 박영우(한미약품), 박윤신(이화여대), 박은전(원광대), 박재형(성균관대), 박정기, 박정숙(충북대), 박정숙(남부대), 박준범(삼육대), 박태현(종근당), 배준호(아모레퍼시픽), 백남현(동화약품), 백명기(SK바이오팜), 백완숙(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백종섭(강원대), 변영로(서울대), 사준호(SK케미칼), 사홍기(이화여대), 서문인(동화약품), 서혜란(비씨월드제약), 선상욱(한올바이오파마), 성대경(선비에스), 손영택(덕성여대), 손재운(녹십자), 손준형(한미약품), 송석진(종근당), 송세현(경성대), 송임숙(경북대), 신대환(충북대), 신동철(Sk chemical), 신상철(전남대), 신소영(원광대), 신송석(아모레퍼시픽), 신영희(경성대), 신재희, 신현종(청계제약), 신호철(건국대), 심상영(한국안센), 안병락(환인제약), 안성훈(강원대), 안영길(한미약품), 양재현(우석대), 양호현(랩프런티어), 엄

기안(SK 케미칼), 예인해(제일약품), 오근상(티젤바이오), 오동훈(휴젤), 오승열(숙명여대), 오유나, 오준교(휴온스), 우문제(광동제약), 우종수(한미약품), 유동성(동아제약), 유동호(중외제약), 유수영(안국약품), 유은주(유영제약), 유제만(신풍제약), 유진욱(부산대), 육심명(계명대), 윤유석(성균관대), 윤인수(부산대), 윤재남(식약처), 윤주용(안국약품), 윤현지(한국다이어찌산쿄), 이강추(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정륜(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경호(칼라콘코리아), 이계원(건양대), 이기진(일양약품), 이마세(동화약품), 이미경(우석대), 이미선(한독약품), 이민지(보람제약), 이봉상(씨티씨바이오), 이상길(계명대), 이상주(한올바이오파마), 이성훈(지엘팜텍), 이수현(공주대), 이승우(양지화학), 이신희(네오팜), 이영주(경희대), 이용복(전남대), 이용현(이화여대), 이우인(서울대), 이유진(한독약품), 이윤경(한국엠에스디), 이윤석(경상대), 이은희(고려대), 이장원(제이알피), 이재영(충남대), 이재휘(중앙대), 이진평(동아에스티), 이정화(안국약품), 이종화(안전성평가연구소), 이준영(한올제약), 이준용(동화약품), 이풍석(건일제), 이한구(대화제약), 이한승(삼육대), 이현기, 이현승(한미약품), 이해정(케일럽 멀티랩), 이화정(이화여대), 임경묵(조아제약주식회사), 임지성(다산메디컬), 임춘수, 임태종(동아제약), 임호택(한미약품), 장선영(한미약품), 장지은(동덕여대), 전인구(동덕여대), 전정륜(식약처), 전창주(전남대), 전형준(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전효빈(종근당), 정구영(동국제약), 정기향(충남대), 정남주(파마킹), 정병화(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서영(경희대), 정석재(서울대), 정성훈(동국대), 정승호(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정영일(양산부산대병원), 정지현(영남대), 정지훈(성균관대), 조선행(한국화학연구원), 조성완(건양대), 조성완(건양대), 조애리(덕성여대), 조용성(고려제약), 조정래(우성제약), 조정원(충남대), 조혜영(차의과대), 지상철(성균관대), 지준필(조선대), 차재욱(삼성정밀화학), 채아름, 채윤지(종근당), 천경화(녹십자), 최광진(순천향대), 최민구(단국대), 최민석(JW중외제약), 최민호(광동제약), 최병선(한림제약), 최성업(동남보건대), 최송암(두웰바이오), 최연웅(한국유나이티드제약), 최영석(유엠씨사이언스), 최용두(국립암센터), 최재영(중외제약), 최준식(조선대), 최지현(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하경옥(홍덕온누리약국), 한경희(종근당), 한순영(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승진(한독), 한용해(에이치엘비생명과학), 한효경(동국대), 현경희, 홍언표(한독), 홍재선(한국유니온제약), 황수중(삼양사), 황용연(보령제약), 황지숙(충남대)

4. 주요 학술 및 교육활동사항

» 연구 및 학술활동

• 2014년 해외 워크숍

2014년 6월 20-24일 중국 장가계에서 약제학분과회(최영욱 회장) 하계 워크숍을 개최하여 13명의 회원이 참석해 분과회 학회개최 준비, 약제학 총서 수정 및 약사국시 문항검토 등의 활동을 가졌다.



〈하계 워크숍(중국 장가계)〉 2014 / 회장 최영욱

• 2015년 해외 워크숍

2015년 8월 5-8일 중국 연변/백두산에서 약제학분과회(용철순 회장) 하계 워크숍을 개최하여 18명의 회원이 참석해 연변대학교 주최 장백산 포럼 “Recent pharmaceutical technology in formulation and drug delivery” 주제의 세미나 및 포스터 발표 등의 활동을 가졌다. 손동환 교수의 사회로 윤유석, 김대덕, 나동희 및 유진욱 교수가, 그리고 용철순 교수의 사회로, 황성주, 이상길, 신소영 교수가 구두발표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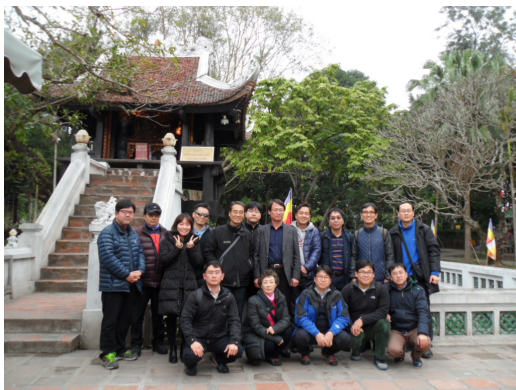


〈하계 워크숍 (중국 연변/백두산)〉 2015 / 회장 용철순

• 2016년 해외 워크숍

2016년 1월 25-28일 베트남 하노니/하롱베이에서 약제학분과회(용철순 회장) 동계 워크숍을 개최하여 20명의 회원이 참석해 약제학분과회-하노이대학교 공동주최 심포지엄 “Current Drug

Discovery and Pharmaceutical Technology for New Drug Development“ 주제의 세미나 및 포스터 발표 등의 활동을 가졌다. 용철순 교수의 사회로 유진욱, 정성훈, 신명철, 정지현, 신소영 교수가 구두발표를 하였다.



〈하계 워크숍 (베트남 하노이/하롱베이)〉 2016 / 회장 용철순

• 2017년 해외 워크숍

2017년 2월 5-9일 미얀마 양곤에서 약제학분과회(손동환 회장) 동계 워크숍을 개최하여 20명의 회원이 참석해 약제학분과회-양곤약학대학교 공동주최 심포지엄 “Pharmaceutical Formulation and Technology for New Drug Development“ 주제의 세미나 발표 등의 활동을 가졌다. 용철순 교수의 사회로 이범진, 오의철 및 신소영 교수가 구두발표를 하였다.



〈하계 워크숍 (미얀마 양곤)〉 2016 / 회장 손동환

• 2020년 국내 워크숍

2020년 10월 30-31일 부산 해운대 하얏트호텔에서 약제학분과회(이범진 회장) 동계 워크숍을 개최하여 32명의 회원이 참석해 통합6년제 대비 표준교육과정 및 교재 개정, 약사예비시험 및 약사국시 문항기준의 개정, 대한약학회 국제학술대회 분과회 심포지엄 구성 등을 논의하였다.



〈동계 워크숍 (부산 해운대)〉 2020 / 회장 이범진

5. 주요 인사 동정

약학회 회장직을 수행한 약제학분과회 교수로는 김길수 교수(2003-2004년)와 김종국 교수(2005-2006년), 전인구 교수(2007-2008년), 이용복 교수(2019-2020년)가 있으며, 간사장으로는 전인구 교수(2001-2002년), 사무총장으로 이범진 교수(2011-2012년), 편집위원장으로 심창구 교수(2001-2002년)와 이용복 교수(2007-2008년)가, 부편집장으로 박은석 교수(2007-2008년), 출판위원장으로 전인구 교수(1997-1998년)가 PharmWorld를 처음 소식지로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약제학분과 편집위원으로 민신흥 박사(1981-1982년), 김길수 교수(1983-1990년), 심창구 교수(1991-1994년), 전인구 교수(1995-1996년), 최영욱 교수(1997-2000년), 손영택 교수(2001-2006년), 김대덕 교수(2007-2008년), 용철순 교수(2009-2010년), 이범진 교수(2011-2012년)가 학회 발전과 회지 발간에 노력하여 왔으며 한효경 교수(2007-2011년)가 분과 학술행사 간사로서 주제 개발에 견인차 역할을 하여 왔다.

6. 관련학회 정보

• 한국약제학회

www.kspst.or.kr; kspst@kspst.or.kr; 02-564-4019, 권오승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

7. 맺음말

1957년 창립 이래 75년에 걸친 약제학분과학회의 역사와 발전상을 살펴보았다. 초기 1969년까지는 1년에 4-5편의 학술발표가 있었으나, 1970년부터 1981년까지는 10편 내외로 신장되었다. 1982년부터 1990년까지는 연간 20여 편 내외로 증가되고 91년도부터 94년까지 발표 수가 40-60여 편으로 대폭 성장하였다. 1995년 이후 1999년까지 70-80편으로, 2000년 이후 2020년까지 100편 내외로 꾸준히 발표 수가 증가되었다. 그 내용면에서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과 관련된 연구에서 제제설계, 약물전달시스템, 생물약제학과 약물동태 연구, 체내약물이행 기전 연구 등으로 그 연구내용이 국제적인 추세와 국내 제도적인 요구 및 연구재정의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아 꾸준히 변화하면서 발전하였다. 이들 연구는 궁극적으로 보다 유효하고 안전하며 품질이 우수하고 적용하기 편리한 제제의 확보와 안전한 사용에 기여하는 것이다. 과거 75년의 성과 이면에는 약제학을 이끌어온 초기 약제학 분야의 이미 고인이 된 많은 교수 그리고 공직 및 산업체 연구자들의 창조적인 노력과 우수한 후학들을 길러낸 선배 제현들의 노력의 산물이다. 또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약제학 연구에 헌신한 많은 분들의 열정과 창조적인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이상의 업적을 정리해 보면서 또 앞으로 펼쳐질 75년의 창조적인 발전을 내다보며 약제학분과학회의 영광을 기원한다.

2021 약제학 분과학회 회장 오의철

15

약품분석학 분과학회



1. 학회 개요

약품분석학은 신약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임상단계까지, 그리고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제제의 개발, 의약품의 품질관리에서 필수적인 측정과학의 한 분야이다. 의약품 순도검정, 혼합제제 분석, 의약품의 안정도 시험, 의약품의 체내 대사 및 혈중 농도 측정 등 측정이론에 광범위한 지식으로 첨단기술 개발과 실용화가 항상 필요한 분야이다. 최근에는 바이오의약품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단백질체학, 지질체학, 대사체학 등의 오믹스 분야에서 분석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나노기술 발전으로 임상시료 분석 및 바이오칩 개발 분야에서도 그 기술의 접목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분석과학은 약학 뿐만 아니라, 환경, 식품, 재료, 독성학, 천연물, 임상 및 진단학 등 생명과학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학회 차원에서 약품분석학 분과학회는 산업체의 분석 및 품질관리 전문가들을 모두 회원으로 확충하였으며, 2008년 학술대회에서 “Pharmaceutical Quality Assurance and Validation”의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6년제 약학교육의 하나로 품질관리학 교육과 교재작성에도 분과학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발전에 부응하여 Proteomics 및 대사체분석 (2011년 추계), 최신 질량분석 기법의 발전과 응용 (2012년 춘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약품분석학 최신 경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고취시킨 바 있다.

본 분과학회 정회원은 약학대학 약품분석학 및 관련 교과목 담당교수 외에, 제약회사나 국공립 연구소, 정부기관의 관련 전공자 등이 참여하여 신약개발과 의약품 품질과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약학회 학술대회에서 타 분과학회와 공동심포지엄 개최를 비롯하여 한국분석과학회, 한국질량분석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의 적극적인 학술 활동 등으로 분과의 벽을 넘어 신약개발과 의약학 연구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3년 본 분과학회에서는 약품분석학 분야의 기술적인 다양성 및 발전에 지속적으로 부응하고, 우리 분과학회의 미래인 약품분석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이 작업에 동참하며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주제를 정하여 동계심포지엄을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대강당에서 “Recent applications of mass spectrometry in pharmaceutical research”란 주제로 제1회 동계심포지엄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그 이후 9년 동안 매회 약 150여명의 과학자와 대학원 학생이 등록하는 학술 심포지엄을 진행하여 활성화하고 있다.

2. 학회 역사

2-1. 연도별 임원 현황표

연도	회장	소속	주요임원
1970	김근영	성균관대	
1971-1972	백남호	서울대	
1973-1974	이왕규	서울대	
1975-1976	고인석	서울대	
1977-1978	이명연	성균관대	
1979	심상혁	부산대	
1980	김규진	동덕여대	
1981-1982	손동헌	중앙대	
1983-1985	노일협	숙명여대	
1986-1988	옥치환	원광대	
1989-1990	박만기	서울대	
1991-1992	도재철	영남대	
1994-1995	김박광	서울대	
1996	유경수	전남대	
1997-1998	염정록	중앙대	
1999-2001	문동철	충북대	
2002-2003	유충규	이화여대	
2004	최중갑	전남대	
2005	손종근	영남대	
2006	박정일	서울대	
2007	김경호	강원대	
2008	이공주	이화여대	총무: 권영주
2009	우미희	대구가톨릭대	총무: 나동희
2010	박경래	충남대	총무: 박일호
2011	강종성 류재하	충남대 숙명여대	총무: 박일호
2012	김효진	동덕여대	총무: 박유미
2013	이용문	충북대	총무: 류광현
2014	이원재	조선대	총무: 권성원
2015	홍종기	경희대	총무: 권영주
2016	윤혜란	덕성여대	수석부회장: 이혜숙, 총무: 백승훈, 감사: 홍종기, 재무: 박일호, 학술: 이수연, 류광현, 국시: 표재성, 김경호, 교재: 신소영, 강종성, 성종혁, 박경래, 핵심: 정혜진, 권성원, 산학협력: 이용문

연도	회장	소속	주요임원
2017	이혜숙	가톨릭대	수석부회장: 문전옥, 총무: 이정미, 감사: 윤혜란, 재무: 신소영, 학술: 최용석, 표재성, 국시: 박일호, 핵심: 유혜현, 산학협력: 이용문, 혁신비대위: 한상범
2018	문전옥	부산대	수석부회장: 권영주, 총무: 유혜현, 감사: 이혜숙, 재무: 표재성, 학술: 백만정, 오현철, 국시: 박일호, 핵심: 김지훈, 산학협력: 이용문, 혁신비대위: 한상범
2019	권영주	이화여대	수석부회장: 박유미, 총무: 최용석, 감사: 문전옥, 재무: 표재성, 학술: 이정미, 홍보: 신소영, 교재: 김경호, 국시: 박일호, 핵심: 강종성, 김주현, 산학협력: 류광현, 학제개편: 이용문, 혁신: 한상범
2020	박유미	인제대	수석부회장: 한상범, 감사: 문전옥, 권영주, 총무: 표재성, 학술: 백만정, 재무: 김지훈, 홍보: 이수연, 교재: 강종성, 김주현, 국시: 박일호, 핵심편집: 강종성, 김주현, 산학협력: 이용문, 혁신: 한상범
2021	한상범	중앙대	수석부회장: 류광현, 감사: 권영주, 박유미, 총무: 이수연, 재무: 김지훈, 학술: 김주현, 국시: 박일호, 홍보: 조황의, 학제개편: 권영주, 산학협력: 유혜현, 이정미, 최용석

2-2. 창립 역사 및 임원 활동

약학회가 창립된 1951년 이후 3년만인 1954년에 약품분석분과학회가 설치되었고, 1970년 6월 30일에 약품분석학 분과학회를 발족하였다. 약품분석분과학회 활동은 1971년 9월에 새롭게 정관을 개정하여 7개 분과학회(약제학, 약품분석, 약화학, 천연물, 약물학, 위생화학, 생화학)로 되면서 시작되었다.

약품분석학 분과학회가 창립 (1970년)된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과학 수준은 원료 및 제품의 성분 분석을 통해 모방제품을 겨우 만드는 수준이었다. 당시는 제약을 위시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화학분석을 위주로 한 분석기술 비중이 매우 컸고, 따라서 대학에서의 분석과목은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취급되었다. 교과내용이 방대하고 국가고시 과목도 세분되어, 교과내용 협의를 위해서 세부적으로 정성 및 정량분석 분과로 2분화되어 운용되었다.

초창기에는 이미 고인이 되신 백남호, 이왕규, 고인석, 심상철, 한보식 교수님 등이 분과학회를 이끌어 왔고, 70년대 중반 이후 대학마다 기기분석 교과목이 개설되어 약학교육 내용을 확충하였다. 약학교육 6년제 안이 무르익을 무렵 2000년 총회에서 약사국가시험에 기기분석 문항을 일정비율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으며, 2003년 약품분석 표준교과과정 안이 작성되고, 2004년 약학대학 약품분석학 교재를 통합 개편(정성, 정량, 기기)하기로 하였다. 정성, 정량, 기기분석 각 교재의 개편이 별도로 이뤄져 사용되었지만, 2010년부터 6년제 약학교육을 위해 약품분석학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교재가 만들어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회장은 1-3년씩 맡아왔다. 1970년 김근영 교수, 1971-1972년 백남호 교수, 1973-1974년 이왕규 교수, 1975-1976년 고인석 교수, 1977-1978년 이명연 교수, 1979년 심상혁 교수, 1980년 김규진 교수, 1981-1982년 손동헌 교수, 1983-1985년 노일협 교수, 1986-1988년 옥치완 교수, 1989-1990년 박만기 교수, 1991-1992년 도재철 교수, 1994-95년 김박광 교수, 1996년 유경수 교수, 1997-1998년 염정록 교수, 1999-2001년 문동철 교수, 2002-03년 유충규 교수, 2004년 최중갑 교수, 2005년 손종근 교수, 2006년 박정일 교수, 2007년 김정호 교수가 회장을 역임하였다.

2008년부터 총무를 맡은 분의 기록이 존재하며, 2008년 이공주 교수 (총무 권영주), 2009년 우미희 교수 (총무 나동희), 2010년 박경래 교수 (총무 박일호), 2011년 강종성 교수 (전반), 류재하 교수 (후반) (총무 박일호), 2012년 김효진 교수 (총무 박유미), 2013년 이용문 교수 (총무 류광현), 2014년 이원재 교수 (총무 권성원), 2015년 홍종기 교수 (총무 권영주)가 회장을 역임하였다.

2016년 이후부터는 주요임원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여, 자세한 임원 현황은 연도별 임원 현황표에 기술하였다.

더불어, 2020년 전북대학교와 제주대학교에 약학대학이 신설되었고, 조황의 (전북대)와 김도희 (제주대) 교수가 본 분과학회에 입회하였다. 2020년 이원웅 교수 (우석대)와 이규리 교수 (경상대), 2021년에 김형민 교수 (충남대), 강윤표 교수 (서울대), 이동규 교수 (중앙대)가 신규 임용되어 본 분과학회에 합류하였다.

3. 현재 임원 및 회원 현황

3-1. 임원 현황

직위	성함	소속
회장	한상범	중앙대
수석부회장	류광현	경북대
감사	권영주	이화여대
	박유미	인제대
총무	이수연	계명대
재무	김지훈	충북대
학술	김주현	영남대
국시	박일호	삼육대
홍보	조황의	전북대

직위	성함	소속
학제개편	권영주	이화여대
산학협력	유혜현	한양대
	이정미	성균관대
	최용석	단국대

3-2. 정회원 현황

강윤표(서울대), 강종성(충남대), 권성원(서울대), 권영주(이화여대), 김경호(강원대), 김도희(제주대), 김영우(동국대), 김주현(영남대), 김지훈(충북대), 김형민(충남대), 김효진(동덕여대), 류광현(경북대), 류재하(숙명여대), 문규호(전남대), 문전옥(부산대), 박유미(인제대), 박일호(삼육대), 백동재(목포대), 백만정(순천대), 백승훈(아주대), 송은주(이화여대), 송준명(서울대), 신명철(경상대), 신소영(원광대), 안희철(동국대), 오현철(원광대), 우미희(대구가톨릭대), 유혜현(한양대), 윤혜란(덕성여대), 이규리(경상대), 이기호(고려대), 이동규(중앙대), 이수연(계명대), 이용문(충북대), 이원웅(우석대), 이원재(조선대), 이정미(성균관대), 이혜숙(가톨릭대), 이후근(가천대), 정병선(영남대), 조정환(숙명여대), 조황의(전북대), 최용석(단국대), 표재성(경성대), 한상범(중앙대), 홍선표(경희대), 홍종기(경희대)

4. 주요 학술 및 교육활동사항

» 교육 활동

- 2016년 6월-2016년 8월, ‘핵심의약품분석학’ 교재 개정 및 발간하였다. (© 권성원, 류광현, 박일호, 백승훈, 유혜현, 한상범, 정혜진, 표재성, 최용석 교수)
- 2016년 9월-2017년 3월, 약품분석학 교재를 개정하여 ‘의약품분석학 (개정 2판)’, ‘의약품기기 분석학 (초판)’으로 분권하였다. (© 편집위원장: 강종성, 박경래, © 편집위원: 류광현, 문전옥, 박일호, 백만정, 백승훈, 신소영, 오현철, 윤혜란, 이수연, 이용문, 이원재, 이정미, 표재성)
- 2020년 10월 ‘핵심 의약품분석학’을 개정 (5판)하였다.
- 2021년 2월 ‘의약품분석학’을 개정 (3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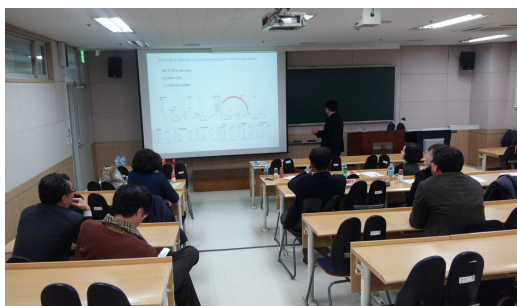
» 연구 및 학술행동

- 2012년 9월 21일 이화여대 약학관에서 제 1회 월례회가 개최되었고, 약품분석 교육 내용 통일 및 신교과 과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연구과제에 대한 정보 교류, 동향 파악 및 전략적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이용문 교수님이 일본의 약품분석분과 연구분야에 대한 동향을 설명하였다.



〈약품분석학분과학회 제1회 월례모임 (이화여자대학교)〉 2012 / 회장 김효진

- 2012년 11월 30일 경희대학교 약학관에서 제 2회 월례회가 개최되었고, 홍종기 교수님의 연구 발표와 2013년도 제1회 약품분석학분과회 동계학술심포지엄 계획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약품분석학분과학회 제2회 월례모임 (경희대학교)〉 2012 / 회장 김효진

- 2013년 6월 25일-26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롯데부여리조트에서 분과회 하계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분과회 소속 29명의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염정록 교수(중앙대)의 “약품분석분과회 발자취” 기념 강연을 청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약품분석학 6년제 약학교육모델 코아커리큘럼에 대하여 심도깊은 논의를 하였다.



〈약품분석학분과학회 하계워크샵 (롯데부여리조트)〉 2013 / 회장 이용문

- 2013년 9월 25일-28일 3박 4일의 일정으로 일본 고베에서 개최된 일본질량분석학회를 참석하여 일본 연구자와 교류하고 약품분석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분석기기 제조회사인 시마즈제작소 공장 및 박물관 견학을 통하여 분과 회원들 간 활발한 교류를 나눌 수 있었다.



〈일본 질량분석학회 참석 및 시마즈제작소 방문〉 2013 / 회장 이용문

- 2014년 1월 23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제2회 대한약학회 약품분석학분과회 동계심포지엄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송준명 교수(서울대), 홍종기 교수(경희대), 한상범 교수(중앙대), 표재성 교수(경성대), 강중성 교수(충남대)의 강연과 대학원생 10명의 구두발표 및 36편의 포스터 발표를 통하여 회원 간 활발한 학문 교류 시간을 가졌다.



〈약품분석학분과학회 동계심포지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2014 / 회장 이용문

- 2016년 2월 14일-16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분과회 동계워크숍을 일본에서 개최하였다.



〈약품분석학분과학회 워크숍 (일본)〉 2016 / 회장 윤혜란

- 2016년 5월 13일 서울역 근처에서 약품분석분과 집행부 kick-off 미팅을 가졌다. 강종성, 권성원, 류광현, 백승훈, 윤혜란, 정혜진, 표재성, 홍종기 교수(8명)가 참석하였고, 집행진 인사, 주요 업무 소개, 일정 논의가 이루어졌다.
- 2016년 6월 24일-25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대부도에서 분과회 하계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분과회 소속 23명의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교재 개편을 위한 집필진 구성 및 개편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2016년 6월-8월 ‘핵심의약품분석학’ 교재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권성원, 류광현, 박일호, 백승훈, 유혜현, 한상범, 정혜진, 표재성, 최용석 교수 (9인)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2016년 8월 ‘약학회 70년사 분석분과 소개글’을 문동철(충북대) 교수가 집필하였다.
- 2016년 9월-2017년 3월 약품분석학 교재가 개정을 통해 의약품분석학(개정2판), 의약품기기 분석학(초판)으로 분권되었다. 강종성, 박경래, 류광현, 문전옥, 박일호, 백만정, 백승훈, 신소영, 오현철, 윤혜란, 이수연, 이용문, 이원재, 이정미, 표재성 교수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약품분석학분과학회 하계워크샵 (인천 대부도)〉 2016 / 회장 윤혜란

- 2017년 1월 13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대신약개발센터에서 “Pharmaceutical Analysis: Now and Tomorrow”을 주제로 제5회 대한약학회 약품분석 분과회 동계심포지엄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교수, 외부연자, 학생, 후원업체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박사급 신진 연구자와 대학원생의 구두·포스터 82편의 발표와 시상이 있었으며, PI급 6인의 강연을 통하여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 2017년 4월 20일 2017년 대한약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심포지엄, 분과총회)에서 ‘첨단 분석기법의 법과학적 응용’이라는 주제로 이수연, 류광현 교수가 발표하였다.
- 2017년 6월 28일-29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KIST 강릉 연수원에서 하계워크샵을 개최하였다. 분과회 소속 17명의 교수가 참석하여 신입교수 강연(김지훈 충북대), 정책과제 기획(가톨릭대 이해숙 교수), 분과회 활성화방안(중앙대 한상범 교수) 토의 및 교재개편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였다.



〈약품분석학분과학회 하계워크샵 (KIST 강릉연수원)〉 2017 / 회장 이혜숙

- 2017년 8월 17일 충남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분과회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약품분석학분과학회 워크샵〉(충남대학교) 2017 / 회장 이혜숙

- 2017년 11월 8일 제주 ICC에서 제2회 SMART Forum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약품분석학분과학회가 한국분석과학회, 대한화학회 분석분과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4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High Performance Liquid Phase Separations and Related Techniques (2017 HPLC Jeju, 11월 5일-9일) 국제학술대회의 일정 중에 총 10명의 분과회 교수가 참여하여 별도로 진행한 포럼으로, 동계심포지엄 준비를 비롯한 각종 분과회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다.



〈제2회 SMART Forum (제주 ICC) 참석 중
2016년 노벨화학상 수상자 Fraser Stoddart 박사와 기념사진〉 2017 / 회장 이혜숙



〈제59회 한국분석과학회 추계학술대회(제주도)〉 2017 / 회장 이혜숙

- 2018년 01월 31일 충북 오송의 충청C&V센터에서 제6회 분과학회 동계심포지움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총 26개 대학 약품분석학 전공 실험실 교수와 대학원생, 5개 연구장비업체, 식약처,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제약업체 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총 178명이 참가하며 성황리

에 치뤄졌다. 이날 오전에는 신진연구인력 및 대학원생 구두발표 세션을 통해 100여 명의 대학원생들이 전국 약대 내 약품분석학 전공 실험실에서 수행되고 있는 최신 연구결과를 공유하였다. 이어서 오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시마즈 Ichiro Hirano 박사, 써모피셔코리아의 이정우 박사가 최신 분석기술을 소개하고, 종근당 우영아 박사, 식약처 최미섭 연구관이 QbD 관련 정책과 실례를 소개하면서 산·관에서의 약품분석학의 위치와 역할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일본 동경대 Tsunoda Makoto 교수, 경북대 김성환 교수, 서울대 정두수 교수, 순천대 백만정 교수가 다양한 기법의 분석기술을 이용한 최신의 기초 및 응용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앞으로 약품분석학 연구분야에서 학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교류가 이뤄졌다.



〈약품분석학분과학회 동계심포지엄 및 정기총회 (충청C&V센터)〉 2018 / 회장 이혜숙

- 2018년 5월 17일-18일 경주에서 개최된 한국분석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회원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으며, 박만기(서울대) 교수가 한국분석과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약학분야 창립 회원 및 전임회장으로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창립 30주년 제60회 한국분석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박만기 교수 특별공로상 수상〉 2018 / 회장 문전옥

- 2018년 7월 10일~11일 분과회 하계 워크샵이 해운대 씨클라우드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약품분석학분과학회 하계워크샵 (부산 해운대)〉 2018 / 회장 문전옥

- 2019년 1월 29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약품분석학분과학회 제7회 동계심포지엄 및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저녁 시간에는 단국대학교 최용석 교수의 사회로 약품분석학 전공의 모든 대학원생이 참여하여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약품분석학분과학회 동계심포지엄 (경북대학교)〉 2019 / 회장 권영주

- 2019년 대한약학회 약품분석학분과학회 하계워크샵을 2019년 8월 20일(화) 12시~21일(수) 15시, 세인트존스 호텔(강릉)에서 개최하였음. 이정미 교수와 이용문 교수가 발표하였으며, 교재개편, 분과활성화, 예비약사시험, 국시 출제,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의 분과 심포지엄 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약품분석학분과학회 하계워크샵 (강릉 세인트존스호텔)〉 2019 / 회장 권영주

- 2019년 10월 14-15일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약품분석학분과학회에서는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실태와 최신 항생제 내성관련 분석기법’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신종감염병과 비슷한 정도의 파급력을 지닌 항생제 내성균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인체 및 가축 모두 내성률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임상 및 비임상 분야 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는 항생제 내성균을 관리하기 위해 2016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을 아우르는 범부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이 수립된 이후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본 심포지엄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이광준 연구관의 국내 항생제 내성 실태와 항생제 내성 감소를 위한 정책적 전략 소개 및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의 근본이 되는 항생제 내성(균) 감시를 위해 개발 중인 신속하고 혁신적인 첨단분석법들이 소개되었다. KAIST/토모큐브의 박용근 교수가 이미징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세포분석기술에 대해, 아스타/노스웨스트의 박형순 박사가 질량분석법과 머신러닝을 접목한 항생제 내성균 선별기술에 대해, KBSI 장경순 교수가 질량분석법을 기반으로 한 항생제 내성균 연구결과를 소개하였다. 본 심포지엄을 통해 각종 분석기술 관련 연구자들에게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 제시와 함께 인공지능과 분석기술의 접목과 같은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2019년 11월 25일 숙명여대에서 교재집필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약품분석학분과학회 교재집필회의 (숙명여대)〉 2019 / 회장 권영주

- 2020년 8월 24일, 약품분석학분과학회 하계워크숍이 첫 온라인 공식 행사로 개최되었다. 분과학회 소속의 30명 교수가 참석하였고, 신입교원 발표 (송은주 이화여대, 문규호 전남대), 분과학회 안전보고 및 약사고시 문항 개발 등에 대해 토의하였다.
- 2021년 2월 18일, 제8회 약품분석학분과 동계심포지엄 및 정기총회가 “의약품분석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 (Recent Advances in Pharmaceutical Analysis)”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개최되었다. 동계심포지엄은 신입 연구자 발표, 심포지엄 발표 및 퇴임 교수님 특강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정기총회에서는 분과학회 교수 27명이 참석하여 직전년도 경과보고 및 교재개정 등에 대해 회의를 하였다.



〈제8회 약품분석학분과학회 동계심포지엄 및 정기총회 (온라인)〉 2021 / 회장 한상범

- 2021년 8월 17일 온라인 Zoom으로 진행한 2021 하계 온라인 워크숍은 신입교수(전남대 문규호 교수, 충남대 김형민 교수)의 강연과 이화여대 이공주 교수의 특별강연을 비롯하여 통합 6년제 교육과정을 대비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약품분석학분과학회 하계워크숍 (온라인)〉 2021 / 회장 한상범

6. 관련학회 정보

• 한국분석과학회

www.koanal.or.kr, koanal88@naver.com, 02-701-8661, 회장 정두수 교수(서울대 화학부)

• 한국질량분석학회

www.ksms.org, ksms@ksms.org, 070-8688-1696, 회장 김영환 박사(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7. 맺음말

약품분석학분과학회가 창립된 시대의 과학 수준에서는 의약품원료 및 제품의 성분 분석을 통해 제네릭의약품을 겨우 생산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 시대의 제약산업에서는 의약품의 기초적인 물리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함량을 확인하며 순도를 검증하는 분석기술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에 약학대학의 교육에서 약품분석학은 가장 중요한 과목 중 하나로 취급되었으며, 교과내용이 방대하여 국가고시 과목이 정량, 정성 등으로 세분되어 있을 정도였다.

이후 의약품산업의 기술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최근에는 신약개발에서 바이오의약품과 나노기술의 개발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전체학, 단백질체학, 지질체학, 대사

체학 등의 오믹스 분야 및 바이오칩 개발 분야에서 여전히 의약품 분석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시대에도 분석과학은 환경, 식품, 재료, 독성학, 천연물, 임상 및 진단학 등 생명과학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60여년간 우리 약품분석학분과학회의 연구와 교육에 대한 기록은 이러한 의약품 개발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선배 과학자 및 교육자의 헌신과 노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우리 분과학회 소속 회원들은 한국의 약품분석학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통합6년제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교재 개편, 교육 시스템 개발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동계학술심포지엄과 하계 워크숍을 통하여 미래 후속세대인 대학원 학생들에게 약품분석학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학술교류 및 연구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대한약학회 7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대한약학회 분과학회 기록작업을 통해 그간의 약품분석학분과학회의 발전과 선배들의 헌신을 확인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며 약품분석학분과학회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최근 유능한 신입교수들의 분과학회 합류를 계기로, 우리 분과학회가 더욱 크게 발전하고 확장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마지막으로 자료수집과 정리에 수고하신 분과학회 홍보담당 조항의 교수와 총무 이수연 교수, 그리고 자료를 보내주신 역대 총무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 약품분석학 분과학회 회장 한상범

16

약품생화학 · 분자생물학 분과학회



1. 학회 개요

약품생화학·분자생물학분과학회는 1972년 창립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생명의 본질에 대한 분자 수준의 지식은 놀랄만한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의생명과학에서 약품생화학과 분자생물학 분야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서 본 분과학회는 약학대학 학생들에게 생명현상의 약품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적 기전과 이들 기전에 근거한 약물들의 분자기전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교육하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학술심포지엄의 개최를 통해 분과회원들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약학 관련 약품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분야의 최신 연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자들 간의 활발한 교류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 본 분과학회는 약품생화학과 분자생물학적 개념을 이용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건강증진에 궁극적으로 이바지하고자 한다.

2. 학회 역사

2-1. 연도별 임원 현황표

연도	회장	소속
1983-1988	권창호	경희대
1989-1990	민경락	충북대
1990-1994	권창호	경희대
1995-1996	한용남	서울대
1997-1998	이향우	성균관대
1999-2002	이승기	서울대
2002-2003	명평근	충남대
2003-2004	장현욱	영남대
2004-2005	정용자	경성대
2005-2006	김미영	중앙대
2006-2007	김현표	강원대
2008	김영수	충북대
2009	정해영	부산대
2010	김규원	서울대
2011	한정환	성균관대

연도	회장	소속
2012	서영준	서울대
2013	천영진	중앙대
2014	문애리	덕성여대
2015	전영호	고려대
2016	이정원	서울대
2017	조용연	가톨릭대
2018	조은정	성균관대
2019	이창훈	동국대
2020	김우영	숙명여대
2021	조영식	계명대

3. ▶ 현재 임원 및 회원 현황

3-1. 임원 현황

직위	성함	소속
회장	조영식	계명대
총무	김동영	영남대
총무	조동규	성균관대
학술위원회 위원장	장창영	숙명여대
학술위원회 위원장	주상훈	대구가톨릭대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원광대
편집위원회 위원장	정우현	덕성여대
국시 위원장	천광훈	가천대

3-2. 정회원 현황

Marc Dederich(서울대), 구태영(경희대), 권소희(연세대), 금영삼(동국대), 김경제(삼육대), 김동영(영남대), 김민갑(경상대), 김상범(삼육대), 김수영(영남대), 김영수(충북대), 김우영(숙명여대), 김은희(차의과대), 김진경(차의과대), 김현표(강원대), 김효정(우석대), 김훈(순천대), 류종석(한양대), 문애리(덕성여대), 박상규(아주대), 배종섭(경북대), 서동완(단국대), 서영준(서울대), 서원희(중앙대), 심정현(목포대), 우현애(이화여대), 이경태(경희대), 이광열(전남대), 이성희(원광대), 이승진(충남대), 이재원(부산대), 이정원(서울대), 이창훈(동국대), 이철훈(한양대), 임영준(전남대), 임형신(한양대), 장창영(숙명여대), 전훈(우석대), 전영호(고려대), 정가영(성균관대), 정기웅(부산대), 정우현(덕성여대), 정해영(부산대), 조동규(성균관대), 조영식(계명대), 조용연(가톨릭대), 조은정(성균관대), 주상훈(대구가대), 차혁진(서울대), 천광훈(가천대), 천영진(중앙대), 최정혜(경희대), 최홍석(조선대), 한병우(서울대), 한상배(충북대), 한정환(성균관대), 한창엽(전북대), 황은숙(이화여대)

4. 주요 학술 및 교육활동사항

» 교육 활동

교육 측면에서는 약학을 포함한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 생명현상의 화학적 이해, 질병의 분자기전 및 약물의 분자생물학적 작용기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한 ‘분자약품생화학’을 2003년도에 출판하였다. 또한 6년제 약학대학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약품생화학·분자생물학 총정리를 2015년에 출판하였으며, 약품생화학 실험서는 최신 생화학분자생물학기술을 개정하여 2011년에 재발간하였다.

2016년 현재 약품생화학·분자생물학 분과학회에는 권창호, 이상섭, 한병훈, 민경락, 이항우, 이승기, 석귀덕, 한용남, 김미영, 박행순, 김춘미, 우원식, 정용자, 석대은, 김안근, 명평근 명예교수님(퇴임순)과 54분의 현직 교수님이 활동하고 있다. 분과학회 사업으로 6년제 약학대학 교육과정에 적합한 관련분야 교과목 정립과 6년제 약학대학 교육과정을 반영한 ‘약품생화학·분자생물학’의 출판작업이 진행 중이다.

» 연구 및 학술활동

창립 이후 회원 수의 증가와 더불어 발전을 하였으며 (별첨: 최근 역대 생화학·분자생물학분과학회 학회장 명단), 1984년 제33회 대한약학회 학술대회부터 인류의 질병과 염증을 주제로 다룬 2021년도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년 최신 연구주제들을 다루는 심포지엄을 주관해오고 있다.

» 대한약학회 심포지엄 참여 목록 (최근 6년)

연도	춘/추계	주제 (주관)
2016	춘계	Biomarker Discovery and Cancer Immunotherapy (암 바이오마커 발굴과 암 면역치료; 조영식)
	추계	Matrix biology and diseases (세포외기질과 질환; 배종섭)
2017	춘계	Autophagy: From Molecular Mechanisms to Therapeutic Targets (Autophagy: 분자적 기전에서 질병 치료 타겟까지; 우현애, 김우영)
	추계	Drug Discovery in Medical/Science Research Center (선도연구센터의 신약개발 동향; 한상배)
2018	춘계	Precision Cancer Therapy (정밀 암 치료; 이정원, 권소희)
	추계	Metabolic Insights of Cancer and Cancer Treatment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Korea and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Japan) 암대사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암치료 전략 (대한약학회, 일본약학회 공동심포지엄: 권소희)
2019	춘계	New insight into the metabolic syndrome (대사질환에 대한 새로운 통찰; 최진성, 김우영)
	추계	Therapeutic approaches for the liver disease (간 관련 질환에 대한 치료 전략; 김우영)

연도	춘/추계	주제 (주관)
2020	추계	Current disease modeling studies with cutting-edge technology (최신 생명과학 기술 기반 질환모사 연구 동향; 차혁진, 서영준)
2021	춘계	Exosome: Basics and biomedical applications (엑소좀: 기초 및 생물 의학적 응용; 장창영, 김소희)

또한 분과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 약품생화학·분자생물학분과학회 워크숍

연도	주제 (장소)
2015	약사고시 및 약품생화학 교재 (제주 아스타 호텔)
2016	약품생화학·분자생물학 교재 개발 (제주 아스타 호텔)
2017	약사국시 문제 개선 방향 및 정년퇴임 기념 강연 (목포 폰타나비치 호텔)
2018	학술 및 최신기술 트렌드 세미나 (부산 코오롱씨클라우드 호텔)
2019	신임교원 학술세미나 및 최신기술 세미나(다온비에스) (스카이베이 경포 호텔)

» 2021년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 약품생화학·분자생물학분과 심포지엄

2021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춘계약학회는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약품생화학·분자생물학분과는 약물학분과와 공동으로 ‘엑소좀: 기초 및 생물 의학적 응용’을 주제로 비침습적 액체 생검으로 엑소좀의 생리활성물질을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하거나 엑소좀의 기능을 이용한 치료기술과 이를 응용한 질병의 치료전략에 대해 소개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오거나이지; 장창영, 김소희, 좌장: 김우영, 박성혁). 연자로는 경북대 의대 백문창 교수(암 세포 유래 엑소좀 분비 억제제를 통한 항암 치료제 개발), 미국 앨바인 약학대학 권영직 교수(세포외 소포: 쉽게 제작되는 새로운 세포외 소낭 및 이의 임상적 응용), 미국 NIH의 Bin Gao 교수(지방간 질병에서의 엑소좀), 미국 미시간 약대의 James Moon 교수(암 면역치료에 사용되는 가공된 미립자)를 초청하였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분과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의 실시간 온라인 참여 인원은 274명으로 여러 분과 회원들과 대학원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다. 본 심포지엄을 포함한 학회의 누적 참여자는 13,320명으로 집계되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 - 약품생화학·분자생물학분과 심포지엄〉 2021 / 회장 조영식

5. 맺음말

약품생화학분과학회는 1972년 창립되었고, 2015년 약품생화학·분자생물학분과학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본 학회는 생명현상의 기전 규명을 통해 다양한 학문의 기본 핵심 개념의 토대를 구축하여 약학 분야의 연구 및 교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약학 기초학문으로서 약학전공자를 위한 약품생화학 교재 개발, 통합 6년제에 따른 실습 및 교육과정 구축, 응용연구를 위한 기반 및 핵심 기술에 대한 최신연구 교류 등 교육과 연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분과학회를 정점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한약학회 산하 분과학회로서 춘·추계 학술활동으로서 심포지엄을 주최하고, 동하게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술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교재 및 국시 문항 개발을 위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대한약학회 7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약품생화학·분자생물학 분과학회의 발전 역사를 기록하고 정리계승하여 또다른 큰 발자취의 첫걸음의 원년이 되리라 기대한다.

대한약학회 75주년사의 일부 페이지를 장식할 우리분과회의 활동상을 정리하면서 2021년 임원진에게 특별한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는 바이다.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환경속에서 분과학회의 살림과 전반적인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 해준 김동영교수와 조동규 교수, 춘계 및 추계 심포지엄을 구성하고 준비해주신 장창영교수와 주상훈 교수, 코로나 때문에 불발이 되었지만 워크숍 행사 지원으로 바쁘셨던 이성희 교수와 정우현 교수, 국시 출제 및 교육에 많은 기여를 해주신 천광훈 교수님께 다시한번 고마움을 진심으로 표하는 바이다.

2021 약품생화학·분자생물학 분과학회 회장 조영식

17

약품화학 분과학회



1. 학회 개요

약품화학분과학회는 신약개발 및 의약품 화학의 진보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대한약학회가 분과회 체제를 도입한 1971년 9월 11일 개정된 대한약학회 정관 제 33조에 의거 설립된 ‘약화학분과학회’와 1988년 창립된 ‘유기약품제조화학분과학회’가 1991년 통합되어 임중기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초대 회장으로 선임하고 학회의 명칭을 ‘대한약학회 약품화학분과 학회’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초기에는 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였으나 2011년부터 1년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부회장, 총무위원, 기획위원, 학술위원, 홍보위원, 재무위원으로 집행부를 구성하여 회무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분과학회는 학회 홈페이지(<http://www.medichem.kr>) 운영을 통하여 학회 활동을 홍보하고 학문 후속세대 연구자에게 최신연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학회 역사

2-1. 연도별 임원 현황표

연도	회장	소속	주요임원
1991-1992	임중기	성균관대	부회장: 권순경
1993-1994	권순경	덕성여대	부회장: 임철부
1995-1996	임철부	중앙대	부회장: 천문우
1997-1998	천문우	서울대	부회장: 김충섭
1999-2000	김충섭	KRICT	부회장: 주상섭
2001-2002	주상섭	서울대	부회장: 신관석 위원회: 정영훈
2003-2004	신관석	강원대	부회장: 정상현 위원회: 박해일, 정진현, 이지우
2005-2006	정상현	충남대	부회장: 서영거 위원회: 김희두, 송규용, 임세진, 차경희
2007-2008	서영거	서울대	부회장: 함원훈 위원회: 정낙신, 김용철, 유재상
2009-2010	함원훈	성균관대	부회장: 박혜영 위원회: 이지우, 김학성, 박현주

연도	회장	소속	주요임원
2011	박혜영	이화여대	부회장: 김희두 위원회: 정진현, 최용석, 최선
2012	장영동	영남대	부회장: 이희순 위원회: 조원제, 정병선, 서승용
2013	김희두	숙명여대	부회장: 정진현 위원회: 신계정, 나영화, 신동윤, 김남중
2014	정영훈	성균관대	부회장: 조원제 위원회: 이용섭, 서재홍, 하정미, 김인수
2015	정진현	연세대	부회장: 이지우 위원회: 최용석, 민경훈, 최원준, 김익연
2016	조원제	전남대	부회장: 이지우 위원회: 김용철, 변영주, 이지연, 김남중
2017	이지우	서울대	부회장: 정낙신 위원회: 광영신, 오경수, 이동주, 서승용
2018	정낙신	서울대	부회장: 신계정 위원회: 류재상, 변영주, 김인수, 남태규
2019	신계정	가톨릭대	부회장: 김용철 위원회: 서재홍, 신동윤, 한영택, 이태호, 서영호
2020	김용철	GIST	부회장: 최선 위원회: 이종국, 강수성, 김석호, 정종화, 윤화영
2021	최선	이화여대	부회장: 송규용 위원회: 오경수, 신동윤, 이동주, 김익연, 서영호

3. 현재 임원 및 회원 현황

3-1. 임원 현황

직위	성명	소속
회장	송규용	충남대
부회장	최용석	고려대 생명공학부
총무위원	변영주	고려대
기획위원	서승용	가천대
학술위원	김남중	경희대
홍보위원	윤화영	부산대
재무위원	심재훈	충남대

3-2. 정회원 현황

감종식(건양대), 감종식(생명공학연구원), 강수성(이화여대), 강신욱(CMG제약), 고동현(씨제

이헬스케어), 고옥현, 고효진(광주과학기술원), 광영신(LG생명과학), 광우영(테라시드바이오사이언스), 광재환(경성대), 구진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구창휘(하나제약), 권경진(식약처), 기리시(이화여대), 김경선(일동제약), 김규동(전남대), 김남중(경희대), 김동일(삼성서울병원), 김득준(서울대), 김명화(아리메드), 김문환(비시켄), 김미연(동아제약), 김민석(코스팩토리), 김병문(서울대), 김보경(한독), 김상희(서울대), 김석호(차의과대), 김성범(한국파스퇴르연구소), 김성진(C&C), 김성한(경희대), 김승환(동화약품), 김양중(안국약품), 김영미(한국파스퇴르), 김영미(부산대), 김영민(삼양제넥스), 김영수(연세대), 김영우(동국대), 김용철(광주과학기술원), 김유창(C&C), 김은애(조선대), 김익연(연세대), 김인수(성균관대), 김재일(씨앤드씨), 김정선(동서대), 김정진(종근당바이오), 김종엽(제일약품), 김지숙(한미약품), 김진성(CMG제약), 김진영(식약처), 김필호(한국화학연구원), 김학성(원광대), 김형래(한국화학연구원), 김형수(아주대), 김희권(전북대), 김희두(숙명여대), 나영화(차의과대), 나용호, 남지연(한국파스퇴르연구소), 남태규(한양대), 류재상(이화여대), 류제호(SK케미칼), 마노란잔 쿠마(계명대), 마은숙(대구가톨릭대), 마직(이화여대), 마크디터 리치(서울대), 문영숙(애니젠), 문한서(스마트바이오팜), 문형룡(부산대), 문형우(삼진제약), 민정훈(중앙대), 박대훈(한독약품), 박명숙(덕성여대), 박미경, 박소정(성균관대), 박승범(서울대), 박외숙(중앙대), 박요한(인제대), 박우일(신풍제약), 박준석(대웅제약), 박준호(제일약품), 박해일(강원대), 박현주(성균관대), 박형근(서울대), 박혜영(이화여대), 박희백(계명대), 방현배, 배애님(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백동재(목포대), 백승만(경상대), 변영주(고려대), 살마(계명대), 서영거(차의과대), 서영호(계명대), 서원준(울산과학기술원), 서재홍(가톨릭대), 서정범(비씨켄), 석혜원(서울대), 손상현(고려대), 송광섭(녹십자), 송규용(충남대), 송기주(휴텍스), 송릿다(한국파스퇴르), 송명철(동국제약, 신계정(가톨릭대), 신관석(강원대), 신동윤(가천대), 신호영(충남대), 안순길(인천대), 안승호(한국바이오켄제약), 안홍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승무(중외제약), 양영욱(보령제약), 양현모(종근당), 오경수(중앙대), 오상미(Pasteur Korea), 윤구(목포대), 윤기주(강릉원주대), 윤성화(아주대), 윤수현(한미약품), 윤용식(한미정밀화학), 윤호중(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윤화영(부산대), 이경(동국대), 이광옥(한미약품), 이규양(한국화학연구원), 이동주(아주대), 이봉용(넥스트젠 바이오사이언스), 이상협(덕성여대), 이상휘(C&C), 이석호(녹십자), 이선희(한미약품), 이순옥(C&C), 이승철(CJ헬스케어), 이연주(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용섭(경희대), 이응석(영남대), 이정준(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종국(강원대), 이주영(SK케미칼), 이준원(동부한농), 이지연(서울대), 이지우(서울대), 이진호(계명대), 이진화(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이채호(원광대), 이태호(경북대), 이혁우(퓨처메디신), 이현규(한국화학연구원), 이희경, 이희순(충북대), 이희열(일동제약), 임세진(동덕여대), 임인택(신약개발사업단), 임중인(동아제약 연구본부), 임창진(전북대), 임철수(옴토메직), 장동조(순천대), 장영동(영남대), 장옥연(경희대), 장재봉(고려대), 전기호(이연제약), 전라옥(숙명여대), 전지영(한미약품), 정낙신(서울대), 정병선(영남대), 정상진(성균관대), 정승진(한국원자력연구소), 정연진(부산대), 정영훈(성균관대), 정용석(충북대), 정유훈(건국대), 정재경(충북대), 정재철(University of Mississippi), 정지윤(제너럴휴먼리쿠르트), 정진현(연세대), 조배식(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영애(한국생명공학연구원), 조원제(전남대), 조현성(덕성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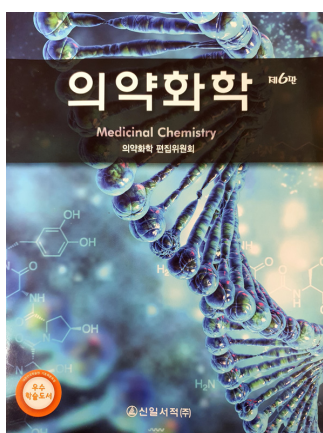
주상섭(서울대), 차경희(동국제약), 채정현(성신여대), 천승훈(전남대), 최선(이화여대), 최선호(동아제약), 최연성(성균관대), 최용석(고려대), 최원준(동국대), 최재율(한미약품), 최종희(제일약품), 최태진, 최현정(KAIST), 최환근(비투에스바이오), 하용황(중원대), 하정미(한양대), 하형호(순천대), 한균희(연세대), 한동설(목포대), 한선영(한미약품), 한수봉(한국화학연구원), 한영택(단국대), 함영진(한미약품), 함원훈(성균관대), 허승평(씨제이헬스케어), 홍동호(녹십자), 홍석창(서울대), 홍승우(카이스트), 홍준희(조선대)

4. 주요 학술 및 교육활동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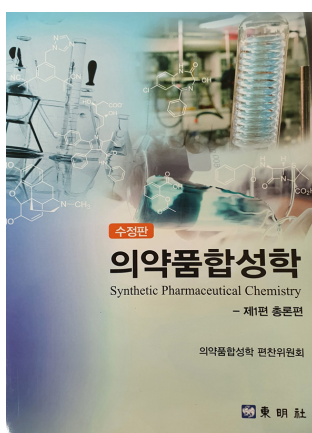
» 교육 활동

약품화학분과학회는 전국 37개 약학대학의 의약품 합성과 의약화학 관련 과목 교수 80여명으로 구성된 유기의약품화학 분과회와 협력하여 표준교과과정, 교과서 개편작업, 약사국가시험 관련 교육내용 토의 등을 통해 약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과서 개편 작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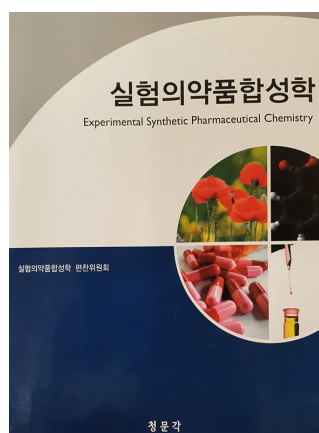
- 의약품합성학, 2011, 2012, 2015, 동명사, 의약품합성학 편찬위원회
- 의약화학, 2001, 2004, 2011(3판 개정판), 2014(4판 개정판), 2016(5판 개정판), 2019(6판 개정판), 신일서적, 의약화학편집위원회
- 실험의약품합성학, 2013, 청문각, 실험의약품합성학 편찬위원회



〈의약화학〉(신일서적)



〈의약품합성학〉(동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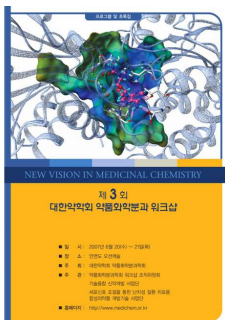
〈실험의약품합성학〉(청문각)

제 3회 대한약학회 약품화학분과 워크샵

일시	2007년 6월 20-21일	장소	안면도 오션캐슬
주제	New Visions in Medicinal Chemistry		

제 3회 워크샵
New Visions in
Medicinal Chemistry

- 2007년 6월 20일 ~21일
- 안면도 오션 캐슬
- 조직위원장: 정삼현, 서영거
- 회장: 서영거 (서울대)
- 조직위원:
함원훈 (성균관대)
정낙신 (이화여대)
김용철 (GIST)
유재상 (이화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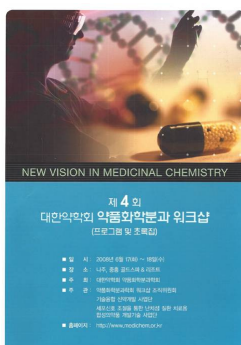


제 4회 대한약학회 약품화학분과 워크샵

일시	2008년 6월 17-18일	장소	전남 나주 중흥 골드스파
주제	New Visions in Medicinal Chemistry		

제 4회 워크샵
New Visions in
Medicinal Chemistry

- 2008년 6월 17일 ~18일
- 나주 중흥 골드 스파 리조트
- 조직위원장: 정삼현, 서영거
- 회장: 서영거 (서울대)
- 조직위원:
함원훈 (성균관대)
정낙신 (이화여대)
김용철 (GIST)
유재상 (이화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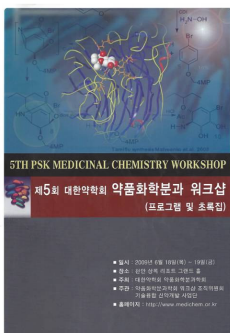


제 5회 대한약학회 약품화학분과 워크샵

일시	2009년 6월 18-19일	장소	천안 상록리조트
주제	21세기 세계화시대,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의약품 개발 (초청연자: 노성구, 이진화, 홍승우)		

제 5회 워크샵

- 2009년 6월 18일 ~19일
- 천안 상록 리조트
- 조직위원장: 함원훈, 서영거
- 회장: 함원훈 (성균관대)
- 조직위원:
박해영 (이화여대)
이지우 (서울대)
김학성 (원광대)
박현주 (성균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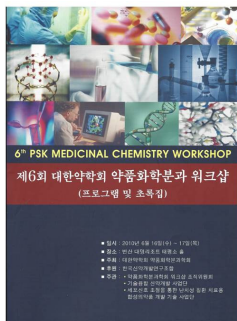


제 6회 대한약학회 약품화학분과 워크샵

일시	2010년 6월 16-17일	장소	부산 변산 대명리조트
주제	국내 신약개발의 글로벌화와 비전 (초청연자: 여제천, 정세호, 남태규)		

제 6 회 워크샵

- 2010년 6월 16일 ~17일
- 변산 대명 리조트
- 조직위원장: 함원훈, 서영거
- 회장: 함원훈 (성균관대)
- 조직위원:
박혜영 (이화여대)
이지우 (서울대)
김학성(원광대)
박현주(성균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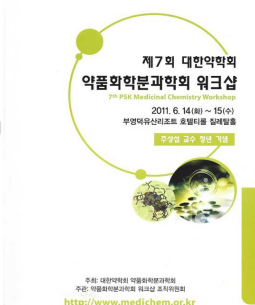


제 7회 대한약학회 약품화학분과학회 워크샵

일시	2011년 6월 14-15일	장소	무주 부영덕유산 리조트
주제	주상섭 교수 정년 기념 (초청연자: 이병철, 백태곤, 심태보)		

제 7 회 워크샵

- 2011년 6월 14일 ~15일
- 부영 덕유산 리조트
- 조직위원장: 박혜영, 서영거
- 회장: 박혜영 (이화여대)
- 조직위원:
김희두 (숙명여대)
정진현 (경희대)
최용석(고려대)
최선(이화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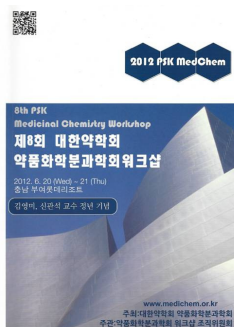


제 8회 대한약학회 약품화학분과학회 워크샵

일시	2012년 6월 20-21일	장소	부여 롯데 리조트
주제	김영미 교수, 신관석 교수 정년 기념 (초청연자: 이규양, 백경업, 배애님)		

제 8 회 워크샵

- 2012년 6월 20일 ~21일
- 충남 롯데 부여 리조트
- 회장: 장영동 (영남대)
- 조직위원:
이희순 (충북대)
조원재 (전남대)
정병선 (영남대)
서승용 (가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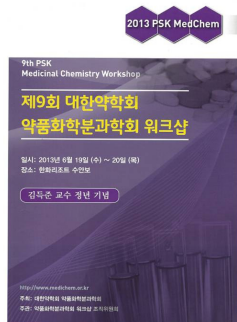


제 9회 대한약학회 약품화학분과학회 워크샵

일시	2013년 6월 19-20일	장소	수안보 한화 리조트
주제	김득준 교수 정년 기념 (초청연자: 김득준, 조대진, 조영락)		

제 9 회 워크샵

- 2013년 6월 19일 ~ 20일
- 수안보 한화 리조트
- 회장: 김희두 (숙명여대)
- 조직위원:
 - 정진현 (연세대)
 - 신계경 (가톨릭대)
 - 나영화 (차의대)
 - 신동윤 (가천대)
 - 김남중 (경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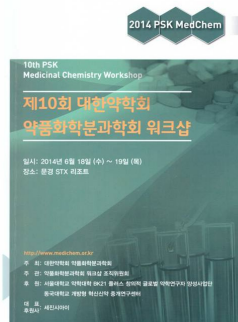


제 10회 대한약학회 약품화학분과학회 워크샵

일시	2014년 6월 18-19일	장소	문경 STX 리조트
주제	Process Chemistry in Drug Development (초청연자: 김현규, 오상호, 이희봉, 최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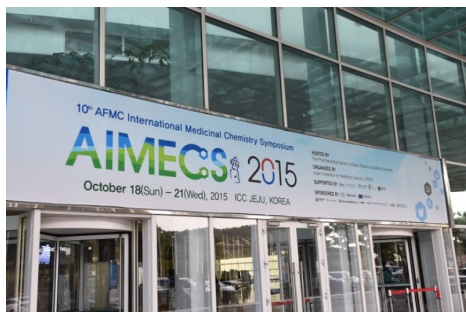
제 10 회 워크샵

- 2014년 6월 18일 ~ 19일
- 문경 STX 리조트
- 회장: 정영훈 (성균관대)
- 조직위원:
 - 조원제 (전남대)
 - 이용섭 (경희대)
 - 김인수 (성균관대)
 - 서재홍 (가톨릭대)
 - 하정미 (한양대)



제 11회 대한약학회 약품화학분과학회 워크샵 (2015 AIMECS 공동 개최)

일시	2015년 10월 18-21일	장소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주제	Innovative Approaches for Drug Discovery & Development (Keynote Speaker: Richard B. Silverman, Kenneth A. Jacobson, Masahiko Ohtsuki, Gunda I. Georg)		



제 12회 대한약학회 약품화학분과학회 워크샵

일시	2016년 6월 23-24일	장소	무창포 비체 팰리스
주제	Strategies for Lead Optimization to New Drug Candidates (초청연자: 배명애, 김영관, 신영근)		

**제 13회 대한약학회 약품화학분과학회 워크샵**

일시	2017년 6월 22-23일	장소	고성군 델피노 리조트
주제	Strategies for Lead Optimization to New Drug Candidates (초청연자: 송규용, 남태규)		

**제 14회 대한약학회 약품화학분과학회 워크샵**

일시	2018년 6월 27-28일	장소	삼척시 쓸비치 호텔 & 리조트
주제	Navigating the Future of Medicinal Chemistry (초청연자: 최용석, 이봉용)		



제 15회 대한약학회 약품화학분과학회 워크샵

일시	2019년 6월 26-27일	장소	부산 대명리조트 변산
주제	Targeting the Hotspot in Drug Discovery (임중기 학술상 강연: 조원제, 초청연자: 맹한주, 김한수)		



제 16회 대한약학회 약품화학분과학회 워크샵 (온라인 개최)

일시	2020년 8월 26일	장소	서울 더케이호텔
주제	The Cutting-edge Drug Discovery Chemistry (초청연자: 정낙신, 채제욱, 이혁, 신계경, 변영주, 하정미, 신동윤)		



제 17회 대한약학회 약품화학분과학회 워크샵 (온라인 개최)

일시	2021년 6월 28일	장소	서울 더케이호텔
주제	Fostering Next Generation Medicinal Chemistry Leaders (임중기 학술상 강연: 이지우, 초청연자: 이지연, 김훈영, 김순남, 김재순, 조성진)		



»약품화학분과학회 국제학술대회 워크숍 개최 현황

국제적으로는 Asian Federation of Medicinal Chemistry(AFMC)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회로 참여하고 있고, 2년마다 개최되는 심포지엄에 많은 분과학회 회원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1997년 서울에서 AFMC의 2nd International Medicinal Chemistry Symposium (AIMECS1999)을 개최하였다. 2015년 10월에는 AIMECS2015를 제주 ICC에서 ‘Innovative Approaches for Drug Discovery & Development’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아시아 지역 800 여명의 약품화학 연구자들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2023년 한국에서 열리는 AIMECS2023 국제학술대회는 ‘혁신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합성 화학 (가제)’라는 주제로 약품화학분과학회가 주관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대한약학회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에서 분과학회가 주관하는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신약개발에 있어서 약품화학의 역할, 최신 연구 동향, 약물 발굴 신규 방법론 등을 포함하는 혁신신약 개발연구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

»약품화학분과학회 학술상 제정 및 시행

본 학회는 2018년부터 ‘천문우 의약화학 학술상’과 ‘임중기 학술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천문우 의약화학 학술상’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장과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한 천문우 교수님의 사재 출연을 통하여 매년 분과학회 정회원 중에서 의약화학 분야 최고의 저널인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에 교신저자 논문을 발표한 회원에게 시상하고 있다. ‘임중기 학술상’은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장을 역임한 임중기 교수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연성정밀화학(회장: 함원훈)의 후원으로 격년으로 약품화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발표하고 학회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하고 있다.

5. 주요 인사 동정

»대학교보직 봉사활동

총장 : 권순경(덕성여대)

부총장 : 서영거(차의과대학)

약학대학장 : 임중기(성균관대), 권순경(덕성여대), 신관석(강원대), 천문우(서울대), 주상섭(서울대), 함원훈(성균관대), 서영거(서울대, 차의과대), 정상현(충남대), 천승훈(전남대), 김희두(숙명여대), 이희순(충북대), 장영동(영남대), 박해일(강원대), 이응석(영남대), 박혜영(이화여대), 마은숙(대구가톨릭대), 조원제(전남대), 박명숙(덕성여대), 박형근(서울대), 김학성(원광대), 홍준희(조선대), 정연진(부산대), 문형룡(부산대), 송규용(충남대), 나영화(차의과대학), 정병선(영남대), 하형호(순천대), 윤구(목포대)

» 주요학회장 활동동정

대한약학회 회장 - 정원근(서울대), 서영거(서울대)

한국유기합성학회 회장 - 주상섭(서울대), 천문우(서울대), 서영거(서울대), 함원훈(성균관대),
정영훈(성균관대), 정낙신(서울대)

한국단백질학회 회장 - 최선(이화여대)

» 수상 및 연구단장

대형연구사업단 운영

SRC(중앙대 오경수), MRC(동국대 이경), 중점연구소(가톨릭대 신계정, 고려대 변영주,
한양대 하정미, 가천대 신동윤), BRL(성균관대 김인수)

기업창업 활동

연성정밀화학(성균관대 함원훈)

학술상 수상

대한약학회 학술분상: 천문우(서울대), 주상섭(서울대)

대한약학회 학술대상: 함원훈(성균관대), 서영거(서울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 김득준(서울대)

대한약학회 오당학술상: 서영거(서울대)

대한약학회 녹암학술상: 서영거(서울대), 정낙신(이화여대), 박형근(서울대), 최선(이화여대)

한국유기합성학회 학술대상: 주상섭(서울대), 김득준(서울대), 서영거(서울대), 함원훈(성균관대),
정상현(충남대), 정영훈(성균관대), 이지우(서울대)

6. > 관련학회 정보

한국유기합성학회

홈페이지: www.ksosnet.or.kr 전화번호: 042-350-5825

학회장: 정낙신(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공식 학술지: Asian Journal of Organic Chemistry

7. > 맺음말

2021년 집행부 (회장: 최선)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집행부 (회장: 송규용)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확대하여 2022년 집행부가 최종 작성하였다.

18

약학교육 분과학회



1. 학회 개요

약학교육분과학회는 약학교육과 관련한 제도, 목표, 법령, 표준교육과정, 교육방법 등 약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들을 발표하고 토의하여 약학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회이다. 약학교육 6년제 시대를 맞이하여 약학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년에 처음 설립되었다. 약학교육분과학회는 분과학회의 특성상 회원을 별도로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약학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약학회 회원은 회원으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2. 학회 역사

2-1. 연도별 임원 현황표

연도	회장	소속	주요임원
2012-2013	이병구	이화여대	
2014-2015	손동환	원광대	
2016-현재	이석용	성균관대	총무위원장: 이정미

2-2. 창립 역사 및 임원활동

2012년 초대 회장으로 이화여대에서 약물치료학을 담당하였던 이병구 교수가 취임하여 2년간 활동하였고, 2014년에 원광대 약대에서 약제학을 담당하였던 손동환 교수(현 계명대 약대)가 제 2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2년간 활동하였다. 2016년에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 교육과정위원장과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약무교육위원장인 성균관대 약대 약물학 담당 이석용 교수가 제 3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임원으로는 총무위원장을 두고 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성균관대 약대에서 약품분석학을 담당하는 이정미 교수가 활동하고 있다.

3. 현재 임원 및 회원 현황

3-1. 임원 현황

직위	성함	소속
회장	이석용	성균관대
총무위원장	이정미	성균관대

3-2. 정회원 현황

약학교육분과학회의 회원은 분과학회의 특성상 약학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대한약학회 회원을 회원으로 한다.

4. 주요 학술 및 교육활동사항

» 연구 및 학술활동

2012년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약학교육평가원과 공동으로 “A leap for the pharmacy education advancement: Implementation of Advanced Strategies & Accreditation”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organizer: 윤정현, 정재훈 교수; 발표자: 장경원, 제남경, 이정연, 박해영, 오정미 교수)을 개최하였다.

2013년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Experiences and implementation of experiential education in 6-year pharmacy education”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organizer: 윤정현 교수; 발표자: 곽혜선, 김재운, 박은석, 이장익, 유진욱 교수)을 개최하였다.

2014년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Innovative changes of Pharmacist licensure examination in 6-year Pharmacy education”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organizer: 윤정현 교수; 발표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최인석, 손동환, 정규혁, 강민구 교수)을 개최하였고, 추계학술대회에서는 “Assessment of Programs & outcomes of experimental education in early Stage of 6-year Pharmacy education”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organizer: 윤정현, 이정연 교수; 발표자: 이병구, 송연화, 박영준, 장선미 교수)을 개최하였다.

2016년 4월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약학교육 개선안 마련을 위한 대 토론회(organizer: 이정미 교수)”를 개최하여 6년제 도입후 시작된 실무실습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석용 회장이 발제를 맡아 실무실습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고, 경희대 약대 정세영 교수(한국약학교육평가원 원장), 서울대 약대 김상건 교수, 중앙대 약대 김하영 교수, 병원약사회 은종영 부회장이 토론패널로 참가하였다. 2016년 10월 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The Enhancement of Pharmacist’s Expertise and Pharmacy Education”이라는 주제로 오픈포럼(organizer: 이정미 교수; 발표자: 권경희, 이석용 교수)을 개최하였다. 2016년 4월-12월에 이석용

회장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용역을 받아 “우수한 약사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로 ① 2+4학제의 통6년제로의 개편, ② 실무실습교육을 위한 부속병원 및 부속약국 설치법 제정, ③ 전문약사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④ 실무실습 관련 법률의 미비점 보완 등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2016년 11월 2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하였고(데일리팝 등 보도), 이후 이러한 제안과 관련된 일부 사안들의 법률 개정이 있었다.



〈약학교육 개선안 마련을 위한 대 토론회 (김대중 컨벤션 센터)〉 2016 / 회장 이석용

2017년 4월 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약학대학 실무실습의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organizer: 이정미 교수, 발표자: 서울아산병원 김재연 박사, 정경혜, 이영숙, 이석용 교수)이 개최되었다.

5. 주요 인사 동정

제2대 회장을 역임한 손동환 교수는 원광대 약대 학장을 두차례 역임하였고, 2017년 계명대 약대로 이직하여 현재 학장으로 재직중이다. 또한 2014년에 한국제약과학기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2020년 3월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제3대 회장인 이석용 교수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약학회의 SCIE학술지인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의 Editor-in-Chief를 맡아서 저널의 JCR IF를 단기간에 4.946까지 상승시켜 학술지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있다. 또한 2019년 대한약리학회 회장으로 학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6. 맺음말

약학교육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1983년에 설립되어 의학교육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여온 한국의학교육학회처럼 약학교육분과학회가 보다 많은 약학교육 관계자들의 참여와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효율성 높은 약학교육 방안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19

약학사 분과학회



1. 학회 개요

약학사분과학회는 약학사(藥學史)에 대한 연구에 필요성을 느낀 약계인사를 중심으로 준비되기 시작하여 2014년 4월 17일, 대한약학회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통하여 창립되었다. 약학사분과학회는 한국의 근현대 약학의 발전사를 중점적으로 조사·정리하는 것을 우선적 연구과제로 삼았다. 이는 후세를 위해 격변하는 최근을 기록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최근 역사연구의 경향이 정치사, 제도사 등에서 벗어나 생활사, 지역사, 인물사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확대되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미 1972년에 고 홍문화 명예교수님을 비롯한 14분이 회칙을 정하고 임회원서를 받아 ‘한국 약사학 연구회’ 창립을 발기한 바가 있다. 비록 왕성한 활동을 하지는 못한 것 같지만, 연구회의 발기 취지만큼은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해도 전혀 어긋남이 없어 보였다. 우리나라 약학사 연구의 현황이 무려 42년 전과 대동소이함은 실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약학사분과학회’는 이 ‘연구회’의 발기 취지를 그대로 계승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한국 약사학 연구회 회칙

- 제 1 조 본회는 한국 약사학연구회(영명; The Korean Society of History of Pharmacy)라 칭한다
- 제 2 조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 제 3 조 본회는 약학 및 약업에 관한 역사를 조사연구 하며 약학 및 약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 본회는 약사학 연구에 뜻을 둔 사람과 본회 사업에 협조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 제 5 조 본회의 회비는 년 1,000원이며 본회의 사업목적에 협조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찬조를 받을 수 있다
- 제 6 조 본회는 다음사업을 행한다
- 가) 총회(년 1 회)
 - 나) 예회, 연구발표회, 세미나, 심포지움, 강연회
 - 다) 기관지 발행
 - 라) 자료수집 및 제작
 - 마) 학사학교육의 보급지도
 - 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 7 조 본회는 회장 1명, 감사 1명 및 간사 약간명을 둔다.
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1 년으로하고 중임할 수있으며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리한다. 감사는 회원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간사는 회원중에서 필요한 수를 선출하여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 제 8 조 본회의 모든 의결은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 제 9 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로 한다.
- 제 10 조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한국 약사학 연구회’ 회칙(1972)〉

‘한국약학사연구회의 발기취지문’을 전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약학사는 본초의 역사로부터 비롯되며 민족의 문화와 더불어 유구한 전통을 지니고 있다. 근대화 과정만 치더라도 서양의약의 도입으로부터 이미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오늘날 약학의 발전은 눈부신 바 있으며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질병의 치료와 건강유지를 위한 약학의 사명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가증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약학도 오랜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세분화, 전문화를 거듭하고 있으나 과연 그 뿌리가 어디에서 비롯하였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인가는 체계적으로 고구되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약학의 발전과 제약산업의 융성에 발맞추어 한국약학의 특성과 방향을 찾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바탕으로서 약학사는 그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으나 불행히도 아직까지 이 방면을 미개척지로 남겨놓고 있음을 볼 때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약학사 연구의 의욕을 북돋우고 나아가서는 한국약학의 특성을 발견 발굴하기 위하여 약사학 연구회를 발기코저 하오니 동학제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는 바이다.

1972년 5월 약사학 연구회 발기준비 위원회 김광수, 김일혁, 김조형, 김태봉, 신길구, 우종학, 유경수, 이선주, 이은옥, 장상길, 정동규, 지형준, 한구동, 홍현오 (가나다순). 대표 홍문화”

2. 학회 역사

2-1. 연도별 임원 현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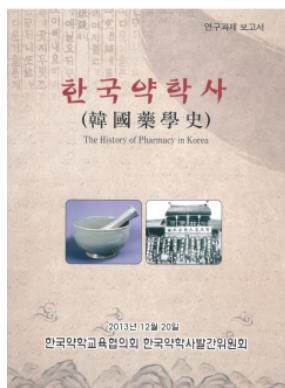
연도	회장	소속	주요임원
2013	심창구	서울대	총무: 김진웅, 학술: 한효경, 편집: 주승재
2014	심창구	서울대	부회장 겸 총무: 김진웅, 학술: 한균희, 편집: 주승재
2015	심창구	서울대	부회장 겸 총무: 김진웅, 학술: 한균희, 편집: 주승재
2016	심창구	서울대	부회장 겸 총무: 김진웅, 학술: 한균희, 편집: 주승재
2017	심창구	서울대	부회장 겸 총무: 김진웅, 학술: 한균희, 편집: 주승재
2018	심창구	서울대	부회장: 김진웅, 박정일 편집위원장: 김영식 학술: 한균희
2019	심창구	서울대	부회장: 김진웅, 박정일 편집위원장: 김영식 학술: 한균희, 손여원
2020	심창구	서울대	부회장: 김진웅, 박정일 편집위원장: 김영식 학술: 한균희, 손여원
2021	심창구	서울대	부회장: 김진웅, 박정일 편집위원장: 김영식 학술: 백승만, 한균희, 손여원

2-2. 창립 역사 및 임원활동

» 창립 역사

2012년,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 김대경 이사장의 『한국약학사』 편찬 의뢰를 받아 서울대 심창구, 김진웅 교수 등이 2013년 말 819쪽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약학사학회’의 창립을 논의한 결과, 대한약학회 내에 ‘약학사분과학회’를 창립하여 활동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2013년 말, 발기인 서명 등의 서류를 대한약학회에 제출하였고 2014년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 첫날인 4월 17일에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약학사분과학회’가 창립되었으며, 다음 날인 4월 18일, ‘약학사분과학회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분과학회 회장은 심창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총무간사는 김진웅 서울대 교수(학술간사 한효경, 편집간사 주승재)가 맡기로 하였으며, 김진웅 교수의 수고로 분과학회의 직인도 마련되었다. 약학사분과학회의 영문명은 ‘Division of Pharmacy History in Korea’로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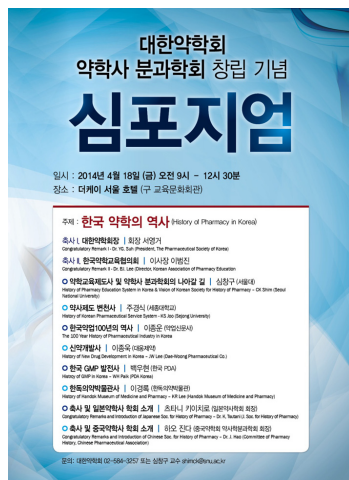
〈보고서 「한국약학사」〉
(2013, 약교협, 한국약학사발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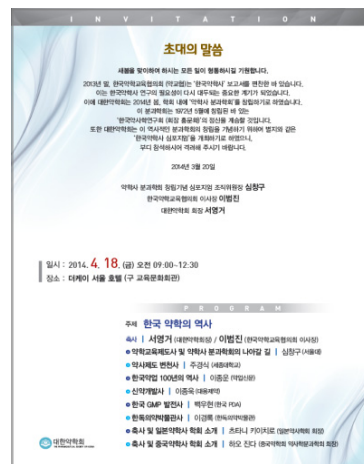
〈약학사분과학회 직인〉

• 창립기념 심포지엄 (2014년 4월 18일, 더케이호텔 서울)

주제는 ‘한국 약학의 역사(History of Pharmacy in Korea)’로, 연제는 ‘약학교육 제도사 및 약학사분과학회의 나아갈 길’(심창구), ‘약사제도 변천사’(주승재), ‘한국약업 100년의 역사’(약업신문 이종운), ‘신약개발사’(대웅제약 이종욱), ‘한국 GMP 발전사’(한국PDA 백우현), ‘한독의약품관사’(이경록), 축사 및 ‘일본약사학회 소개’(Kiichiro Tsutani), 축사 및 ‘중국약학사분과학회 소개’(Jinda Hao) 등이었다.



〈창립기념심포지엄 포스터〉 2014 / 회장 심창구 〈창립기념심포지엄 프로시딩〉 2014 / 회장 심창구



〈창립기념심포지엄 초청장 (좌: 바깥면, 우: 안쪽)〉 2014 / 회장 심창구



〈창립기념심포지엄 단체사진〉

2014 / 회장 심창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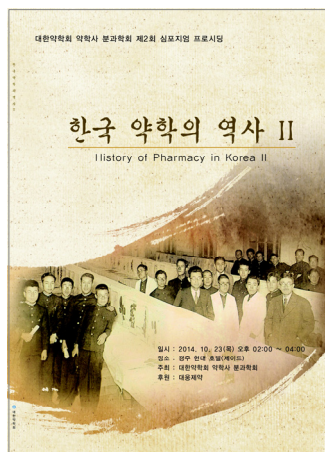
앞줄 왼쪽으로부터 지형준, 심창구, Jinda HAO, Kiichiro Tsutani, 이상섭, 김낙두, 이은방, 이강추, 백우현; 뒷줄 왼쪽으로부터 권경희, 이유미, 이지숙, 주승재, 손일선, 장일무, 이종운, 전인구, 이경록, 이종욱, 황성주, 이숙연, 김진웅, 박정일 등

» 학회 활동상황

약학사분과학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을 약계 주요인사로 구성하여(현재 23인) 분기별로 운영위원회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총 29차 모임 진행) 연 1회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한편(제 7호 뉴스레터까지 발행), 매년 1-2회 약학사분과학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현재 제15회 약학사 심포지엄 개최 준비중) 프로시딩을 발간하고 있다. 또한, 2018년 본 학회 학술지인 『약학사회지』를 창간하여 2021년 현재 제4권 제1호까지 발간하였고 약학사분과학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중이다. 최근 대한약학회 창립 7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한국 약학의 뿌리 : 약계 원로 구술(회고)사』 발간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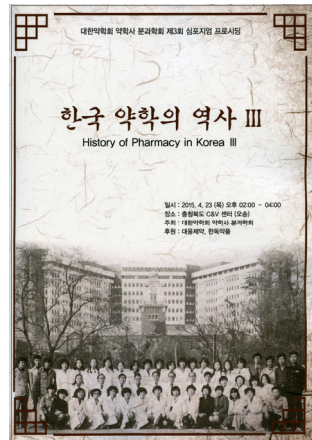
2014년 10월 23일,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약학의 역사Ⅱ’라는 주제로 제2회 약학사분과학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연제는 ‘한국인 최초의 약대 학장, 도봉섭’(서울대 약대 김진웅),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의 어제와 오늘’(숙대 약대 김희두), ‘약품의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와 검출기의 국내보급에 대한 36년의 경험’(인성 크로마텍(주) 윤근성), ‘117년 제약보국 동화약품’(동화약품(주) 윤도준)이었다.



〈제2회 약학사 심포지엄 단체사진(좌)과 프로시딩 표지(우)〉 2014 / 회장 심창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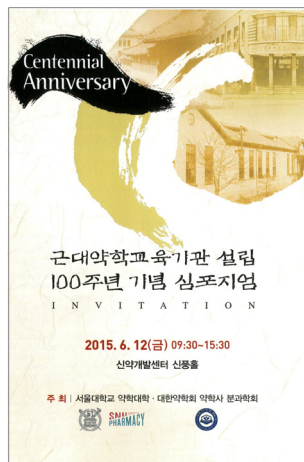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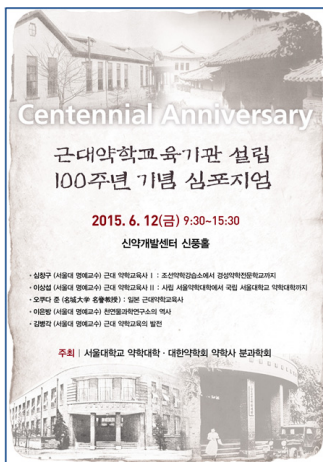
» 2015년

우리나라 근대약학교육기관이 설립(1915)된지 100주년 되는 2015년 4월 23일,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 약학의 역사Ⅲ’이라는 주제로 제3회 약학사분과학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연제는 ‘한국 약학교육 6년제의 역사’(성대 약대 정규혁), ‘서울대병원 약제부의 역사’(전 서울대 병원 노환성),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역사’(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강추), ‘조선약학교와 3·1 운동’(서울대 약대 심창구)이었다.



〈제3회 약학사 심포지엄 단체사진(좌)과 프로시딩 표지(우)〉 2015 / 회장 심창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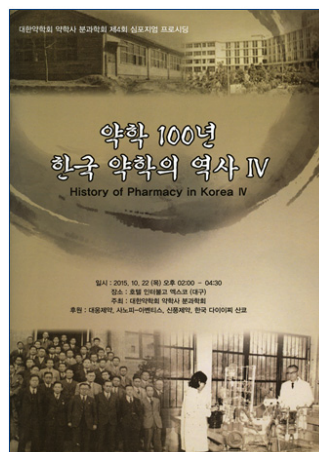
6월 12일에는 서울대 약대와 공동으로 ‘근대약학교육기관설립 100주년 기념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서울대 내에 ‘가산약학역사관’을 건립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였다. 심포지엄 연제는 ‘근대약학교육사 I - 조선약학강습소에서 경성약학전문학교까지’(서울대 약대 심창구), ‘근대 약학교육사 II - 사립서울약대에서 국립서울약대까지’(서울대 약대 이상섭), ‘일본 근대약학교육사’(일본약사학회 오쿠다 준), ‘천연물과학연구소의 역사’(서울대 약대 이은방), ‘근대 약학교육의 발전’(서울대 약대 김병각)이었다.



〈근대약학교육기관 설립 100주년 기념심포지엄
(좌: 프로시딩 표지, 우: 초청장)〉 2015 / 회장 심창구

〈가산약학역사관 개관식 포스터〉
2015 / 회장 심창구

10월 22일에는 ‘약학 태동 100년’을 주제로 한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약학의 역사Ⅳ’라는 주제로 제4회 약학사분과학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연제는 ‘한국 근대약학교육 100년의 역사’(서울대 약대 심창구), ‘중대 약대 62년사’(중대 약대 손동헌),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약사(略史)’(영남대 약대 허 근), ‘현대약학의 아버지, 녹암 한구동 박사의 생애와 업적’(서울대 약대 이승기), ‘약사회 100년의 발자취’(대한약사회 서병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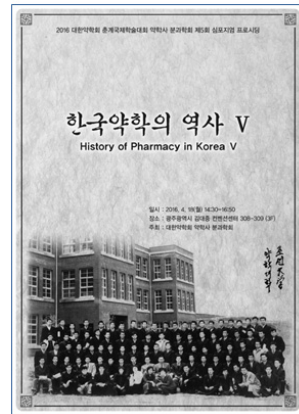
<제4회 약학사 심포지엄 단체사진 (좌: 단체사진, 우: 프로시딩 표지)> 2015 / 회장 심창구

11월 21일, 일본 나라에서 개최된 일본약사학회에 참석하여 ‘韓国近代薬学教育100年の歴史’(심창구 학회장) 구두 발표와 ‘History of Ginseng Research’(박정일 운영위원) 포스터 발표 등의 활동을 통해 일본 연구진과 교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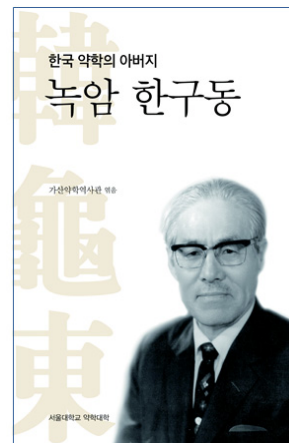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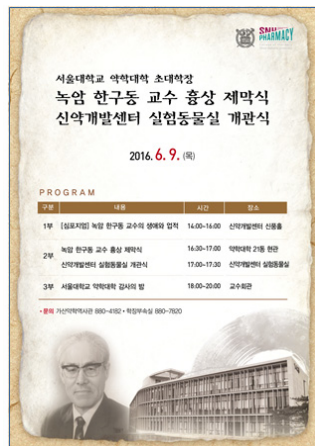
» 2016년

2016년 4월 18일,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약학의 역사Ⅴ’라는 주제로 제5회 약학사분과학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연제는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의 역사’(조선대 약대 최준식), ‘근대전통신약 이명래고약의 역사’(충북대 이영남), ‘신약개발과 약학대학 연구비의 역사’(덕성여대 약대 정기화), ‘약무행정조직의 변천사’(성대 약대 이재현)였다.

6월 9일에는 서울대 약대와 공동으로 한국 약학의 아버지 녹암 한구동 교수의 생애와 업적을 다루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는데, 연제는 ‘녹암 한구동 교수의 생애’(서울대 약대 이상섭)와 ‘녹암 한구동 교수의 업적’(서울대 약대 한병훈)이었다. 이어서 거행된 녹암 한구동 교수의 흉상 제막식에 참여하고 『한국 약학의 아버지, 녹암 한구동』 책자를 발간, 배포하는데 일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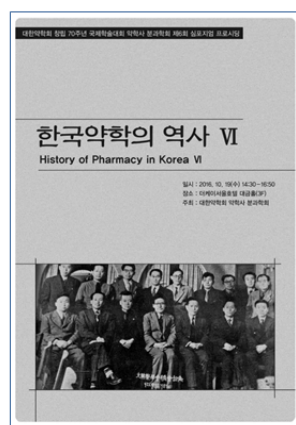
〈제5회 약학사 심포지엄 단체사진(좌)과 프로시딩 표지(우)〉 2016 / 회장 심창구



〈녹암 한구동 교수 흉상(좌)과 제막식 초청장(우)〉
2016 / 회장 심창구

〈‘한국 약학의 아버지 녹암 한구동’ 표지(2016)〉

10월 19일,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약학의 역사VI’이라는 주제로 제6회 약학사분과학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연제는 ‘대한약학회사’(서울대 약대 박정일),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약사 교육사’(연대 의대 박형우), ‘일제강점기 인삼연구의 특질에 대하여’(동경대 이과대 신창건), ‘동아제약의 역사’(동아쏘시오홀딩스 김민영)였다.



〈제6회 약학사 심포지엄 단체사진(좌)과 프로시딩 표지(우)〉 2016 / 회장 심창구

11월에는 서울대 약대에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00년사』를 발간하였는데, 이는 100년사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위원장 심창구)에서 1년여의 편집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00년사」(2017)〉



〈「한국 약학사」 표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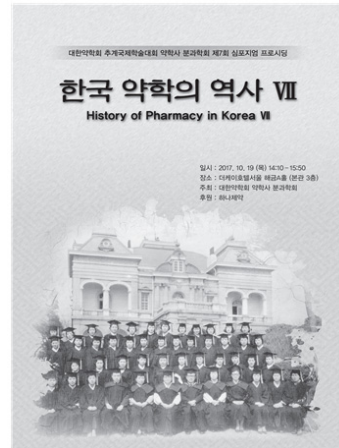
» 2017년

2017년 9월 30일, 약교협 주관으로 진행했던 보고서를 편집, 수정하여 『한국약학사』(약업신문사) 1권을 발간하였다. 비슷한 시기 초판의 오류를 교정, 보완한 『서울대 약대 100년사』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10월 19일,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약학의 역사Ⅶ’이라는 주제로 제7회 약학사분과학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연제는 ‘덕성여대 약대의 역사’(덕성여대 약대 권순경), ‘충북대학교 약대의 역사’(충북대 약대 이명구), ‘내가 본 성대 약대생들의 4·19 혁명 참여’(성대 약대 장우성),

‘예술 속의 약학’(강원대 약대 허문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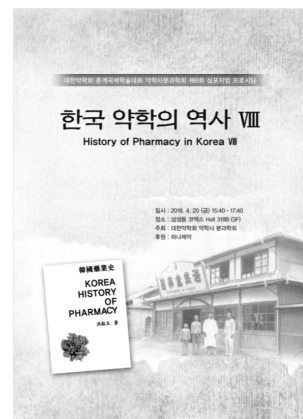
11월 6일, 서울대 약대 약학역사관 주최로 의약품 개발의 역사를 조명하여 구성한 ‘우봉약학전 시관’ 개관식이 개최되었다.



〈제7회 약학사 심포지엄 단체사진(좌)과 프로시딩 표지(우)〉 2017 / 회장 심창구

» 2018년

2018년 4월 20일,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약학의 역사VIII’이라는 주제로 제8회 약학사분과학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연제는 ‘북한의 약학교육과 약사제도’(전 함홍약대 박태춘), ‘약인(藥人) 이을호’(충북대 이영남), ‘한국약학사 관련 문헌 소개’(서울대 약대 김진웅)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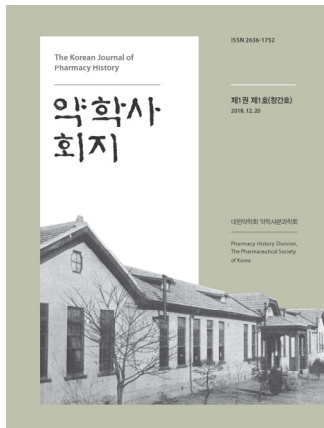
〈제8회 약학사 심포지엄 단체사진(좌)과 프로시딩 표지(우)〉 2018 / 회장 심창구

11월 6일에는 서울대 약대와 공동으로 우봉약학전시관 개관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인 ‘한국약학의 역사IX’를 개최하였는데, 연제는 ‘우봉약학전시관의 1년’(약학역사관장 박정일),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기관의 역사’(서울대 약대 손여원), ‘코르티손의 역사와 개발 주역들’(서울대 약대 김영식), ‘학생 농촌활동의 역사: 소모임의 활동을 중심으로’(약사공론 신영호·부산대 윤웅찬) 등이었다.



〈제9회 약학사 심포지엄 단체사진(좌)과 프로시딩 표지(우)〉 2018 / 회장 심창구

12월 20일에는, 공식 학술지인 『약학사회지』를 창간하고 제1권 제1호를 발간하였다. 심창구 회장은 창간사에서 “역사학은 과거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학문이 아니라 미래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시대적, 문화적 해석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통찰을 주는 역사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했다. 『약학사회지』 창간호는 이영남 교수의 「약제사 이을호의 활동」을 다룬 원보와 6편의 심포지엄 녹취록(「한국인 최초의 약대 학장, 도봉섭」, 「PEET의 어제와 오늘」, 「덕성여대 약대의 역사」, 「충북대 약대의 역사」, 「내가 본 성대 약대생들의 4·19혁명 참여」, 「북한의 약학교육기관과 약사제도」), 4편의 재록논문(「한국 약사제도의 변천」, 「우리나라 GMP 변천사」, 「약학사분과학회의 창립과 비전」, 「한국 ‘근대 전통의약품’인 <이명래고약>의 역사」)과 회무 및 정보, 정관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회무 및 정보에 ‘약학사분과학회의 창립과 활동상황’, 뉴스레터(1-4호), ‘해외 소식: 제43회 국제 약사학회 참관기’, 약학사 관련도서 발간소식 등을 실었다.



〈『약학사회지』 창간호(2018)〉
표지사진: 한국 최초 정식 약학교육기관인
조선약학교의 신축교사 전경

»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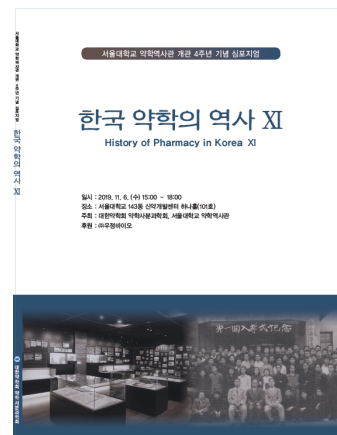
2019년 4월 25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에서 열린 대한약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열 번째 약학사분과학회 심포지엄(‘한국 약학의 역사 X’)을 개최하였는데, 일본 Nihon약대 후나야마 교수의 특별강연 ‘Poisons and medicines of Tempyo Era(729-767) in Japan’에 이어 약업신문 이종운 주간이 ‘약업신문의 역사’를, 우정바이오 천병년 대표가 ‘신약개발의 전임상시험 관련산업의 발전사’ 등을 발표하였고 심포지엄 프로시딩과 『약학사회지』 창간호를 배부하였다.



〈제10회 약학사 심포지엄 단체사진(좌)과 프로시딩 표지(우)〉 2019 / 회장 심창구

11월 6일에는 서울대 신약개발센터(143동)에서 열한 번째 약학사분과학회 심포지엄(‘한국 약학의 역사 XI’)을 개최하였는데, ‘경희의료원 약제본부의 역사’ (김남재 전 경희의료원 약제본부장), ‘서울대병원 약제부 교육의 역사’ (조운숙 서울대병원 약제부장), ‘약대졸업생은 한국의 벤처

캐피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상무/본부장), ‘부산대학교 약학대학의 역사’ (김남득 부산대 약대 교수) 등이 발표되었고 심포지엄 프로시딩과 『약학사회지』 창간호를 배부하였다.



<제11회 약학사 심포지엄 단체사진(좌)과 프로시딩 표지(우)> 2019 / 회장 심창구

12월 20일, 『약학사회지』 제2권 제1호를 발간하였는데, 대한약학회 이용복 회장은 축사에서 “근대 약학의 역사를 미래지향적으로 기술하는 『약학사회지』 제2권의 발간은 대한민국 약학의 뿌리를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약학사분 과학회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천명하였다. 『약학사회지』 2권에는 「송도약학대학(松都藥學大學)의 설립」(이영남·주승재)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소’모임사(史): 학생농촌활동 동아리」(윤용찬·신영호·박정일·송운비) 등 2편의 원보와 심포지엄 녹취록인 「신약개발과 약학대학 연구비의 역사」(정기화)를 실었고, 약학사 관련 도서 및 국내외 약학사 관련 논문 소개 등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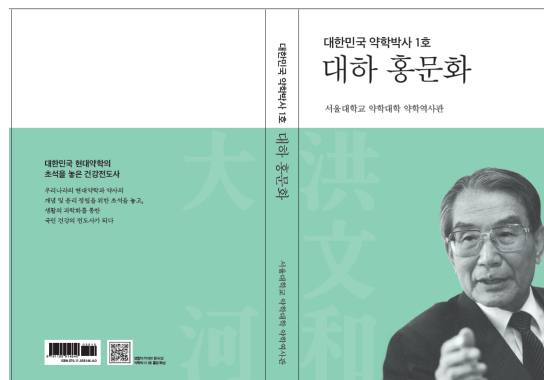


<『약학사회지』 제2권 1호(2019)>
표지사진: 6·25로 인해 개교가 무산된 개성
송도중학교 병설 송도약학대학 교사 전경

» 2020년

COVID-19로 인해 상반기 약학사분과학회 운영위원 회의는 전면 취소되었고 4월에 예정되었던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 약학사분과학회 심포지엄 또한 연기되었다.

3월 9일, 약학사분과학회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역사관과 공동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약학박사인 홍문화 교수의 생애와 유작, 가족과 제자들의 글 등을 모아 편집하여 『대한민국 약학박사 1호 대하 홍문화』를 편찬하였는데, 수집된 강연 녹음자료 중 일부를 QR코드화 하여 생전의 육성을 직접 들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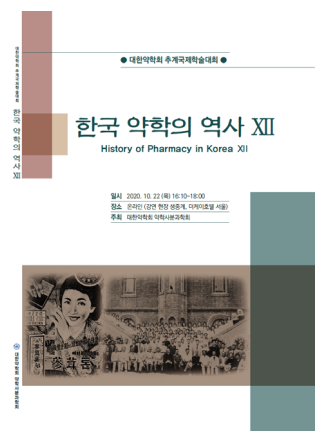
〈『대한민국 약학박사 1호 대하 홍문화』 표지(2020)〉

또한 『약학사회지』 제3권 제1호의 편찬을 6개월 가량 앞당겨 발간하였는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축사에서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내일의 토대”이며 “『약학사회지』가 집대성하는 과거의 역사는 오늘과 내일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되어 약학과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약학사회지』 3권에는 「경희의료원 약제본부의 역사」(김남재)와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본 광복 전후의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박주영·이상국) 등 2편의 원보와 심포지엄 녹취록인 「부산대학교 약학대학의 역사」(김남득)를 실었고, 약학사 관련 도서 및 국내외 약학사 관련 논문 소개 등을 실고 있다.



〈『약학사회지』 제3권 1호(2020)〉
표지사진: 1938년 설립된 경성제국대학 부속 약초원으로 천연물과학연구소의 전신

10월 22일 온라인학술대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열두 번째 약학사 분과학회 심포지엄(‘한국약학의 역사XII’)이 항백년심포지엄으로 개최되었다. 이날은 6개의 주제가 발표되었는데, ‘초창기 보험약가제도 회고’ (서병훈 정문약국 대표), ‘대한민국 의약품코팅제의 발달사’ (김진희 칼라콘코리아 대표), ‘약평원의 설립과 연혁’ (박영인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원장), ‘1950년대 여성과 약품광고’ (이영남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효성여대-대구가톨릭대 약대의 역사’ (우미희 대구가톨릭대 약대 교수), ‘약학대학 학제개편 추진경과와 약학전문인 양성을 위한 통합 6년제 교육과정 준비’ (한균희 연세대 약대 교수) 등이며, 심포지엄 프로시딩을 소량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제12회 약학사 온라인 심포지엄 단체사진(좌)과 프로시딩 표지(우)〉 2020 / 회장 심창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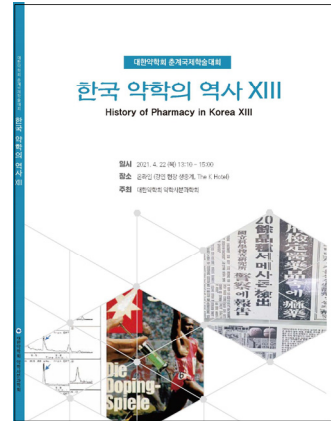
» 2021년

2021년 3월 2일 약학사분과학회는 『약학사회지』 제4권 제1호를 발간하였는데, 한국약학교육협회의 손동환 이사장은 축하사에서 “약학 분야의 원로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근대 약학의 역사를 기술하는 『약학사회지』 제4권의 발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약학사분과학회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천명하였다. 『약학사회지』 4권에는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의의(意義)와 발전방향 및 병원임상약학의 발전과정」(이영희),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업무와 교육의 역사」(조운숙·백진희·최나이·김영애·송수정)와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진출한 일본인 약업자의 판매활동」(손일선) 등 3편의 원보와 심포지엄 녹취록인 「효성여대-대구가톨릭대 약학대학의 역사」(김태환·마은숙·우미희) 및 송도약학대학 입학예정자 3인의 인터뷰를 실었으며, 약학사분과학회 약제 원로 구술사 정리 사업 첫 번째로, 손동환 중앙대학교 1회 졸업생 및 명예교수의 ‘월남과 약학인생’을 실었다.



〈『약학사회지』 제4권 1호 (2021)〉
표지사진: 개교 당시의 대명동캠퍼스에서
효성여대-대구가톨릭대 약대 1회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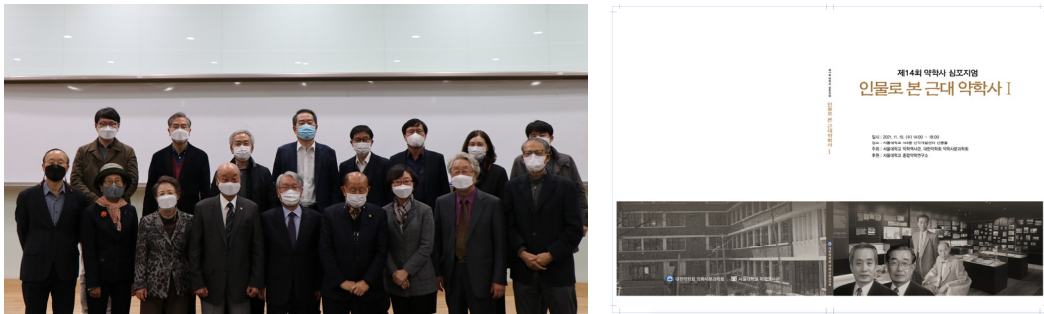
4월 22일에는 작년에 이어 온라인학술대회로 개최된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열세 번째 약학사분과학회 심포지엄(‘한국약학의 역사 XIII’)이 개최되었다. 이날은 3개의 주제가 발표되었는데, ‘KIST 도핑콘트롤센터 역사: ‘88올림픽과 ‘18평창올림픽을 돌아보며’ (권오승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콘트롤센터 책임연구원), ‘의약품의 관점에서 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사’ (강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자문위원), ‘과학수사와 함께 한 약학’ (정희선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와 석좌교수) 등이며, 심포지엄 프로시딩을 소량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제13회 약학사 온라인 심포지엄 단체사진(좌)과 프로시딩 표지(우)〉 2021 / 회장 심창구

7월 23일과 11월 3일, 두 차례의 약학사분과학회 운영위원회회의가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되었고 약학사 심포지엄과 『약학사회지』 5권 관련하여 토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대한약학회 창립75주년 기념사업인 『한국 약학의 뿌리 : 약계 원로 구술(회고)사』 발간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11월 10일에는 서울대 신약개발센터(143동)에서 서울대 약학역사관과 공동 주최로 열네 번째 약학사 심포지엄(‘인물로 본 근대약학사 I’)을 개최하였는데,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모두 49명이 참석하였다. 연제는 ‘인물로 본 근대약학사’ (심창구 약학사분과학회 회장), ‘천연물화학 연구의 개척자 - 우린근 교수’ (이은방 서울대 명예교수), ‘생약과 더불어 반세기 - 이선주 교수’ (김진웅 서울대 명예교수), ‘집념의 세월 - 후보 한병훈의 생애’ (박정일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었으며 심포지엄 프로시딩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전사(前史)』(서울대 약학역사관·서울대 약대 동창회, 2021)를 배부하였다. ‘전사’는 약학대학이 1915년 조선약학강습소 시절부터 경성약학전문학교와 (사립)서울약학대학을 거쳐 1950년 국립서울대학교에 편입되기까지의 역사를 말하며, 이 시기의 인물들이 우리나라 약학대학의 설립과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전사는 약학대학 공동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제14회 약학사 심포지엄(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 단체사진(좌)과 프로시딩 표지(우)〉
2021 / 회장 심창구

3. 현재 임원 및 회원 현황

3-1. 임원 현황

직위	성함	소속
회장	심창구	서울대 명예교수
부회장	박정일	서울대 명예교수
	김진웅	서울대 명예교수
총무	김진웅	서울대 명예교수
재무	조동환	헬스컨슈머
학술	백승만	경상대
	손여원	서울대
	한균희	연세대
편집	주승재	서울대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서울대 명예교수

직위	성함	소속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주승재	서울대
편집위원회	김민지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학
	김지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진웅	서울대 명예교수
	박정일	서울대 명예교수
	손여원	서울대
	심창구	서울대 명예교수
운영위원회	김남재	경희대
	김안근	숙명여대 명예교수
	김영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인규	(전)경인지방식약청
	김진웅	서울대 명예교수
	도원	다원메딕스
	박은석	성균관대
	박정일	서울대 명예교수
	백승만	경상대
	서병준	(전)약사공론
	손여원	서울대
	손의동	중앙대
	신영호	(전)약사공론
	심창구	서울대 명예교수
	이봉진	서울대
	이영남	충북대 명예교수
	이은방	서울대 명예교수
	이재현	성균관대
	정기화	덕성여대 명예교수
	정재훈	삼육대
	조동환	헬스컨슈머
	주승재	서울대
	한균희	연세대
자문위원회	김낙두	서울대 명예교수
	김병각	서울대 명예교수
	김종국	서울대 명예교수
	노환성	(전)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박만기	서울대 명예교수
	백우현	KPDA
	윤재순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강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금기	일동후디스

직위	성함	소속
자문위원회	이민화	서울대 명예교수
	이상섭	서울대 명예교수
	이은방	서울대 명예교수
	이인란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진환	조선대 명예교수
	주경식	(전)보건복지부
	지형준	서울대 명예교수
	허근	영남대 명예교수
	허인회	중앙대 명예교수

3-2. 정회원 현황

김경례(성균관대), 김귀숙(서울대학교병원), 김규원(서울대), 김낙두(서울대), 김남득(부산대), 김남재(전 경희의료원), 김대경(중앙대), 김봉희(충남대), 김안근(숙명여대), 김영식(서울대), 김영중(서울대), 김인규(전 식약처), 김인철(전 LG 생명과학), 김종국(서울대), 김진기(한양대), 김진웅(서울대), 김희두(숙명여대), 나도선(울산대), 도원(사노피), 문애리(덕성여대), 박만기(서울대), 박영인(고려대), 박은석(성균관대), 박일영(충북대), 박정숙(충남대), 박정일(서울대), 박진우(목포대), 박혜영(이화여대), 백승만(경상대), 서은경(이화여대), 손여원(서울대), 손우성(차의과대), 손일선(동경대), 손의동(중앙대), 송호선(특허청), 신승원(덕성여대), 심창구(서울대), 양기숙(숙명여대), 염정록(중앙대), 오세관(이화여대), 우미희(대구가톨릭대), 원희목(제약바이오협회), 유충규(이화여대), 윤혜숙(서울대), 이명구(충북대), 이범진(아주대), 이봉진(서울대), 이상국(서울대), 이석용(성균관대), 이숙연(삼육대), 이영남(충북대), 이윤석(경상대), 이은방(서울대), 이재현(성균관대), 이종운(약업신문사), 이진환(조선대), 장윤이(국가기록원), 전인구(동덕여대), 정기화(덕성여대), 정용자(경성대), 정재훈(삼육대), 조동환(약사공론), 주승재(서울대), 지형준(서울대), 한균희(연세대), 황성주(연세대)

4. 주요 학술 및 교육활동사항

» 주요 학술활동

약학사분과학회는 2014년 4월 18일, <한국약학의 역사(History of Pharmacy in Korea)>라는 광범위한 주제로 창립기념심포지엄을 더케이 서울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후 약학사 분과학회는 <한국약학의 역사>라는 주제 아래 근현대 약제 발전에 관한 다양한 소주제를 결정하고, 정리하여 발표하고 있다. 2021년 10월 현재 14번의 정기심포지엄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정기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중요주제는 2018년 창간한 본 분과학회 학술지인 『약학사회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약학사 연구에 필요성을 느끼는 약계 인사들을 운영위원으로 초빙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위원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회의에서는 주로 분과학회 운영의 중요사항과 심포지엄의 주제와 연자를 결정하고 있다.

그 밖에 타 기관과 공동 주최하여 약학사적 의미가 있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5년 6월 12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이봉진)과 공동주최하여 <한국 근대약학교육기관 설립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한국 약학교육 100년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6년 6월 9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과 공동주최하여 <녹암 한구동 교수의 생애와 업적>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한국약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한구동 교수의 기념사업에 동참하였다. 또한 2015년,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약학 100년’을 기념하는 작은 전시를 <사진과 자료로 보는 한국 약학 100년>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이후 2018년과 2019년, 그리고 2021년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역사관과 공동으로 제9회, 11회, 14회 약학사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제14회 약학사 심포지엄에서는 근대 약학 100여 년의 역사에서 발자취를 남긴 인물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약학사분과학회는 연말에 활동을 보고하고 차기 학회년도 계획 등을 알림과 동시에 약학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약학사분과학회 뉴스레터(History of Pharmacy NEWSLETTER)』를 발간하고 있으며, 약학사분과학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

»비전과 연구방향

앞으로 약학사 분과학회는 우리나라 근현대 약학사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하는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둘 전망이다. 삼국시대나 고려, 조선 시대와 같은 오랜 옛날의 약학 약업에 대한 연구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후세를 위해 격변하고 있는 근·현대 약학사를 충실히 기록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학사 분과학회가 연구해야 할 과제 중 시급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당면 연구 과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 근현대 약학교육의 시발점 연구

1년제 조선약학강습소가 설립된 1915년을 우리나라의 근현대 약학교육의 시발점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정식 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전부터 제중원(濟衆院)의 후신인 대한의원(大韓醫院)이나 세브란스 병원 같은 곳에서는 자체 약사 업무를 위하여 내부 직원에게 근현대 약학교육을 실시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예컨대 독립지사 이갑성옹은 자신의 부통령 입후보 선거 벽보에 자신이 1914년 세브란스 약학과를 졸업하였다고 쓰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신설된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은 2011년 11월 개교 기념 심포지엄을 열면서 ‘100년의 기다림’이라는 표어를 사용하였다.

한편, 동화약품의 초대사장인 애국지사 민강 선생의 묘비에는 1906년 약업계 중진들과 협력하여 조선약학교를 창립하였다는 비명이 쓰여 있다. 이는 친일파 거물인 조중응 교장으로 시작된 조선약학교의 설립연도 1918년보다 무려 12년이나 앞서는 일이다. 그러나 민강 선생의 묘비명을 입증할만한 자료는 따로 발견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사실 민강 선생은 독립운동가이면서 소의학교라는 학교재단을 세우는 등 교육 사업에도 관심이 높은 분이었던 사실로 미루어볼 때 민강선생이 약학교 설립에 기여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 이렇듯 우리나라 근대약학교육의 시발점에 대한 사료의 수집과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약계 인물 100인사 구술 정리

시급한 연구과제 중 하나는 약학계 및 약업계 등 약계 원로들로부터 초창기 우리나라 약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듣고 기록으로 정리하는 일일 것이다. 애석하게도 적지 않은 원로들께서 자신들의 경험을 기록으로 정리하지 못한 채 작고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들로부터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귀중한 이야기들이 사라진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인터뷰를 통해 원로들의 경험을 녹음한 다음 녹음 내용을 글로 풀고, 이 글을 다시 원로께 교정받는 과정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약 100인 정도의 원로의 경험담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면 이는 후세에 매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물론 인터뷰할 대상의 선정과 구체적인 질문 내용 등에 대해 다소 연구가 필요하나 인터뷰 전후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 마련이 이 연구과제 성패의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약학대학사, 제약회사사, 신약개발사, 제약기술발달사, 약사제도 변천사, 약학교과서의 변천사, 약학 실험실습 기기의 변천사, 의약박물관사, 미국·독일·일본 유학사, 약사회사, 각종 학회사 등을 정리해 낼 수만 있다면, 약학사분과학회는 그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기타 연구과제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모든 약학대학, 제약회사, 학회, 약사회, 정부기관, 연구실, 심지어 개인의 역사에 이르기 까지 약학사 연구의 범주에 드는 과제는 무한히 많다. 오늘날에는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들도 후세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자료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연구되었으면 하는 분야를 추가로 제시하고자 한다.

• 교과서 및 저서

1967년 서울대 약대 1학년생들이 공부한 『정성분석화학』 교과서(서울대 약대 약학역사관 소장)는 당시 가리방이라고 불리는 쇠판 위에 파라핀을 먹인 얇은 푸른색 종이를 올려 놓고 끝이 뾰족한 철필(鐵筆)로 한 자 한 자 손으로 써서 만든 책이다. 철필로 눌러 쓰면 파라핀 종이에 철필 자국을 따라 파라핀이 제거된다. 글씨가 쓰여진 파라핀 종이를 등사판 그물망 밑에 붙여 놓고 등사용 잉크를 묻힌 롤러로 그물망 위를 눌러 밀면, 파라핀이 제거된 부위를 따라 잉크가 밑으로 내려가 밑에 있던 종이에 까만 글씨가 나타나게 된다. 당시 다른 교과서는 전부 활판 인쇄된 것이었

으나 정성분석화학 교과서만은 가리방 글씨로 인쇄되었었다. 감탄스러운 것은 철판로 쓴 글씨가 미려하였고 등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활판 인쇄된 책들보다 이 철판 글씨 책이 더 학생들의 사랑을 받았었다. 이 책을 예로 들었지만, 이 책 이외에도 수많은 과거의 교과서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유실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근현대 약학교과서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 분석기기 및 기계

1960년대 서울대 약대에서 1-2학년 정성분석 화학실습, 정량분석화학 실습 및 대학원생 연구실에서 사용되던 화학천칭 또한 서울대 약대 약학역사관에 전시 중이다. 이 천칭은 일본 시마즈 제작소가 만든 것이었다. 당시 실습시간에는 저울을 이용하여 미량을 칭량하는 방법을 철저히 교육하였다. 후에 오늘날과 같은 전자저울로 바뀌면서 화학천칭은 현장에서 사라지게 되었지만, 일본 시마즈사가 만든 저울이 어떤 경로로 서울대 약대 실습실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조사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60년대에 첨단 기기라고 뽐내던 UV Spectrophotometer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기기분석에 사용된 분석기기의 역사 및 변천사 정리에 서울대 박만기 명예교수님을 비롯한 기기분석 전공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5. 맺음말

2014년 4월 17일에 역사적인 약학사분과학회가 설립되었지만, 이 분과학회는 회원으로 등록한 분만이 아니라 약학사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이 회원이라고 생각한다. 당장은 사소해 보이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큰 의미를 갖게 되는 역사나 물건들이 주위에 적지 않다. 그래서 약학사 분과학회는 당분간 거창한 과거의 ‘역사’에 대한 연구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착실히 기록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 분야의 일들을 정리해서 ‘약학사 포럼 (가칭)’에서 발표하거나 논문으로 『약학회지』 등에 투고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원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약계가 더 이상 자신의 역사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내년으로 창립 60주년을 맞는 ‘일본약사학회(日本藥史學會)’의 눈부신 활약을 언제까지나 부러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아무쪼록 범 약계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 약학사가 차근차근 축적, 정리, 해석됨으로써, 대한민국 약계의 품위가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본다.

2021 약학사 분과학회 회장 심창구

20

예방약학 분과학회



1. 학회 개요

예방약학분과학회(이하 예방분과)의 출범은 위생시험법 위주의 위생화학 교과서가 최초로 출간된 1969년이라 할 수 있는데 기록상으로는 1970년 권상표 교수가 분과회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당시의 활동상황이나 회원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해 오고 있지 않다. 1972년 일본 동경대학교 의학부 약학과를 졸업하시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부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하신 권숙표 교수님이 분과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나라 위생화학의 태동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권숙표 교수님은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를 설립하시고 1981년 건국 이래 환경분야 최초로 국민훈장(모란장)을 수훈하시는 등 우리나라 환경연구의 태동기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성균관대학교 홍사욱 교수님, 이화여대 윤혜정 교수님, 원광대학교 안영근 교수님, 영남대학교 정규찬 교수님, 중앙대학교 손동헌 교수님, 경성대학교 이종철 교수님을 거쳐 1995년 서울대학교 문창규 교수님, 1997년 정기화 교수님으로 이어지는 예방분과의 계보가 형성된다.



〈The 24th symposium on toxicology and environmental health(일본 오사카)〉 1998 / 회장 윤수홍

예방분과는 사회발전과 변화에 부응하여 교과서와 교과목의 내용과 명칭에 전환이 있어왔다. 1995년 질병예방의 관점에서 환경 및 식품위생부분을 보완 정리하고 환경물질의 독성과 건강영향 및 영양과 질병과의 상관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위생약학으로 개칭하였으며, 2002년에는 오늘의 예방약학으로 개편하면서 의약분업이후 국민 보건증진에 관한 약사의 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관련 내용을 보강하였다. 수명연장과 함께 삶의 질이 중요해진 오늘날에는 보건의료의 개념이 질병의 진단과 치료보다는 예방과 건강증진의 강화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약학교육이 종래의 물질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변화·발전해 가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에는 약대 6년제 학제개편에 맞추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표준교육내용을 담은 교재로 발전하였다. 이는 환경 및 식품 경로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인자의 특성을 습득하고, 안전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위해성평가 및 관리에 관한 학문적 배경을 교육하고 있다.

우리 예방약학 분과는 현재 43명의 교수가 각 대학의 교과과정에 따라, 예방약학, 독성학, 건강 기능식품, 공중보건학 등의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약사배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방약학은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지식을 탐구하고 교육 및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그 기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첫째, 인간의 생명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 및 식품 위생학적 위해요인을 분석하고 건강과의 인과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둘째, 건강위해에 관계된 문제점을 제기하고 환경 및 식품 유래 건강위해요인들이 인간의 건강 및 생명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셋째, 이를 통해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게 한다.

2. 학회 역사

2-1. 연도별 임원 현황표

연도	회장	소속	주요임원
1970-1976	권숙표	연세대 의대	
1977-1978	권숙표	연세대 의대	부회장: 홍사욱, 노경배 간사: 정용, 박재주, 박대성 편집위원: 문창규
1979-1980	권숙표	연세대 의대	부회장: 홍사욱, 노경배 감사: 박대성, 박재주 편집위원: 정용
1981-1982	권숙표	연세대 의대	부회장: 홍사욱, 노경배 감사: 박대성, 박재주 간사: 정용
1983-1985	홍사욱	성균관대	총무: 정기화

연도	회장	소속	주요임원
1986	윤혜정	이화여대	
1987-1988	안영근	원광대	
1989-1990	정규찬	영남대	
1991-1992	손동헌	중앙대	
1993-1994	이종철	경성대	
1995-1996	문창규	서울대	
1997	정기화	덕성여대	총무: 신윤용
1998-1999	윤수홍	대구가톨릭대	
2000-2002	최병기	동덕여대	
2003-2004	김봉희	충남대	총무: 이병훈
2005-2006	허문영	강원대	총무: 정혜광(2006)
2007	윤여표	충북대	총무: 정태천
2007-2008	김영철	서울대	총무: 정태천
2009-2010	정세영	경희대	총무: 김형식(2010)
2011-2012	신윤용	이화여대	총무: 김형식(2011), 박광식(2012)
2013-2014	김대경	중앙대	총무: 김상겸(2013), 양미희(2014)
2015	정규혁	성균관대	총무: 김성연, 이무열
2016-2017	이병훈	서울대	총무: 창동신, 김영미 학술위원회: 배지현 편집위원회: 이주영
2018-2019	정혜광	충남대	총무: 기성환, 배지현 학술위원회: 배지현 편집위원회: 이주영
2020	정태천	영남대	총무: 천경수, 배옥남 학술위원회: 이주영
2021	박광식	동덕여대	감사: 정혜광 총무: 이상규 학술위원회: 김규봉 약사국가시험위원회: 이무열 교재개발위원회: 정태천

3. 현재 임원 및 회원 현황

3-1. 임원 현황

직위	성함	소속
회장	박광식	동덕여대
감사	정혜광	충남대
총무간사	이상규	경북대
학술간사	김규봉	단국대
약사국가시험위원회 위원장	이무열	동국대
교재개발위원회 위원장	정태천	영남대

3-2. 정회원 현황

김환목(가천대), 오승현(가천대), 이주영(가톨릭대), 김근영(강원대), 이상규(경북대), 이창섭(경상대), 박용주(경성대), 정세영(경희대), 천경수(계명대), 김규봉(단국대), 김하룡(대구가톨릭대), 김영미(덕성여대), 정주희(덕성여대), 이무열(동국대), 박광식(동덕여대), 이은영(목포대), 정영석(부산대), 최성숙(삼육대), 이병훈(서울대), 창동신(서울대), 정규혁(성균관대), 김형식(성균관대), 양미희(숙명여대), 김태현(숙명여대), 박애경(순천대), 전상민(아주대), 민도식(연세대), 정태천(영남대), 채병숙(우석대), 김성연(원광대), 임정민(이화여대), 서원효(이화여대), 김연정(인제대), 조영창(전남대), 기성환(조선대), 권도영(제주대), 배지현(중앙대), 김은희(차의과대), 정혜광(충남대), 김상겸(충남대), 유환수(충북대), 노윤석(충북대), 배옥남(한양대)

3-3. 은퇴회원 현황

박영자(고려대), 정기화(덕성여대), 김영철(서울대), 정진호(서울대), 표명운(숙명여대), 문창규(아주대), 신태용(우석대), 신운용(이화여대), 임동구(전남대), 김대경(중앙대), 김봉희(충남대), 윤여표(충북대)

4. 주요 학술 및 교육활동사항

» 연구 및 학술활동

• 예방약학분과학회 하계워크숍

예방분과는 매년 1학기가 종료된 직후 하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특색있는 지역 명소 지역에서 개최되며, 매년 분과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예방약학 교과서 제정, 약학교육 통합 6년제에 필요한 교육과정 수립, 약사국가고시 대비 등 매년 분과학회의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회가 된다. 아울러 워크숍 기간 중 독립기념관, 국립생물자원관 및 국립생태원, 오죽헌 및 수덕사 등 국내 명소를 방문하며, 학술적 교류와 함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체험한다. 또한 현재 활동 중인 회원뿐만 아니라 은퇴회원도 워크숍에 참가하여 분과 내 친구 세대를 아우르는 만남의 장이 되고 있다.



〈1990년대 분과학회 기념사진(지리산)〉



〈하계워크숍(경남 거제)〉 2012 / 회장 신운용



〈하계워크숍 (설악산)〉 2016 / 회장 이병훈



〈하계워크숍 (속초 델피노)〉 2017 / 회장 이병훈



〈하계워크숍 (전남 여수)〉 2018 / 회장 정해광



〈하계워크숍 (충남 예산)〉 2019 / 회장 정해광

• 한·일 예방약학분과 교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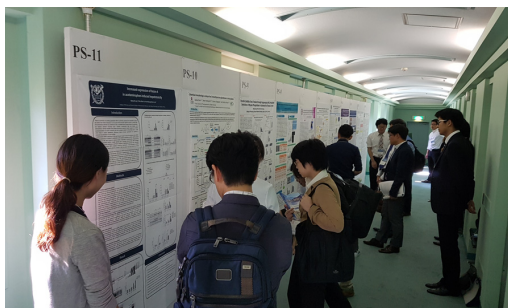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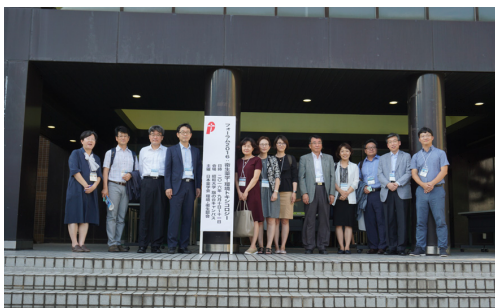
예방분과는 1998년 이후 매년 일본위생약학·환경독성분과(Japan Parmaceutical Helth Science·Environmental Toxicology)와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일본에서 개최되는 Forum Pharmaceutical Health Sciences and Environmental Toxicology에 많은 교수 및 지도학생

들이 참석하고 있다. 교류 초기 정세영 교수의 노력에 힘입어, 1998년 문창규 교수의 포럼에서 구두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1-2명의 예방약학 회원이 일본 측의 초청으로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단순 초청에서 벗어나 양국 약학회 예방분과 소속 신진연구자로 구성되는 한일 공동 심포지엄 (Korea · Japan Joint Symposium)이 신설되며 교류가 본격화되었다. 세션은 양측 각 2인의 연자로 구성되었으며 한일 예방약학 분과 대표 신진연구자들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현재(-2019년)까지 12명의 예방약학 분과 소속 교수들이 일본포럼에서 학술강연을 진행하였다. 매년 기조강연자 1명 및 신진연구자 2명이 일본 측의 초청으로 포럼에서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분과에서도 일본 측 연구자를 대한약학회 예방분과 세션의 연자로 매년 2명씩을 초청하여 교류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한일 대학원생들의 교류를 위해 ‘한일공동 포스터’ 세션이 신설되었으며, 한일공동 포스터 세션에서는 양 국가에서 선발된 10여 명의 학생들이 포스터를 영어로 구두발표하고, 이를 상대국 교수들의 심사를 통해 우수 포스터를 선발하고 시상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포럼 리셉션에 초대되어 시상과 함께 일본학생들과의 교류 기회를 갖고 있다. 2020년은 안타깝게도 COVID-19로 인해 일본 방문이 취소되었고, 2021년에는 COVID-19가 지속되었지만 ‘온라인 한일공동 포스터 세션’으로 전환하여 양국 학생들의 교류를 지속하였다. 특히 한일 교류를 위해 일본 Tohoku Medical and Pharmaceutical University에 재직 중인 황기옥 교수의 십여년간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최근 분과회의 합류한 젊은 교수들의 적극적 참여로 분과회의 국제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길 기대한다.



〈일본위생약학 · 환경독성분과 주최 포럼 (일본 후쿠오카)〉 2013 / 회장 김대경



〈일본위생약학·환경독성분과 주최 포럼 (일본 도쿄)〉 2016 / 회장 이병훈



〈일본위생약학·환경독성분과 주최 포럼 (일본 센다이)〉 2017 / 회장 이병훈



〈일본위생약학·환경독성분과 주최 포럼 (일본 사세보)〉 2018 / 회장 정혜광

5. 주요 인사 동정

» 김대경 교수



김대경 교수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1983년 약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동대학원에서 1986년 약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일본 University of Tokyo에서 1990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0년 포항공과대학 생명과학과에 전임강사로 부임하였고, 1991년부터 1994년까지 Harvard Medical School MGH 연구원으로 연구에 매진하며, 미국심장학회(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 박사후연구원에게 수여하는 Paul Dudley Fellowship 상을 수상하였다. 미국 1994년 9월부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였고, 2020년 8월 정년퇴임 하였다. 학내 보직으로 2006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중앙대학교 분자조절신약개발연구소장을 2009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약학대학 학장 겸 의약식품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대외적으로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한국약학대학 학장협의회 회장 및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약학대학의 6년제 전환과 초기 제도 정착에 많은 기여하였다. 김대경 교수는 약학분야를 넘어 지식경제부 차세대 신기술 개발단장(2001-2010),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 생명공학백서 편찬위원회 위원장(2013-2014), (사)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2015-2016), (재)의약품정책연구소 상임이사(2015-2017)등 다양한 대외 활동으로 국내 과학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2018년 11월 (주)하플 사이언스의 대표로서 새로운 길을 걸고 있으며, 그동안 대한민국 인물대상(약학부문)(2014), 제50회 동암 약의 상(약학부문)(2013), 중앙대 연구상(제2010-498호, 총장 및 이사장)(2010),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신약개발 유공자 표창(2011), 의학신문사 의약평론가상(2011), 제66주년 경찰의날 대한민국 경찰청장 표창(2011), 헤럴드경제 선정 2008년 ECONOMY KOREA 상(미래성장동력 산업 우수사업단 부문)(2008), 뉴스피플지 선정 2008 대한민국혁신경영인 대상 단백질의약품 부문(2008)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다.

» 문창규 교수



문창규 교수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학사/석사를 마치고 유급조교로 재직 중 독일 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Münster로 유학하여 약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귀국 후 2005년 정년퇴임 시까지 총 38년간 서울대학교 교수로 봉직하였다. 서울대학교 재직 중에는 약학교육연수원장, 약학대학 교무학장보, 학장, 서울대학교 연구위원과 평의원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대한약학회와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의 학회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학회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학장 재임 시에는 예산확보를 통해 국내 최초로 대학 캠퍼스 내에 제약실습동을 건립하였고, 이는 현재 산업약학 실무실습교육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대한약학회장 재임 시에는 국,영문 학술지의 DB를 구축하였고, 영문학술지인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를 Index Medicus/Medline에 등록하였고 학회지 검색 전용 Web site도 개설하여 Agricultural Library of USDA 산하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Center와 NIH의 Office of Dietary Spplement가 공동 개발한 DB에 등록함으로써 현재의 SCI 등재 학술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문창규 교수는 약학계에서 교육연한 연장이 논의되던 초기부터 학제개편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선진약학교육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특히 한국약학대학협의회 회장 시절에는 약학대학 학제개편과 약사한약조제권에 관련된 ‘한약분쟁’을 타개하는데 선도적으로 기여하였다. 대학정년 즈음해서는 “약학대학 학제개편을 위한 다학제적 교육 정책연구”에 참여하여 약대 6년제 개편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약학대학 6년제 도입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밖에도 의약분업 시에는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추진협의회 위원, 한의,약관련 발전협의회 위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의료제도 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제수준의 약사업무 영역의 확보를 위한 약계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였다. 서울대학교 정년퇴임 후에는 아주대학교의 약학대학 유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초대학장을 역임하였다. 학장 재임 중에는 국내 최초이며 유일하게 아주대학교 병원에 임상약학교육실을 약제부와는 별도 조직으로 설치케 함으로써 임상약학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윤여표 교수



윤여표 교수는 충북대 약학대학 명예교수로서 대전대 총장(2021.03-현재)으로 재직하고 있다. 윤여표 교수는 1980년 2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1986년 2월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6년 3월 충북대학교 약학과 교수로 발령을 받은 이후 2021년 2월까지 35년간 약학교육 및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1988년 9월부터 1990년 2월까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visiting fellow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학내 보직으로서 약품자원개발연구소장(2004.01-2006.01)과 충북대학교 총장(2014.08-2018.08)을 역임하였으며, 총장 재직시 제2 도서관 건립을 포함한 학내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대외적으로 대한약학회 부회장 및 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을 맡아서 학회 발전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2008.03-2010.04)과 초대 오송첨단진흥재단 이사장(2011-2014년) 재직 시에는 식품 안전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었고,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국과학기술연합회단체 총연합회로부터 과학기술우수논문상(2002) 및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황조근정훈장(2012)을 수상하였다.

정규혁 교수



정규혁 교수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서 재직하고 있다. 정규혁 교수는 1981년 2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1989년 8월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0년 1월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연구관으로 재직하였고 1992년 11월 미국 Louisiana 주립대에 파견 가서 1995년 2월까지 Research Associate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1995년 3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에 부임한 이후 학내 보직으로서 학부장 겸 임상약학대학원장(2006-2008년), 학장(2011-2018년), BK21 신약개발창의인재사업단 단장(2013-2019년), 대학원장(2019-2021년) 등을 역임하면서 약학관 신축과 세계 50위권 진입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다. 대외적으로 약대 6년제 표준교육과정 개발의 연구책임자(2007-2010년)로서 2+4년제 학제 개편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이후 (사)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2016-2018년)과 (재)한국약학교육평가원 이사장(2018년-현재)을 맡아서 통합 6년제 전환과 약학 교육 평가인증과 관련한 고등교육법과 약사법의 개정 및 시행에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가슴기 살균제 사고 이후 환경부 독성분야 전문가(2011-2020년)로서 피해규명에도 기여하였다. 그 외에 환경독성보건학회 회장, 대한약학회 사무총장, 한국법과학회 부회장, 한국환경한림원 정회원,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등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환경부장관 표창(2004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2009), 이선규약학상(2004),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2005), 대한약학회 약학교육상(2014), 의학신문사 약사평론가(2020)를 수상하였다.

정기화 교수



정기화 교수는 덕성여대 약학대학 명예교수(2011.9.1-현재)로서 1969년 덕성여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1971년 약학석사(서울대), 1980년 약학박사(경희대) 학위를 취득하였다. 덕성여대 졸업생 중 제1호 박사학위 소지자로 1976년 모교에 교수로 부임한 이래 미국 뉴저지주립대학, 일리노이대학, 일본 오사카대학, 생체과학연구소 등에서 수년간 연구 생활을 거치고 40년간 교육과 연구 그리고 후학 양성에 전념하여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여성이 극소수였던 시절에 약학자로 활동을 시작한 정기화 교수는 약학 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사회활동을 통해 여성지도자로서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고, 후속 세대 여성 약학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학내 보직으로, 학장, 학생처장, 기획실장, 종합개혁발전처장, 대학신문 주간 등 본부 주요 보직과 대학평가위원장, 교육개혁추진위원장 등으로 참여하여 교육과 연구 및 대학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덕성 역사에 큰 업적을 남겼다. 학회 활동으로 예방약학분과회 회장(1995-1997년), 한국응용약물학회 회장(2002.01-2002.12), 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2003-2004년), 한국환경독성학회 회장(2004-2005년)을 역임하여, 국내외 학술교류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학회 활동을 선도했다. 특히 한국응용약물학회, 환경독성

학회, 식품위생학회에서 모두 최초의 여성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환경 독성학회가 환경보건학, 예방 의학, 환경 생물학, 환경 화학 등을 망라하는 다 학제적인 학회의 모습을 갖추는데 기여하였다. 예방약학 분야에서는, 위생화학에서 위생약학 그리고 오늘의 예방약학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산증 인이시며 6년제 약학교육의 패러다임이 다시 구성되는 중에 예방약학분야의 중요성을 확고히 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등의 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활약하면서 해박한 지식과 경륜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봉사하였으며 한국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약사시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약사의 전문지식의 수월성 향상, 국가시험 제도 및 문항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하였다. 그 밖에 규제개혁 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약사회 위원, 유네스코 서울협회 부회장, 통일준비여성지도자회 회장, 의약품평가회 부회장, 남서울타리클럽 부 회장, 모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동창회장과 고문으로 활동해 왔다. 이와 같이 정기화 교수는 국가 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를 통해 약계와 국가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어 의학신문과 중외제약이 선정하는 약사평론가상(1994), 학술상, 약학교육상, 국민훈장 홍조근정훈 장, 약사금탑상 등을 수상하였다.

» 정세영 교수



정세영 교수는 경희대 약학대학 교수로서 1980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1982년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7년 일본 동경 대학교에서 위생화학 전공으로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1988년부터 현재까지 경희대 약학대학 교수로 약학교육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특히 약학회 내 대표적인 국제교류의 모범사례인 한일 약학회의 예방약학 분과 간 교류를 시작한 공로자이다. 학내 보직으로서 경희대 약학대학 학장 (2005.12-2007.12)을 역임하였다. 대외적으로 2010년 한국응용약물학회회 장 및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대한약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약학회 발전을 이끌었으며, FIP 서울총회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FIP 유치에 성공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원장으로 약학대학 인증제도 정착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 정세영 교수는 국내 보건 행정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다년간 활동하였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 (2013-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에서 전문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까지 SCI등재지에 97편, 국내학술지 69편을 수록하였으며, 20여권의 저서를 출판하였다. 오랜 기간 사회적 봉사활동에 대한 공로로 대한약학회 약학교육 상(2013), 대한약사회 약사금탑상(2014), 대통령표창(2019)을 수상하였다.

» 정진호 교수



정진호 교수는 1978년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1980년에 동대학원에서 약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도미하여 1987년 미국 Johns Hopkins 대학에서 독성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8년부터 2020년 까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근무하며 약학교육과 연구에 헌신하였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2019년-현재) 및 과기정통부 국민생활과학자문단 단장(2018년-현재)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재직 중 환경안전원 원장(2008-2011년), 약학대학 학장 및 종합약학연구소 소장(2011-2013년), 서울대학교대학원 총동창회 부회장(2014-2020년)을 역임하였다. 정진호 교수는 대외적으로 약학 및 독성학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사)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으로서 약학대학 6년제 교육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2007-2008년)와 한국독성학회 및 한국발암성·변이원성학회(2009-2010년)의 회장을 역임하며 한국독성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제적으로 세계독성학회(ICT) 준비위원장(2006-2011년)으로 2013 제13회 세계독성학회 (ICT 2013, 서울)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었으며, 아시아 독성학회(2010-2012년)에서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관리 추진기획단 단장(2004-2005년)을 비롯하여 국조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심의위원(2011-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심의위원회 위원장(2007-2009년), 환경부 가슴기살균제 피해보상위원회 심의위원(2018년-현재) 등, 국내 보건 행정과 국가 안전관리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대내외적인 주요 수상 실적으로는 미국독성학회 (SOT) AstraZeneca Award (2008), 식품안전 정부 근정포장(2010), 및 세계독성학회 개막 Deichmann Lecture Award 수상(2013),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학술대상(2015), 주중광 렉처십 어워드 수상 (2016), 과학기술훈장 진보장(2021)을 받은 바 있다. 끝으로 대중과의 과학소통을 위하여 ‘위대하고 위험한 약 이야기 (질병과 맞서 싸워온 인류의 열망과 과학)’의 대중교양도서를 2017년 집필하여 현재까지 15권이 발간되었으며 대중에게 약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 고 허문영 교수



고 허문영 교수(1954-2020년)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약학석사, 약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후 공직에 입문하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소에 근무하다 1985년 9월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설립과 함께 약학대학 교수로 발령을 받은 이후 2019년까지 34년간 약학교육 및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재임기간 중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방문 교수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환경성독물연변이발암원학회 우수논문상, 강원도 문화상(학술 부문) 등을 수상했고 독성학회 자문위원, 한국약학대학협의회 예방약학분과회장, 중앙약사심의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종합약학연구소장(4년)과 약학대학장(5년 6개월)을 역임하였고 약학대학장 재임 기간에는 교육과 연구공간 확보를 위한 약학대학 건물 신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시인으로도 널리 알려지고 허문영 교수는 재학시절 정오문학회 동인으로 활동하였고 1989년 시대문학 신인상으로 등단, 춘천문인협회장, 한국시인협회 회원, (사)북한강 생명포럼 공동대표를 비롯해 강원일보 독자권익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강원 문학 발전을 위해 힘써 온 공로로 춘천 예술상 대상(2011), 의학신문과 중외제약이 선정하는 약사평론가상(2015), 한국시문학상(2020) 등을 수상했다. 내가 안고 있는 것은 깊은 새벽에 뜬 별/고슴도치 사랑/물속의 거울/사랑하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습니다/왕버들나무 고아원/별을 삼킬하다 등 6권의 주옥같은 시집들과 시선집-시의 감옥에 갇히다, 에세이집-네 곁에 내가 있다 와 생명을 문화로 읽다, 교양서-예술 속의 약학, 130종의 약 이야기를 담은 인문서-예술 속의 파르마콘 등을 펴냈다. 눈부신 시 창작과 왕성한 저술 활동을 통해 약학과 예술, 예술과 약학의 소통을 통한 융합적 사고와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긴 고 허문영교수는 2019년 퇴임 후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로서 인문약학연구와 시쓰기에 몰두하던 중 안타깝게도 2020년 9월 12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6세.

6. > 관련학회 정보

- (사)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독물연변이발암원학회 <https://www.ksot.or.kr>
- 환경독성보건학회 <http://www.koseht.org>
- HSFF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http://www.hsff.co.kr>

7. > 맺음말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은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방약학분과학회는 1969년 출범한 이래, 환경과 식품을 매개로 하여 인간에게 질병을 초래하는 위해 인자를 규명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실험실 연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연구성과를 국민건강 증진관련 법령과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추구하여 왔다. 우리 분과학회의 이러한 노력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약사양성에 크게 공헌하였다. 역대 분과회장님들은 학문성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저명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여 오신 점이 타 분과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데, 이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학문의 가장 큰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 예방약학 분과회의 자랑이기도 한다.

우리 분과학회는 선후배교수님들의 친밀감에 있어서도 두드러진다. 매년 하계분과회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토론과 교육자료의 공유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 노력을 위한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가져왔으며 아울러 명승지 방문과 친목행사 등을 통한 강력한 멤버십을 다져왔다. 또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위생약학·환경독성분과와의 교류를 지속하였고, 이는 국제 학술활동

에 대한 분과회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 분과학회는 오랜기간 동안 모든 활동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하여 왔는데 이러한 기록의 보관 및 유지는 이번 대한약학회의 분과학회 역사자료 편집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끝으로 자료를 위해 원고를 작성에 도움을 주신 분과회원 교수님, 그리고 총무간사 이상규 교수님, 그리고 원고를 감수해 주신 정기화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 예방약학 분과학회 회장 박광식

21

임상약학 분과학회



1. > 학회 개요

임상약학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으로 최적의 치료 성과를 얻기 위한 약물요법 전문가로서 약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약학 분야이다. 물질을 중심으로 약학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환자중심의 접근을 바탕으로 하는 약학의 한 분야로서, 1997년 분과회가 설립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임상약학의 학문적 발전과 교육을 위한 본 분과회의 활동은 한국임상약학회와 같이 해왔으며, 한국임상약학회는 초대 고익배(전남대) 회장 이후 최준식(조선대), 신현택(숙명여대), 권광일(충남대), 신완균(서울대), 이명구(충북대), 이병구(이화여대), 오정미(서울대)에 이어 현재 곽혜선(이화여대) 회장이 이끌고 있다. 본 분과회의 회원들은 한국임상약학회 (<http://www.kccp.or.kr>, tel: 82-2-741-7529, kccpgoal@gmail.com)를 통하여 상호소통하고 있으며, 매년 총회를 개최하고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진행하여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본 분과회는 2011년 약학대학 학제가 2+4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임상약학이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되고 실무실습교육이 강화된 것을 계기로 큰 양적인 성장을 하였다. 양적확대 및 교육의 내실화와 더불어 최적의 약물요법을 위해 수행된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한 학문적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연구와 실무가 어우러지는 내실 있는 학술지로서 KCI 등재학술지인 한국임상약학회지를 연 4회 발간, 2021년 현재 제31권을 발간하였다.

본 분과회는 앞으로도 변화된 보건의료환경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임상약학 학문의 발전을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환자중심의 임상약학 교육을 위하여 실제 임상현장과 접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면서 성장해갈 것이다.

2. 학회 역사

2-1. 연도별 임원 현황표

연도	회장	소속	주요임원
-1996	고익배	전남대	부회장: 최준식, 노환성, 이병구 총무: 신현택, 학술: 안정순, 편집: 최경업
1997-2001	최준식	조선대	부회장: 신현택, 류항목, 김경오, 최경업 총무: 신완균, 학술: 박광준, 편집: 조혜경
2002-2004	신현택	숙명여대	부회장: 신완균, 조영환, 권광일, 최경업, 이명구 총무: 유봉규, 학술: 박경호, 편집: 최경업
2005-2006	권광일	충남대	감사: 신현택, 최준식 수석부회장: 신완균 부회장: 이명구, 조영환, 최경업, 최병철 총무: 강원구, 학술: 박경호, 편집: 오정미, 유봉규
2007-2010	유봉규	영남대	감사: 권광일, 신현택, 최준식 부회장: 이명구, 김남득, 최병철, 최경업, 이용복, 이병구 총무: 오정미, 학술: 유봉규, 편집: 강원구
2011-2012	곽혜선	이화여대	감사: 권광일, 신완균 부회장: 이병구, 김남득, 이용복, 최병철, 이혜숙 총무: 임성실, 학술: 유봉규, 편집: 채한정
2013-2014	이병구	이화여대	감사: 신완균, 이명구 부회장: 최경업, 김남득, 이용복, 최병철, 유봉규, 이숙향, 나현오, 오정미, 손기호 총무: 곽혜선, 학술: 이장익, 편집: 방준석
2015-2016	이숙향	아주대	감사: 이병구, 이명구 부회장: 오정미, 곽혜선, 김남득, 김승희, 나현오, 문홍섭, 손기호, 이숙향, 유봉규, 이용복, 이장익, 임성실, 최경식 총무: 이영숙, 학술: 지은희, 편집: 이정연
2017-2018	오정미	서울대	감사: 이병구, 이명구 부회장: 곽혜선, 김남득, 김은경, 김재연, 문홍섭, 손기호, 양재욱, 이숙향, 유봉규, 이장익, 이은경, 임성실, 최경식 사무총장: 김은경 총무: 최경희, 학술: 김현아, 편집: 이정연
2019-2020	오정미	서울대	감사: 이병구, 이명구 부회장: 곽혜선, 김남득, 김은경, 김재연, 손기호, 손여원, 양재욱, 이숙향, 유봉규, 이장익, 이은경, 임성실, 최경식 사무총장: 나현오 총무: 김현아, 학술: 윤휘열, 편집: 이주연
2021-	곽혜선	이화여대	현재 임원 현황 참고

2-2. 창립 역사 및 임원활동

대한약학회 내 임상약학분과는 1997년 임상약학 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임상약학의 학문적 발전과 임상약학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활발한 연구와 전략적 모색을 다양하게 시도해왔다.

임상약학 분과학회의 설립과 활동은 한국임상약학회와 같이 해왔다. 한국임상약학회(Korean College of Clinical Pharmacy)는 임상약학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 활동을 통하여 전문성을 함양하고, 사회적 요구와 국제적 변화를 반영한 임상약학 교육 및 합리적 약물요법의 실현을 추구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및 발전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임상약학회는 1994년 10월에 고익배(전남대) 교수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여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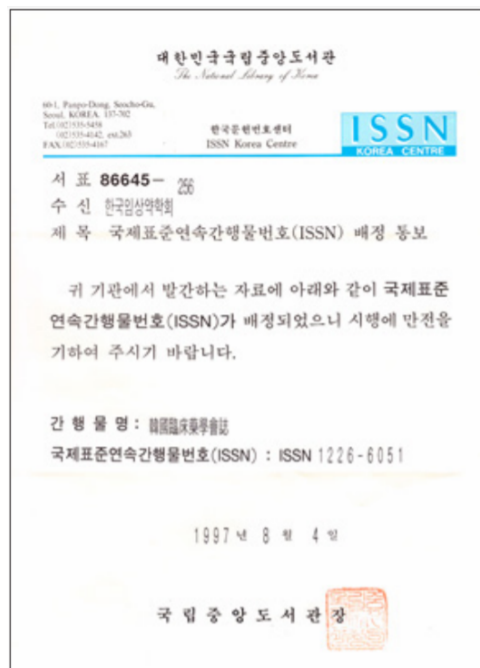


〈한국임상약학회 추계학술대회 (고익배 교수 특별대상 수상)〉 2011 / 회장 곽혜선

이후 최준식(조선대), 신현택(숙명여자대), 권광일(충남대), 신완균(서울대), 이명구(충북대), 이병구(이화여자대), 최경업(차의과대), 오정미(서울대)의 역대 회장에 이어 현재 곽혜선(이화여자대) 회장이 학회를 이끌고 있다.

한국임상약학회는 국내 임상약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로서 국내 임상약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헌신해 왔다. 한국임상약학회는 의약분업에 따른 약사직능의 향상과 복약지도 및 약물 사용적정화 제도 및 약물경제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2009년에 약학대학 학제가 6년제로 개편되면서 강조된 임상-실무약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2013년에는 2011년에 입학한 첫 6년제 입학생을 대상으로 약물치료학 강의가 시작되었고, 2014년도에는 약국, 병원, 제약회사 등에서의 현장실무실습(약 1600시간)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학술지인 한국임상약학회지는 1991년 5월 30일 창간되어 1997년 8월 4일 ISSN 배정을 받았다. 한국임상약학회지는 2006년 1월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임상약학회지는 연 4회 발간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제31권을 발간하였다. 학회지는 최적의 약물요법을 위해 수행된 다양한 임상연구와 교육 및 업무와 관련된 논문들을 게재하여 연구와 실무가 잘 어우러지는 내실 있는 학술지를 지향하고 있으며, 향후 SCI등재를 목표로 아시아임상약학회가 주관이 된 국제적 전문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한국임상약학회가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국임상약학회지 ISSN(1266-6051) 배정(1997)〉

현재 한국임상약학회는 약학교육협의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원을 받아 학회주도의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병원약사회 등 유관단체와의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대한임상약리학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대한임상약리학회-한국임상약학회-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대한임상약리학회-한국임상약학회-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심포지엄〉 2019 / 회장 오정미

또한, 회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임상약학연구회(Clinical Pharmacy Research Network, 이하 CPRN) 사업을 신설하여 2개 이상의 다른 기관 소속자들로 구성된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소규모 연구모임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와 미래발전 논의를 위한 회원관리 워크숍 및 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제1회 회원관리 워크숍 및 정책포럼 - 임상약학 교수와 실습기관 협력모델〉 2018 / 회장 오정미

3. 현재 임원 및 회원 현황

3-1 임원 현황

직위	성함	소속
회장	곽혜선	이화여대
부회장	강민구	우석대
	김남득	부산대
	김은경	서울대
	김정태	강동경희대병원
	나현오	가톨릭대
	문홍섭	목포대
	손기호	경성대
	신혜연	덕성여대
	양재욱	삼육대
	유봉규	가천대
	이숙향	아주대
	이장익	서울대
	임성실	가톨릭대
	조윤숙	서울대병원/병원약사회
	최경식	한양대
사무총장	이정연	이화여대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수안	고려대
학술위원회 위원장	최경희	순천대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현아	숙명여대
회원관리위원회 위원장	방준석	숙명여대
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은영	목포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윤정현	부산대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주연	서울대
교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영숙	계명대
정보전산위원회 위원장	채한정	전북대
홍보위원회 위원장	제남경	부산대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중앙대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윤희열	충남대
학문후속세대양성위원회 위원장	유윤미	연세대

3-2. 정회원 현황

강민자(CJ 제일제당), 강소희(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강원구(중앙대), 곽혜선(이화여대), 권광일(충남대), 권미정(경북대), 김경임(고려대), 김광준(목포대), 김보경(식약처), 김소현(한국화이자제약), 김수현(한려대), 김승희(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윤균(단국대 의대), 김은경(서울대), 김은아

(연세대), 김은영(중앙대), 김이항(파마트삼보약국), 김정태(강동경희대병원), 김주희(아주대), 김주희(이화여대), 김지은(원광대), 김택로(CJ 제일제당), 김현아(숙명여대), 나현오(가톨릭대), 남방현(신흥종로약국), 문정연(서울대학교병원), 문홍섭(목포대), 민보경(대구가톨릭대), 박미선(식약청 영양기능식품본부), 박선희(조선대학교병원), 박시우(동덕여대 부설 춘강약학연구소), 박지은(서울대), 배혜정(서울대학교병원), 백인환(경성대), 백진희(서울대학교병원), 범진필(조선간호대), 성수현(한미약품 연구센터), 손기호(경성대), 송영천(삼육대), 송윤경(대구가톨릭대), 송현(식약처), 신광희(경북대), 신수영(아주대), 신혜연(덕성여대), 심미경(차의과대), 안숙희(원광대), 양명모(대구광역시의회(안하심)), 오정미(서울대), 원란(제일약품), 유기연(동덕여대), 유봉규(가천대), 유윤미(연세대), 윤정현(부산대), 윤채옥(한양대), 윤휘열(충남대), 이경은(충북대), 이광진(한국한의학연구원), 이명구(충북대), 이병구(이화여대), 이수경(서울대 보건대학원), 이숙향(아주대), 이승현, 이연주(숙명여대), 이옥희(무등산약국), 이용현(신평제약), 이유정(강원대), 이은숙(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정석(테일리팜), 이정연(이화여대), 이정진(약학정보원), 이정향(에스엘에스), 이종기(초당대), 이철규(서울지방식약청), 이현정, 이혜민(경희동서신의학병원), 임정화(한국 노바티스), 임미선(영남대), 임성실(가톨릭대), 임정미(서울대학교병원), 장민정(연세대), 장성백(피엠지제약), 정년기(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정선영(중앙대), 정종혁(LG생명과학), 정혜주(고려대), 제남경(부산대), 조소연(서울아산병원), 조윤희(서울대학교병원), 조일영(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은희(가천대), 진미령(삼양사), 채정우(충남대), 채한정(전북대), 천광우(제일약품), 천부순(인제대), 최경업(차의과대), 최경희(순천대), 최규원(알리코제약), 최동현(조선대), 최미섭(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최수안(고려대), 최용(유한양행(회사)), 최은주(조선대), 최지엽(서울대학교병원), 최지영, 최창익(동국대), 최한샘(한화제약), 한덕화(인하대 의대), 한세진(ISS), 현창준(CJ 제일제당)

4. 주요 학술 및 교육활동사항

» 교육활동

매년 질환별 치료의 최신 지견에 대하여 연수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주로 개국약사, 병원약사들이 연수강좌를 수강하고 있으며, 병원약사의 경우 연수교육 평점도 부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플립러닝과 메타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교수법과 같이 변하는 시대에 맞춰 교수법에 대한 강좌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임상약학회는 환자 중심의 약물요법에 필요한 최신의 전문지식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 약물치료학 초판을 출판한 이래, 2009년 제2개정판, 2014년 제3개정판, 2017년 제4개정판을 출판하였고, 최근 2021년 약물치료학 제5개정판을 출판하였다. 약물치료학 교과서는 질환별로 국내외 최신 임상진료 가이드라인과 문헌을 망라하여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다. 이외에도 약물치료학 요약집, 사례중심의 약물치료학, 그리고 지역약국 우수약무 개론 등의 교과서를 집필하였다.

» 연구 및 학술활동

• 국내 학술대회

한국임상약학회는 매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학원생 포스터발표, CPRN 성과발표, 젊은임상약과학자발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임상연구 결과들이 공유되며, 200여명의 회원 및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 국제 학술대회

국제적으로 아시아임상약학회(Asian Conference on Clinical Pharmacy)의 설립을 주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임상약학 발전에 앞장서 왔다. 한국임상약학회는 지난 2000, 2004, 2009, 2016년에 걸쳐 서울에서 아시아임상약학회 개최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국제적 학술대회를 치름으로써, 한국 임상약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아시아임상약학회 홍보 포스터 및 브로슈어〉 2016 / 회장 이숙향

5. 주요 인사 동정

임상약학분과학회 회원들은 2+4 학제 개편 후 짧은 시간동안 대학보직을 포함한 유관 학회의 학회장으로 활발하게 연구와 교육 활동을 해오고 있다.

» 대학교보직 봉사활동

권광일(충남대) 교수는 충남대학교 교무처장(2012-2013)을 김남득(부산대) 교수는 부산대학교 교무처장(2016-2020)을 역임하였다. 현재 이숙향(아주대, 2020-현재) 교수, 나현오(가톨릭대,

2019년-현재) 교수, 윤현옥(경상국립대, 2021년-현재) 교수, 채한정(전북대, 2020년-현재) 교수, 강민구(우석대, 2019년-현재) 교수가 약학대학의 학장을 맡고 있다.

» 주요학회장 활동

권광일(충남대) 교수는 2014-2016년 집단약동약력학 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2019년부터 아시아임상약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정태(강동경희대병원) 부회장은 2021년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강원구(우석대) 교수는 2016년부터 대한약국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방준석(숙명여대) 교수가 2020년부터 이어서 회장을 맡고 있다. 2018년 창립한 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학회는 이숙향(아주대) 교수가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고 양재욱(삼육대) 교수가 2020-2021년 2대 회장을 맡았다.

» 연구단장 활동

권광일(충남대) 교수는 충남대학교 BK21 신의약개발사업단장(2009-2013년)과 CK사업단장(2014-2017년)을 역임하였다. 이숙향(아주대) 교수는 2021년부터 식약처 규제과학 인재양성사업단을 맡고 있다.

6. 맺음말

임상약학(Clinical Pharmacy)은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하여 최대의 임상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약물요법 전문가로서의 약사 직능을 강조하는 약학분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약학(Individualized Pharmacy)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임상적용가능 모델구축과 같은 새로운 접근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임상약학분과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 성과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 임상약학의 학문적 발전과 현장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와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임상약학분과는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임상약학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에 매진하고, 임상약학의 교육에 힘쓸 것이다. 또한 실제 임상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관여하는 병원약사, 개국약사, 의약품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연구원 등 임상약학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류를 확대시키면서, 학문의 발전이 교육, 임상 현장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대한민국 약학계의 학문적 발전과 약학대학 6년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임상약학분과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이다.

22

지역약국 분과학회



1. > 학회 개요

약사는 해방과 더불어 근대적 약국의 출범과 더불어 국민보건증진에 헌신해 왔다. 그러나 약국은 처방전 조제에 치중하여 공중보건활동을 포함하여 국민건강지킴이 직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부터 약대 6년제로 개편되고, 지역약국이 실무실습 교육기관이 되면서 지역약국 분과학회는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듯 약국모델을 연구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지역약국 분과학회는 1975년도에 일군의 개국약사가 임상약학 학습을 위해 모인 ‘한국임상약학연구회(KCPA)’라는 스터디 그룹이 기원이다. KCPA 활동의 성과로 2004년 10월 21일 대한약학회에 ‘개국약학분과회’라는 명칭으로 14번째 분과회로 편입되었다. 이를 계기로 약사의 임상활동 무대인 약국이 대한약학회란 학술활동의 장에서 활동하게 된 것이다. KCPA는 2011년 11월에 독립학술단체인 ‘한국지역약국학회’를 설립하였고 동년 11월에 기존 분과회 명칭을 ‘지역약국분과회’로 변경하였다.

지역약국 분과학회는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디지털 변혁 시대에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앞장서는 약국을 만들기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대한약학회의 학술대회 때마다 효율적인 실무실습방안과 전문약사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매년 자체 교육 세미나도 개최하였다. 특히 주중에 시간 내기 어려운 약사의 특별한 형편을 감안하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회원 간 소통하며 회무와 교육 및 학술활동을 전개한다.

2. 학회 역사

2-1. 연도별 임원 현황표

연도	회장	소속	주요임원
2003-2004	장우성	성균관대	고안나, 김아라, 김예지, 백경신, 이재명, 정경혜, 최혜윤, 배지영, 장말숙, 전영구, 전보명, 홍명자
2005-2006			
2007-2008	전영구	대한약사회	고안나, 김예지, 김영희, 백경신, 유정희, 이영임, 이재명, 장말숙, 전보명, 정경혜, 최혜윤, 전보명
2009-2010			
2011-2012	유봉규	가천대	강민구, 고안나, 김예지, 방준석, 이영임, 이재명, 장말숙, 전보명, 정경혜, 최미경, 최혜윤, 황미경
2013-2014			
2015-2016			
2017-2018	강민구	우석대	강근형, 고안나, 방준석, 손혜리, 송재겸, 장말숙, 최윤경, 최혜윤
2019-2020			
2021-2022	방준석	숙명여대	고안나, 김예지, 손혜리, 송재겸, 이영임, 최윤경, 최은경

2-2. 창립 역사 및 임원활동

지역약국분과학회는 1975년도에 교수와 약사가 함께 임상약학 학습을 위한 ‘한국임상약학연구회(KCPA)’란 스터디 그룹에서 시작되었다. 약국 임상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교환하며 약국을 내방하는 환자에게 적용하였다. KCPA는 2002년에 대한약학회에 ‘개국약학분과회’로 편입되어 1-2대 회장으로는 장우성 박사가 선출되었고, 3-4대 회장은 전영구 박사가 이어 받았다. 분과학회는 2011년에 ‘한국지역약국학회’를 발족시켜서 가천대학교의 유봉규 교수가 5-6대 회장으로 봉사하였다. 동년 12월에는 ‘개국약국’이란 명칭을 ‘지역약국’으로 변경한 뒤 분과회 명칭을 ‘지역약국분과회’로 바꾸었다. 이때부터 지역약국 약사들을 위한 학술활동의 필요성을 느껴서 2014년 6월에는 ‘한국지역약국학회’를 ‘대한약국학회(Korea Academy of Community Pharmacy, KACP)’로 변경하고, 유봉규 교수가 7대 분과학회장을 맡음과 동시에 대한약국학회 초대회장을 역임하였다. 이어 8-9대 분과학회장에는 우석대 강민구 교수가 취임하였으며 2021년부터 제10대 분과학회장은 숙명여대의 방준석 교수가 담당하였다. 특히 역사상 최초로 지난 2017년에 개최된 세계약학연맹(FIP) 서울총회는 대한약학회와 대한약사회가 공동개최하였다. 두 단체에 소속된 지역약국 분과회 회원들은 본 행사의 유치와 준비, 진행에 적극 참여 등으로 총회 개최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약국과 약사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였다.



〈대한약학회 개국약학분과학회 창립총회〉 2002 / 회장 장우성

2012-2016년에는 유봉규 회장과 함께 부회장으로 고안나, 김아라, 김예지, 김영희, 백경신, 송재겸, 용철순, 유정휘, 윤성한, 이영임, 이재명, 장말숙, 정경혜, 최혜운, 황미경 약사가 봉사하였고, 실무위원장에 강민구, 강근형, 김은영, 방준석, 송재겸, 유정휘, 이모세, 이영숙, 이영임, 이재명, 장말숙, 전보명, 정경혜, 최광훈, 최미경, 최은경, 최혜운, 황미경 약사가, 고문으로 김종국, 최광훈, 허근, 감사로는 임경자, 장우성 약사가 활동하였다. 2017-2020년에는 강민구 회장과 더불어 부회장으로 강근형, 고안나, 김예지, 방준석, 손혜리, 이모세, 이영임, 장말숙, 정경혜, 최혜운, 황미경 약사가, 실무위원장으로서는 강근형, 고기현, 고안나, 구현지, 김병주, 김상찬, 김예지, 남운진, 남창원, 성희진, 이모세, 이윤정, 정경인, 정경혜, 조은, 장말숙, 손혜리, 최혜운, 최태진, 최윤경, 최은경, 황미경 약사가 활동하였고, 고문으로 백경신, 유봉규, 임경자, 장우성, 전영구, 허근, 감사로 이재명, 최병원 약사가 활동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주로 약사와 약국 역할이 질병의 치료와 대응이었다면 미래에는 ‘디지털 전환’과 ‘Healthcare 3.0’ 시대를 구현함으로써 전문약료, 공중보건, 토털 헬스케어는 물론, 고령화 및 보건의료비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역약국 분과학회는 전문약료, 약업경영, 공중보건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학술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약학의 발전은 물론, 약국과 약사가 ‘약료서비스’의 가치를 사회에 전달하는 주체가 되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약국의 가치를 증명하며,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켜 국민의 건강관리, 약국의 첨단화된 경영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에의 참여방안을 연구하는 등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속의 주역이 되도록 대한약학회와 협력할 것이다.

3. 현재 임원 및 회원 현황

3-1. 임원 현황

직위	성함	소속
회장	방준석	숙명여대
감사	장말숙	두리온누리약국
감사	강근형	온누리현대약국
부회장(총무/청년)	이영임	다인약국
부회장(재무/정보)	최윤경	드린온누리약국
부회장(학술/편집)	고안나	동지온누리약국
부회장(교육/약료)	김예지	대한약사회
부회장(홍보/대외협력/국제)	송재겸	은혜당약국
부회장(정책/건강증진/약업경영)	최은경	희망약국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병주	참약사(주)
청년위원회 위원장	최태진	약사랑약국
재무위원회 위원장	최혜윤	온누리현대약국
정보위원회 위원장	임지미	홈케어굿모닝약국
학술위원회 위원장	김광준	목포대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윤정	단국대
교육위원회 위원장	구현지	정문약국
약료위원회 위원장	최미경	다정약국
홍보위원회 위원장	박소현	(주)한국로슈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고기현	한풍제약
국제위원회 위원장	주상훈	대구가톨릭대
정책위원회 위원장	조은	숙명여대
건강증진위원회 위원장	이하나	하나약국
약업경영위원회 위원장	김양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2. 정회원 현황

강근형(온누리현대약국), 강민구(우석대), 고안나(동지온누리약국), 김선영(곰달래약국), 김성은(대한약사회), 김수진(대한약사회), 김승환((주)동성제약), 김아라, 김영희(영민약국), 김위학(건강제일온누리약국), 김현익(북정동서울약국), 류건영(온누리인화약국), 박기배(행복한약국), 박진아, 방준석(숙명여대), 배지영(부산청십자병원), 백경신(에너스주오약국), 손혜리(베네시티약국), 송연화(경희대), 송재겸(은혜당약국), 안재우(365열린약국), 오미숙(새하나약국), 윤숙경(Bacchus Apotheke), 윤영미(대한약사회), 윤하식(LG 생명과학), 이영임(다인약국), 이영진(1.2.3약국), 이윤정(단국대), 이재명(일이약국), 이정열(광혜약국), 이효선(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임경자, 임옥성(바다약국), 장동현(굿모닝약국), 장말숙(두리온누리약국), 장우성(성균관대), 전경숙(답십리백화

점약국), 전보명(식약처), 전영구(대한약사회), 정은주(행복나무약국), 조영인(평강상록수약국), 조정인(새롬약국), 최병원(대한약사회), 최병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숙희(에너스주오약국), 최윤경(드린온누리약국), 최윤정(분당봄약국), 최은경(희망약국), 최혜운(온누리현대약국), 하헌(문전약국), 한혜성(차의과대), 한훈섭(백제약국), 홍명자(서울 쉐라톤 워커히호텔 약국), 홍성광(동오약국), 황미경(서울와이즈요양병원), 황수영, 황청주(서울온누리약국)

4. 주요 학술 및 교육활동사항

» 연구 및 학술활동

지역약국 분과학회는 연 1-2회 대한약학회가 주최하는 춘, 추계 국제학술대회 심포지엄 참여하여 지역약국 약사의 임상적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연 1-2회 교육세미나를 개최하여 최신 임상지견을 약국 약사들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연 1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5월과 11월 말 연 2회 ‘대한약국학회지’를 발간한다. 학회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각종 최신 약물치료에 대한 학술자료를 게재함으로써 약사들의 평생학습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 2004.10.21-22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주제: 비처방약의 활성화방안과 개국약사의 역할)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주제: 비처방약의 활성화방안과 개국약사의 역할)〉 2004 / 회장 장우성

- 2007.5.11-12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
- 2011.11.6-7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제: Rational use of medications toward special populations)
- 2011.11.27 개국약학분과학회 유지하며 한국지역약국학회 창립(유봉규 회장 선출)
- 2011.12.12 개국약학분과학회를 지역약국분과학회로 명칭변경
- 2012.4.19-20 대한약학회 학술대회(주제: 지역약국 전문약사 프로그램)
- 2013.4.18-19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 지역약국 실무실습 방안)
- 2014.6.20 한국지역약국학회에서 대한약국학회로 명칭변경
- 2014.10.23-24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제: 약료전문약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 2015.4.23-24 대한약학회 학술대회(주제: 약사의 전문성 제고와 약국경영 선진화 방안)
- 2015.9.18 특별심포지움(주제: 북한의 약사양성교육 및 약료체계)



〈특별심포지움〉 2015 / 회장 유봉규

- 2015.10.22.-23 대한약학회 학술대회(주제: 미래약사의 역할 및 필요역량)
- 2015.11.15 대한약국학회 추계학술대회(주제: 국민보건의료체계와 약국)
- 2015.11.30 대한약국학회 학회지 창간 (Vol.1 No.1)
- 2016.4.3 대한약국학회 춘계심포지움 (주제: 약료실천을 위한 GPP모델개발 및 확산방안)
- 2016.5.31 대한약국학회 학회지 발간 (Vol.2 No.1)
- 2016.11.30 대한약국학회 학회지 발간 (Vol.2 No.2)
- 2016.11.27 정기학술대회(주제: 세계보건기구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약국 실무교육), 강민구 회장 선출
- 2017.5.31 대한약국학회 학회지 발간(Vol.3 No.1)
- 2017.6.11 대한약국학회-인천광역시약사회 공동춘계학술대회 개최
- 2017.6.25 제1회 교육강좌(주제: 최신 임상약료를 위한 심혈관계 질환)



〈제1회 교육강좌〉 2017 / 회장 강민구

- 2017.9.10-14 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 및 세계약학학술대회 개최
- 2017. 10. 19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주제: 약국약사의 연구역량제고 필요성과 활용사례)
- 2017.11.26 정기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주제: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문인 연수교육의 발전방향/다빈도 발생 안과질환에 대한 최신지견)



〈정기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2017 / 회장 강민구

- 2017.11.30 대한약국학회 학회지 발간 (Vol.3 No.2)
- 2018.4.22 제1차 교육강좌 (주제: 간질환 아카데미)
- 2018.5.31 대한약국학회 학회지 발간 (Vol.4 No.1)
- 2018.10.28 제2차 교육강좌 (주제: 여성질환 아카데미)
- 2018.11.25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주제: 약국보조인력 관리의 선진화 방안)
강민구 회장 재선출
- 2018.11.30 대한약국학회 학회지 발간 (Vol.4 No.2)
- 2019.5.31 대한약국학회 학회지 발간 (Vol.5 No.1)
- 2019.6.9.-16 당뇨약료전문가과정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대강당)
- 2019.9.2 공동특별세미나(장소: 서울창업허브)
- 2019.9.22-26 아부다비 ADNEC FIP 대표단 참가



〈아부다비 ADNEC FIP 대표단 참가〉 2019 / 회장 강민구

- 2019.11.24 정기학술대회 (주제: Community Care of Pharmacists: Focusing on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Diabetes)
- 2019.11.30. 대한약국학회 학회지 발간 (Vol.5 No.2)
- 2020.5.31. 대한약국학회 학회지 발간 (Vol.6 No.1)
- 2020.6.19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과 학술.연구교류협정(MOU) 체결
- 2020.8.25 COVID-19 영상교육
(치료제, C-19 fact sheet, 살균제의 효능, 코로나 시대의 약국지침)
- 2020.11.29 정기학술대회 (주제: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서 약국의 발전방향)
방준석 회장 추인
- 2020.11.30. 대한약국학회 학회지 발간 (Vol.6 No.2)
- 2021.5.31. 대한약국학회 학회지 발간 (Vol.7 No.1)



<대한약국학회 학회지_2021년 5월호(Vol.7 No.1)>

5. 주요 인사 동정

임원	주요 활동
 허 근	전) 영남대 교수 전) 지역약국 분과학회 고문 전) 식약청장
 홍명자	전) 지역약국 분과학회 창립멤버 전) 2017년 FIP 서울총회 유치위원회 한국대표단장 전) 2017년 FIP 서울총회 봉사단장
 백경신	전) 지역약국 분과학회 고문 및 명예회장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 2017년 세계약사연맹(FIP) 서울총회 조직위원장 현) 대한약학회 부회장

6. 관련학회 정보

- 홈페이지 : 대한약국학회 (<http://www.koacp.org/>)
- 사무국 주소 : 043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308호이다 (02-2077-7526)

7. 맺음말

1975년부터 태동했던 지역약국 약사들의 자발적 임상약학 학습동호회가 주축이 되어 2004년에 대한약학회 안에 지역약국분과학회가 창립되었다. 임상약학 연구와 교육, 실천에 정진해 온 지역약국분과학회는 비록 실험실적 연구는 아니지만 약학회와 더불어 우리나라 약학의 교육과 학문적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전국에 산재한 2만3천여 개의 약국들은 약사의 직역을 대표하는 곳이자 약학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약사의 직업윤리가 발휘되는 생생한 현장이며 이곳에서 오늘도 수만 명의 약사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활약학을 실천하고 있다. 지역약국분과학회는 최신의 임상약학을 실천하기 위하여 프리셉터 양성, 기초연

구 성과를 임상현장에 적용할 실습교육시스템과 세부방안을 연구개발함으로써 환자중심적 약료를 실현하는 약사의 양성과 훈련에 힘써왔다. 지역약국분과학회는 약학대학의 임상약학 담당교수는 물론, 다양한 전공분야의 교수들, 약사가 협력하는 다학제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약학회 산하 분과로서 춘, 추계 심포지움과 온, 오프라인 교육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하면서 타 의료분야 전문직역과도 연계한 다양한 학술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은 2023년부터 도입될 전문약사자격제도가 더욱 향상된 약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정착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금번 대한약학회 75주년 기념사업으로 준비하는 ‘대한약학회 지부와 분과학회 역사(가치)’ 작업을 통해 앞서간 선배 약사 및 약학자들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소중한 발자취에 대한 자료의 제공과 수집, 정리에 참여하신 모든 회원들과 전, 현직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1 지역약국 분과학회 회장 방준석

23

한약학 분과학회



1. 학회 개요

한약학 분과의 설립은 ‘한약학’의 학문적 성숙에 의한 자연적인 설립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한약의 사용 주체에 대한 정치·사회적 이슈와 관련이 있다.

한약의 사용 주체에 대한 이의제기가 1970년대부터 한의사회에 의해 산발적으로 제기되어 오다가 1993년도 출발한 새 정권과 더불어 결국 ‘한약’의 주도권 다툼으로 번져 ‘한약분쟁’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크게 이슈화되었다. 보건복지부(당시 서상목 장관)에서는 약사들의 한약취급을 ‘한약조제자격시험’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제한하게 되었다. ‘한약조제자격시험’을 위해 한의계와 약계의 전문인들을 안배하여 ‘한약조제지침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는 약사가 다룰 수 있는 한약 처방의 수를 100개로 한정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오랜 논쟁 끝에 시험과목(본초학, 한약방제 학, 한약조제지침서, 한약감별)을 정하여 1994년 10월 1차 시험을 강행하고 그 당시 39명의 합격자를 내었다. 그 이후 대한약사회의 한약 담당 부회장과 한약 위원장, 그리고 약학대학의 생약학 담당 교수들은 한약학 교재를 만들어 전국의 약사 재교육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1995년 5월 13일 한의대 교수와 약대교수가 공동으로 출제한 문제로 2만 5000여명의 약사들이 응시하여 97% 정도의 합격률을 내게 되었다.

한약분쟁은 약사의 직능 측면에서 보면 한약조제가 100 처방으로 한정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잃은 것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약사법 내에 의약분업의 일정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완전 의약분업이라는 역사의 서막을 열게 되었다. 한편, 1994년도 개정된 약사법에서는 의약분업의 일정 외에도 한약사 제도를 신설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1996년 3월에는 경희대와 원광대에 1998년 3월에는 우석대학의 약학대학에 한약학과가 신설하게 되었다. 이에 약학대학 생약학 교수들은 한약학개론, 한약저장유통학, 본초학, 한약방제학 등의 교재들을 출간하여 한약학과 뿐만 아니라 약학과에서도 한약과목을 설강, 약학대학 재학생 모두에게 한약학 교육을 시행하게 되었다.

2. 학회 역사

2-1. 연도별 임원 현황표

연도	회장	소속	주요임원
1998	육창수	경희대	
1999-2000	김창민	강원대	
2001-2002	이경순	충북대	
2003-2004	이숙연	삼육대	
2005-2006	이숙연	삼육대	
2007-2008	이숙연	삼육대	총무: 류종훈
2009-2010	양기숙	숙명여대	총무: 류종훈
2011-2012	류종훈	경희대	총무: 차동석
2013-2014	류종훈	경희대	총무: 차동석, 학술: 홍승헌, 편집: 권동렬
2015-2016	류종훈	경희대	총무: 차동석, 학술: 홍승헌, 편집: 권동렬
2017-2018	류종훈	경희대	총무: 차동석, 학술: 홍승헌
2019-2020	류종훈	경희대	총무: 안효진, 학술: 홍승헌
2021	류종훈	경희대	총무: 안효진, 학술: 기지에

2-2. 창립 역사 및 임원활동

약학대학에서 한약학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필연적인 결과로 약계의 가장 큰 학회인 대한약학회에서도 한약을 학문의 한 분과로 다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동안 한약 강의를 해오던 약사들의 모임인 한약연구회가 1997년부터 시작되면서, 한약의 과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몇몇 교수들이 분과학회의 토대 마련에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생약학 분과의 주축이었던 김창민 교수(전 강원대 약대 교수), 육창수 교수(전 경희대 약대 교수) 및 이숙연 교수(전 삼육대 약대 교수)가 주축이 되어 생약학분과와는 별도로 한약학을 한 분과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안을 대한약학회가 받아들여 천연물분과와는 구별해서 1998년부터 한약학분과가 독립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분과학회는 ‘한약의 과학화와 산업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비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운영 회칙은 아래의 ‘한약학분과회 운영 회칙’과 같다.

1998년 설립된 당시에는 육창수 교수(현 경희대 약대 명예교수)가 분과회 회장을 맡아서 분과회 운영을 해 오다가 김창민 교수(현 강원대 약대 명예교수)와 이경순 교수(현 충북대 약대 명예교수)의 순으로 분과회장을 역임하게 되었다. 다만, 이때까지 한약학 또는 관련 교과목이 약학대학의 커리큘럼에 반영된 대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이 많았던 관계로 한약학분과회의 활성화 기대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03년부터 분과회장을 맡았던 이숙연 교수(현 삼육대 약대 명예교수)와 2009년도 분과회장을 맡았던 양기숙 교수(현 숙명여대 약대 명예교수)는

분과회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회원 영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특히 약학대학 또는 약학대학 이외의 대학에서도 한약학을 연구하고 제품화하는 연구자들의 분과회 가입을 독려한 결과, 당시 약 60여 명의 회원이 있는 분과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3. > 현재 임원 및 회원 현황

3-1. 임원 현황

직위	성함	소속
회장	류종훈	경희대
부회장	안효진	상지대 한의과대학
총무	기지에	원광대

3-2 정회원 현황

고성규(경희대), 권용수(강원대), 기지에(원광대), 김경옥(세화약국), 김남주(파낙스약국), 김동현(동아대), 김미려(대구한의대), 김옥희(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노성수(대구한의대), 류종훈(경희대), 문연자(원광대), 문형인(동아대), 박동현(양지화학), 박봉균(한국한의학연구원), 박성환(한국한의학연구원), 박세진(강원대), 박신행(동의대), 박주홍(경희서울한의원), 백흠영(한국신택스제약), 신용옥(경남과학기술대), 신현규(한국한의학연구원), 안효진(상지대), 양정은(알리코제약), 오명숙(경희대), 유영범(남부대), 이미영(한국한의학연구원), 이주영(신성대), 이진(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이창민(한국한방산업진흥원), 임용(동의대), 정미영(경희대), 정수진(한국한의학연구원), 정지욱(대구한의대), 차동석(우석대), 최동국(건국대), 최혁재(경희의료원), 한상용(원광한약연구소), 황광수(돌체비타), 황완균(중앙대), 황인숙(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4. > 주요 학술 및 교육활동사항

» 연구 및 학술활동

한약학분과회는 이숙연교수가 회장을 맡았던 시기인 2008년부터 분과회로서 대한약학회의 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2008년 추계학술대회에서 ‘한약을 이용한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라는 주제로 일본의 저명한 교수를 초빙하여 분과회가 개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당시 참석자와 연제는 다음과 같다.

» 2008년 추계 학술대회 연제 및 발표자

발표자	연제
Hyung-Won Kang	Practical use and drug development for Alzheimer's disease from Multi-herbal Drug Combinations(LMK02)
Seung-Heon Hong	Anti-inflammatory effect of Chungsim-Yeunja-Tang
In-chan Seol	Drug Development for Hyperlipidemia using an Herbal Formula, SGMX
Huayue Chen	Herbal medicines i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osteoporosis
Chang-gue Son	Development of herbal hepatotherapeutics using an herbal formula, CGX
Eunkyung Lee	Drug Development for Asthma using Inula Flos or Mixed Hebal Medicine Materials containing Inula Flos

그 이후 양기숙 교수(숙명여대 명예교수)가 회장이었던 2009년의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천연물로부터 신약개발 전략’이라는 주제로 6명의 연자를 초빙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때는 신진 교수도 초청하여 막 대학에 부임한 최정혜 교수가 발표하기도 하였다.

» 2009년 추계 학술대회 연제 및 발표자

발표자	연제
Jin Sook Kim	Drug discovry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iabetic complications using herbal medicine
Young Pyo Jang	Quality control of herbal medicine
Dea Hee Shin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Oriental hrebal Medicine
Hyuck Jai Choi	The present utilization status of Korean herbal medicine preparations in the Korean medicine hospital
Shin Jung Kang	The Regulations on Approval process for Herbal Medicinal Product
Jung Hae Choi	Identification of natural products that increase chemosensitivity

양기숙 교수(숙명여대 명예교수)에 이어 2011년부터는 류종훈 교수(경희대 약대)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에서나 내용면에서 명실공히 분과학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한약학분과학회는 생약·천연물분과학회와 회원이나 다루는 주제 등 많은 부분에서 때때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점차 독자적인 영역을 확대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4년 및 2015년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한약의 약물상호작용을 주제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한약학분과학회의 발전에 대한 토의를 가진 바 있다. 이와 같이 한약학분과학회는 분과학회로서 면모를 갖추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천연물의약품 창출에서도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에 진행한 ‘만성 퇴행성

질환에서의 천연물의 이용'이라는 주제는 실제로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향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제들이 임상시험을 완료하여 의약품으로 처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년부터 진행된 한약학분과회 주최 대한약학회 학술대회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2013년 이후의 학술대회 주제

연도	주제
2013	한약재 및 한약제제의 품질 표준화 연구 동향
2014	한약의 약물상호작용
2015	한약의 약물상호작용 II
2019	만성 퇴행성 질환에서 천연물의 이용

1998년 독립된 한약학분과회에는 학문 또는 실무로 한약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이 소속해 있으며, 현재 약 70여명의 회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약학회 회원 중 생약·천연물분과학회의 회원들 역시 한약에 관심이 높은 회원이 많기 때문에 한약학분과회의 홍보를 통해 회원 배가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약학과 및 관련학과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회원 영입은 물론 학술대회의 주제발굴에 대한 노력이 한약학분과회 활성화의 지름길이다. 또한 약사국가시험에서 일본과 같이 한약학의 학문분야와 관련된 시험문제가 출제된다면 한약학분과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계 학술대회〉 2011 / 회장 류종훈

5. 맺음말

대한약학회 75주년 기념사업으로 준비하는 ‘대한약학회 지부와 분과학회 역사(가칭)’ 작업의 하나로 한약학분과학회의 역사를 조망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아직은 미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학문 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게 된다면 한약학분과학회는 비약적인 발전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되며, 조속한 기한 내에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 한약학 분과학회 회장 류중훈

VI

자료

• 사단법인 대한약학회 정관 및 규정	281
• 지부 및 분과학회 정관 및 규정	327
1) 영남지부	327
2) 충청지부	331
3) 호남지부	334
4) 병태생리학 분과학회	338
5) 약물학 분과학회	340
6) 약제학 분과학회	342
7) 약품분석학 분과학회	345
8) 약품화학 분과학회	347
9) 약학사 분과학회	350
10) 예방약학 분과학회	352

사단법인 대한약학회 정관

제정	1946년	04월	13일
개정	1964년	03월	01일
개정	1968년	10월	01일
개정	1969년	10월	25일
개정	1970년	10월	31일
개정	1971년	09월	11일
개정	1978년	09월	01일
개정	1984년	10월	24일
승인	1984년	12월	20일
개정	1985년	04월	23일
승인	1985년	05월	03일
개정	1987년	02월	24일
승인	1987년	03월	10일
개정	1987년	10월	20일
승인	1987년	12월	22일
개정	1987년	12월	23일
승인	1987년	12월	29일
개정	1988년	10월	25일
승인	1989년	03월	17일
개정	1999년	10월	21일
승인	2000년	01월	06일
개정	2010년	04월	15일
승인	2010년	06월	08일
개정	2012년	04월	19일
승인	2012년	06월	29일
개정	2014년	04월	17일
승인	2014년	05월	27일
개정	2017년	04월	20일
승인	2017년	07월	11일
개정	2021년	04월	22일
승인	2021년	06월	17일
개정	2021년	09월	16일
승인	2021년	09월	27일
개정	2021년	11월	17일
승인	2021년	11월	25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약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Korea (약칭 “PSK”라 한다)라고 표시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약학의 진보와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와 지부 설치)

- ① 본 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89-3에 둔다.
- ② 본 회의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전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의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3. 회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4. 약학 또는 약업에 관한 연구의 장려 및 표창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제5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약학을 전공하거나 약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입한 회원
2. 학생회원: 약학을 전공하거나 약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 수학하고 있는 자
3. 특별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의 장 또는 개인
4. 유공회원: 본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정의 유공회비를 납부하는 특별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5. 원로회원: 정회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6.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과 약학분야에 대한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회장이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 자 및 종전 역대회장
7. 공직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

제6조 (입회절차)

- ① 본 회의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본 회의가 규칙으로 정하는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본 회의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입회신청이 있을 때 그 입회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③ 입회절차 및 회비의 납부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 회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2.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자
3.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본 회에 대한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

제9조 (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권익옹호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선거인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3년간 회비를 계속 납입한 정회원은 회장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 다만, 대의원이 아닌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의원총회의 정족수의 산정에 고려되지 않는다.
- ④ 회원은 별도의 규칙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의 시설,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본 회의 정관, 규칙 및 규정이나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규칙 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부과한 연회비등을 부담한다. 본 회의 규정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③ 회원은 본 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고 본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겸 이사장 1인
2. 부회장 10인
3. 이사(회장, 부회장 포함) 30인
4. 감사 2인

제12조 (임원의 임기)

- ①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임원으로 선출된 정기총회 개최년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 ②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선출)

-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 겸 이사장은 회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추대된 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원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취임한다.
- ③ 회장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수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④ 회장의 입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찬반투표로 하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당선여부를 결정한다.
- ⑤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⑥ 임원의 입후보, 선출, 선거운동 기타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보선)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15조 (임원의 자격상실 및 해임)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임원은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본 회를 탈퇴한 자
 - 2.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 1.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2. 임원의 임무를 1년 이상 게을리 한 자
- ③ 임원을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며,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 및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의 지명을 받은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의 지명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이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그 결과 감사가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보고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한다.

제4장 대의원총회

제17조 (대의원총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① 본 회의 최고결기기관으로 대의원총회를 둔다.
- ② 대의원은 각 분과학회가 분과학회별로 30인 범위 내에서 2년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5명 중 1인의 비율로 선출한다.
- ③ 본 회의 임원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 ④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본 회의 사무는 정관으로 회원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이외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8조 (종류 및 소집)

-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대의원총회와 임시 대의원총회로 한다.
- ② 정기 대의원총회는 매년 봄, 가을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 대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나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대의원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대의원총회 구성원에게 총회의 일시, 온라인회의 여부,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제19조 (대의원총회소집의 특례)

대의원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의 소집을 기피하여 대의원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은 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의원총회는 참석대의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 (의결사항)

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인준
2. 정관의 변경,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명예회원의 승인

6. 분과학회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항

제21조 (총회 의결방법)

- ①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개정 경우, 출석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2조 (의결권 위임)

- ① 의사진행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 의장 또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전항에 의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한 자로 간주한다. 단, 위임장은 대의원총회 개회 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은 위임할 수 없다.

제23조 (서면결의)

-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대의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대의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의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한 자로 간주한다. 단, 서면결의서는 대의원총회 개회 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은 위임할 수 없다.

제24조 (의장)

- ① 대의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② 의장은 대의원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제25조 (회의의 공개)

대의원총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대의원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의사록)

- ① 대의원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위 의사록은 다음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회장은 의사록을 본 회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7조 (설치 및 구성)

- ① 본 회의 회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당연직(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28조 (소집절차)

- ①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7일 전에 이사회의 일시, 온라인회의 여부,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기피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전 항의 경우에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5. 명예회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6. 수상자의 선정
7. 집행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대의원총회가 위임한 사항
9. 기타 회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31조 (의결방법)

- ① 이사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이사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개정

의 경우, 재적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장 분과학회와 지부, 연구회, 위원회

제32조 (분과학회)

- ① 분과학회는 정회원 3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분과학회는 본 회의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고,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전문학술활동을 수행한다.
- ③ 각 분과학회는 대의원과 편집위원을 선출하여 대의원총회 및 편집위원회에 파견하여야 한다.
- ④ 분과학회의 경비는 본 회의 보조금 및 각 분과학회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32조의 1 (지부)

- ① 회장은 제3조 ②항에 따라 설치된 각 지부를 적극 지원한다.
- ② 각 지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의 2 (연구회)

- ① 약학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의 3 (위원회)

- ① 회장은 본 회의 운영과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위원회와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 (재정)

- ①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 대의원 및 임원의 회비
 2.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3. 기부금품
 4. 기타의 수입
- ② 본 회의 수입은 학술의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수행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불특정 다수인을 수혜자로 한다.
- ③ 재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4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5조 (세입세출예산)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재산의 구분)

- ①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4. 세제잉여금 중 적립금
- ③ 본 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37조 (재산의 관리)

- ① 전조 제3항 소정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대의원총회의 승인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본 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본 회의 재산으로 편입하는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③ 회장과 기타 임원들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보존·관리·증식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④ 전조 제3항 소정의 기본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며, 본 회 사무소에 비치한 기본재산 목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⑤ 매 학회년도의 기부금품 내역과 그 사용 내역을 차년도 3월 31일까지 본 회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 한다.

제38조 (재산의 평가)

본 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9조 (경비의 조달방법)

본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40조 (회계의 구분)

- ① 본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일반회계는 회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부금, 학회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기타 이에 준하는 정상적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 ③ 특별회계는 특수한 사업목적을 위해 따로 처리하는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제41조 (회계원칙)

본 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발생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2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대의원총회의 승인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임원의 보수금지 등)

본 회의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 (무상대여금지)

- ① 본 회의 재산은 본 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 회 설립자
 2. 본 회의 임원
 3. 본 회의 설립자, 본 회의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 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본 회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8장 보칙

제45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회가 해산되면 그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7조 (정관개정)

- ①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출석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본 정관의 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48조 (규칙 및 규정 등)

- ① 본회는 본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본회는 회무를 처리하고,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규칙과 규정은 이사회와 심의의결과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정한다.

제49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부칙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하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1984년 12월 20일, 강학 1074-6015)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1985년 05월 03일, 강학 25630-2432)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1987년 03월 10일, 강학 25630-1350)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1987년 12월 22일, 강학 25630-7534)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1987년 12월 29일, 사회 25630-1989)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1989년 03월 17일, 강학 25630-1304)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0년 02월 08일, 평생 81721-268)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년 06월 08일, 평생교육체육과-12445)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06월 29일, 평생교육과-11973)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 05월 27일, 평생교육과-10830)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7년 07월 11일, 평생교육과-13242)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년 06월 17일, 평생교육과-13525)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년 09월 27일, 평생교육과-20910)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년 11월 25일, 평생교육과-25569)로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대한약학회 규정

제정	1964년	10월	17일
개정	1991년	04월	26일
개정	1993년	04월	23일
개정	1996년	04월	26일
개정	1997년	04월	25일
개정	1998년	07월	24일
개정	1997년	10월	30일
개정	1999년	10월	22일
개정	2000년	04월	20일
개정	2003년	09월	06일
개정	2007년	01월	02일
개정	2007년	03월	27일
개정	2007년	07월	02일
개정	2007년	07월	06일
개정	2008년	01월	01일
개정	2008년	08월	01일
개정	2009년	09월	29일
개정	2010년	04월	15일
개정	2010년	10월	21일
개정	2012년	04월	20일
개정	2013년	10월	17일
개정	2014년	04월	17일
개정	2015년	04월	23일
개정	2015년	07월	20일
개정	2017년	04월	20일
개정	2017년	10월	19일
개정	2018년	04월	20일
개정	2018년	10월	18일
개정	2019년	04월	25일
개정	2019년	10월	14일
개정	2020년	10월	21일
개정	2021년	04월	22일

사무국 규정

제1조

본 회 정관 제1장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회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본 회의 학술지 발간 및 학술활동 전반에 관한 행정 사항
2.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행정 사항
3. 회원관리 등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사무국에는 다음의 직원을 둔다.

1. 사무국장 또는 상임이사 1명
2. 사무원(서무) 약간 명
3. 사무원(편집/정보) 약간 명

제4조

사무국의 직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단, 신원 및 재정보증인 등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

사무국은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할 수 있다.

1.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한 직원은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 까지 총무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근로시간제를 선택 할 수 있다.

	출 근	퇴 근
기존 업무시간	09:00	17:30
A	08:00	16:30
B	08:30	17:00
C	09:30	18:00

3. 직원이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한 경우 총무위원장은 신청사유, 담당업무의 특성, 업무프로세스 등을 고려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근로자에게 통지한다.
4. 세부 사항은 운영지침 및 직원과 총무위원장의 합의에 따른다.

제6조

직원에 대한 인사고과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6월 또는 12월에 실시한다.

1. 사무국장은 사무원에 대한 인사고과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평가한다.
2. 회장, 사무총장, 총무위원장, 재무위원장은 사무국장 및 사무국장이 작성한 사무원 인사고과를 참조하여 사무원에 대한 인사고과를 평가한다.
3. 고과결과는 다음 해 승진, 급여, 상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지부의 설치·운영 규정

제1조

본 회의 정관 제1장 제3조에 의하여 지부 및 분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부 및 분회는 지역 또는 해외의 각 국 단위로 하여 본 회의 정회원이 50명 이상일 때 둘 수 있고, 지부 및 분회를 설치할 경우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지부 및 분회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

1. 연구 발표와 학술 강연회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부 및 분회는 년 1회 총회를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 사항

제5조

지부는 년 수 회 예회를 개최한다.

제6조

지부의 총회 및 예회에서는 회원의 연구 발표를 행한다.

제7조

지부의 경비는 본 회의 보조, 지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서 충당한다.

제8조

지부장은 다음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무소 소재지
2. 지부회원 명단
3. 지부 회원 이동 사항
4. 지부 운영 사항

제9조

지부의 회계년도는 본 회 정관 제34조에 준한다.

제10조

지부는 본 회 회장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분과학회의 설치·운영 규정

제1조

본회는 전문 분과별로 정관 제6장 제32조에 의하여 다음의 20개 분과학회를 둔다.

1. 약제학 분과
2. 약품분석학 분과
3. 약품화학 분과
4. 생약·천연물 분과
5. 예방약학 분과
6. 약물학 분과
7. 약품생화학·분자생물학 분과
8. 물리약학 분과
9. 병원약학 분과
10. 감염미생물·면역약학 분과
11. 병태생리학 분과
12. 임상약학 분과
13. 한약학 분과
14. 지역약국학 분과
15. 산업약학 분과
16. 사회약학·약료경영학 분과
17. 약학교육 분과
18. 방사성의약품학 분과
19. 약학사 분과
20. 약사커뮤니케이션·커뮤니티케어

제2조

각 분과학회는 본 회 정관과 규정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분과학회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

1. 학술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1. 분과학회장은 분과학회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분과학회의 추천이 없을 경우 회장 직권으로 추천한다.
2. 분과학회장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분과학회장은 다음 사항을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무소 소재지
2. 분과학회 회원 명단 및 변동 사항
3. 사업 내용

제6조

분과학회장은 약학회지의 편집 위원 1명과 대의원 약간 명 (분과학회 회원 5명당 1명 이내, 단,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을 본 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

각 분과학회의 경비는 본 회의 보조, 각 분과학회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연구회의 설치·운영 규정

제1조

본 회 정관 제 1장 제4조에 의거하여 대한약학회(이하 약학회) 산하 연구회를 둔다. 연구회는 약학회 회원 상호간의 연구협력과 정보교류를 통하여 약학 분야의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강연,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회
2. 학술 및 개발 공동연구 워크숍
3. 학술 분야 사이의 친목 도모
4. 기타 학술 분야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3조

연구회는 약학회의 연구회 규정을 준수한다. 또한 약학회는 연구회의 자체 운영 규정에 따른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협조한다.

제4조

연구회 결성은 본회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10명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을 신청하면, 이사회 의결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다.

제5조

1. 연구회장은 연구회에서 선출하여 약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2. 연구회장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연구회는 연구회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학회장 선출 규정

제1조

본 회의 정관 제3장 제13조에 의거 회장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기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 회에서 20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한 자로서 별지양식에 대의원 30명 이상~40명 미만의 추천을 받아 선출연도의 8월 말일까지 소정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대의원은 후보자를 중복하여 추천할 수 없다.

제3조

회장 선출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선거 당해 연도 7월말까지 본 학회 사무총장과 각 감사가 2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 입후보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사무총장은 그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임기는 선거관리 기간으로 한다. 사무총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위원장, 재무위원장, 학술위원장 순으로 위원장직을 승계한다.

제4조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투표 개시일 전일 자정까지로 한다.

제5조

각 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공약을 알리는 선거홍보는 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며, 기타 개별 또는 집단적인 선거운동은 하지 아니한다.

1. 후보자는 A4용지 3쪽 이내의 이력서 및 선거공약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학회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정회원에게 알린다.
2. 위원회는 후보자가 복수일 경우에 선거운동 기간 중 총 2회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후보자는 반드시 참석한다. 후보자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단, 단수 후보자일 경우는 정책 설명회로 대신한다. 위원회는 토론회(또는 정책 설명회) 완료 후 3일 이내에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6조

회장의 선거인은 정회원으로 한다. 단, 선거인은 선거 당해 연도 8월 말까지 최근 3년간 회비를 납부해야한다.

제7조

아래와 같은 선거운동은 제한 및 금지한다. 아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향응,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
2. 선거운동기간 중 대학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후보자들이 직접 유인물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5.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타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
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행위

제8조

선거는 전자비밀투표로 실시하며, 선거인은 투표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투표한다. 단,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찬반 기표한다.

제9조

투표 결과는 투표 기간이 종료된 후 위원장의 책임 아래 전자투표 집계 결과를 확인한다.

제10조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가 차기 회장으로 추대되며,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다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 과반수가 찬성일 경우 차기 회장으로 추대한다. 단,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은 추대자가 확정되면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는 추대자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한다.

제1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임원(부회장, 이사, 감사) 취임 관련서식: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사단법인 대한 약학회장 귀하 본인은 본 법인 임원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해당됨이 발견될 때에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 여하한 행정 조치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이에 각서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대한약학회 임원 취임 예정자 (인)
--

대의원 구성에 관한 규정

제1조

본 회의 정관 제4장 제17조와 제6장 제32조에 따른 대의원의 추천 및 대의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분과학회장은 소속 정회원으로서 학회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 중에서 다양한 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대의원으로 추천하여야 하며 그 자격은 아래의 직급 또는 연한에 준하여야 한다.

1. 대학교 : 부교수 이상
2. 국공립기관 : 과장급 이상
3. 출연연구소 : 책임연구원 이상
4. 기업체 : 부장급 이상
5. 의료기관 및 약국 : 15년 이상의 경력자

제3조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필요한 경우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을 추가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대의원은 매년 의무(학회비 및 대의원회비 납부)를 이행하였을 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하여 추천된 대의원 후보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본인이 취임을 승낙하고, 당해연도에 회비(학회비 및 대의원 회비)를 납부한 대의원이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대의원 구성에 관한 규정 - 대의원 의결권 행사 지침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4장 제22, 23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가능한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결권행사의 방법)

1. 대의원은 원칙적으로 대의원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이 본 회의 사무소 소재지인 서울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대의원총회에 출석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미리 서면으로 소명한 때에는 해당 대의원은 서면 또는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문과 같은 대리권의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제3조 또는 제4조의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서면 또는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① 본 회가 대의원총회의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한 서면 또는 전자통신방법 결의서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할 것
 - ② 제1호의 서면 또는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결의서가 대의원총회 개회 전까지 도착할 것
2. 대의원이 제1항 제1호의 서면을 분실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① 본 회가 대의원총회의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한 대의원총회 참석장과 위임장을 작성할 것
 - ②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하는 대의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앞, 뒷면의 복사본 1부를 작성할 것
 - ③ 제1호, 제2호의 서류가 대의원총회 개회 전까지 도착할 것
2. 대의원이 제1항 제1호의 서면을 분실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한약학회 연구발표 윤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약학회(이하“학회”라 한다) 정관 제1장 제4조 제3호에 따라 학회에서의 출판과 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계되는 연구윤리의 확립, 연구발표 비윤리 행위의 예방 및 검증, 제재를 위한 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1. APR연구출판윤리위원회와 약학회지연구출판윤리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는 별도의 연구 및 출판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각 학술지의 연구 및 출판 윤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APR연구출판윤리위원회는 APR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전원을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하며 APR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을 겸한다.
3. 약학회지연구출판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편집위원중 5명을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구성하고,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을 겸한다.
4.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 편집위원회내 임기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활동한다.

1. 연구윤리 추진
2. 연구 비윤리 행위의 예방 및 방지
3. 연구 비윤리 행위 심의 및 의결

4. 비윤리 행위자에 대한 제재내용 결정
5. 연구 윤리의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회 소집 및 의결)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결된 내용은 비윤리 행위 의심자(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 의견을 받아야 한다.
3. 위원회에서는 비윤리 행위 의심자로 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하거나 필요시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의결토록 한다.
4. 의결된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 결정한다.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외부 인사나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 위원회에서 참가자 발표내용 및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연구발표 비윤리 행위의 범위)

1. “표절”이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하지 않고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 및 “변조”란 타인이나 자기 자신의 연구자료, 결과를 조작하거나 변형,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중게재”란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표기”란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5. 기타 용인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 연구윤리를 해치는 행위 등도 연구발표 비윤리 행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제6조 (연구 비윤리 행위의 제보 및 통보)

1. 연구 비윤리 행위의 내용은 학회 국문학회지와 영문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한한다.
2. 연구 비윤리 행위의 제보는 육하원칙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된 후 3개월 내에 심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은 2주 내에 제보자와 비윤리 행위자에게 통보한다.
5. 연구 비윤리 행위에 대한 최종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제7조 (연구 비윤리 행위에 대한 제재)

1. 연구 비윤리가 확인된 저자에게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윤리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의 제재를 선택하여 가할 수 있다.
 - ① 해당 발표연구물에 대한 학회 간행물에 게재취소
 - ② 5년간 학회의 국문학회지와 영문학회지에 투고금지
 - ③ 5년간 학회 학술대회 발표금지

- ④ 비윤리 행위자 소속기관에 비윤리 행위 내용 통보
 - ⑤ 학회 회원자격 박탈
2. 제보자가 고의로 허의제보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 비윤리 행위자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수상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약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장 제4조 제3호에 따라 본 회 회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한편 본 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회의 수상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종류)

본 회가 수여하는 상은 학술대상: 한독학술대상, 윤광열 약학상, 윤광열 약학공로상, 녹암학술상, 우수연구논문상, 우수리뷰논문상, 약학교육상, 신약기술개발대상, 약학기술인상, 동영분석과학상, 차세대 선도약학자상, 미래유망약학자상, 공직약학자상, 약학회지논문상, 생활약학자상으로 구분한다.

제3조(수상자격)

1. 본 회의 상을 수상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술대상: 한독학술대상: 학회에 학술적인 기여도가 크고 15년간 이상의 연구 업적이 탁월한 회원
 - ② 윤광열 약학상: 제약발전에 기여도가 크고 10년간 이상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회원
 - ③ 윤광열 약학공로상: 10년 이상 약학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 또는 명예회원
 - ④ 녹암학술상: 최근 5년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이룬 회원
 - ⑤ 우수연구논문상: 직전 2년간 Web of Science의 Impact Factor 지수에 대한 기여도가 기준치 이상 되는 직전 3년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교신저자인 회원. 수상 기준치는 매년 집행위원회에서 정하여 공지한다.
 - ⑥ 약학교육상: 약학교육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
 - ⑦ 신약기술개발대상: 신약개발 또는 관련 기술 이전에 공로가 큰 회원
 - ⑧ 약학기술인상: 제약기술개발, 산업약학발전 또는 약무수행에 공로가 큰 회원
 - ⑨ 동영분석과학상: 의약품 품질관리 또는 품질보증에 공로가 큰 회원
 - ⑩ 우수리뷰논문상: 직전 2년간 Web of Science의 Impact Factor 지수에 대한 기여도가 기준치 이상 되는 직전 3년에 게재된 리뷰논문의 교신저자인 회원. 수상 기준치는 매년 집행위원회에서 정하여 공지한다.
 - ⑪ 차세대 선도약학자상: 45세 이하의 연구책임자급으로서 연구업적과 학술관련 활동이 탁월한 회원
 - ⑫ 미래유망약학자상: 최근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학위관련 논문을 해당분야 상위 10% 이내의 국제학술지(SCI)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자 중 우수성이 인정되는 준회원

- ⑬ 공직약학자상: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약학을 전공하고 약학관련분야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회원 중 약학의 직무를 유지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회원
 - ⑭ 약학회지논문상: 직전 1년간 약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성이 인정되는 논문의 교신저자인 회원
 - ⑮ 생활약학자상: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해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학문발전에 기여해서 국민건강 증진에 공헌한 회원
2. 제3조의 15가지의 약학회상은 한 해에 중복 수상할 수 없다. 단, 우수연구논문상과 우수리뷰논문상은 예외로 한다.

제4조(수상자추천)

본 회의 학술대상: 한독학술대상, 윤광열 약학상, 윤광열 약학공로상, 녹암학술상, 약학교육상, 신약기술개발대상, 약학기술인상, 동영분석과학상, 차세대 선도약학자상, 미래유망약학자상, 공직약학자상, 생활약학자상의 수상 후보는 약학대학장, 약학관련 단체장 및 학회 분과학회장의 추천에 따르며, 우수연구논문상 및 우수리뷰논문상의 수상후보는 APR편집위원회, 약학회지논문상의 수상후보는 약학회지편집위원회의 추천에 따른다. 단, 마감일까지 추천이 없을 때는 본 회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수상심사위원회)

수상심사위원회 구성은 전임회장 2인, 사무총장, 총무위원장, APR편집위원장, 약학회지편집위원장, 이사회에서 추천한 5인으로 선출하여 총 1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심사)

1. 수상심사위원회는 재적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심사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심사위원장은 선정된 수상후보의 심사결과를 수상자의 논문과 관련 자료 등과 함께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7조(승인)

수상심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수상 후보자의 명단을 제출하고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을 얻는다.

제8조(수상내용과 시기)

1. 수상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2. 수상은 매년 가을 정기총회에서 이를 시행한다.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1조(목적)

본 회 정관 제1장 제4조와 제3장 제16조 1항, 제6장 제32조의 2의 ②항에 의거하여 집행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와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의 제·개정과 적용)

1. 본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발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2. 본 회 내 집행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본 규정으로 정하고 각종 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 위원회와 자문단의 규범을 적용함에 있어 효력단계의 순서는 정관-규정-지침-내규 순으로 한다.
4.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집행위원회)

1. 본 회 정관 제1장 제4조와 제3장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회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2. 집행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회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보고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③ 각종 위원회와 자문단의 설치와 구성,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회장 또는 각 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3. 집행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사무총장,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집행위원장이 되고 사무총장이 서기가 되며, 회장 부재 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집행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4.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과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5. 집행위원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1/3)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집행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6. 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7. 회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무총장은 각 위원회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무국과 각 위원회를 지도 감독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회장은 학회의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아래의 위원회와 자문단을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고, 설치나 폐지 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총무위원회
2. 학술위원회

3. APR 편집위원회
4. 약학회지 편집위원회
5. 산학협동위원회
6. 정책위원회
7. R&D전략위원회
8. 국제협력위원회
9. 재무위원회
10. 재산관리위원회
11. 정보위원회
12. 교육위원회
13. 사업위원회
14. 회원위원회
15. 홍보위원회
16. 출판위원회
17. 약학용어위원회
18. 약학발전위원회
19. 자문단

제5조(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1.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각 위원회와 자문단을 구성한다.
2. 각 위원회와 자문단의 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와 자문단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 설치 규정

- 총무위원회 운영 지침 -

제1조(목적)

본 회 정관 제3장 제16조 제1항(또는 제6장 제32조의 3)과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의 설치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총무위원회를 둔다.

제2조(위원회 임무)

총무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공문 처리
2. 각종 회의 및 규정 관련 업무

3. 사무국 관련 업무
4. 대외 교류-협력 관련 업무
5. 학술대회 관련 업무

제3조(구성)

총무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위원장 1명 이상
2. 부위원장, 간사 또는 위원 약간 명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부위원장과 간사, 위원은 총무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5. 총무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위원장이 다수인 경우 위원장들 중 집행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장 또는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7.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제4조(의결)

총무위원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총무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지침의 제·개정과 적용)

1. 본 지침은 총무위원회의 발의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개정 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 설치 규정

- 학술위원회 운영 지침 -

제1조(목적)

본 회 정관 제3장 제16조 제1항(또는 제6장 제32조의 3)과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의 설치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학술위원회를 둔다.

제2조(위원회 임무)

학술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본 회가 주관하는 학술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2. 기타 본회 학술 진흥에 관한 사업

제3조(구성)

학술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위원장 1명 이상
2. 부위원장, 간사 또는 위원 약간 명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부위원장과 간사, 위원은 학술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5. 학술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위원장이 다수인 경우 위원장들 중 집행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장 또는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7.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제4조(의결)

학술위원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학술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지침의 제·개정과 적용)

1. 본 지침은 학술위원회의 발의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개정 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 설치 규정

- 산학협동위원회 운영 지침 -

제1조(목적)

본 회 정관 제3장 제16조 제1항(또는 제6장 제32조의 3)과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의 설치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산학협동위원회를 둔다.

제2조(위원회 임무)

산학협동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의 공동 관심 과제에 관한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2. 현장실습 등 산학협동 교육에 관한 연구
3. 산학협동 연구의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4. 기타 산학협동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산학협동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위원장 1명 이상
2. 부위원장, 간사 또는 위원 약간 명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부위원장과 간사, 위원은 산학협동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5. 산학협동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위원장이 다수인 경우 위원장들 중 집행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장 또는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7.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제4조(의결)

산학협동위원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산학협동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지침의 제·개정과 적용)

1. 본 지침은 산학협동위원회의 발의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개정 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 설치 규정

- 정책위원회 운영 지침 -

제1조(목적)

본 회 정관 제3장 제16조 제1항(또는 제6장 제32조의 3)과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의 설치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제2조(위원회 임무)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2. 본 회에서 추진하는 학술진흥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책 제언
3. 학계, 관계, 연구계 및 산업계의 공동 관심 과제에 관한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제3조(구성)

정책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위원장 1명 이상
2. 부위원장, 간사 또는 위원 약간 명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부위원장과 간사, 위원은 정책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5. 정책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위원장이 다수인 경우 위원장들 중 집행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장 또는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7.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제4조(의결)

정책위원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정책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지침의 제·개정과 적용)

1. 본 지침은 정책위원회의 발의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개정 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 설치 규정

- R&D전략위원회 운영 지침 -

제1조(목적)

본 회 정관 제3장 제16조 제1항(또는 제6장 제32조의 3)과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의 설치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R&D전략위원회를 둔다.

제2조(위원회 임무)

R&D전략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본 회의 R&D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R&D 연구과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R&D전략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R&D전략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위원장 1명 이상
2. 부위원장, 간사 또는 위원 약간 명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부위원장과 간사, 위원은 R&D전략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5. R&D전략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위원장이 다수인 경우 위원장들 중 집행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장 또는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7.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제4조(의결)

R&D전략위원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R&D전략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지침의 제·개정과 적용)

1. 본 지침은 R&D전략위원회의 발의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개정 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 설치 규정

- 국제협력위원회 운영 지침 -

제1조(목적)

본 회 정관 제3장 제16조 제1항(또는 제6장 제32조의 3)과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의 설치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국제협력위원회를 둔다.

제2조(위원회 임무)

국제협력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적인 학술교류의 기획과 추진
2. 기타 본 회의 국제협력에 관련된 사업

제3조(구성)

국제협력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위원장 1명 이상
2. 부위원장, 간사 또는 위원 약간 명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부위원장과 간사, 위원은 국제협력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5. 국제협력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위원장이 다수인 경우 위원장들 중 집행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장 또는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7.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제4조(의결)

국제협력위원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국제협력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지침의 제·개정과 적용)

1. 본 지침은 국제협력위원회의 발의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개정 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 설치 규정

- 재무위원회 운영 지침 -

제1조(목적)

본 회 정관 제3장 제16조 제1항(또는 제6장 제32조의 3)과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의 설치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재무위원회를 둔다.

제2조(위원회 임무)

재무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공기관 수 증가를 위한 활동
2. 학회 지원금 제공원의 개발을 위한 활동
3. 기타 본 회의 재무에 관련된 사업

제3조(구성)

재무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위원장 1명 이상
2. 부위원장, 간사 또는 위원 약간 명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부위원장과 간사, 위원은 재무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5. 재무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위원장이 다수인 경우 위원장들 중 집행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장 또는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7.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제4조(의결)

재무위원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무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지침의 제·개정과 적용)

1. 본 지침은 재무위원회의 발의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개정 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 설치 규정

- 재산관리위원회 운영 지침 -

제1조(목적)

본 회 정관 제3장 제16조 제1항(또는 제6장 제32조의 3)과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의 설치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재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조(위원회 임무)

재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본 회의 자립 운영을 위한 재산관리, 기금의 조성 및 확장
2. 기타 재산관리 및 기금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구성)

재산관리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위원장 1명 이상
2. 부위원장, 간사 또는 위원 약간 명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부위원장과 간사, 위원은 재산관리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5. 재산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위원장이 다수인 경우 위원장들 중 집행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장 또는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7.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제4조(의결)

재산관리위원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산관리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지침의 제·개정과 적용)

1. 본 지침은 재산관리위원회의 발의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개정 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 설치 규정

- 정보위원회 운영 지침 -

제1조(목적)

본 회 정관 제3장 제16조 제1항(또는 제6장 제32조의 3)과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의 설치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정보위원회를 둔다.

제2조(위원회 임무)

정보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 진흥을 위한 제반정보의 수집과 정리 및 정보의 제공
2. 기타 본 학회의 약학정보에 관련된 사업

제3조(구성)

정보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위원장 1명 이상
2. 부위원장, 간사 또는 위원 약간 명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부위원장과 간사, 위원은 정보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5. 정보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위원장이 다수인 경우 위원장들 중 집행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장 또는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7.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제4조(의결)

정보위원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정보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지침의 제·개정과 적용)

1. 본 지침은 정보위원회의 발의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개정 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 설치 규정

- 교육위원회 운영 지침 -

제1조(목적)

본 회 정관 제3장 제16조 제1항(또는 제6장 제32조의 3)과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의 설치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교육위원회를 둔다.

제2조(위원회 임무)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약사 연수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교육실시
2. 6년제 약사양성교육 프로그램 정책토론회
3.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연계강화

제3조(구성)

교육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위원장 1명 이상
2. 부위원장, 간사 또는 위원 약간 명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부위원장과 간사, 위원은 교육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5. 교육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위원장이 다수인 경우 위원장들 중 집행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장 또는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7.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제4조(의결)

교육위원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교육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지침의 제·개정과 적용)

1. 본 지침은 교육위원회의 발의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개정 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 설치 규정

- 사업위원회 운영 지침 -

제1조(목적)

본 회 정관 제3장 제16조 제1항(또는 제6장 제32조의 3)과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의 설치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사업위원회를 둔다.

제2조(위원회 임무)

사업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심 주제 발굴, 워크숍 등 개최 및 프로시딩 발간
2. 정책토론회 등 학회사업업무

제3조(구성)

사업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위원장 1명 이상
2. 부위원장, 간사 또는 위원 약간 명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부위원장과 간사, 위원은 사업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5. 사업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위원장이 다수인 경우 위원장들 중 집행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장 또는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7.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제4조(의결)

사업위원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사업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지침의 제·개정과 적용)

1. 본 지침은 사업위원회의 발의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개정 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 설치 규정

- 회원위원회 운영 지침 -

제1조(목적)

본 회 정관 제3장 제16조 제1항(또는 제6장 제32조의 3)과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의 설치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회원위원회를 둔다.

제2조(위원회 임무)

회원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현황 파악 및 회원자료 갱신
2. 회원배가방안, 서비스자료 개발

제3조(구성)

회원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위원장 1명 이상
2. 부위원장, 간사 또는 위원 약간 명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부위원장과 간사, 위원은 회원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5. 회원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위원장이 다수인 경우 위원장들 중 집행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장 또는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7.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제4조(의결)

회원위원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원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지침의 제·개정과 적용)

1. 본 지침은 회원위원회의 발의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개정 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 설치 규정

- 홍보위원회 운영 지침 -

제1조(목적)

본 회 정관 제3장 제16조 제1항(또는 제6장 제32조의 3)과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의 설치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홍보위원회를 둔다.

제2조(위원회 임무)

홍보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 일반 홍보 업무
2. 기록물 관리
3. 학술대회 관련 업무

제3조(구성)

홍보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위원장 1명 이상
2. 부위원장, 간사 또는 위원 약간 명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부위원장과 간사, 위원은 홍보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5. 홍보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위원장이 다수인 경우 위원장들 중 집행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장 또는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7.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제4조(의결)

홍보위원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홍보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지침의 제·개정과 적용)

1. 본 지침은 홍보위원회의 발의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개정 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 설치 규정

- 출판위원회 운영 지침 -

제1조(목적)

본 회 정관 제3장 제16조 제1항(또는 제6장 제32조의 3)과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의 설치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출판위원회를 둔다.

제2조(위원회 임무)

출판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팜월드의 편집 및 출판
2. 정기 간행물 (약학회지,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는 제외) 또는 비정기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업무
3. 기타 본 회의 출판에 관련된 사업

제3조(구성)

출판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위원장 1명 이상
2. 부위원장, 간사 또는 위원 약간 명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부위원장과 간사, 위원은 출판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5. 출판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위원장이 다수인 경우 위원장들 중 집행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장 또는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7.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제4조(의결)

출판위원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출판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지침의 제·개정과 적용)

1. 본 지침은 출판위원회의 발의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개정 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 설치 규정

- 약학용어위원회 운영 지침 -

제1조(목적)

본 회 정관 제3장 제16조 제1항(또는 제6장 제32조의 3)과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의 설치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약학 및 관련 기술의 영문용어를 국문으로 표준화하거나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약학용어의 혼용을 피하고 약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약학발전에 기여하고자 약학용어위원회를 둔다.

제2조(위원회 임무)

약학용어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약학용어 정비 및 표준화
2. 약학용어 관련 출판물 발간

제3조(구성)

약학용어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위원장 1명 이상
2. 부위원장, 간사 또는 위원 약간 명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부위원장과 간사, 위원은 약학용어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5. 약학용어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위원장이 다수인 경우 위원장들 중 집행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장 또는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7.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제4조(의결)

약학용어위원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약학용어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지침의 제·개정과 적용)

1. 본 지침은 약학용어위원회의 발의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개정 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 설치 규정

- 약학발전위원회 운영 지침 -

제1조(목적)

본 회 정관 제3장 제16조 제1항(또는 제6장 제32조의 3)과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의 설치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약제발전을 위하여 약사제도, 약학교육 등에 관하여 조사 및 연구하여 약계에 건의하고 정부당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학발전위원회를 둔다.

제2조(위원회 임무)

약학발전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약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2. 약학교육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연구
3. 약사관계 법규의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4. 약사제도에 관한 학술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5. 약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
6. 약사제도에 관한 정부당국 및 관련단체에의 건의 및 자문
7. 기타 약학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제3조(구성)

약학발전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위원장 1명 이상
2. 부위원장, 간사 또는 위원 약간 명
3.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부위원장과 간사, 위원은 약학발전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5. 약학발전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위원장이 다수인 경우 위원장들 중 집행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장 또는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7.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제4조(의결)

약학발전위원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약학발전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지침의 제·개정과 적용)

1. 본 지침은 약학발전위원회의 발의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개정 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 설치 규정

- 자문단 운영 지침 -

제1조(목적)

본 회 정관 제3장 제16조 제1항(또는 제6장 제32조의 3)과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의 설치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본 회의 제반운영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둔다.

제2조(자문단 임무)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1. 본 회의 학술 및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자문단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1. 단장 1명 이상
2. 부단장, 간사 또는 위원 약간 명
3. 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부단장과 간사, 위원은 자문단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5. 자문단장과 부단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단장이 다수인 경우 단장들 중 집행위원장이 지정한 단장 또는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7. 단장 부재 시 부단장 중 연장자가 단장 역할을 대행한다.

제4조(의결)

자문단은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문단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지침의 제·개정과 적용)

1. 본 지침은 자문단의 발의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개정 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 APR 편집위원회 운영 지침 -

제1조

본 회 정관 제3장 제16조 제1항(또는 제6장 제32조의 3)과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의 설치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APR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조

APR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APR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Editor-in-Chief) 1명 이상
2. 편집부위원장(Editor), 편집간사(Associate Editor) 또는 편집위원(Editorial Board Member) 약간 명

제4조

APR 편집위원장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본 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를 연 12회 발간 한다.

제5조

APR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이 사정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편집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편집부위원장이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편집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편집부위원장이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APR 편집부위원장, 편집간사, 편집위원은 2년 임기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단, 외국인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추천하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모든 위원은 연구업적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하여 학회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APR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과정을 통하여 진행한다.

제8조

편집회의는 운영회의(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으로 구성)와 편집위원회회의(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편집간사로 구성)로 구분하여 구분하여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편집에 관한 업무를 논의한다.

제9조

1. APR편집위원회 산하에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으로 구성하는 “APR 연구 및 편집 윤리위

원회”를 두며,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을 담당한다.

2. APR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심의 의결한다.

제10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 약학회지 편집위원회 운영 지침 -

제1조

본 회 정관 제3장 제16조 제1항(또는 제6장 제32조의 3)과 집행위원회 운영 및 각 위원회의 설치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약학회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조

약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약학회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약학회지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 1명 이상
2. 편집부위원장, 편집간사 또는 편집위원 약간 명

제4조

약학회지 편집위원장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본 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약학회지를 연 6회(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말일) 발간 한다.

제5조

약학회지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이 사정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편집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편집부위원장이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편집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편집부위원장이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약학회지 편집부위원장, 편집간사는 2년 임기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단, 약학회지의 편집위원은 각 분과학회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모든 위원은 연구업적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하여 학회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약학회지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과정을 통하여 진행한다.

제8조

편집회의는 운영회의(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으로 구성)와 편집위원회의(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편집간사로 구성)로 구분하여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편집에 관한 업무를 논의한다.

제9조

1. 약학회지편집위원회 산하에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으로 구성하는 “약학회지 연구 및 편집 윤리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을 담당한다.
2. 약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심의 의결한다.

제10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정에 따른다.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 운영 지침 -

제1조

본 규정은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를 통해 APR 또는 약학회지 편집위원장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APR 또는 약학회지 편집위원장 초빙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APR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 또는 약학회지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정위원회는 기존 편집위원장의 임기 만료 6개월 전까지 본 학회 사무총장, 총무위원장, 학술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각 위원이 1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장 후보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사무총장은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사무총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위원장, 학술위원장 순으로 위원장직을 승계한다.

제3조

선정위원회는 [붙임] 추천 서식에 근거하여 APR 또는 약학회지 편집위원장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APR 또는 약학회지 편집위원장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약학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자
- ② 국내외 공인된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학자

제5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부 및 분과학회 정관 및 규정

1) 영남지부

(사)대한약학회 부산지부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본 지부는 대한약학회 부산지부라 칭한다.

제2조 본 지부는 약학의 진보발전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학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지부 사무소는 부산대학교 약학대학내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 본 지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연구 발표
2. 학술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3. 내과학술문헌의 교환 및 강행
4. 약학진흥에 관한 심의연구 및 건의
5. 약학 또는 약업에 관한 연구의 장려 및 표창
6. 기타 본 지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 본지부의 회원은 정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나눈다.

제6조 정회원은 약학을 전공한 자 또는 약학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7조 학생회원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적하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8조 본지부에 정회원 또는 학생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정회원 2명의 추천을 얻어 소정의 입회수속을 하여야 하며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지부장은 본회의 회비의 징수를 대행하며 회비연액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 500원

학생회비 200원

제4장 임 원

제10조 본지부의 임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1명, 지부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2. 간사 1명,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3. 감사 1명, 경리사무를 감사한다.
4. 평의원 약간 명, 회무를 평의한다.

지부장 및 간사는 당연직 평의원으로 한다.

제11조 본 지부의 임원은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중임할 수 있다.

제13조 본 지부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는 평의원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장 회 의

제14조 본지부의 회원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예회, 평의원회로 나눈다.

제15조 정기총회는 매년 8월에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지부장 또는 평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의안을 갖추어 요구가 있을 때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6조 총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담당한다.

제17조 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서 성립하고 결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동으로서 성립한다.

제18조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4. 우수한 업적에 대한 표창
5. 기타 필요 사항

제19조 예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약학에 관한 연구발표를 한다.

제20조 평의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지부장정관의 여행에 필요한 세칙 또는 규정의 제정 및 변경과 기타 회무를 평의한다.

제21조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서 구성하며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서 성립하고 결의는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동으로서 성립한다.

제6장 재 정

제22조 본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3조 본지부의 경비는 본회의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서 이를 충당한다.

부 칙

제24조 본정관은 1965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사)대한약학회 영남지부 정관

제1장 총 칙

- 제1조 본 지부는 대한약학회 영남지부라 칭한다.
- 제2조 본 지부는 약학의 진보발전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학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본 지부의 사무소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내에 두어 관련 자료를 수집 보관한다.

제2장 사 업

- 제4조 본 지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연구 발표
 2. 학술강연회 및 workshop 개최
 3. 약학진흥에 관한 심의연구 및 건의
 4. 약학 또는 약업에 관한 연구의 장려 및 표창
 5. 기타 본 지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 제5조 본 지부의 회원은 경성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영남대학교의 교수 및 학생으로 구성한다. 또한 약학 전공자나 관련자로서 영남지역에 거주하며 약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 제6조 정회원은 약학을 전공한 자 또는 약학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매년 납부한 자로 한다.
- 제7조 학생회원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적하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제8조 지부장은 본회의 회비의 징수를 대행하며 회비연액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10,000원
- 학생회비 5,000원

제4장 임 원

- 제9조 본지부의 임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1명, 지부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지부 4개 학교의 학장이 겸직하며 경성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영남대학교 순으로 매년 순회한다.
 2. 간사 1명, 제반 사무를 담당하며 지부장이 선임한다.
 3. 감사 1명, 경리사무를 감사하며 전년도 지부장이 담당한다.

제10조 본 지부의 임원은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중임할 수 있다.

제5장 회 의

제12조 본 지부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13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지부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지부장 또는 정회원 3분지 1이상이로부터 의안을 갖추어 요구가 있을 때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4조 총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담당한다.

제15조 총회는 정회원 3분지 1이상의 출석으로서 성립하고 결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동으로서 성립한다.

제16조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4. 우수한 업적에 대한 표창
5. 기타 필요 사항

제6장 재 정

제17조 본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본 지부의 경비는 회비, 대한약학회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서 이를 충당한다.

부 칙

제19조 본 정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충청지부

(사)대한약학회 충청지부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지부는 (사)대한약학회 충청지부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지부는 충청지역의 약학회원을 중심으로 약학의 진보·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학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지부의 사무소는 지부장 소속 기관 내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본 지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수행한다.

1. 연구 발표
2. 학술강연회 및 workshop 개최
3. 약학진흥에 관한 심의·연구 및 정책건의
4. 약학 또는 약업에 관한 연구의 장려 및 표창
5. 연구용역과제의 개발 및 수행
6. 기타 본 지부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 본 지부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사)대한약학회의 회원으로서 충청 지역의 대학, 국공립 기관 및 연구소, 산업체 등 유관 기관에 소속된 자

② 약학 전공자나 관련자로서 충청지역에 거주하며, 약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

제6조(회원의 종류)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학생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사)대한약학회의 회원 규정에 준한다. 다만, 명예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 지부의 사업에 협조하는 국내외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의결로 추대할 수 있다.

제7조(가입) 본 지부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을 희망하나 (사)대한약학회 회원이 아닌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가입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8조(임원과 임무) 본 지부의 임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2명 이내: 지부를 대표하며 제4조 관련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 지부 4개 대학이

지부장을 추천하고, (사)대한약학회 회장이 지부장을 위촉한다.

2. 운영위원 10명 이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 업무를 심의하며, 지부소속 각 기관에서 1인씩을 추천받아 지부장이 위촉한다.
3. 총무위원장 1명: 제반 사무를 담당하며, 지부장이 선임한다.
4. 학술위원장 1명: 학술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지부장이 선임한다.
5. 재무위원장 1명: 재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지부장이 선임한다.
6. 감사 2명 이내: 경리 사무를 감사하며, 직전 지부장이 담당한다.

제9조(임기) 제10조에 명시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회 의

제10조(회의)

- ① 본 지부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②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나눈다.

제11조(소집)

- ① 정기총회와 정기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지부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지부장,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운영위원회는 지부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12조(의장) 모든 회의의 의장은 지부장이 담당한다.

제13조(결의)

- ① 총회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서 성립하고 결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동으로서 성립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결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동으로서 성립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4. 기타 필요 사항

제15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명예회원의 추천
2. 회원의 가입 자격에 대한 심의 및 의결
3. 정관개정안에 관한 심의

4. 예산안과 결산안의 심의
5. 사업계획안과 사업보고안의 심의
6. 우수업적 회원에 대한 표창 추천 및 심의
7.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8. 기타 지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장 재 정

제16조(회계연도) 본 지부의 회계연도는 (사)대한약학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경비) 본 지부의 경비는 (사)대한약학회의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보고) 본 지부의 연간 총 예산, 결산과 사업계획, 사업실적은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대한약학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 ① 본 정관은 201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정관에 따른 최초 임원의 임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호남지부

(사)대한약학회 호남지부 창립 취지문

대한약학회는 한국 약학의 백두대간이자 그 발전의 원천이요 추진의 원동력입니다. 대한약학회는 우리나라의 약학계를 총망라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공식적으로는 1951년 6·25 동란 중 부산에서 창립되었습니다. 대한약학회는 우리나라 약학의 진보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지식과 정보교류를 도모하여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영역에서의 학술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 여러 분야의 분과학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약학계는 국제수준으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의약분업정착, BT 분야의 무한 경쟁, 약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대책 마련 등 많은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약학대학은 2009년부터 6년제라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약학대학 6년제는 선진 의료체계에 맞는 약사 양성과 약학 학문의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국제적 수준에 맞는 약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통하여 시행착오 없이 6년제가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각 대학은 6년제 표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지역 학교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소규모적으로 호남지역 약학대학간 교류는 있었으나 체계적이며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 등에 관한 정보교류와 협조의 장이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학대학의 6년제 학제개편에 따른 전공 및 실무교육과정 개발과 교육환경개선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호남지역 약학대학의 교육현안 등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약사재교육 부문에서도 제도적이고 실질적으로 적극 협력하기 위해서는 대학약학회 호남지부의 결성을 더 이상 미루고 있을 수는 없는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약계는 의약품 분야의 한미 FTA 협상, 고품질의약품 확보를 위한 GMP 강화, 보험 약가 등 국내외 주변 환경으로부터 어느 때보다도 벽찬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약계의 결속을 더욱 굳게 다지고 국민건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노력 또한 필요 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희 발기인 일동은 대한약학회 호남지부를 결성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호남지역의 모든 회원들이 동참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호남지역의 제약산업은 타지역에 비해 다소 낙후되어 있으며 약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도록 연구력의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고 지역산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약학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혁신 전략과 연계한 산학 컨소시엄 구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신약개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제화를 위한 영어 강의 확대, 신약개발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의 활성화, 우수 연구원생들의 인센티브 지원 등의 지원 등 지역 인재의 육성을 통한 낙후된 호남지역 제약산업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외국 대학과의 국제 교류를 통한 대학원생 교류, 국제 세미나 및 국제 공동연구의 확대 등도 지역 약학연구력 향상에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따라서 호남지역의 약학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보건의료현장에서의 지역 약학의 전문성제고, 지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소비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을 다지고자 대한약학회 내에 호남지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2008년 7월 10일 대한약학회 호남지부 발기인 일동

(사)대한약학회 호남지부 정관

개정 2013. 4. 18.

제1장 총 칙

제1조 본 지부는 대한약학회 호남지부라 칭한다.

제2조 본 지부는 약학의 진보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학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지부의 사무소는 호남지역에 위치하는 약학대학의 내에 두어 관련 자료를 수집·보관한다.

제2장 사 업

제4조 본 지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연구 발표
2. 학술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3. 약학진흥에 관한 심의연구 및 건의
4. 약학 또는 약업에 관한 연구의 장려 및 표창
5. 기타 본 지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 본 지부의 회원은 대한약학회 회원으로서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의 교수 및 학생 및 호남지역에 위치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약학 전공자나 관련자로서 호남지역에 거주하며 약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6조 본 지부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 회 원: 약학을 전공한 자 또는 약학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매년 납부한 회원
2. 학생회원: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에 재적하는 자
3. 특별회원: 본 회의 추지에 찬성하는 단체의 장 또는 개인

제7조 지부장은 본회의 회비의 징수를 대행하며 회비연액은 다음과 같다.

평생회원 100,000원, 정회원 년10,000원, 학생회원 년5,000원

제4장 임 원

제8조 본 지부의 임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1명, 지부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괄한다. 지부 8개 대학이 순차적으로 지부장을 추천한다.
2. 부지부장 1명, 지부장을 보좌하며 차기 지부장직을 승계한다. 또한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을 대신한다.
3. 간사 1명, 제반 사무를 담당하면 지부장이 선임한다.
4. 감사 1명, 경리사무를 감사하며 전년도 지부장이 담당한다.

제9조 지부장 및 부지부장은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총 회

제11조 본 지부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12조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지부장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의안을 갖추어 요구가 있을 때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3조 총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담당한다.

제14조 총회의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서 성립하고 결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성립한다.

제15조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규정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장 재 정

제20조 본 지부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로 한다.

제21조 본 지부의 경비는 회비, 대한약학회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서 이를 충당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정관은 201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병태생리학 분과학회

(사)대한약학회 병태생리학분과학회 회칙

제정일: 2010. 10. 21.

개정일: 2019. 4. 25.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약학회 병태생리학분과학회(이하 본 분과학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학회는 병태생리학, 해부학, 생리학 등에 중점을 둔 생명약학 분야의 학술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대한약학회의 정회원 중 병태생리학, 해부학, 생리학 등을 전공하거나 이 분야에 흥미를 가진 회원으로 본 분과학회장에게 입회원서를 제출하면 본 분과학회 회원이 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분과학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 (1) 본 분과학회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2) 본 분과학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 (3) 본 분과학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임원)

- (1) 본 분과학회는 분과학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명을 두며 회장은 본 분과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집행한다.
 - ② 부회장 1명을 두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총무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2)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방법)

- (1) 회장은 전년도 부회장이 자동으로 승계한다.
- (2) 부회장은 본 분과학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총무간사는 회장이 추천 및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회의)

- (1) 회장은 본 분과학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분과학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대한약학회 추계총회 시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긴급히 필요할 시에 개최한다.
- (2) 본 분과학회에서 모든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8조(활동) 본 분과학회는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갖는다.

- (1) 정례 세미나를 개최한다.
- (2)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 (3) 기타 본 분과학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활동을 실시한다.

제9조(출판) 본 분과학회는 교과서,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초록집과 분과학회지를 발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회장은 분과학회의 특별한 학술활동을 위하여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11조 본 분과학회는 기타 임원회 및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대한약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병태생리학분과회) 본 분과학회 회원 중 약학대학 재직 교수들은 한국약학교육협회의 산하 병태생리학분과회에 자동으로 소속되며, 병태생리학 및 관련 분야의 약학 교육 및 약사국가고시 등에 기여한다.

제13조(회기) 본 분과학회의 임기는 1년을 단위로 하고 대한약학회 회계연도부터 시작한다. 회장은 회기 시작 시에 운영계획을 본 분과학회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기가 끝날 시에는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제5조의 2항 개정은 201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제5조 개정, 제6조와 제12조 신설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 약물학 분과학회

(사)대한약학회 약물학 분과학회 규정

제정 2021. 8. 25.

제1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대한약학회 약물학분과학회(이하 약물학분과학회)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약물학분과학회는 약물학 연구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구성 및 의무]

- ① 정회원: 대한약학회 약물학분과학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 ② 준회원: 대한약학회 약물학분과학회의 학생회원으로 한다.
- ③ 정회원은 연회비 납부의무가 있으며, 회비를 미납한 정회원의 권리가 자동 정지된다.
- ④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약물학분과회(이하 약물학분과회)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본 회의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준회원은 회비 납부의무가 없다.

제4조 [사업]

- ① 약물학분과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약물학 관련 연구 및 학술에 관한 사업
 2. 상기 1호에 부대되는 사업 및 기타 약물학분과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회의 및 학술행사]

- ① 정기총회는 매 대한약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7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일 기준으로 전년도까지의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 또는 해당년도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만 참석자격과 의결권을 갖는다.
- ② 회의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장 또는 약물학분과학회 회원 7인 이상이 부의한 사항
- 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④ 학술행사는 다음으로 한다

1. 대한약학회 학술대회의 약물학분과학회 주관 심포지엄
2. 대학원생을 동반한 약물학분과학회 하계 심포지엄
3. 기타 비정기적 학술행사

제6조 [위원회 및 임원의 구성과 임무]

- ① 약물학분과학회의 임원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약물학분과회(이하 약물학분과회)의 임원이 겸임한다.
- ② 약물학분과회의 위원회는 약물학분과회의 위원회가 겸임한다.

제7조 [재정 및 회계]

- ① 정회원의 연회비는 약물학분과회의 연회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약물학분과학회 회계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약물학분과회의 회계에 편입하여 처리한다.
- ③ 약물학분과학회의 사업경비는 약물학분과회의 회계로 충당하며, 약물학분과학회는 회계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④ 약물학분과학회 하계 심포지엄 및 기타 비정기적 학술모임을 위하여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6) 약제학 분과학회

(사)대한약학회 약제학 분과학회 규정

제1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약제학분과회(이하 분과회)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이회는 약제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및 사업] ① 분과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또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약학교육의 과정 중 약제학 관련 교육내용 및 시험에 관한 사항
2. 약제학 총서(제제학, 생물약제학과 약동학, 약제학실습, 약제학리뷰)의 집필, 수정/개정 및 출판 등에 관한 사항
3. 약제학 관련 연구 및 학술에 관한 사항
4. 약제학 관련 해외대학 또는 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활동
6.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및 기타 분과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분과회는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이익을 회원에게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조 [구성 및 총회]

- ① 분과회는 대한민국의 약학대학에서 약제학 총서(제제학, 생물약제학과 약동학, 약제학실습)를 강의하고, 약사국시 출제 자격이 있는 전임 교원으로 구성한다.
- ② 분과회는 연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어 총회에서 아래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의 재·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 선임
 2. 분과회비, 예·결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장 또는 분과회원 14인 이상이 부의한 사항
- ③ 분과회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 ④ 위의 사항 가운데 회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회

장은 서면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 및 회계]

- ① 분과회의 경비는 분과회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분과회비는 총회에서 정하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승인하고, 승인된 범위 내에서 분과회장이 집행한다.

제6조 [위원회와 임원] 분과회는 다음의 임원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① 분과회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회는 아래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
 3. 총무 : 3인 이내
 4. 감사 : 1인
 5. 소수의 위원장
- ②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감사는 직전임회장이 맡으며, 총무와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회장의 선출은 분과회의 전통에 따르며, 회장의 유고시 또는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총무와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분과회를 대표하며, 분과회의 전통을 존중하고 분과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 ② 회장 선임 및 회무 관련 약제학분과회 원칙과 전통
 1. 회원 : 약학대학에서 약제학 총서(제제학, 생물약제학과 약동학, 약제학실습)를 강의하고, 약사국시 출제 자격이 있는 전임교원 신분의 교수
 2. 재정
 - 1) 회비 : 연회비는 없으며, 기타회비는 분과회의 운영 및 사업의 목적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안에 따라 해당회원에 납부하도록 한다.
 - 2) 회비 사용 :
 - ① 회무
 - ② 축하 난 또는 화환 : 학장 취임, 회원의 경조사 등 회장의 재량권
 - ③ 분과회 해외워크숍 및 해외대학 학술교류
 - ④ 퇴임

3. 임원 :

- 1) 회장 : ① 신임회장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분이어야 하고, 분과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된 회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동년일 경우 선가입한 분 우선)
② 신임회장은 최근 3년간 분과회 정기모임에 1/4 이상 참석한 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년으로 해외체류기간의 모임과 분과회 해외워크숍은 불참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 2) 총무 및 기타 임원의 규모나 선임은 회장의 제안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승인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에 따라 TFT를 구성할 수 있다.

7) 약품분석학 분과학회

(사)대한약학회 약품분석학교수협의회 규정

〈제정 2018. 01. 31.〉

제1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약품분석학교수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

제2조 [목적] 협의회는 약품분석학 분야 교육과 연구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및 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또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약품분석학 관련 교육 및 시험에 관한 사항
2. 약품분석학 관련 도서 및 잡지의 집필 및 출판
3. 약품분석학 관련 연구 및 학술에 관한 사항
4. 약품분석학 관련 국내·외 대학 또는 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활동
6. 기타 협의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구성 및 총회]

- ① 협의회는 대한민국 약학대학에서 약품분석학 또는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전임 교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어 총회에서 아래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임
 2. 결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장 또는 회원 10인 이상이 부의한 사항
- ③ 총회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 ④ 위의 사항 가운데 회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서면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와 임원]

- ① 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전통을 존중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2. 부회장: 1인,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행한다.
 3. 감사: 1인, 회무를 감사한다.
 4. 위원장/간사: 약간 명,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집행한다.
- ② 협의회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동계 총회에서 선출·인준하고, 총무와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회장은 전임 부회장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감사는 직전 회장이 맡는 것으로 한다.
- ④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재정 및 회계]

- ① 협의회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회장은 회비의 지출 등 결산사항에 관하여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는 총회에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 ② [개정] 2018. 01. 31. 본 규정을 개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음

8) 약품화학 분과학회

(사)대한약학회 약품화학 분과학회 회칙

제1장 총칙

- 제 1조 [명칭] 본회는 대한약학회 정관의 분과학회 규정(제32조)에 의거 “대한약학회 약품화학분과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본회는 신약개발 및 약품화학의 진보 발전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연구발표회의 개최
 - 학술강연회 및 워크샵의 개최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 제 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한약학회 정회원 중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를 소속 분과학회로 선택한 자로 한다.
- 제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본회 선출직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2)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본회의 학술활동 및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 (4) 본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임원

제 6조 [임원의 구성과 임기]

- (1)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1명
 - 총무위원, 재무위원을 포함한 4명 내외의 위원
 - 감사 1명
- (2) 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차년도 10월 31일까지이다.

제 7조 [임원의 선출]

- (1) 본회의 부회장이 자동적으로 차기 회장이 된다.
- (2) 차기 부회장은 총회에서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을 후보로 하여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은 자로 선출한다.
- (3) 차기 부회장 후보가 없을 경우 현 회장이 후보를 지명하며,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 (3) 총무위원, 재무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 (4) 회장은 필요에 따라 홍보위원, 기획위원 등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 8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위원은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여 집행한다.
- (4) 재무위원은 회비징수, 관리, 사업비 집행 등 본회의 재무를 담당한다.
- (5) 필요에 따라 회장이 선임한 위원은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 4장 총회**제 9조 [총회의 설치와 종류]**

- (1) 본회의 최고결정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0조 [총회의 소집과 의결사항]

- (1) 회장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2)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총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원 30인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3) 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장 재산과 회계**제 11조 [재정과 회계년도]**

- (1) 본회의 재정은 대한약학회 정관의 분과학회 관련 규정(제32조 4항)에 따라 대한약

학회 보조금,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회계년도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 12조 [감사] 전임 회장 및 재무간사는 자동적으로 차기 집행부의 감사가 되며, 감사는 분과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대한약학회 정관의 분과학회 관련 규정(제32조 2항)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 2조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약학회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대한약학회 정관의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 관례나 조례에 준하여 행한다.

9) 약학사 분과학회

(사)대한약학회 약학사 분과학회 규정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약학회 “분과학회 규정”에 의거 “대한약학회 약학사분과학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한국 약학의 역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연구발표회의 개최
- ② 학술강연회 및 워크숍의 개최
- ③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회비를 납입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2인
- ③ 이사(총무, 재무, 학술, 편집) 4인

제6조 (임원의 선출)

- ① 회장은 약학사분과학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 및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① 대한약학회 보조금
- ② 회원의 회비
- ③ 기타의 수입

제10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약학회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대한약학회 분과학회 규정 제2조”에 의거 대한약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2014년 4월17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10) 예방약학 분과학회

(사)대한약학회 예방약학 분과학회 규정

2021. 3. 1. 제정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예방약학분과회’(이하 ‘분과회’)라 한다.

제2조(목적) 분과회는 약학 교육과 연구의 발전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분과회는 약학대학에서 예방약학 또는 관련 교과목을 강의하는 전임교원 및 비전임 교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조직) ① 분과회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임원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총무간사 : 1인
3. 학술간사 : 1인
4. 감사 : 1인
5. 위원장 : 3인 내외

③ 회장과 감사는 재직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간사와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으로 하며,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장은 분과회를 대표하며, 분과회의 전통을 존중하고 분과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장의 유고 시 또는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회에서 후임 회장을 결정한다. 후임 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는 해당연도까지, 6개월 미만일 때는 다음연도까지로 한다. 회장은 해당연도 총무간사를 선임하며, 선임 시 후보자들의 임용 순서와 연장자 여부를 고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총무간사는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재정 및 회계기록을 수행한다.

⑦ 학술간사는 약학회 등 관련 학회의 분과회 학술 활동을 주관한다.

⑧ 감사는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5조(위원회)

- ① 분과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과 제4조 분과회 조직구성을 위해 교재개발 위원회, 약사국가시험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회장은 임기 동안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회장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교재개발 위원회는 필요한 수의 위원들로 구성하고 예방약학 강의를 위해 필요한 교재를 제정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교재를 개정한다.
- ③ 약사국가시험위원회는 필요한 수의 위원들로 구성하고 국가고시 실시에 필요한 분과회의 교육, 분과회 차원의 지속적인 문항개발 및 일관된 국시 대응 전략을 추진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 중 회장이 선임하며 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한다.

제6조(사업) ① 분과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 또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약학교육의 과정 중 예방약학 관련 교육 내용 및 시험에 관한 사항
 2. 예방약학 교재의 집필, 출판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예방약학, 독성학, 보건사회약학, 건강기능식품학 등 관련 연구 및 학술에 관한 사항
 4.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활동
 5. 각호에 부대 되는 사업 및 기타 분과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② 분과회는 목적 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이익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총회) ① 분과회는 연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어 총회에서 아래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의 재·개정에 관한 사항
 2. 다음 연도 회장과 감사 선임
 3. 분과회비, 예·결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장 또는 분과회원 5인 이상이 회의에 부친 사항
- ② 총회는 재적 회원 1/3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 ③ 위의 사항 가운데 회장이 경미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서면 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및 회계) ① 분과회의 경비는 분과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분과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 승인하고, 승인된 범위 내에서 분과회장이 집행한다.

- ③ 결산에 관한 사항은 감사 후 총회에 보고한다.
- ④ 회원의 정년 퇴임 시 기념품을, 회원과 직계가족의 경조사 시 화환 또는 조화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회비) ① 회원은 예방약학 분과회비를 분과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낸다.

- ② 분과회비 금액은 총회에서 정한다. 단 해당연도 분과회비 납부 여부는 회장이 분과회 재정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편 찬 후 기

위원장: 75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으로 70年史에 FIP등 최근 5년 역사를 추가하여 역사를 쓸려고 했으나 FIP는 1세기 동안 한번 치른 행사이었고 기록을 이미 발간하여 의미가 없었다. 이에 학술연구영역으로 지부와 분과학회를 설치하여 발전해 온 사실에 주목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漢字로만 된 30년사를 검토하였다. 1953년 대한약학회 회칙에 지방분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나, 특별한 활동이 없었고... 1964년 11월 4일 3개 지부가 결성되어, 1971년 7개 분과가 정관으로 인정되어 그 후에 13개 분과학회가 설립되어서 그 정리를 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다. 소식지인 파마르콘과 팜월드도 학회활동, 분과학회장 등 소개가 참고가 되어서 바로 잡을 수 있었다. 1. 개요, 2. 역사, 3. 현재임원, 4. 활동사항 vip 수상기록 등, 5. 맺음말(현회장) 순으로 정리하도록 했다. 커버그림, 한눈에 보는 연표그림작성, 역대회장 기록 등 꼼꼼히 챙기게 해 준 간사 2분 교수와 사무국에 깊이 사의를 표합니다.



간사1&2: 앞선 10개 분과학회와 뒷부분 10개 분과학회의 활동상을 각각 정리하였다. 분과학회의 특성이 각각 다르고 허술했던 분과기록을 찾아내는 데 시간이 꽤 걸린 분과가 있었다. 어떤 분과학회는 역대회장을 vip로 각듯이 모시었고, 분과에서 기록을 보내는 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 한눈에 보는 흐름도, 연표작성, 회장단에 보람을 느끼며, 많은 교수님과 대화로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지부: 대구경북·부산경남지역의 약학교육연구발전도움에 감사... 충청지부의 발전에 기회가... 차후 발전된 호남지부를 기대해... 지부여 영원하라 파이팅!

분과학회대표: 분과학회 역대 회장과 활동을 조사해 기록을 남기게 되어 학회에 좋은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밑거름으로 약학회의 백년대계에 시금석이 되는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지부 · 분과학회의 역사 편찬위원회

위 원 장 손의동

간 사 최영희, 이지운

위 원 (지부 및 분과학회 회장 · 총무)

지 부	영남지부	김중오 지부장
	충청지부	김상겸 지부장, 황방연 지부장
	호남지부	윤 구 지부장

분과학회	감염미생 · 면역약학	이준희 회장, 김정기 총무
	물리약학	이범진 회장, 박성진 총무
	방사성의약품학	박일영 회장, 변영주 총무
	병원약학	최경숙 회장, 손현아 총무
	병태생리학	정인재 회장, 남궁완 총무
	사회약학 · 약료경영학	강혜영 회장, 한은아 총무
	산업약학	김애리 회장, 민경훈 총무
	생약 · 천연물	황완균 회장, 정길생 총무
	약물학	최현진 회장, 정철호 총무, 최영희 총무
	약사커뮤니케이션 · 커뮤니케이	양재욱 회장, 이주연 총무
	약제학	오의철 회장, 신범수 총무
	약품분석학	한상범 회장, 이수연 총무
	약품생화학 · 분자생물학	조영식 회장, 김동영 총무, 조동규 총무
	약품화학	송규용 회장, 변영주 총무
	약학교육	이석용 회장, 이정미 총무
	약학사	심창구 회장, 김진웅 총무
	예방약학	박광식 회장, 이상규 총무
	임상약학	곽혜선 회장, 최수안 총무
	지역약국	방준석 회장, 김병주 총무
	한약학	류종훈 회장, 안효진 총무

자료정리 : 정기형, 정윤경, 신은진

대한약학회 75주년 기념 지부 · 분과학회의 역사

2022년 0월 0일 인쇄	발 행 인	홍진태
2022년 0월 0일 발행	발 행 처	사단법인 대한약학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4층 대한약학회
		전화 (02) 584 - 3257
		팩스 (02) 521 - 1781
		홈페이지 www.psk.or.kr
	인 쇄 소	한림원(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1길 20, 12층
		전화 (02) 2273 - 4201
		팩스 (02) 2179 - 9083
		홈페이지 www.hanrimwon.com

Celebrating 75th Anniversary of PSK
대한약학회 75주년 기념

The History of Regional Branches · Academic Devision Society

지부·분과학회의 역사